

강원도의 향교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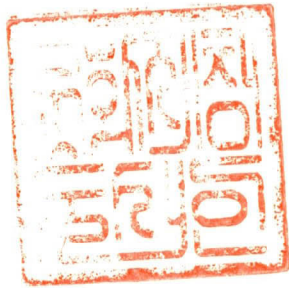


문화재청



EM015773

국립문화재연구소



MB
613.7
향 1670

강원도의 향교건축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러두기

- * 향교별 서술 순서는 조선 중종 때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과, 『經國大典(경국대전)』에 언급된 군현체계에 따라 서술하였다. 강원도 지역은 1부(府), 1목(牧), 5도호부(都護府), 7군(郡), 12현(縣)의 체계로 되어 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회양, 철원 도호부 및 일부 지역은 현재 북한지역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외되었다.
 - 강릉도호부 / 삼척도호부 / 양양도호부
 - 평해군 / 간성군 / 고성군 / 통천군 / 울진현 / 흡곡현
 - 원주목 / 춘천도호부
 - 정선군 / 영월군 / 평창군 / 인제군 / 횡성현 / 홍천현
 - 회양도호부 / 철원도호부
 - 금성현 / 양구현 / 낭천현 / 이천현 / 평강현 / 금화현 / 안협현
- * 방위표시는 본문에서 건축물의 좌향(坐向) 가운데 건물의 정면이 바라보는 향(向)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예: S8°W 는 건물의 정면에 서서 바라보는 향이 남쪽에서 8° 가량 서쪽을 바라보고 있음을 뜻한다.)
- * 각 향교별로 수록된 도면의 축척은 각 향교마다 다른데, 이는 향교의 규모가 서로 다르고 도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면이 허용하는 만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 * 강원도 지역 향교를 조사한 시기는 1999년과 2001년이며, 보고서 발간시기는 2001년 12월이므로 각 향교 별 내용이 현재의 상황과 약간 다를 수도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향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 강원도 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향교는 동해향교, 철원향교, 양구향교 등 3건이다.
- * 향교 관련 보수 연혁 및 기타 자료는 향교지(鄕校誌), 문화재청 소유 보수 기록, 각 지방 자치 단체 소유 문화재 관리 대장 및 보수 기록, 조사 당시의 면담 내용 등을 종합 정리하였으며, 문화재 담당 직원, 전교(典校) 등 향교 임원과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 및 관련 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았다.
- * 향교에 배향하는 신위는 원래 공자를 비롯한 5성(聖), 공자의 수제자인 공문10철(孔門十哲), 중국 송(宋)나라의 6현(宋朝六賢), 공자의 문하생 72현(孔門七十二賢), 중국 한(漢)·당(唐)·송(宋)나라의 22현(漢唐宋二十二賢), 해동18현(海東十八賢) 등이다. 그러나 1949년에 유도회(儒道會)에서 5성과 송조 2현(정호(程顥)와 주희(朱熹))를 제외한 나머지 위패를 모두 없애고 해동18현의 위패를 대성전에 함께 봉안토록 결의하였으며, 1961년에 다시 공문10철과 송조 4현을 복위시켰다.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배향된 신위만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인명(人名)은 거론하지 않았다.
- * 본문에 수록된 古地圖는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발간된 『朝鮮後期 地方地圖』-江原道·咸鏡道편을 인용하였으며, 현대 지도는 1: 25000 축척의 지도를 사용하였다.



▲강릉향교 전경



▲삼척향교 전경



▲양양향교 전경



▲간성향교 전경



▲ 원주향교 전경



▲ 정선향교 전경



▲춘천향교 전경



▲영월향교 전경



▲평창향교 전경



▲인제향교 전경



▲횡성향교 전경



▲홍천향교 전경



▲화천향교 전경

목 차

〈일러두기〉	2
--------	---

〈원색도판〉	3
--------	---

I. 개설

1. 조사 개요	14
----------	----

2. 보고서의 구성	15
------------	----

II. 향교건축 해설

1. 강릉향교(江陵鄕校)	20
---------------	----

2. 삼척향교(三陟鄕校)	46
---------------	----

3. 양양향교(襄陽鄕校)	70
---------------	----

4. 간성향교(杆城鄕校)	88
---------------	----

5. 원주향교(原州鄕校)	108
---------------	-----

6. 춘천향교(春川鄕校)	128
---------------	-----

7. 정선향교(旌善鄕校)	150
---------------	-----

8. 영월향교(寧越鄕校)	172
---------------	-----

9. 평창향교(平昌鄕校)	194
---------------	-----

10. 인제향교(麟蹄鄕校)	212
----------------	-----

11. 횡성향교(橫城鄕校)	232
----------------	-----

12. 홍천향교(洪川鄕校)	250
----------------	-----

13. 화천향교(華川鄕校)	270
----------------	-----

〈참고문헌〉	288
--------	-----

〈Abstract〉	289
------------	-----

I. 개 설

1. 조사 개요
2. 보고서의 구성



I. 개 설

1. 조사 개요

본 보고서는 한국 전통 건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교 건축물 가운데 향교 건축물에 대한 두 번째 일제 조사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에는 일제 조사시 작성한 실측 도면과 상세한 사진, 건축 양식 및 가구 기법 등에 대한 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수록하고 이를 발간하여, 관계 기관과 학계에 배포함으로써 향후 문화재 보수·복원시의 고증 및 학술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은 강원도 지역에 산재한 국가 지정 및 시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 문화재이며, 조사 기간은 1998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로 크게 5차에 걸쳐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강원도 지정문화재 향교 13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가나다순)

	명 칭	지 정 사 항	소 재 지
1	간성향교(杆城鄕校)	문화재자료 제104호(일괄)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리 664
2	강릉향교(江陵鄕校)	보물 제214호(대성전) 유형문화재 제 99호 (일괄)	강원도 강릉시 교동 233
3	삼척향교(三陟鄕校)	유형문화재 제102호(대성전)	강원도 삼척시 교동 566
4	양양향교(襄陽鄕校)	문화재자료 제105호(일괄)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297
5	영월향교(寧越鄕校)	유형문화재 제100호(대성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 2리 892
6	원주향교(原州鄕校)	문화재자료 제 98호(일괄)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255
7	인제향교(麟蹄鄕校)	문화재자료 제103호(일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8-1
8	정선향교(旌善鄕校)	문화재자료 제101호(일괄)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7리 385
9	춘천향교(春川鄕校)	유형문화재 제 98호(대성전)	강원도 춘천시 교동 233
10	평창향교(平昌鄕校)	유형문화재 제101호(대성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04
11	홍천향교(洪川鄕校)	문화재자료 제 99호(일괄)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74
12	화천향교(華川鄕校)	문화재자료 제102호(일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108
13	횡성향교(橫城鄕校)	문화재자료 제100호(일괄)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산12-2

각각의 향교는 조사 일정 및 기후 조건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었으나 평균 3~4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배치 조사, 건축 조사, 문헌 조사 및 사진 촬영을 병행하였다. 향교의 규모가 상이하여 일정하지는 않으나 향교 1건 당 조사시간은 평균 1.5일이 소요되었다. 또한 기후 조건 등 조사 당시의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못했던 일부 향교에 대하여 추가로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역과 조사에 사용된 방법 및 참여 조사원은 다음과 같다.

■ 조사 내역

조사처수	조사시기	조사대상
1차 조사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강릉향교, 삼척향교, 간성향교, 양양향교 등 4건
2차 조사	1999년 6월 14일 ~ 6월 19일	홍천향교, 춘천향교, 화천향교, 인제향교 등 4건
3차 조사	1999년 11월 16일 ~ 11월 20일	영월향교, 정선향교, 평창향교 등 3건
4차 조사	1999년 11월 23일 ~ 11월 26일	원주향교, 횡성향교 등 2건
보완조사	2001년 9월 19일 ~ 9월 22일	춘천향교 외 9건

■ 조사 방법

구 분	내 용	소요인원/시간
배치조사	○ 광파측거기를 이용한 일곽 배치 정밀 측량	2인 / 0.5일
건축조사	○ 개별 건축물 평면 실측 ○ 중요 부재의 크기 및 탁본	2인 / 1일
문헌조사	○ 향교별 발간 향교지 협조 ○ 지방 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부서 자료 협조 ○ 전교(典校) 등 향교 운영자 면담 ○ 중요 기록 및 향교 소장 문서 필사(筆寫) ○ 기타 건축 관련 기록 조사	1인 / 0.5일
사진촬영	○ 향후 보수 및 복원 시 고증에 필요한 일곽 전경 및 개별 건축물의 건축 요소 파악이 가능한 사진 자료 확보	2인 / 0.5일

○ 조사원

김봉건(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장)

최이태(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현 문화재청 문화재 기술과)

양윤식(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연구사)

강 현(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연구사)

박경희(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현 국립중앙박물관 건축주사)

조상순(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연구원)

이성구(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연구원)

박수양(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퇴직)

이건영(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연구원, 퇴직)

2. 보고서의 구성

본문에서 각 향교별 서술 내용은 먼저 향교의 창건 시기를 기점으로 현재까지의 중건(重建) 및 이

건(移建), 보수(補修)의 시기와 내용을 연혁 부분에서 먼저 서술한 다음 향교의 위치와 입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고, 이어서 구체적인 건축물의 구성과 그에 대한 해설을 건축 구성 및 현황 부분에서 서술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각각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향 영역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 영역, 그리고 기타 등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향교 조사 기록표를 첨부함으로써 본문과 도면에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를 일괄 목록화 하였고 문화재 보수 및 복원과 학술적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본문의 서술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연혁
2. 입지 및 배치
3. 건축 구성 및 현황
 - 가. 제향영역
 - 나. 강학영역
 - 다. 기타
4. 향교 조사 기록표

이상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술되었다.

먼저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실측 도면과 상세 정보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실측도면은 전체 일괄 배치도, 대성전 평면도 1매, 명륜당 평면도 1매 등 향교별로 각각 3매의 도면이 수록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주요 외관과 구조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사진을 수록하였다.

둘째, 건축물과 관련된 중수기문이나 현판에 기록된 기록 등은 건축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중건(重建), 이건(移建) 및 보수 등에 한하여 각주로 처리하여 원문을 삽입하였고, 현재의 지명과 이전의 지명이 서로 다른 경우 이전의 지명을 언급하고 현재의 지명을 괄호 안에 넣어 서술하였다.

셋째, 향교별 조사 내용은 객관적인 사항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향교지(鄕校誌)나 기타 문헌상에 등재된 상량문 등 이미 발간된 문헌 기록 외에 현지 조사시 습득한 관련 기록을 포함함으로써 좀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보고서의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김봉건 : 간성향교, 강릉향교, 양양향교 등 3건

조상순 : 삼척향교, 영월향교, 원주향교, 인제향교, 정선향교, 춘천향교, 평창향교, 홍천향교, 화천향교, 횡성향교 등 10건



1. 강릉향교
2. 삼척향교
3. 양양향교
4. 간성향교
5. 원주향교
6. 춘천향교
7. 정선향교
8. 영월향교
9. 평창향교
10. 인제향교
11. 횡성향교
12. 홍천향교
13. 화천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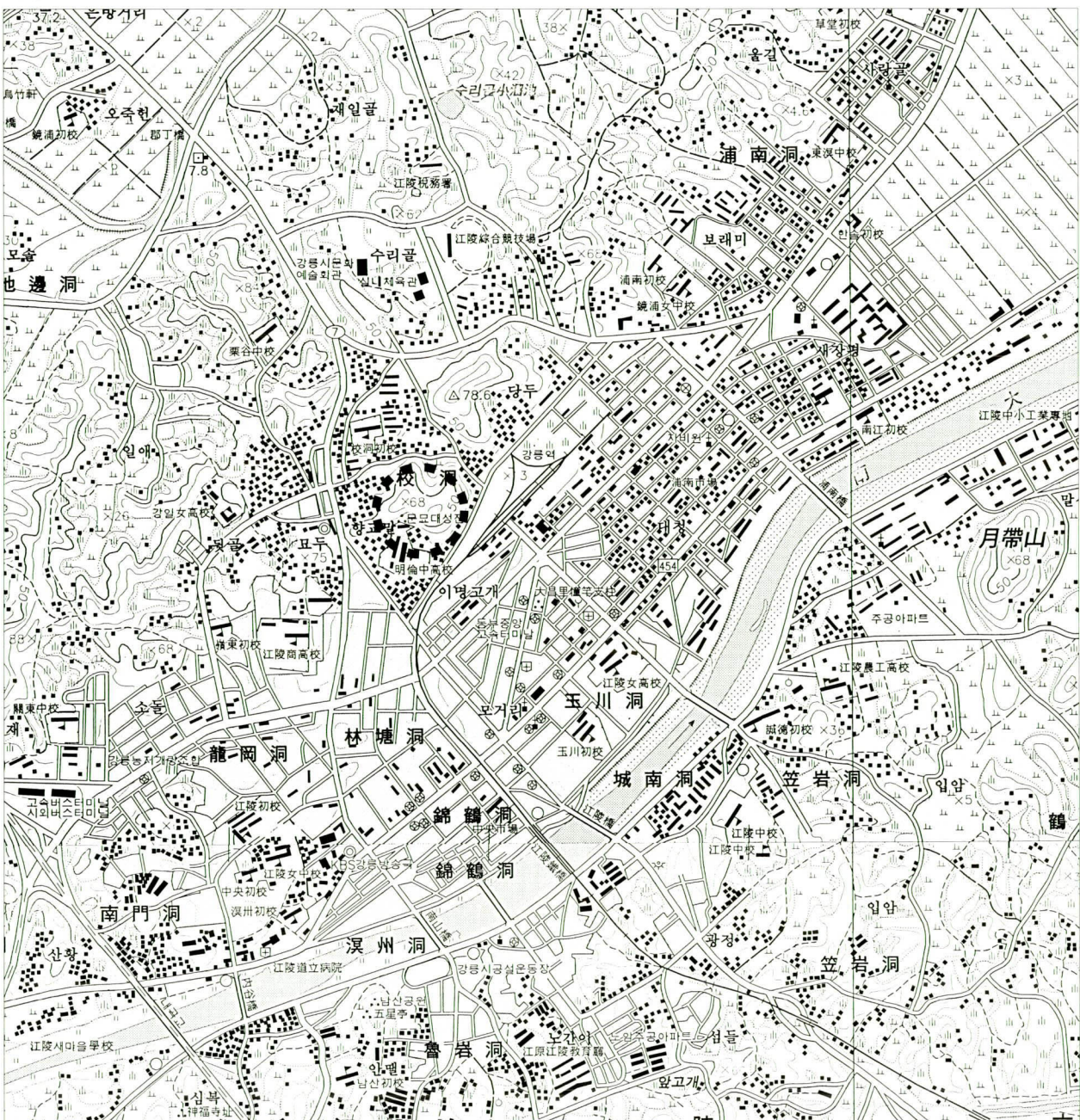
II. 향교건축 해설



1. 강릉향교(江陵鄉校)

- 지정사항 : 보물 제 214호 (대성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99호(일괄지정)
- 지 정 일 : 1985년 1월 17일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교동 233
- 건축구성 :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동재, 서재, 전랑, 재방, 삼문, 교직사, 화장실, 묘정비, 협문4

지형도



1. 연혁

강릉은 조선시대 강릉대도호부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영동지방의 행정, 문화의 중심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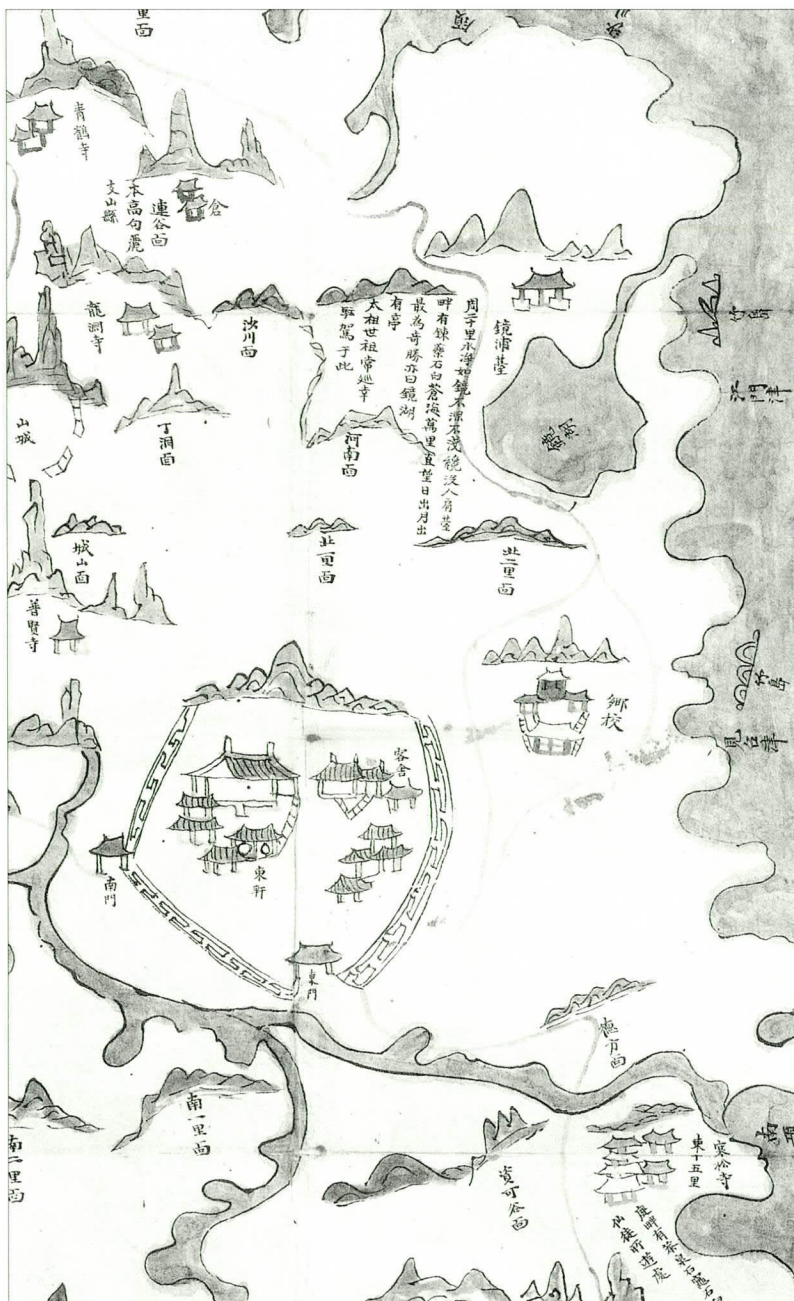
강릉향교 내에는 향교중건발(鄕校重建跋) 등 향교 건물의 중건, 중수 관련 기록¹⁾이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다. <문헌비고>에 의하면 고려 충선왕 5년(1313)에 강릉 존무사(存無使) 김승인(金承印)이 화부산 연적암 아래에 창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태종11년(1411)에 향교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태종 13년(1413)에 강릉대도호부 판관 이맹상(李孟常)이 옛터에 향교를 다시 세웠다. 성종 16년(1485)에 중수를 시작하여 4년 만인 1488년에 부사 이칭(李秤)이 공사를 완공하였다.

16세기에 들어서는 명종 10년(1555)에 도백 이인서(李仁恕)가 향교를 중수하였다. 광해 2년(1610)에 부사 김륵(金玊)이 동서무와 명륜당을 중수하고 연못을 파서 천운지라고 명명하였다. 인조 원년(1623)에 부사 유영순(柳永詢)이 향교를 중수하였다. 인조 22년(1644)에 부사 강백년(姜栢年)이 명륜당을 중건하였다. 효종 2년(1651)에는 부사 이만영(李晩榮)이 향교를 중수하였다. 현종 10년(1669)에는 부사 여민제(呂閔齊)가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숙종 10년(1684)에는 부사 목림유(睦林儒)가 전사청을 조성하였다. 숙종 22년(1696)에는 명륜당을, 숙종 26년(1700)에는 동서무를 중수하였다.

18세기에 들어서도 향교 중수가 계속되었는데 경종 원년(1721)에는 대성전과 월랑을 중수하였다. 영조 14년(1738)에 명륜당 동쪽에 교관들의 거처인 정양재를 중건하였으며 영조 32년(1756)에는 명륜당, 영조 52년(1776)에는 재방, 정조 11년(1787)에는 대성전과 동서무를 중수

江陵府地圖





하였다. 정조 24년(1800)에는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순조 7년(1807)에는 전무를 중수하고 서재를 중건하였다. 순조 9년(1809)에는 제기고 번와공사를 실시하였다. 순조 13년(1813)에는 명륜당, 순조 25년(1825)에는 동재를 중수하였다. 철종 13년(1862)에는 성전, 월랑, 재방을 중수하였으며 고종 4년(1867)에는 제기고 취음소를 중수하였다. 고종 6년(1869)에는 성전, 명륜당, 서재, 직사, 공유소를 중수하였다. 고종 20년(1883)에는 성전, 고종 28년(1891)에 동재, 고종 29년(1892)에 제기고를 중수하였다. 광무년간에 들어서는 원년(1879)에는 루방, 2년(1898)에는 동재를 중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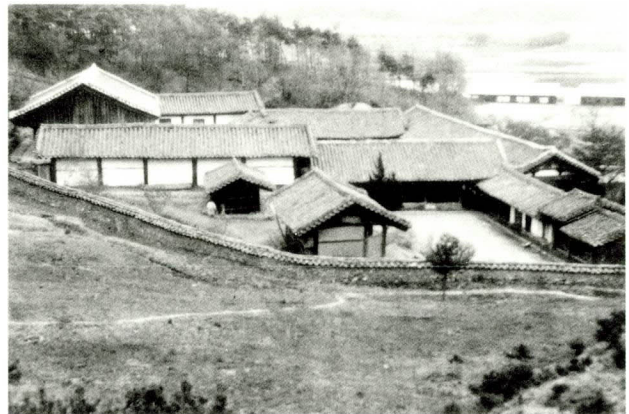
20세기에 들어서도 향교에 대한 중수는 계속되었는데 광무 8년(1904)에는 성전, 동서무, 재방, 융희 원년(1907)에 동서재와 루방의 판문을 새로 만들었다. 융희 3년(1909)에는 향교 명륜당에 화산학교를 만들었으나 불과 2년 후 1911년 화산학교는 폐지되었다. 1917년 동서무, 명륜당을, 1920년에는 제기고를 수리하였다. 1921년에는 대성전, 동서무를 수리하고 재방도 중건하였다. 1922년에는 수선강습소를 열어 명륜당의 창호를 유리로 바꾸는 공사가 있었다. 1924년 천운지를 파서 연꽃을 심었다. 1926년 대성전 전장을 설치하고 외부단청공사를 하였다. 1931년 향교 마당공사와 명륜당 설책, 담장신축 공사 등을 실시하였다. 1932년에는 홍살문을 중건하고 명륜당 단청공사와 번와공사를 실시하였다.

1949년에는 명륜중고등학교가 향교 구내에 개교하였다. 1962년 명륜당과 동서재를 중수하고 동재는 새로이 중건하였다. 1971년 퇴락된 동서무 중수와 담장개축공사를 실시하였다. 1979년에는 동서무, 동서재, 명륜당, 신삼문을 보수하였다. 1980년에는 동서재 마당 박석포장과 재방, 육고 등 부속건물 2동에 대한 보수공사와 교직사 담장 개축공사를 실시하였다. 1984년 대성전, 동서무, 명륜당과 회랑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987년²⁾에는 동서무, 재실, 육고 등을 수리하고 명륜당 전면에 외삼문을 세우고 홍살을 설치하였으며 천운지를 교직사 전면으로 이전하였다. 1989년 명륜당 전면 담장공사를 실시하고 출입문, 신문 등을 신축하였다.

최근에는 1989년도엔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를 보수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대성전, 동서무를 보수하고 대성전 전면 마당을 포장하였다.

강릉향교에서는 강릉유도회 주관으로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석전제를 지내고 있다.

강릉향교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제시대 강릉향교 전경(『小川敬吉調査文化財』, 1984 에서 전재)

1313년	향교 창건
1411년	화재로 소실
1413년	향교 재건
1486~1488년	향교 중수/ 70여 칸
1555년	향교 중수
1611~1613년	대성전, 동서무 중수, 천운지 만들
1623년	명륜당, 칸각(間閣) 중수

1644년	명륜당 중창/ 전체 59칸 ³⁾
1651년	향교 중수
1669년	대성전 중수
1684년	전사청 신건
1696년	명륜당 중수
1700년	동서무 중건
1721년	대성전, 월랑 중수
1738년	정양재 중건
1756년	명륜당 중수
1776년	재방 중수
1787년	대성전, 동서무 중수
1800년	대성전 중수
1807년	전무(殿廡) 중수, 서재 중건
1809년	제기고 번와공사
1813년	명륜당 중수
1825년	동재 중수
1862년	월랑, 성묘, 동서무, 동서재, 재실 중수
1867년	성전 판 중수, 제기고 취음장 중수
1869년	성전, 명륜당, 서재, 교직사, 공유소 중수
1883년	성전 중수
1891년	동재 중수
1892년	제기고 중수
1897년	루방 중수
1898년	동재 중수
1904년	성전, 동서무, 재방 중수
1907년	동서재, 루방 판문 수리
1917년	성전 각판, 동서무, 명륜당 수리
1921년	향교 출입구, 하마비 이설, 성전 및 동서무 수리, 재방 중건
1922년	명륜당 유리창호 설치
1924년	천운지 준설
1931년	성전 전면 사면공사, 명륜당 설책, 답장공사, 변소 개수
1932년	홍살문 중건, 명륜당 번와, 단청공사
1949년	명륜중고등학교 설립
1962년	명륜당, 서재 중수, 동재 중건

1963년	대성전 보물 제214호로 지정(1월 21일)
1971년	동서재 중수, 담장공사
1979년	대성전, 동서무, 동서재, 명륜당, 신삼문 중수
1980년	재방, 육고 보수, 교직사 담장공사
1982년	강릉향교지 발간
1984년	대성전, 동서무, 명륜당, 화랑 보수
1985년	강릉향교 일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9호로 지정(1월 17일)
1987년	동서무, 재실, 육고 수리, 외삼문, 홍살문 건립, 천운지 이설
1989년	명륜당 전면 담장공사, 출입문, 신문, 우측 출입문 신축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 보수
1992년	동서재, 명륜당 보수
1995년	대성전 및 동서무 보수, 대성전 전면 마당 포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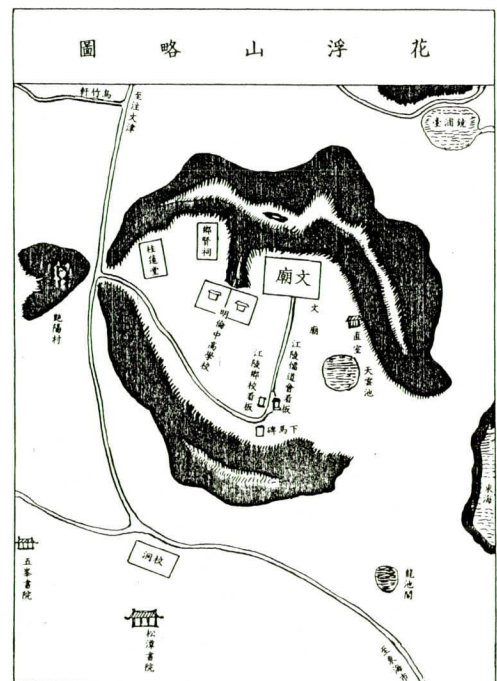
2. 입지 및 배치

강릉향교는 강릉시 교동 23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향교가 입지한 곳은 화부산 아래의 산록이나 도시화의 진행과 명륜중학교 설립으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건물들로 둘러 쌓여 조선시대 향교의 주변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강릉 시내 명륜고등학교와 인접하여 강릉시청 별관을 지나는 7번 국도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언덕 위 레벨이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향교 전면은 명륜고등학교 건물과 운동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향교 구릉은 아직 소나무들이 남아 있어 과거 향교 입지를 보여 주고 있다.

15세기 숙종 연간 강릉향교를 재건할 당시 향교의 규모는 70칸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1644년 명륜당을 중수할 당시의 규모는 읍지에 따르면 59칸으로 기록되어 당초 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강릉향교는 경사지에 2개의 단을 만들어 건물들을 배치하였다. 즉 명륜당 주변의 강학공간과 대성전 주변의 제향공간을 석축을 쌓아 구별하였다. 다른 향교는 경사가 완만한 편이 대부분이나 강릉향교는 경사가 비교적 심하여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이 높은 석축에 만든 계단으로 연결되고 있다.

향교 전면에는 3곳의 문이 있는데 중앙의 일각문과 좌우 협문이 그것이다. 협문은 일상 출입에 주로 이용하고 중앙의 일각문은 행사시 주로 사용한다. 문을 들어서면 전면 11칸의 기다란 누각형식의 명륜당이 들어서 있다. 가로 방향으로 긴 명륜당은 향교 후면의 나지막하게 길게 늘어선 구릉과 어울리며 전체적으로 수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명륜당 하부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벽체로 막지 않고 개방하였다. 명륜당 마당을 사이에 두고 좌우 동서



▲ 강릉향교 형국도(『江陵鄉校誌』, 1982 에서 전재)

재가 마주보고 있다.

석축에 놓인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면 전랑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다른 향교에서 담장 등으로 제향공간을 구분하는 수법과 달리 여기서는 전랑을 사용하고 있다. 전랑 중앙의 문을 들어서면 대성전과 좌우의 동서무가 마주보면서 배치되어 있다. 전랑은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레벨차이를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강릉향교는 이른바 “전학후묘” 형식의 배치를 하고 있다. 대성전과 명륜당은 일견 일직선상에 놓이고 동서무와 동서재가 중심선상에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측결과 대성전은 약간 서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좌우의 동서무와 동서재가 이루는 영역도 정확한 방형이 아닌 사다리꼴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는 아니다.

중간에 향교의 중심공간인 대성전과 명륜당 일곽이 배치되고 좌측에는 교직사가 우측에는 재방과 제기고 등의 영역이 부가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현재 강릉향교에는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 동서재, 교직사, 재방, 제기고, 화장실 등의 건물과 일각문, 협문, 진학문 등의 문이 남아 있으며 강릉향교묘정비 등 비석 2기가 남아 있다. 교직사 전면에는 천운지가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단층 주심포계 건물이다. 정면 1칸은 제향 시 배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벽체 없이 퇴 형식으로 개방하였다.

기단은 장대석을 2벌대로 쌓아 만든 것으로 바닥면은 전돌로 마감하였다. 전돌은 건물 전면 퇴칸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마감하였다. 기단 정면에는 계단을 두지 않고 좌우기단에 하나씩 계단을 두었다. 전면 중앙에는 최근에 만든 신도석(神道石)과 좌우에 관세대(盥洗臺)를 설치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을 사용하여 상면을 가급적 평평하게 다듬은 것과 굴곡면을 그대로 사용한 2가지로 구분된다. 초석 중에는 원형 주좌, 방형주좌를 새긴 것도 있다. 기둥은 평주, 고주 모두 원형 기둥을 사용하여 배흘림을 두었다.

건물 내부는 전돌 대신 화강석 박석을 깔아 마감하였다. 중앙에 공자를 비롯한 5성의 위패를 ‘ㄷ’ 자형으로 만들고 봉안하고 나머지 공문십철과 송조육현은 양측면 벽체에 붙여 단을 만들고 위패를 봉안하였다.

대성전 정면 5칸에 달하는 대규모의 당당한 품격을 지닌 건물로 기둥도 직경이 굵은 듬직한 부재를 사용하였다. 기둥 위에만 공포를 얹는 소위 주심포 형식의 건물이다. 공포의 구성형식을 살펴보면 기둥 상부에 헛첨차를 내고 그 위에 첨차를 놓고 외목도리를 받는다. 외목도리와 직교하는 퇴보머리는

삼분두로 처리하였다. 초제공은 쇠서형식이며 출목첨차 헛첨차, 주심첨차는 모두 쌍 S자 형태의 초각을 하고 있다. 반면에 공포 내단은 초각을 한 보아지 형태로 일체화하여 뒷보를 지지하고 있다. 대성전의 공포 구성방식은 주심포 건물 중 봉정사 극락전과 달리 헛첨차를 가진 수덕사 대웅전 계열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지붕 가구는 전퇴1고주로 이중량 방식이다. 다만 측면에서는 전후퇴2고주방식으로 결구하였다. 대들보는 고주와 후면 평주 사이에 걸쳤으며 고주와 전면 평주 사이는 뒷보로 결구하였다. 대들보 단면을 살펴보면 측면을 둥글게 치목하여 측면을 평평하게 하고 마구리만 둥글게 다듬는 후기의 치목기법과는 다른 수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들보와 종보는 동자주로 연결하고 종보와 종도리는 파련대공으로 결구하였다. 도리는 5개의 굴도리를 사용한 5량가이다.

벽체는 전체적으로 화방벽이 아닌 회사벽 형식으로 마감하였다. 전면 퇴칸의 서측면은 회사벽이 아닌 판장벽으로 처리하였으며 우측 벽체는 없이 개방한 모습이다. 전면 벽체 중 퇴칸을 제외한 어칸과 좌우협칸에는 판문 대신 2짝씩의 교살창을 달았다. 한편 양측면 어칸에는 어칸 전체길이에 해당하는 폭으로 긴 정자살창을 두어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천장은 서까래가 드러나 보이는 연등천장방식으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측면에는 풍판을 대었다. 기와는 부연을 생략한 흘처마형식이나 사용한 기와는 여러 종류의 문양⁴⁾을 지닌 것을 사용하였다. 솟막새에는 박쥐문, 연화문, 봉황문, 범자문 등 7가지 종류를, 암막새에는 인동당초문, 용문 등을 사용하였다. 망와는 봉황문이 그려져 있다. 대성전에 사용한 문양전 막새기와는 본 건물의 격식을 반영하고 있다. 용마루에도 궁궐건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양성을 처리하고 있다.

단청은 대들보 등 중요 부재의 끝에 머리초를 베풀 모로단청으로 마감하였다. 특히 기둥 하부에는 흰색과 검은색으로 장식하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강릉향교는 1411년 화재로 소실한 이후 1413년에 재건되었는데 대성전은 1485년 부사 이인 충 등이 향교중수를 건의하여 4년 만인 1488년에 완공하였다고 한다. 이후에도 건물 노후에 따라 여러 번의 중수를 거치게 된다. 최근에는 1995년 변화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친 중수과정에서도 대성전의 공포 구성방식이나 초각수법, 대들보 단면 치목기법, 배흘림 기둥 등에서 시기적으로 이른 기법의 잔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공포 구성방식은 조선초기 건물인 송광사 국사전이나 관룡사 약사전과 유사하여 대성전은 부사 이인충이 중수한 성종 연간(1485-1488년)의 건물로 추정된다.

(2) 동서무(東西廡)

동서무는 정면 5칸, 측면 1칸의 세장한 방형 평면의 건물로 실내에는 중국의 97현과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모셔 놓고 있다. 동무에는 홍유후 설총 이하 58위를, 서무에는 문창후 최치원 이하 57위를 봉안하고 있다.

건물은 자연석을 덩벙주초형식으로 놓은 위에 건립하였다. 기둥은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동무의 일부 기둥에는 배흘림 흔적이 남아 있다. 기둥 상부에는 익공을 놓았는데 형태는 서무가 차이가 있다. 동무는 쇠서, 연화 등을 초각한 부재를 사용하였으며 보머리에는 초각부재를 꽃아 장식하고 있다. 서무 익공은 둥글게 초각하여 동무보다 간략한 모습이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퇴칸에는 사룡창을 놓고 나머지 어칸을 포함한 3칸에는 2짝의 세살창을 놓았다. 건물 내에는 ‘ㄷ’ 자형의 단을 설치하고 위패를 봉안하였다.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되는 연등천장방식이다.

지붕가구는 3량가이며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막새는 생략하고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단청은 뇌록과 주칠만을 사용한 가칠단청이다. 기둥 하부는 대성전과 같이 흰색과 검은색 칠을 하였다.

익공의 초각수법이 조잡한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인 순조 7년(1807) 전무를 중수할 당시의 것으로 보인다.

(3) 전랑(殿廊)

전랑은 정면 9칸, 측면 1칸의 규모로 강학공간과 제향영역이 만나는 곳의 사면 위에 건립하였다. 어칸과 좌우 협간에는 출입용 문을 설치하였다. 전랑은 덩병주초 위에 원형 기둥을 기둥으로 사용하여 건립하였다. 기둥은 대성전, 동서무에 비하여 높이가 낮은 편이며 그 상부는 주두 없이 도리가 바로 얹혀 있다. 기둥과 기둥은 창방으로 연결하였는데 창방머리를 연장하여 삼분두와 같은 형태의 뿔목으로 처리하였으나 초각수법은 조잡하다. 벽체는 강학공간 쪽으로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으며 대성전 쪽으로는 개방하였다.

지붕가구는 3량가이며 지붕은 홑처마 맞배형식이다. 기와는 막새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고 있다. 어칸 지붕은 좌우보다 높이가 높은 솟을대문형식이다. 어칸문 상부에는 홍살을 설치하였다. 3개의 문은 모두 판문으로 태극 무늬로 장식하였다. 단청은 가칠단청이며 기둥 하부는 동서무와 같이 흰색과 검은색으로 마감하였다.

전랑은 홍치 계축년(1493) 전랑청(前廊廳)을 지었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15세기 초반 향교 중수시 이미 전랑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종 원년(1721) 위낙 훼손이 심하여 헐어 내고 다시 지었는데 당시의 월랑은 규모가 12칸이었다고 한다. 현재의 향교는 규모가 9칸으로 1721년과는 규모가 다르며 대성전 등 제향영역의 다른 건물에 비하여 그 수법이 조잡한 것으로 보아 철종 13년(1862)에 월랑을 중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강학영역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11칸, 측면 2칸의 세장한 평면을 한 건물로 그 규모로 보아 향교의 명륜당의 일반적인 규모와는 차이가 난다. 명륜당의 규모에 대하여는 인조 계해년(1623) 〈鄉校重修記〉의 기록상 44칸 층루로 기록하여 이 당시부터 현재와 같은 규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간성향교와 같은 누각형건물로 흔히 않은 유형이다. 건물 후편에는 툇마루가 부설되어 계단을 통하여 출입하는 일반적인 누각건물의 진입방식과는 달라 후대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명륜당 출입은 동재쪽으로 연결된 마루를 통하고 있다. 동측 퇴칸 1칸 반은 루방을 두어 온돌시설을 하였다. 루방의 존재는 1897년 중수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19세기 중반 경에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명륜당은 자연석 바른층쌓기 방식으로 축조한 기단 위에 건립하였다. 초석은 자연석 덩병주초형이며 기둥은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다. 기둥 상부는 익공으로 결구하고 기둥 사이는 화반으로 장식하였다. 익공 부리는 전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하의 초각은 변형된 모습이다. 익공 자체도 부리가 긴 원래의 것과 부리가 짧은 것으로 구분되는데 후자의 것은 후대 보수 시의 변형으로 보인다. 보머리는 대부분 간략하게 직절한 것을 사용하였으나 일부는 삼분두 형태로 마감하였다. 그러나 삼분두는 조선 초기 건물과 같이 날카롭지 못하다. 주간에는 각 칸마다 화반을 두었다. 하부 기둥에는 장귀틀과 동귀틀을 대고 마루판을 까는 등 누마루 건물의 전형적인 가구법을 따르고 있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으며 전후면 매 칸에 4짝의 세살창을 두었다. 바닥은 장마루로 되어 있는데 원래

는 우물마루 방식이나 1922년 수선강습소를 설치하면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가구는 5량가이며 보는 이중량 형식이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와 주두를 얹고 종보를 놓았다. 종보와 종도리는 판대공으로 결구하였다. 처마는 부연을 생략한 홑처마이며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측면에는 풍판을 대었다. 단청은 최근인 1992년에 실시하였는데 주철과 뇌록을 가칠한 위에 간략한 굿기단청으로 마감하였다.

명륜당은 창건 이래 많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데 숙종 22년(1696)에 구제(舊制)보다 크게 보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의 보수는 건물 주칸 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주칸길이나 부재 규격 등을 크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세기에 들어 1813년과 1869년 중수한 기록이 있다. 현재의 건물은 전형적인 익공 형태를 벗어난 초각수법으로 보아 19세기 중수 시의 건물로 보인다.

(2) 동서재(東西齋)

동서재는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방형 평면의 건물이다. 기단은 막돌에 가까운 절석을 바른층쌓기로 축조한 위에 건립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을 사용한 덩벙주초 형식이며 기둥은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다. 기둥머리에는 십자로 홈을 파고 대들보와 주심장혀를 엮었다. 보머리는 직절하였으며 그 하부에 부재를 짧은 부재를 대었다.

벽체는 이전까지 회사벽과 판장벽이었던 것을 1992년 수리공사를 하면서 전통적인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이때 창호로 유리창이었던 것을 세살창으로 바꾸었다. 즉 어칸에는 2짝의 세살창, 다른 칸에는 4짝의 세살창을 설치하였다.

향교 동서재는 일반적으로 숙식을 위한 온돌방과 툇마루가 부설된 건축유형이 일반적이거나 강릉향교에서는 툇마루 등이 생략된 형태로 내부는 온돌이 아닌 마루로 마감하여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붕가구는 분심5량가의 이중량형식이다. 지붕 물매가 급하지 않아 장연은 짧고 오히려 단연은 긴 모습을 하고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부속건물 성격에 맞도록 막새 없이 아귀토로 마감한 홑처마방식이다.

동재는 1962년 중건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건물의 형태를 참고하여 새로이 지은 것이며 서재는 고종6년(1869) 서재를 중수한 당시의 건물로 추정된다.

다. 기타

(1) 재방(齋房)

재방은 정면 3칸, 측면 1칸에 전면 툇마루가 부설된 규모이다. 초석은 덩벙주초이다. 기둥은 방형 기둥을 사용하였으나 전면 툇마루 기둥만은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다. 기둥 상단에는 보아지를 끼우고 대들보를 걸쳤다. 내부에는 칸막이 없이 온돌방을 만들었다. 전면 매 칸에는 2짝씩의 세살창을 두었고 동측면에는 세살창을 2짝 두었다. 지붕가구는 전퇴5량가 이중량 형식이다. 지붕은 막새를 생략한 형식이며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재방은 1921년 중건한 건물이다.

(2) 제기고(祭器庫)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장방형평면으로 어칸은 출입용으로 개방하고 판문을 달았다. 좌우 2칸에는 마루를 깔 판방으로 제기를 수장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덩벙주초 위에 방형 기둥을 사용하여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는데 동서편에는 2짝씩의 정자살창을 달았다. 내부는 서까래가 드러나는 연등천장방식이

다. 지붕가구는 3량가 단일량의 간단한 형식이다. 지붕은 아귀토마감의 홑처마 맞배집이다. 어칸 지붕은 좌우보다 약간 높게 처리한 솟을삼문 형식을 하고 있다. 어칸 판문에는 태극무늬를 배풀었다.

제기고는 1892년 중수한 바 있다.

(3) 교직사(校直舍)

교직사는 1993년 민가를 매입하여 건립한 것으로 천운정사(天雲精舍)로 명명하였다.

정면 7칸, 측면 2칸의 건물로 서편 5칸에는 반 칸의 툇마루가 부설되어 있다. 용도는 온돌방과 화장실, 광 등으로 사용되며 뒤편에는 보일러실이 부착되어 있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으나 전면 서편 4칸에는 2짝씩의 세살창을 두었다. 지붕가구는 전퇴5량가이며 이중량형식이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4) 협문(夾門)

향교에는 모두 4개의 문이 있으며, 이 문들은 1989년 신축하였다.

일각문은 명륜당 전면으로 진입하는 정문으로 전면 석축에 장대석 계단을 두고 설치하였는데 신방목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워 맞배지붕을 얹었다. 2짝의 판문을 달았는데 여기에는 태극문양을 배풀었다. 판문 위에는 홍살을 설치하였다.

진학문(進學門)문은 명륜당 동측으로 출입하는 문으로 심방목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워 팔작지붕을 얹었다. 문은 판문으로 태극문양으로 장식하였다.

향교 전면 담장 일각문 좌우에는 2개의 협문을 설치하였다. 협문은 일각문과 같이 전면에 장대석 계단을 두고 그 위에 설치하였다. 신방목 위에 방형 기둥을 놓은 형식으로 맞배지붕으로 마감하였다. 여기에는 2짝의 판문을 달았다.

(5) 비(碑)

강릉향교는 2개의 비⁴⁾가 서있다. 명륜당 전면 좌측에는 1973년 건립한 〈鄉校廟庭碑〉가 있으며 그 좌측에 다시 〈錦里閔公成仁碑〉가 서 있다.

(6) 천운지(天雲池)

천운지는 본래 광무 2년(1610)에 향교를 중수하고 명륜당 전면에 파서 조성한 것이다. 이후 1924년에 천운지를 다시 파고 연을 심어 조성하였다. 그러나 1987년 천운지는 다시 현재의 교직사 앞으로 이착(伊鑿)하였다.

1) 강릉향교에 관한 기록은 〈鄉校重建跋〉(永樂十一年癸巳), 〈鄉校重修記〉(弘治癸丑), 〈鄉校重修記〉(天啓三年), 〈明倫堂重修記〉(崇禎甲申四月), 〈明倫堂重創記〉(崇禎後丙子十二月), 〈聖殿月廊重修記〉(崇禎後辛丑七月), 〈齋房重修記〉(崇禎紀元後三 丙申七月), 〈聖殿兩 重修記〉(上之十一年丁未), 〈聖殿重修記〉(上之卽昨十二年癸未七月) 등의 현판이 남아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문헌 기록도 남아 있다. 이들은 1982년도에 발간한 『江陵鄉校誌』에 잘 정리되어 있다.

2) 최근의 수리기록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89년, 92년, 95년 『수리공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3) 신영훈, 『宮室建築』國寶 11, 1985 : 237쪽

4) 文化財廳, 『江陵文廟大成殿 實測調査報告書』, 2000 : 171-172쪽

5) 강릉시, 『강릉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5 : 323쪽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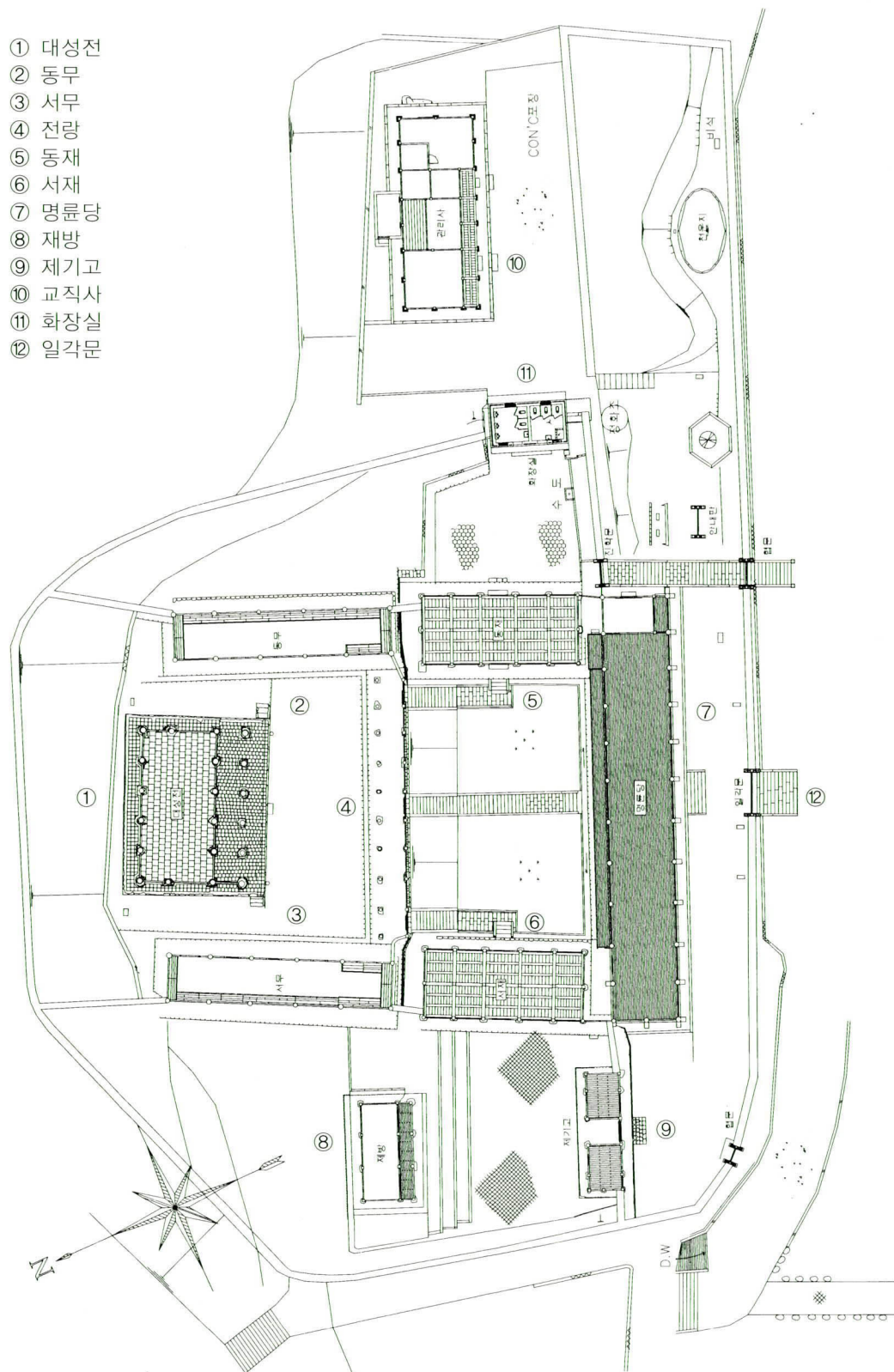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강릉향교(江陵鄕校)	지정현황	보물 제214호 (대성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9호 (일괄지정)
창건시기	고려 충선왕 5년(1313)	입 지	구릉지 / 主山 : 花淨山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서향 (대성전 S27°W)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堂後齋 종축 1개
중건시기	조선 숙종 연간(1485~1488)	대지조성	2단 : 전랑 기준
설 위	5聖 / 宋朝 6현(賢) / 孔門 10哲(대성전 배향) 中國 97賢 / 海東 18賢(동서무 배향)	인접시설	명륜고등학교, 강릉시청 별관 五奉書院, 松潭書院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전랑 / 명륜당 / 동서재 / 재방 / 삼문 / 교직사 / 화장실 / 묘정비 / 협문 3		
특기사항	전랑(殿廊)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건물 중앙에 창호를 두어 내삼문의 기능을 하게 함 대성전이 제향영역의 중앙이 아닌 서무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음 강학영역과 제향영역 모두 정방형이 아닌 약간 사다리꼴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5×3칸 / 주심포 외1출목 / 홀처마 맞배지붕 / 1고주 5량가(측벽 2고주) / 전돌바닥 / 연등천장 주고 : 평주 2620, 고주 4020 / 주칸 : 2480 / 수장폭 110 / 도리단면 $\phi=300$ 보단면 : 대들보 500×500, 종보 360×430, 뒷보 330×420 주심처마길이 2000 / 기단높이 전면 780, 측후면 500 / 초석크기 약 1000×700($\phi=800$)		
기단계단	단층기단 / 이별대 / 장대석 평축쌓기 전면 2개(2단, 3단)	보	대들보 : 전고주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과 4분변작 중간
초 석	정평주초 / 자연석+가공석 거칠게 원형으로 다듬음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동	원형기동 평주 $\phi=410\sim450$, 우주 $\phi=510\sim52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중대공 : 판대공, 동자주(측벽)
공 포	주심포 외1출목	창 방	말각방형 / 뿔목 초각
처 마	홀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붓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구기 단청 / 연등천장 / 전돌(300×300)		
특기사항	초석이 자연석을 상면 다듬기 한 것과 원형, 방형의 주좌를 새긴 것 등 다양함 숫막새에 박쥐, 연화, 범자(梵字) 등 7종을, 암막새에 연화당초문 등 사용 공포 구성 방식이 송광사 국사전, 관룡사 약사전 등과 유사함, 조선 초기 건물로 추정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11칸×2칸, 2층 누각 / 초익공 / 홀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장마루, 온돌(동실) / 연등천장 주고 4840 / 주칸 : 여칸 3450, 협칸 309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phi=240\sim270$ 보단면 : 대들보 400×450, 종보 210×240 주심처마길이 1450 / 기단높이 h=300 / 초석크기 350~700×400~850		
기단계단	단층기단 / 전면 이별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후면 1개(4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에 근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일부 8면석	도 리	5량 / 납도리
기 동	원형기동 / 배흘림 약간 $\phi=350\sim45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중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 주간 화반	창 방	말각방형
처 마	홀처마 / 서까래단부 직절	지 붓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구기 단청 / 연등천장 / 장마루, 온돌(동실)		
특기사항	익공재의 초각 수법으로 보아 19세기 중수시의 건물로 추정됨 동실과 서실이 동일 하지 않고 동실만 분합문을 두어 당(堂)과 구분하고 온돌을 둘 일반적인 명륜당의 평면 비례와 달리 세장한 장방형의 평면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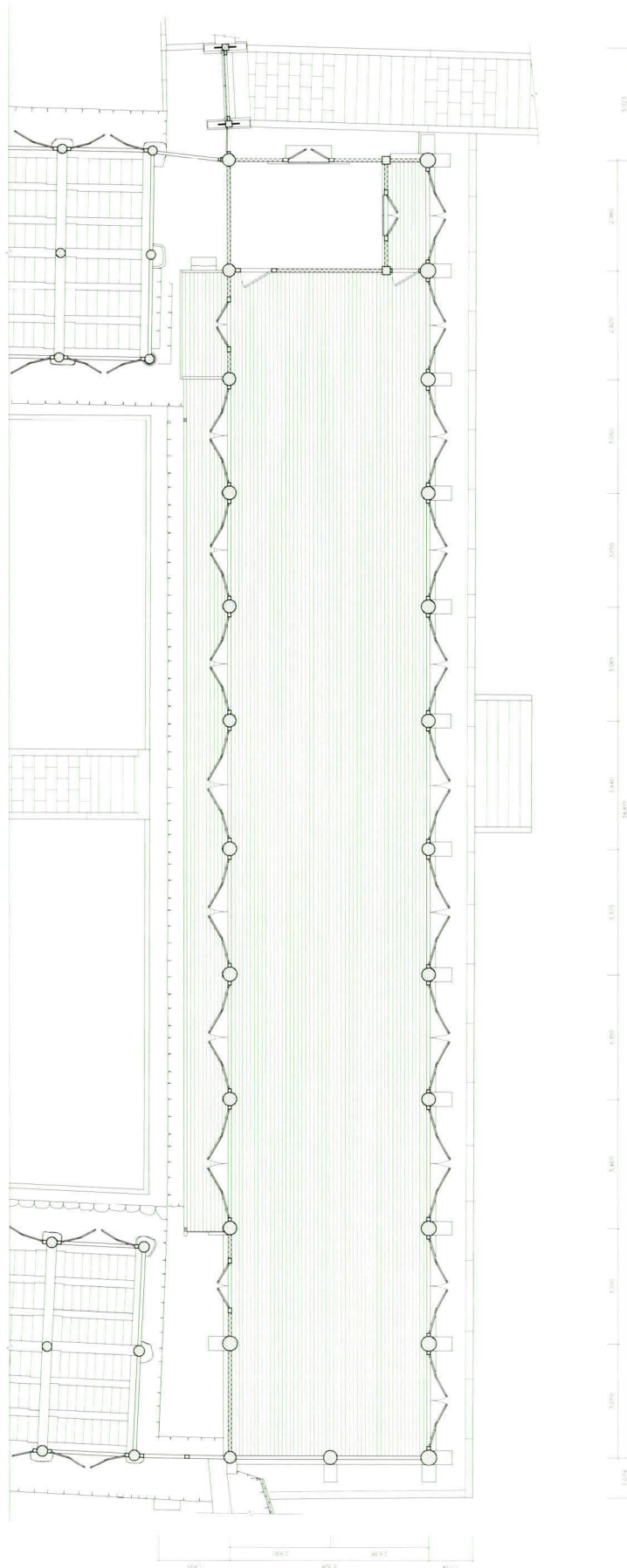


배치도

(문화재청, 『강릉문묘대성전』 실측조사보고서, 2000 에서 전재)



대성전 평면도



영랑당 평면도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 대성전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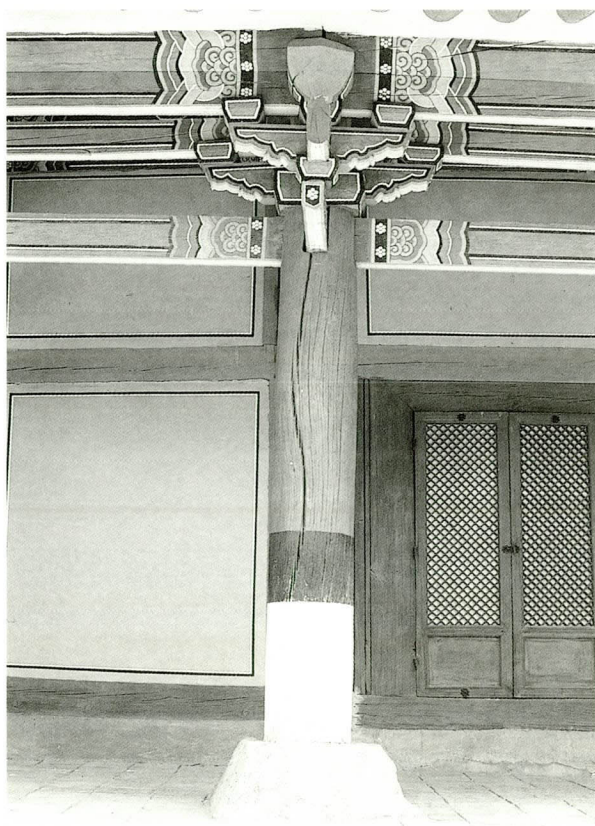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후면 주상포



▲ 대성전 전면 퇴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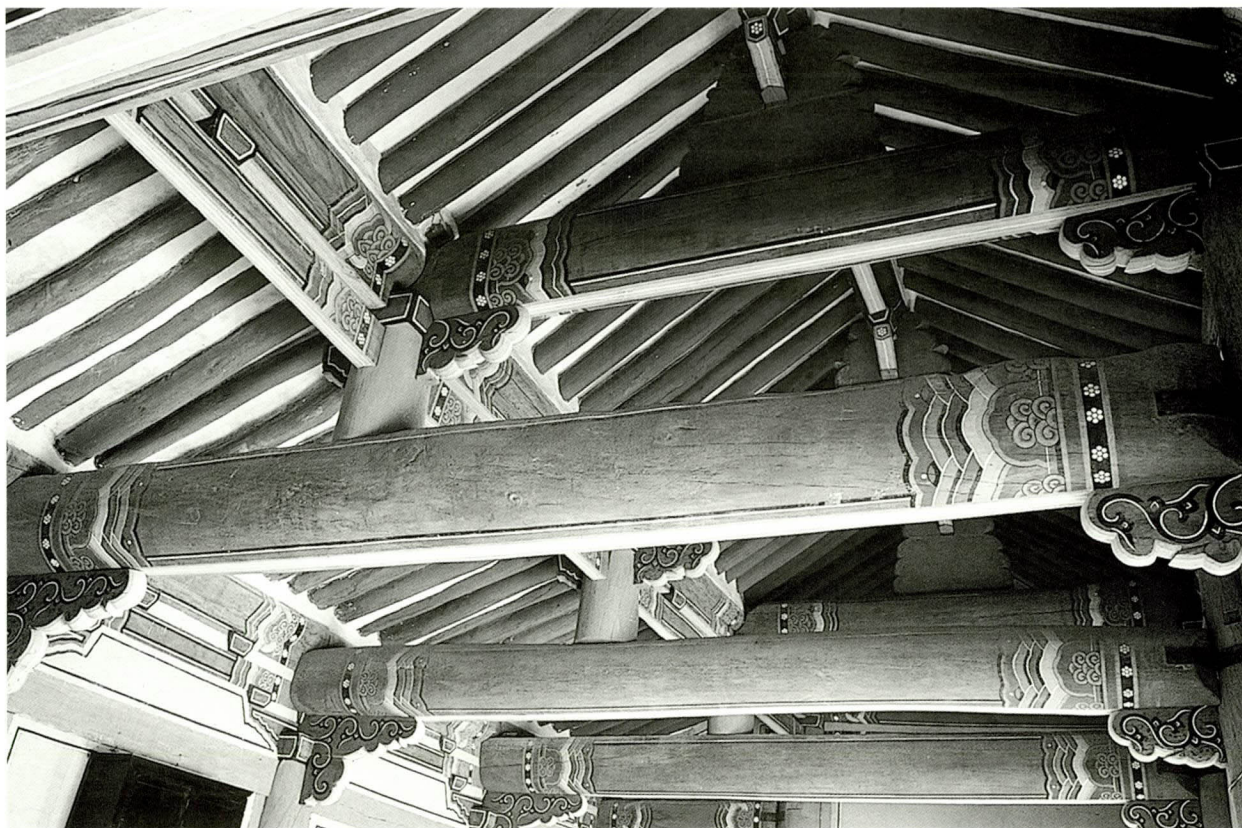
▲ 대성전 전면 평주



▲ 대성전 전면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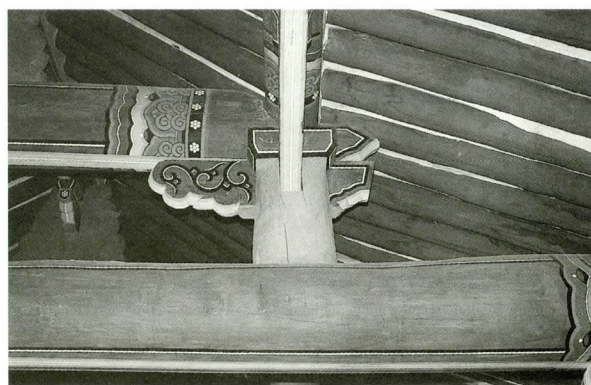
▲ 대성전 기단 및 계단



▲ 대성전 내부 가구



▲ 대성전 내부 고주 상부 결구



▲ 대성전 내부 중대공



▲ 관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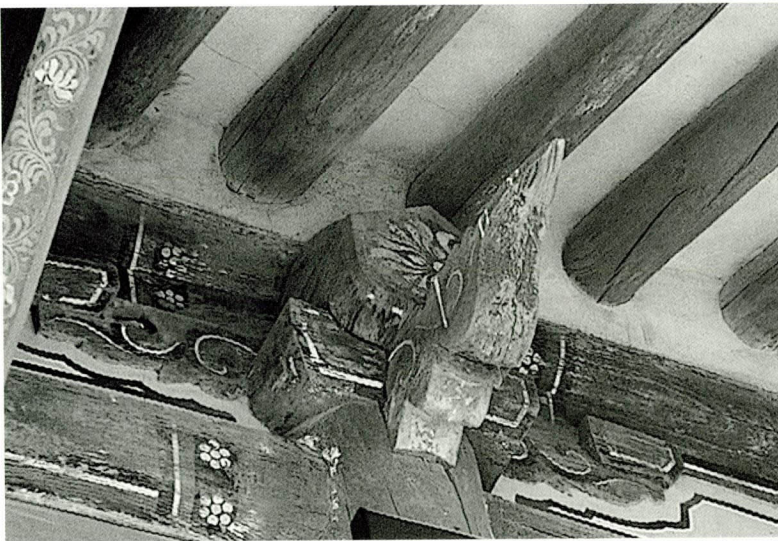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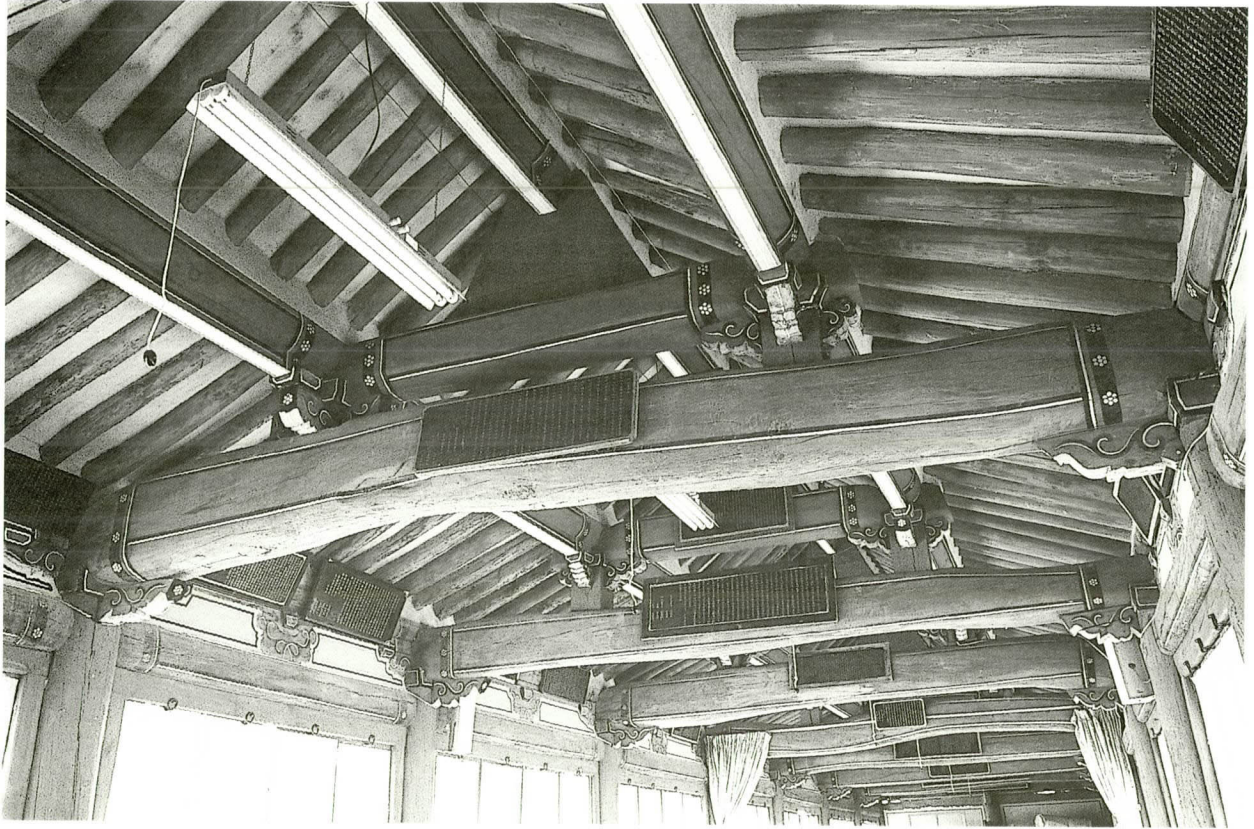
◀ 명륜당 현판



◀ 명륜당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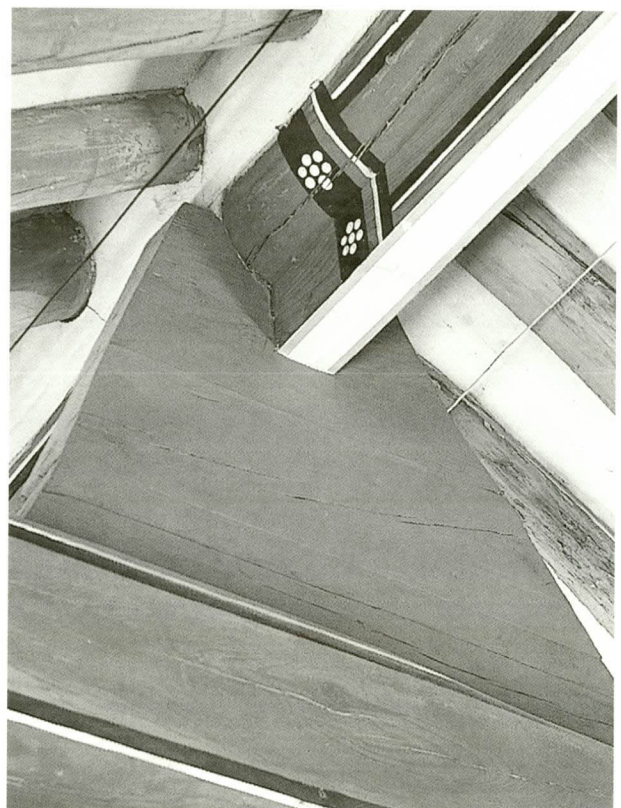
◀ 명륜당 하부



▲ 명륜당 내부 가구



▲ 명륜당 내부 종대공



▲ 명륜당 내부 종대공



◀ 동무



◀ 동무 내부



◀ 서무



◀ 동재



◀ 서재



◀ 서재 내부



▲ 내삼문



▲ 내삼문 회랑 내부



▲ 내삼문 중앙 솟을대문



▲ 내삼문 전면 계단 소맷돌



◀ 재방



◀ 명륜당 전면 외문



◀ 명륜당 측면 진학문



▲ 제향 공간



▲ 강학 공간

2. 삼척향교(三陟鄕校)

- 지정사항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2호(대성전)
- 지 정 일 : 1985년 1월 17일
-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교동 566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사주문, 숙청재, 직청, 장경실, 교직사, 홍살, 협문 2

지형도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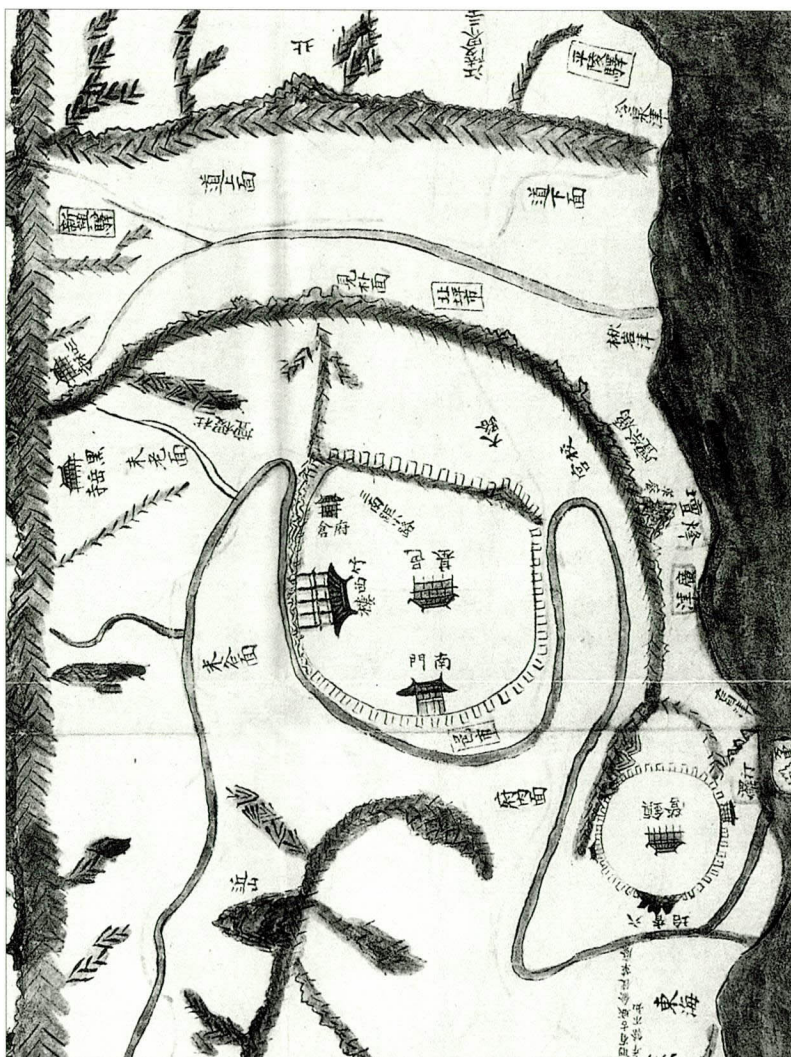
삼척향교는 삼척시 교동 566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삼척시는 신라 경덕왕 때부터 삼척(三陟)이라 불리워졌으며, 고려 성종 때 척주(陟州)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태조 2년(1393)에 태조의 선조인 목조(穆祖)의 외가(外家)고을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되었다가 태종 13년(1413)에 도호부(都護府)로 다시 승격되었다. 그 후 고종 32년(1895)에 군(郡)이 되었고 1986년에 삼척시로 승격되었다.

삼척향교의 창건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조선 태조 7년(1398) 고촌음곡(古村音谷)¹⁾ 동쪽 기슭에 창건되었다고 하며 태종 7년(1407)에 부사(府使) 권전(權璵)에 의해 옥서동(玉瑞洞) 월계곡(月桂谷), 지금의 당저리(塘底里)로 옮겼다가 세조 14년(1468)에 부사 권중손(權宗孫)에 의해 현 위치인 교동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이진하면서 어떤 연유에서인지 대성전을 먼저 짓지 않고 동서재를 먼저 지었다.²⁾ 성종 원년(1470)에 대성전을 지었으며 성종 3년(1472)에는 명륜당을 건립하였다. 중종 31년(1536)에 부사 변성(邊成)이 뒷 담장을 쳤고 명종 15년(1560)에 부사 김광진(金光軫)이 뒷 담장을 개수하였다. 선조 9년(1576)에 부사 김효원(金孝元)이 자성고(柵盛庫)를 짓고 이어 선조 13년(1580)에 부사 황정식(黃廷式)이 남루, 즉 명륜당의 호창(戶窓)과 재주(齋廚)를 신축하였다. 선조 33년(1600)에 부사 김권(金權)과 신경희(申景禧)에 의해 서재와 명륜당이 순차적으로 중수되었다. 광해군 3년(1611)에는

김계건(金啓鍵) 등이 동서무의 건립을 오윤겸(吳允謙)에게 건의하였고 같은 해에 부사 민인백(閔仁伯)이 일괄에 번와 보수를 하였다. 광해군 4년(1612)에는 대성전을 확장 중수하였다. 효종 7년(1656)에는 부사 이지온(李之溫)이 대성전 앞뜰을 수축(修築)하고 하마비와 망료석함을 제작하였다고 하며 현종 6년(1665)에 부사 김진표(金震標)가 대성전 중수를 시작하고, 동서재를 헐어 아래로 옮긴 다음 동서무를 지었으며, 이듬해에 부사 정창수(丁昌壽)에 의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숙종 8년(1682)에 당시 부사(府使) 유송제(柳松齊)가 향교의 중수를 이유로 교동에서 건지리(乾芝里)로 이진하였다가 유림들의 반발로 숙종 26년(1700)에 부사 심단(沈檀)에 의해 다시 현 위치로 옮겨오기

三陟府地圖



위해 터를 닦고 이듬해에 부사 박행의(朴行義)에 의해 이진되었다. 숙종 30년(1704)에 제기고를 건립하였고, 숙종 36년(1710)에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같은 해에 부사 이성조(李聖肇)가 대성전 현판을 썼으며 주자의 글씨를 모아 명륜당 현판을 만들었다. 영조 20년(1744)에 부사 최상징(崔尙鼎)이 성전(聖殿)과 동서무를 중수단청 하였으며, 1764년에 서까래와 기와를 교체하였다. 정조 5년(1781)에 부사 이헌경(李獻慶)에 의해 대성전과 동서무를 중건하였다. 정조 12년(1788)에 동재, 서재 그리고 식루(食樓)를 중수하였으며, 순조 8년(1808)에 부사 홍경두(洪景斗)에 의해 대성전과 동서무, 제기고를 중수하였다. 순조 16년(1816)에는 동서재와 명륜당을 중수하였으며, 순조 25년(1825) 봄에 부사 민사관(閔師寬)에 의해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헌종 4년(1838) 부사 이규헌(李奎憲)에 의해 동무와 담장을 중수하였으며, 헌종 6년(1840)에 홍살문을 고쳐 지었다. 헌종 7년(1841)에 부사 이인원(李寅元)에 의해 대성전과 서무를 중수하였다. 철종 3년(1852)에는 부사 정재용(鄭在鎔)이 대성전과 동서재, 제기고를 보수했으며, 철종 9년(1858)에 대성전을 보수하였다. 철종 11년(1860)에는 대성전과 동서무를 보수하였으며, 고종 1년(1864)과 5년(1868), 24년(1887)에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고종 11년(1874)에 제기고를 보수하였으며, 고종 18년(1881)에 서재를 보수하였다. 고종 26년(1889)에는 대성전, 동서무, 명륜당, 제기고, 재실, 외문 등 전체 일곽에 대한 중수를 실시하였으며, 1898년에는 동서재를 중수하였다. 1901년에는 대성전과 동서무를 중수하였고 이듬해에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1905년에 군수 정운석(鄭雲皙)에 의해 일곽 전체를 중수하였다.

1914년에 일곽을 중수하고, 군수 심의승(沈宜昇)이 삼척 공립보통학교를 명륜당 앞으로 이진하였으며, 1925년에 다시 문묘 일곽을 중수하였다. 1926년에는 숙청재를 중수하였고, 이 해에 향교 소장 전적을 군도서관에 이관하였으며, 1930년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1934년에 이관되었던 서적을 다시 향교에 보관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 이상의 전적이 없어졌다. 1938년에 대성전, 동서무, 명륜당 일곽을 중수하고, 이듬해에 대성전과 동서무에 단청을 새로 했으며 1941년에 장경실을 건립하였다. 1944년에 서무를 중수하였으며, 성균관에서 모사해 온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의 심잠(心箴)을 모사해 명륜당에 걸었다. 1948년 내삼문과 제기고, 취사소(炊事所)를 중수하였고 1952년 대성전과 동서무, 명륜당을 중수단청하였다. 이듬해에는 후원과 앞담장을 증축하였으며, 1956년에 쓰러진 서쪽 협문을 다시 세웠다.

1959년에 동서무를 각각 8척(尺)씩 확장 중수하였으며, 대성전과 내삼문, 명륜당에 부연을 달았다. 1961년에 제기고를 새로이 고쳐 짓고 1963년에 명륜당을 단청하였으며, 1964년에는 수복실 4칸을 직청 밑으로 이진하였다. 1968년에 명륜당과 동서재 절반이 화재로 전소되었고 1970년에 명륜당을 중건하였다. 1976년에 묘정비를 건립하였고, 대성전을 보수하였으며, 1979년에 대성전과 직청, 외문을 보수하고, 홍살문과 연혁관 등을 새로이 지었다. 이어 1985년에 시도유형문화재 제102호로 지정되었다. 1989년에 동재와 서재, 직청³⁾을 보수하였으며, 1990년에서 1992년 사이에 명륜당, 대성전, 내삼문 등이 중수되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
1407년	이진
1439년	하마비 건립
1468년	현 위치로 이진, 동서재 건립

1470년	대성전 중건
1472년	명륜당 중건
1580년	남루 호창, 재주 신축
1600년	서재, 명륜당 중수
1612년	대성전 확장 중수
1656년	하마비 건립, 대성전 앞 뜰 수축
1665~66년	대성전 이건 중수, 동서무 중건 및 동서재 이건
1682년	건지동으로 이건
1701년	현 위치로 다시 이건 ⁴⁾
1704년	제기고 건립
1710년	대성전 편액 제작 및 명륜당 중수
1744년	대성전, 동서무 중수 및 단청 ⁵⁾
1764년	대성전, 동서무 서까래 교체 및 번와 보수 ⁶⁾
1781년	대성전, 동서무 중건 ⁷⁾
1788년	동서재, 식루 중수
1808년	대성전, 동서무, 제기고 중수 ⁸⁾
1816년	명륜당, 동서재 중수 ⁹⁾
1825년	명륜당 중수 ¹⁰⁾
1838년	동무, 답장 중수 ¹¹⁾
1840년	홍살문 중건
1841년	대성전, 서무 중수 ¹²⁾
1852년	대성전, 동서재, 제기고 보수 ¹³⁾
1858년	대성전 중수 ¹⁴⁾
1860년	대성전, 동서무 중수 ¹⁵⁾
1864년	대성전 중수
1874년	제기고 중수 ¹⁶⁾
1881년	서재 중수 ¹⁷⁾
1889년	대성전, 동서무, 명륜당, 제기고, 재실, 외문 등 일괄 중수 ¹⁸⁾
1902년	명륜당 중수 ¹⁹⁾
1914년	향교 일괄 중수 ²⁰⁾
1918년	향교 관복 마련 ²¹⁾
1925년	문묘 일괄 중수 ²²⁾
1926년	숙청재 중수 ²³⁾
1938년	대성전, 동서무, 명륜당 중수 ²⁴⁾

1939년	대성전, 동서무 단청 ²⁵⁾
1941년	장경실 건립 ²⁶⁾
1944년	서무 중수, 심잠(心箴) 모시 ²⁷⁾
1959년	동서무 확장 중수 ²⁸⁾
1961년	제기고 건립
1964년	수복실 이전 ²⁹⁾
1968년	명륜당 및 동서무 화재로 일부 소실
1970년	명륜당 및 동서무 중건
1976년	묘정비 건립
1979년	대성전, 직청, 사주문 보수 및 홍살문, 연혁판 건립 ³⁰⁾
1989년	화장실 보수, 담장 설치, 동재·서재·직청 중수
1990년	명륜당 보수
1992년	명륜당 단청 및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번와 보수 숙청재, 직청 벽체 보수, 동서재, 장경실 벽체 및 창호 보수
1993년	일곽 바닥 강회다짐
1999년	동서무 번와 보수, 명륜당 주초 및 번와 보수, 담장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대성전, 명륜당 및 협문을 모두 합하여 15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향교 내에는 〈명륜당중건기(明倫堂重建記)〉, 〈삼척향학중수기(三陟鄉學重修記)〉, 〈아국십팔현성묘승봉기(我國十八賢聖廟陞奉記)〉 등 많은 양의 기문 및 편액이 남아 있어 향교 역사의 고증에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2. 입지 및 배치

삼척향교는 삼척시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삼척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향교 후면에 야트막한 야산이 있으며 향교는 이 산의 좌측 끝자락에 정남향으로 놓여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편이다. 전면 좌측으로는 초등학교 건물이 잘잡고 있고, 남측과 서측으로 다수의 민가와 밭이 위치하고 있다. 수 차례에 걸친 이건 과정과 인접 건물의 신축 및 내부 건물의 다양한 이동 과정을 거쳐 현재 향교는 크게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홍살문을 지나 향교의 전면에 이르면 담장 없이 명륜당 전면이 바로 외곽이 면하고 있으며 그 동측으로 외삼문 대신 단칸의 사주문이 외삼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사주문을 들어서면, 좌측에 명륜당이 있고, 정면에 숙청재, 그리고 동측에 직청이 보이며, 교직사는 직청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숙청재 후면에는 장경실이 자리잡고 있으나 원래는 동재 북측에 자리잡고 있었다.

두 번째로 좌측의 명륜당을 따라 강학영역으로 진입하면 좌우에 동서재가 있고 중앙에 내삼문이 보인다. 서재 남측으로는 화장실과 협문이 자리잡고 있으며, 내삼문을 중심으로 단차이가 난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좌우에 동서무가 놓이고 중앙에 대성전이 놓여져 있는데, 동서무의 남측 기단선을 이어

단이 형성되고 그 중앙에 2개의 계단이 있다. 계단을 오르면 동서무와 같은 높이가 되며 다시 대성전에 오르기 위해서는 계단을 하나 더 올라야 하는데, 대성전을 중심으로 보면 이 중앙 마당이 월대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제향영역은 후면의 구릉지로 인하여 경사가 조금 있는 편이다.

전체적으로 삼척향교는 대성전과 명륜당을 남북 종축 하나, 장경실과 숙청재 공간을 잇는 축 하나, 2개의 축으로 구성되었으며, 명륜당이 앞에 있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에 양재가 명륜당 후면에 위치한 전당후재(前堂後齋)의 배치를 형성하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두었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聖과 宋朝 2賢, 海東 18賢의 신위를 모셔두었다.

장대석 기단 위에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놓았다. 기단 전면에는 좌우에 각각 7단과 8단으로 된 계단을 두었으며, 기단 상면은 강회다짐하였다. 기둥은 약간의 배흘림을 둔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전면 기둥 상부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다. 기둥 머리에 사괘를 트고 초익공재를 결구하였으며, 중앙에서는 보머리를 직절하고 용두(龍頭)를 초각하여 끼웠으며 좌우 측벽 뒷보는 수장폭과 같은 단면으로 되어 있다. 후면에서는 익공재 외단을 직절하였고 보머리 역시 같은 길이에서 직절하였다.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되어 있으나 고주가 중도리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으며 고주의 높이가 평주와 근사하다. 일반적으로 1고주 5량가에서는 대들보가 전면 고주 측면에 결구되나 여기서는 대들보가 전후 평주 위에 결구되고 고주는 헛기둥으로 중도리위치보다 약간 전면에서 대들보를 받고 있다. 종보는 3분변작에 유사한 위치에 놓고 중대공은 동자주 위에 포대공을 짚으며, 종대공은 종보 중앙에 놓여 판대공과 도리방향 침차가 결합되어 중도리를 받았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고, 전면 중앙 3칸에는 두 짝 세살문을, 좌우 퇴칸에는 두 짝 세살창을 달았다. 그러나 좌우 퇴칸에서 창호 좌우의 문선이 장혀와 하방까지 이어져 있다. 전면 각 칸 모두 상방 상부에 광창을 두었으며, 대들보가 전후 평주 위에 걸쳐짐으로써 퇴칸 기둥렬 상부에서 방형으로 틀을 대고 대들보가 벽체를 통과할 수 있게 하였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은 장마루로 되어 있다. 중앙에 ‘ㄷ’ 자형으로 5성의 신위를 모셨고 좌우 측벽에 나머지 신위를 모셔 두었다. 지붕은 겹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되어 있으며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다.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으며, 대성전 현판 좌측에는 ‘崇禎再辛卯仲冬揭額’이라는 명문이 있는데 시기는 1711년으로 숙종 37년에 해당한다. 건립 연대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1781년 중건 이후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동서무(東西廡)

동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1959년에 8척을 확장하였다고 하나 현재 어칸이 약 11척이고 좌우 협칸이 모두 8척으로 어느 방향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덧서까래의 형태와 단청문양이 대성전과 같은 것으로 보아 1959년 중수시의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전면의 축대와 일체화 되어 있으며, 전면에서 장대석 1단 높이로 단층기단을 쌓았다. 자연석 초석 위에 방형 기둥을 세우고, 전후 평주 위에 대들보를 놓았으며,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기둥 머리에 사괘를 트고 외단은 짧게 직절한 익공재를 놓았으나 주두와 소로를 생략하였다. 후면 어칸에는 초각된 부재를 사용하였다. 부재가 다른 것은 1970년 당시 화재로 일부 소실되었던 건물을 복구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가구는 3량가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겹처마로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고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꾸몄고, 전면 어칸에 두 짝 세살문을, 좌우 협칸 전면에는 두 짝 세살창을 달았다. 좌우 퇴칸에서는 하방의 높이가 낮고 창호 좌우 문선이 장혀와 하방까지 이어져 있다.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바닥은 시멘 몰탈로 마감하였다.

서무는 동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 동무와 같은 시기에 보수 되었다.

(3)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연석 단층 기단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다. 기둥 일부는 배흘림을 두어 치목된 반면 일부는 민흘림을 두었다. 기둥 상부에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어칸만 겹처마로 두고 좌우칸은 홑처마로 되어 있으며,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바닥은 강회다짐으로 되어 있다. 모로단청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각 칸 모두 전면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어칸 문 상방 상부에 홍살을 꾸몄으며 좌우 벽체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18세기 후반 이후의 건축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나. 강학영역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1970년에 화재로 일부 소실되었던 것을 중수하였으며 이후 한 두 차례 보수를 거쳤다. 건물은 정면 7칸, 측면 1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은 지면에 묻혀 있으며, 상면은 강회다짐으로 마감되어 있다. 후면 동측1협칸에 계단이 놓여 있어 내부로 통한다. 형식은 중층이나 하층이 높이가 낮으며, 특히 내외부에 약간의 단차이가 있어 후면에서 볼 때 하층이 더 낮게 보인다.

초석은 정평주초 형식으로 원형초석을 놓았으며 그 위에 약간의 배흘림을 둔 원형기둥을 세웠다. 상부와 하부의 직경은 약 40~50mm 가량 차이가 난다. 기둥 위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다. 익공재 외단은 양서형으로 되어 있고 보머리에는 직절한 후 봉황두를 초각하여 끼워 넣었으며, 주간에는 화반 대신 소로를 수장하였다. 부재의 초각은 대성전의 것과 유사하게 되어 있다. 지붕은 겹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가구는 5량가로 전후면 평주 위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에 근접한 위치에 종보를 놓았다. 중대공은 좌우 측벽에서 동자주 위에 포대공을 짚으며, 어칸에서는 보방향으로 초각된 익공재를 결구하였다. 중대공은 판대공에 도리방향 첨차를 결구하였고 종도리를 받았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으며, 하부 전면에는 벽체 대신 살대를 두었다. 전면에는 좌우 실 전면에 두 짝 세살창을 두고, 나머지칸에는 네 짝 세살문을 달았다. 내부는 동실만 따로 실로 구분하고 분합문을 두었으며, 바닥은 동실의 경우 온돌을, 당은 서실과 통합되어 장마루로 되어있다. 천장은 동실만 반자를 두고 나머지는 연등 천장으로 되어 있다. 후면에 일부 난간이 시설되어 있고,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다.

현재 걸려 있는 명륜당 현판은 원래 1710년의 것을 화재 이후 중각(重刻)한 것으로 보인다³¹⁾. 또한 기록에는 명륜당의 화재 후 중건을 1970년으로 해 두었으나 기문에는 이보다 4년 후인 1974년으로 되어 있으며³²⁾. 현 건물은 이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는 ‘근궁직청(芹宮直廳)’ 현판을 비롯하여 다수의 편액이 걸려 있고, 일부는 동서실에 보관되어있다. 전면 동측에는 흥학비(興學碑) 1개가 세워져 있다.

(2) 동서재(東西齋)

동재는 1989년에 완전해체 보수하였으며, 서까래와 기둥, 하방, 도리재 등을 교체하였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야트막한 자연석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이며,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이며, 동측면에는 각 칸 중앙에 외짝 세살문을 달고 서측면에는 어간에만 외짝 세살문을 달았다. 동측면 북측협칸 하방 하부에는 창문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서재는 1989년 기존 콘크리트 기단을 해체하고 자연석 기단으로 교체하였으며, 번와 보수를 하였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야트막한 자연석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 이나 전면에서 1/3 지점에 헛기둥을 두어 퇴칸을 구성하였다.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으며,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북측 협칸은 부엌으로 사용하였으며, 전면에 판문을 달았다. 어칸과 남측 협칸은 전면에 퇴를 두고 외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내부에 온돌을 깔았다. 후면 중방 상부에 들어열개창을 달아 내었다.

(3) 사주문(四柱門)

삼척향교에서는 외삼문이 없고 명륜당 옆의 사주문이 외삼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건물은 정면 측면 각 1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서 보았을 때 장대석 1단 높이로 단층기단을 쌓았으나 후면에서는 약간의 고저차로 강학공간의 중앙 마당과 같은 높이로 연결된다. 정평주초 형식으로 원형 주좌가 있는 원형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다. 기둥상부는 초익공으로 결구하고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초익공재를 결구하였으며 익공재 외단은 앙서 위에 간략화된 꽃봉오리를 초각하였고, 보머리에 봉황두를 초각하여 끼웠다. 가구는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겹처마로 두고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굽기단청으로 마감하였으며, 연등천장으로 처리하였다.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문 상방에 홍살을 꾸몄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숙청재와 직청, 장경실 및 교직사 등이 있다.

숙청재(肅淸齋)는 1926년에 중건한 기록이 있으며, 이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로, 야트막한 자연석 단층기단 위에 건립되

었다. 자연석 초석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동측면과 후면 일부에는 원형기둥을, 나머지는 방형기둥을 사용하였다. 기둥 상부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보머리는 초각한 부재를 끼워 넣은 것과 직절한 것 두 가지가 섞여 있다. 또한 후면에서는 공포가 생략된 채 민도리식으로 되어 있다. 어칸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전면에 퇴칸을 두었다. 대공의 종류와 형식은 현재 퇴칸 마루 상부에는 우물반자를, 나머지는 지반자를 두어 내용을 알 수 없다. 어칸 전면에는 겹창을 두었으며, 동측면과 후면 일부는 회사벽 대신 판벽으로 벽체를 구성하였다. 지붕은 홑처마이며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고,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정면 어칸 상부에 숙청재 현판을 걸어두었다.

직청(直廳)은 1989년 기존의 콘크리트 기단을 해체하고 자연석 기단으로 교체하였으며 서까래와 도리, 인방, 문선재 등을 교체하는 등 완전 해체보수 과정을 거쳤다. 직청은 원래 수복실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1964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벽체는 북측 중방 하부만 판벽이고 나머지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다. 북측 1칸만 부엌으로 사용하고 정면 중앙에 외짝 판문을 달았다. 나머지 두 칸은 온돌을 놓고 지반자로 천장을 마감하였으며, 가칠단청으로 마무리 하였다.

장경실(莊經室)은 원래 동재의 북측편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숙청재 후편에 따로 떨어져 지어졌는데 이것은 건물 기능상 서책 및 경판을 보관하는 곳이므로 다른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1980년대 이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으며 전측면 단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야트막한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3량가로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다. 내부는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정면 중앙에 장경실 현판이 걸려 있으며, 정면 우측에 외짝 판장문이, 중방 상부 중앙에 두 짝 여닫이 판창이 달려 있으며 굿기단청으로 마무리 되었다.

홍살문(紅箭門)은 1979년에 건립되었으며, 향교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다. 방형 초석의 상단을 8각형으로 깎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워 홍살을 구성하였다. 홍살문 후면에는 진입로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고 계단 좌우측에 석물이 양쪽에 세워져 있다.

묘정비(廟庭碑)는 1976년에 건립되었으며 사주문 전면 서측에 위치하고 있다. 귀부(龜趺)위에 방형의 비좌를 파고 오석(烏石)에 비문을 새겼다.

교직사(校直舍)는 직청 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향교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다. 화장실은 동재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북측에 헐문이 있다. 다른 헐문은 동재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제기고(祭器庫)는 기록상에는 언급되고 있으나,³³⁾ 현존하지 않는다.

- 1) 초창 지명은 고사음곡미치(古士音谷微峙, 고사리재), 고사음곡(古寺音谷) 혹은 장사동(壯寺洞) 등 『三陟郡誌』, 『江原道鄉校書院寺刹誌』를 비롯 여타 문헌에서 약간씩 다르게 언급되고 있으나 유교대사전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儒教大辭典』을 기준으로 하였다.
- 2) 추측컨대 부재를 그대로 해체하여 이진하는 과정에서 동서재를 먼저 이진하고 차례로 이진하였을 것이다.
- 3) 현재 명칭은 동재, 중재, 서재로 불리우며, 동재를 숙청재의 전면에 있는 건물로 보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숙청재에 부속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숙청재와 내삼문 사이에 있는 건물을 동재라 하고, 내삼문 서측에 있는 건물을 서재라 칭하였으며 숙청재 부속 건물을 직청(直廳)이라 칭하였다. 유교대사전편찬위원회에서 펴낸 『儒教大辭典』에도 직청으로 언급하고 있다.
- 4) 원위치로 이진 당시 승(僧) 혜행(慧衍)의 말에 따라 원래 터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옮겼다고 한다. 공사는 3년이 걸렸고, 이 시기에 제기고(祭器庫)가 건립되었다. 강원도, 『江原道鄉校書院 寺刹誌』, 1992 : 178쪽.
또한 당시의 기록은 〈鄉校移建記〉라는 편액에 남아 있다.
- 5) 〈殿廡重修記〉
- 6) 〈聖廟重修記〉
- 7) 대성전과 동서무를 중건하면서 3척 가량을 크게 했다고 하며, 대성전은 아예 위치를 좀 더 위 쪽으로 옮겨 지었다고 한다. 강원도, 위의 책, 같은 쪽 또한 당시의 기록은 〈大成殿重修記〉로 남아 있다.
- 8) 〈聖廟重修記〉
- 9) 〈講堂及東西齋重修記〉
- 10) 〈明倫堂重修記〉
- 11) 〈東廡及墻垣修補記〉
- 12) 〈西廡修補記〉
- 13) 〈西廡及東西齋重修記〉
- 14) 〈聖廟重修記〉
- 15) 〈鄉校重修記〉
- 16) 〈祭器庫重修記〉
- 17) 〈西齋重修記〉
- 18) 〈鄉校重修記〉
- 19) 〈明倫堂重修記〉
- 20) 〈鄉校重修記〉
- 21) 〈鄉校官服新備記〉, ‘(前略)...戊午復陽前直員 溟州金秉諧記...(後略)’
- 22) 〈鄉校重修記〉
- 23) 〈肅清齋重修記〉
- 24) 〈鄉校重修記〉, ‘(前略)...戊寅八月 日 文廟直員崔相 謹記’
- 25) 〈鄉校重修記〉, ‘(前略)...歲己卯奎陽月三陟文廟直員 金源甲謹記...(後略)’
- 26) 〈莊經室創建記〉, ‘(前略)...辛巳九月 日 文廟直員 金禧鄉記...(後略)’
- 27) 〈三陟鄉學重修記〉, ‘甲申仲秋上浣唐城洪鏞學謹記...(後略)’
- 28) 〈鄉校重修記〉, ‘(前略)...聖記二千五百十年己亥復陽月上澣 後學眞珠金炯益謹記’
- 29) 〈守僕室移建記〉
- 30) 〈紅箭門重建記〉, ‘(前略)...神門正門及門幅修理丹雘 校宮案內板圖而堅之直室廚旁增築擴張重建 紅箭門突亢舊貌換乎...(中略)...孔紀二五三〇年己未仲秋下浣 後學烏川鄭泰和記’ 기문 이름은 ‘紅箭門重建記’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는 다른 건물의 중수 및 확장에 관한 것 들을 포함하고 있다.
- 31) 〈明倫堂懸板重刻記〉, ‘(前略)...歲甲寅小春 後學江陵崔秉熙記...(後略)’
- 32) 〈明倫堂重建記〉, ‘(前略)...甲寅立冬後學安東金潤東謹記...(後略)’
- 33) 유교대사전편찬위원회, 『儒教大辭典』, 1990 : 187쪽.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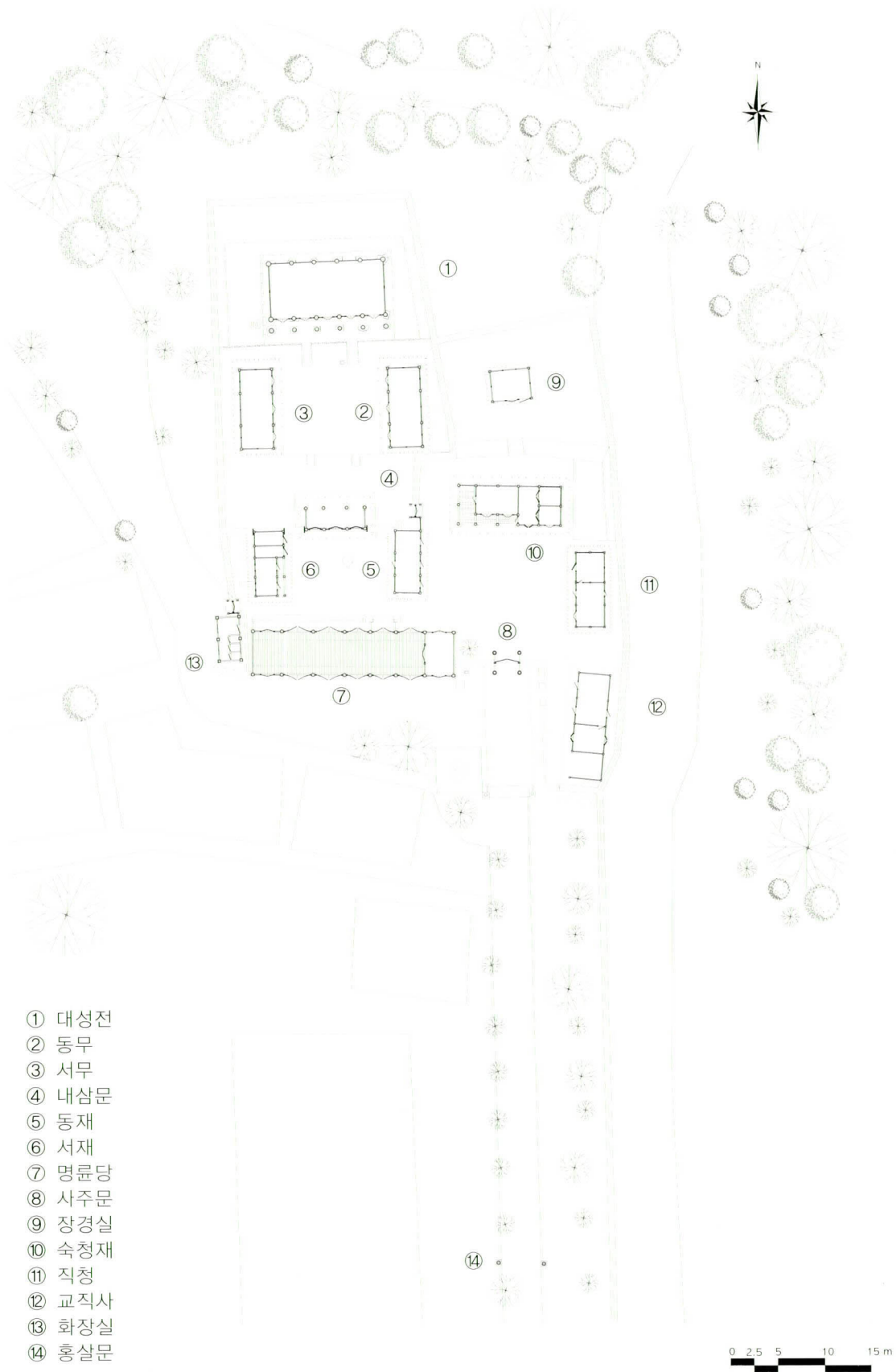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삼척향교(三陟鄕校)	지정현황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2호 (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초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정남향 (대성전 정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堂後齋 종축 2개
중건시기	1407년 이건 1468년 현 위치로 이건 1682년 건지동으로 이건 1701년 현 위치로 다시 이건	대지조성	2단 :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삼척초등학교
건축구성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사주문, 숙청재, 직청, 장경실, 홍살문, 교직사, 화장실, 협문 2		
특기사항	숙청재와 직청으로 이루어지는 타 향교에서 볼 수 없는 영역 형성 외문이 명륜당 정면 중앙에 놓이지 않고 숙청재 영역과의 사이에 사주문 형태로 존재		

대성전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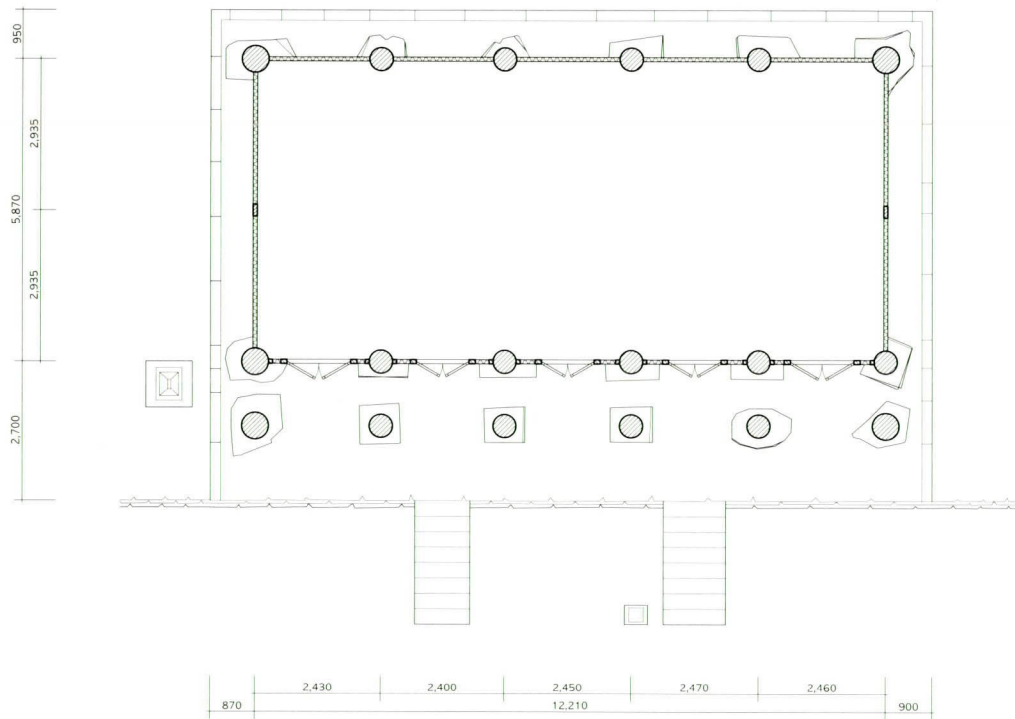
개 요	5×2칸, 전1퇴칸 / 초익공 / 홀처마 맞배지붕 / 1고주 5량가 / 강회다짐 / 연등천장 주교 2850 / 주칸 245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phi=240$ / 보단면 : 대들보 440×480, 종보 240×240 기단높이 : 전면 1500, 측면 180 / 초석크기 약 600×600		
기단계단	단층기단 / 삼벌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전면 2개(동측7, 서측8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에 근접
초 석	정평주초 / 자연석+방형 초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전면 평주 $\phi=430\sim440$, 고주 $\phi=320\sim33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 / 보머리 초각	창 방	방형 90×240 / 뿔목 직절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강회다짐+장판지 마감		
특기사항	대성전 전면 서측에 망레위, 전면 계단 사이 배례석 있음 1고주 5량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대들보가 전후평주에 걸쳐져 있음 현판 좌측에 명문 있음(1711년명)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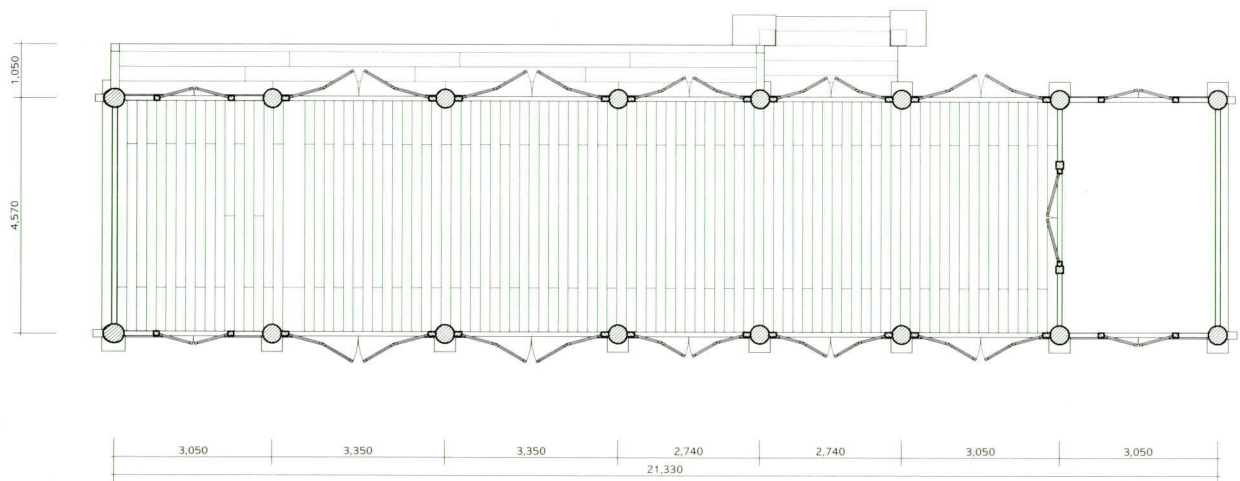
개 요	7×1칸, 2층 누각 / 초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장마루·연등천장, 온돌·우물반재(동실) 주교 2250 / 주칸 2740(어칸, 동측협1칸), 3050(동측협2칸, 좌우 퇴칸), 3350(서측협1,2칸) 수장폭 90 / 도리단면 $\phi=210$ / 보단면 : 대들보 330×360, 종보 210×210 주심처마길이 1550 / 초석크기 약570×570		
기단계단	단층기단 / 외벌대 후면 1개 (5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에 근접
초 석	정평주초 / 원형 초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배흘림 약간 下 $\phi=400\sim450$, 上 $\phi=360\sim40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	창 방	방형 90×180 / 뿔목 직절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붕	맞배지붕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장마루·연등천장, 온돌·우물반재(동실)		
특기사항	최근에 신축하였으며 전면 하층에 살대를 두었음 주칸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화재로 손실된 후 복구과정에서의 착오에 따른 결과로 보임		



배치도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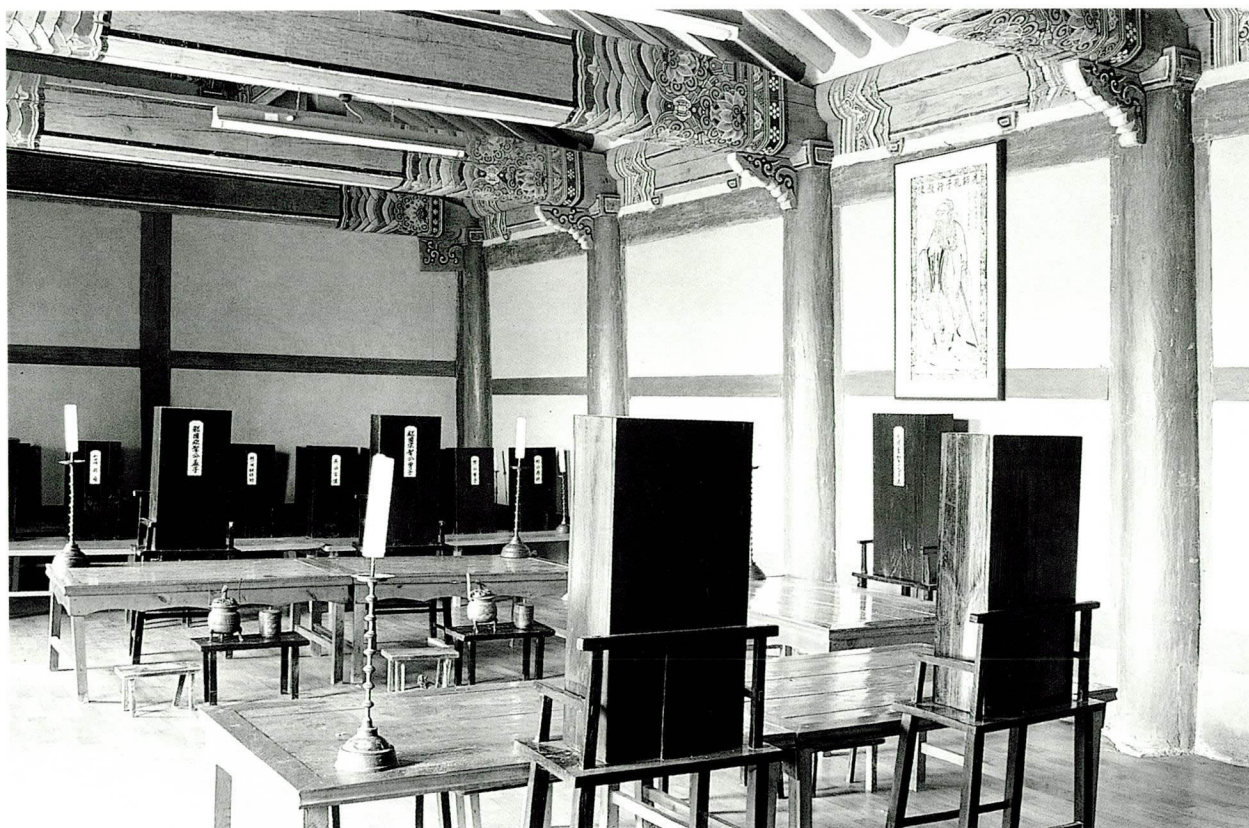


명륜당 평면도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 대성전 현판



◀ 대성전 전면 어칸 주상포



◀ 대성전 전면 협칸 주상포



◀ 대성전 전면 기단 및 계단



◀ 대성전 전면 퇴칸 광창



◀ 대성전 전면 초석



▲ 대성전 내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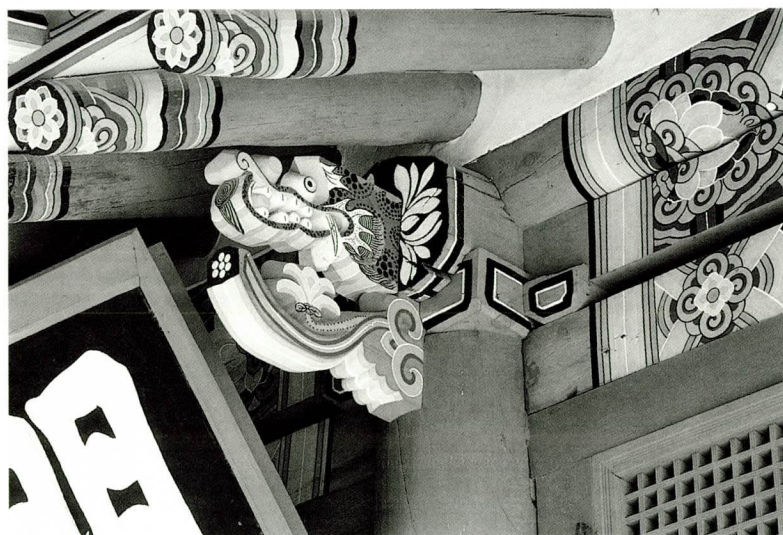
▲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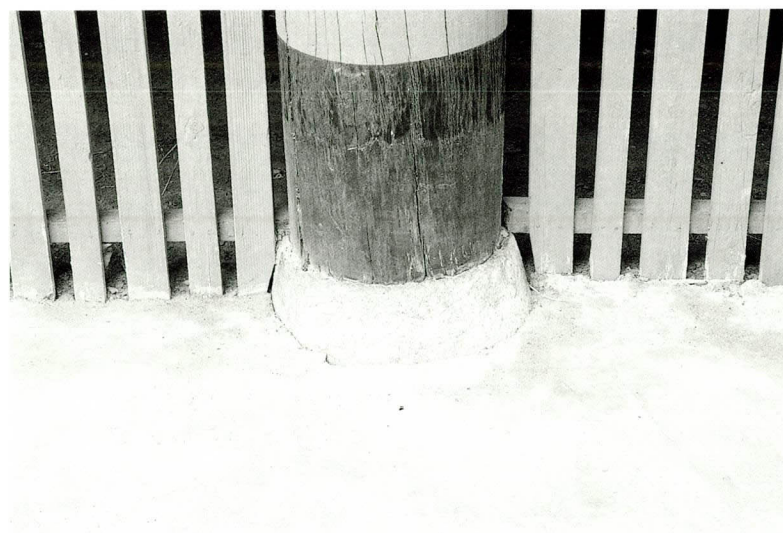
▲ 명륜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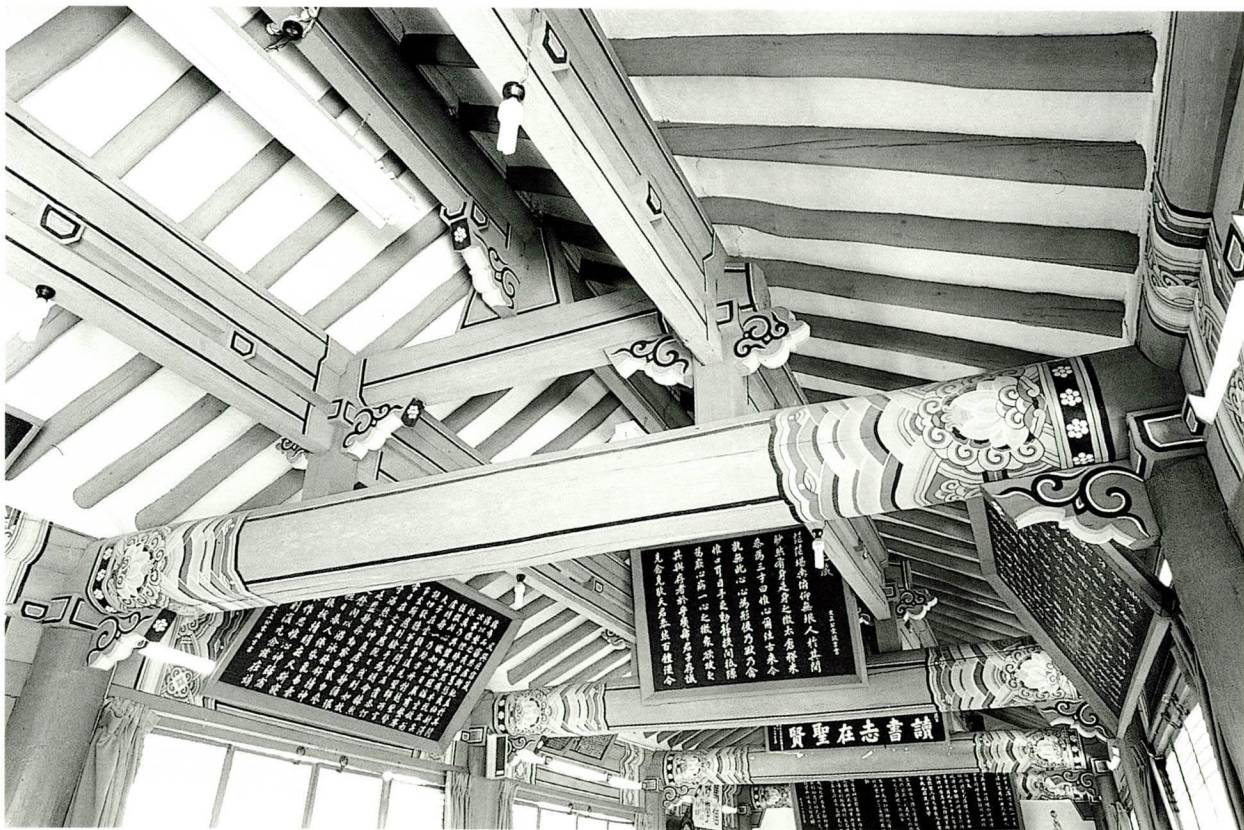
◀ 명륜당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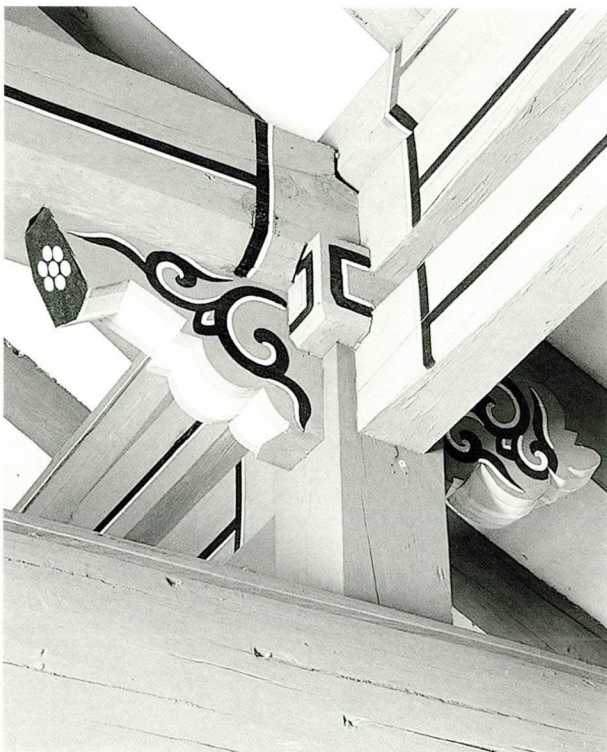
◀ 명륜당 전면 주상포



◀ 명륜당 전면 초석



▲ 명륜당 내부 가구



▲ 명륜당 내부 종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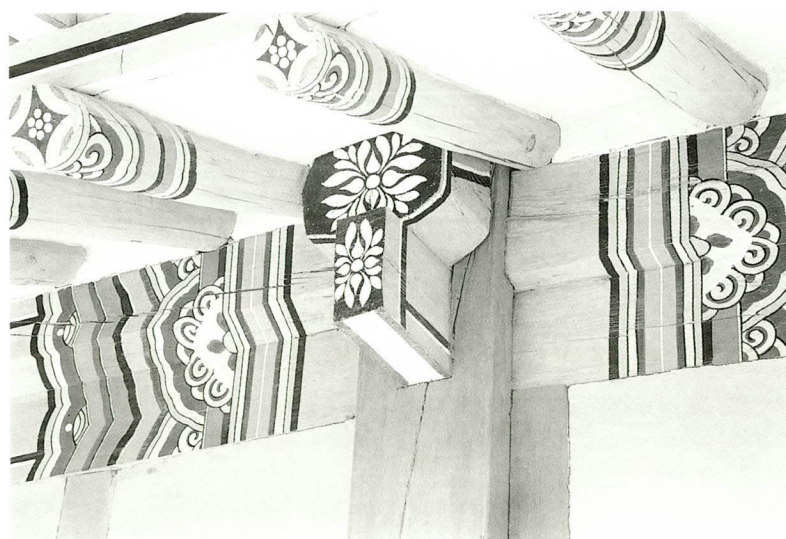
▲ 명륜당 내부 종대공



◀ 동무



◀ 서무



◀ 서무 전면 주상부 짜임



◀ 직청



◀ 동재



◀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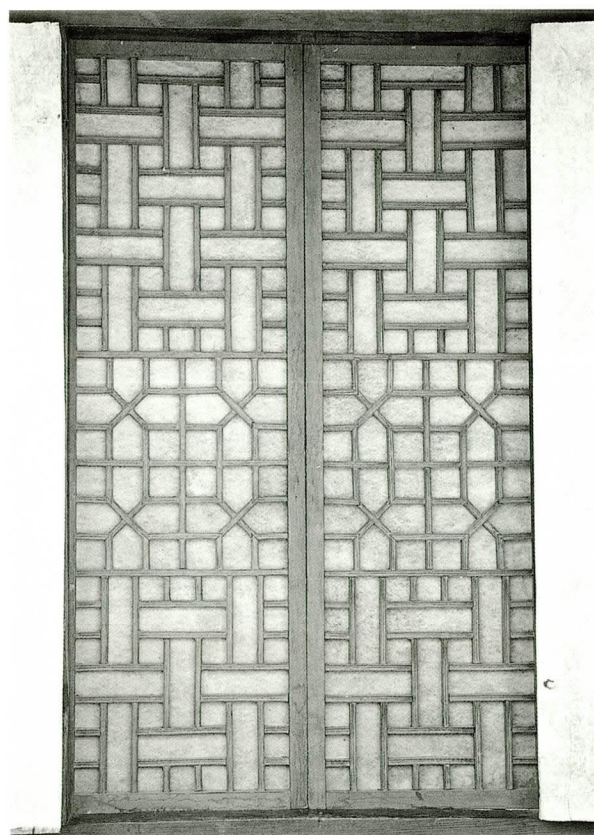
▲ 숙청재



▲ 숙청재 현판



▲ 숙청재 전면 주상부 짜임



▲ 숙청재 창호



▲ 장경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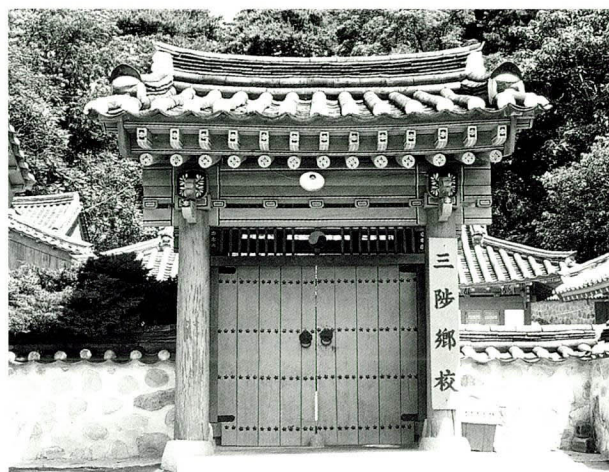
▲ 망례위



▲ 내삼문



▲ 관세위



▲ 외문



▲ 동재 앞 석물

3. 양양향교(襄陽鄉校)

- 지정사항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5호(일괄지정)
- 지정일 : 1985년 1월 17일
-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297
- 건축구성 :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동재, 서재, 내삼문, 교직사, 홍살문, 화장실

지형도



1. 연혁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서쪽 1km에 위치하고 있다. 양양군은 원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으로, 신라 대에 익령(翼嶺)으로 개칭되어 수성군(守城郡, 현 간성군)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 대에 현령을 두고, 중간에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조선시대 초기 태조의 외향(外鄕)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되었다. 태종 13년(1413년)에 도호부로 고쳤으며, 3년 후에 양양(襄陽)으로 개칭하였다. 고종 32년(1895)에 군(郡)이 되었고, 1921년에 간성군의 남쪽을 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혁에 관한 기록¹⁾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어려우나 남아 있는 자료에 의하면 1490년 강원도 존무사(存撫使)인 안축(安軸)이 부서 쪽 10리의 고익령현(高翼嶺縣) 녹문(鹿門) 북부의 문선왕동에 창건²⁾ 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인조 4년(1626)에 한 차례 중수가 있었으며 숙종 8년(1682)에 부사 최상익(崔商翼)이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 이건 공사는 2년이 걸려 1684년에 완공하였다.

이후의 기록은 명확하지 않고 1950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건물과 관련기록들이 소실되었다. 1952년에 동서재, 1953년에 대성진, 1954년에는 명륜당, 1955년에는 신문을 차례로 중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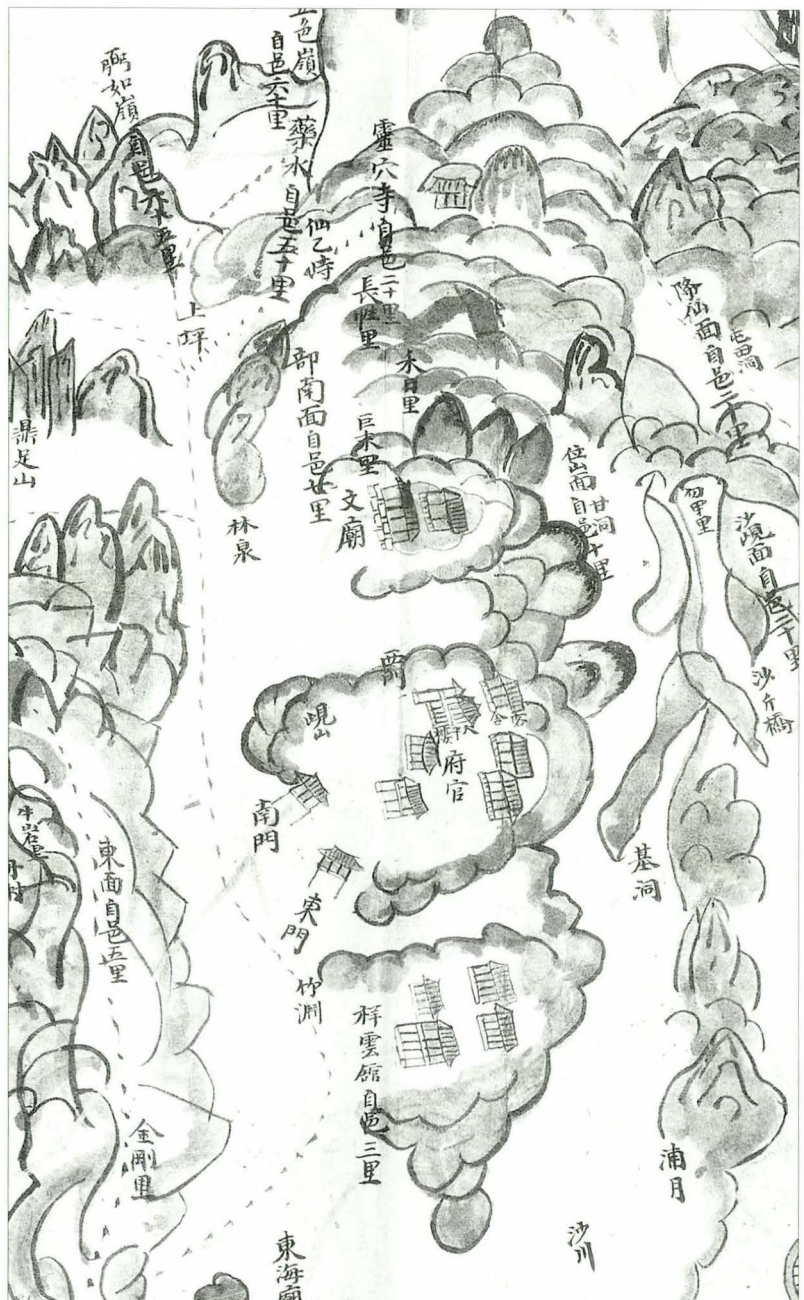
1990년도에는 동서재 보수공사, 1991년도에는 명륜당 보수공사, 1992년도에는 교직사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양양향교는 1985년 1월 27일에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5호로 지정되어 보존하고 있다.

양양향교와 관련한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추정)
1626년	중수
1682년	이건 공사
1950년	한국전쟁 중 소실
1952년	동서재 중건

襄陽邑地圖



1953년	대성전 중건
1954년	명륜당 중건
1955년	신문 중건
1985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5호 지정
1990년	동서재 보수공사
1991년	명륜당 보수공사
1992년	교직사 보수공사

2. 입지 및 배치

양양향교는 경사진 구릉지에 전체적으로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좌우에는 짧은 협곡이 감싸고 있으며 향교가 위치한 곳은 그 가운데 구릉지이다.

향교 전면의 홍살문을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면 전면에 세로 긴 형태의 명륜당이 시야를 막고 서 있다. 양양향교에는 현재 외삼문이 없다. 향교 전체의 영역은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영역과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향영역을 석축을 쌓아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명륜당 어칸 하부에 난 공간을 지나면 계단을 올라서면 동서재가 자리하고 있는 영역이 전개된다. 동서재는 명륜당의 마당을 사이에 두고 좌우 대칭으로 마주보고 있다. 동재의 동편에는 교직사가 배치되어 있다. 서재 서편에는 변소가 설치되어 있다.

명륜당 마당과 대성전 마당은 레벨차이가 있는데 이를 석축으로 쌓고 계단을 2기 설치하여 연결하고 있다. 내삼문을 지나 대성전이 놓여 있다. 전면 마당 좌우에는 동서무가 있다.

전체적으로 명륜당, 대성전이 직선축선상에 놓여 있으며 강학공간이 전면에 제향공간이 뒤에 위치하는 '전학후묘' 방식의 배치 형식을 하고 있다.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향영역이 전면의 명륜당 중심의 강학영역에 비하여 가로가 넓은 모습을 하고 있다. 즉 명륜당 주변은 세장하여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나 대성전 주변에서는 가로로 넓어져 공간의 깊이감보다는 수평적으로 확대된 느낌을 주는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에 규모로 전면 1칸은 벽체 없이 퇴로 개방되어 있다.

기단은 장대석을 세벌대로 쌓았으며 계단을 2기 두었다. 기단 상부에는 전돌을 깔았으며 초석은 덩벙주초이다. 건물 내에는 전돌을 깔고 공자를 비롯한 5성과 공문십철, 송조육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공자 위패 주변은 별도로 장막을 설치하여 구분하고 있다.

기둥은 향교 내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건물임을 감안하여 원주를 사용하였으며 그 상부에 이익공의 공포를 얹었다. 익공은 양서와 수서의 끝을 연화로 장식한 형태로 마치 집계발과 같은 모습으로 수서 위에는 봉황두로

장식하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익공에서 많이 변형된 후기적인 것이다.

전면 어칸에는 4분합의 세살문과 상부의 고창, 양퇴칸에는 2짝의 세살문과 1짝의 고창을 달았다. 나머지 벽체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지붕가구는 5량가로 어칸과 측벽은 모두 전퇴무고주형식이다. 대성전가구에서 특이한 점은 평주와 헛기둥 높이를 같도록 하여 헛기둥과 평주 사이는 수장재 단면의 부재를 사용하여 결구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중도리와 헛기둥의 위치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측면에서는 평주 사이에 2개의 헛기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도리와 일치하지 않게 설치하고 있다.

지붕은 일반 대성전과 같은 맞배지붕에 측면 풍관을 달았다. 처마는 홑처마이며 막새 없이 아귀토 마감을 하였다. 단청은 머리초를 사용한 모로단청방식이다. 현재의 건물은 1953년도에 중건한 것이다³⁾. 이후 1986년 병인년에 중수한 상량문이 부재에 묵서⁴⁾로 기록되어 있다.

(2) 동서무(東西廡)

동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규모로 전면 반 칸은 벽체 없이 개방하였다. 건물 내에는 해동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건물은 자연석 기단 위에 덩병주초를 사용하여 건립하였다. 기둥은 각주이며 공포는 생략한 간략한 형식이다. 전면 벽체에는 매 칸마다 2짝씩의 세살문을 달았다. 지붕가구는 5량가 이중량 형식이다. 어칸에서는 대들보가 연장되어 툇보 형식으로 평주와 결구된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나 측면에는 풍관을 생략하였다. 처마는 홑처마이며 단청은 굿기단청 방식으로 소박하게 처리하였다.

동서무는 1952년에 중건하였고, 현재의 건물은 1988년에 중건한 것으로 상량 기록이 묵서⁵⁾로 남아 있다.

(3)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장대석과 막돌을 쌓아 만든 2중 기단 위에 2기의 계단을 두고 건립하였다. 내삼문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이다. 내삼문의 동편에는 사방 단칸의 문채를 부가하여 일상의 출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내삼문에는 단기 4288년(1955)년에 건립한 내용이 묵서로 기록되어 있다.

초석은 덩병주초이며 기둥은 방형 단면의 각주이다. 기둥머리는 공포 없이 사괘맞춤으로 처리하였다. 문은 판장문으로 평면의 중앙에 설치하지 않고 전면에 설치하였다. 지붕가구는 3량가 단량보로 지붕은 가운데가 높고 좌우가 낮은 솟을지붕 형식이다. 부가된 문채는 맞배지붕으로 처리하였다. 처마는 홑처마이며 단청은 굿기단청으로 판장문에는 태극문양을 배필었다.

나. 강학영역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세장한 평면의 건물로 강릉향교 명륜당과 같은 누각을 연상하게 하나 실제로 장대석을 5벌대로 쌓은 기단 위에 축조한 단층건물이다. 그러나 어칸의 주칸 길이는 다른 칸보다 길게 설정하고 누하진입이 가능하도록 기단을 쌓지 않고 개방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954년에 중건하였으며 1991년에 보수를 한 바 있다.⁶⁾

초석은 덩병주초형식이며 기둥은 방형 단면의 것을 사용하였다. 기둥 위에는 공포를 생략하고 보머리 하부는

보아지를 직절하여 간략히 마무리하였다. 전면 벽체는 하부에 머름을 대고 상부에 2짝씩의 판장문을 대고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반면에 후면벽체는 전체적으로 머름을 생략하였으며 퇴칸을 제외한 나머지 칸은 2짝씩의 세살창을 두었으며 퇴칸은 창호 없이 회사벽으로 마무리하였다. 측면은 전체를 회사벽으로 처리하고 풍판을 두었다.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지붕가구는 어간은 5량가 이중량 형식이며 측면은 분심5량가 이중량 형식으로 결구하였다. 대들보와 종보, 종보와 종도리는 동자주로 연결하였는데 흰 곡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내부가구에서 특이한 점은 맞배지붕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충량을 사용한 점이다. 천장은 서까래가 그대로 드러나는 연등천장 방식이다. 홑처마 방식을 채용하였으며 유교건축의 소박한 격식에 맞추어 막새를 사용하지 않았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마감하고 단청은 굿기단청이다.

(2) 동서재(東西齋)

동서재는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로 퇴칸은 온돌방과 마루가 1칸씩 배치되어 있다. 중앙 2칸은 온돌방이나 전면 반 칸은 뒷마루를 설치하였다. 현재 건물은 1952년에 중건한 것이다.

건물은 막돌 기단 위에 건립하고 덩벙주초를 사용하였다. 기둥은 각주이며 공포는 없다. 지붕가구는 3량가 단일량 형식으로 대들보와 종도리는 동자주로 연결하였다. 중앙 2칸에는 2짝씩의 세살문을, 퇴칸에는 2짝의 세살창을 달았다. 지붕은 홑처마이며 맞배지붕으로 마감하였다. 기와는 부속건물의 성격에 맞도록 아귀토로 마감하고 단청은 굿기단청으로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다. 기타

교직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자연석 막돌 기단 위에 건립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한국전쟁 이후에 신축한 것이며 1992년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초석은 덩벙주초이며 기둥은 각주를 사용한 교직사 기능의 건물이다. 기둥 상부는 사괘맞춤으로 간략히 결구하였다. 지붕가구는 3량가 단일량 형식이며 지붕은 맞배로 처리하였다.

1) 향교 내에는 〈創建記〉, 〈移建文〉, 〈李敏記〉, 〈襄陽鄉校重建記〉 등 4종 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2) 1490년 안축에 의한 창건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존무사란 관직은 없었고 〈창건기〉의 근제 안축은 고려의 문신으로 1287-1348년에 생존한 인물이다. 따라서 창건연혁은 오기이다. 江原道, 『江原道鄉校書院寺刹誌』, 1992 : 171쪽

3) 〈襄陽鄉校重建記〉 ‘孔夫子誕降二千五百七年四年 檀紀四二八七年’

4) 목서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孔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七年歲次丙寅六月初三日甲寅未時重修上樑’

5) ‘龍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九年 戊辰七月十四日 壬子立柱 七月十九日 丁巳 上樑 龜’

6) 명륜당 내부 협칸 종도리 장혀 측면에는 한지 바탕에 ‘都片手成俊慶 副片手李正燮’이라고 써 붙여 놓은 기록이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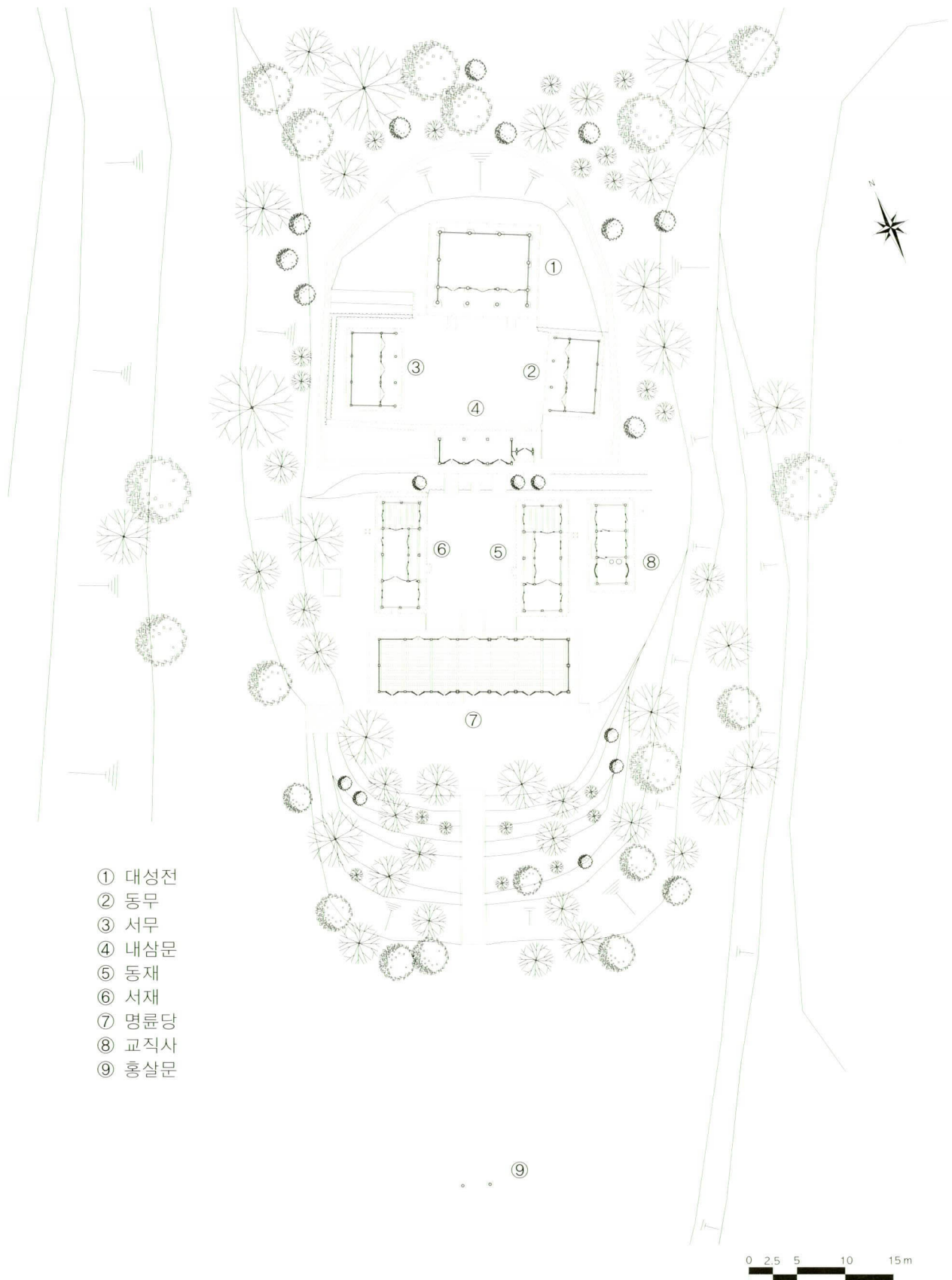
지정명칭	양양향교(襄陽鄕校)	지정현황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5호 (일괄지정)
창건시기	조선 초(추정)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서향 (대성전 S25°W)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堂後齋 종축 1개
중건시기	1682년 이건 1952~54년 일괄 중건	대지조성	3단 : 명륜당 전면,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 宋朝 6賢 / 孔門 10哲 (대성전 배향) 海東 18賢(동서무 배향)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교직사 / 홍살문 / 화장실		
특기사항	강학영역은 둘러싸는 담이 없으나 높이 솟은 구릉지인 지형을 이용하여 자연스레 영역이 형성됨		

대성전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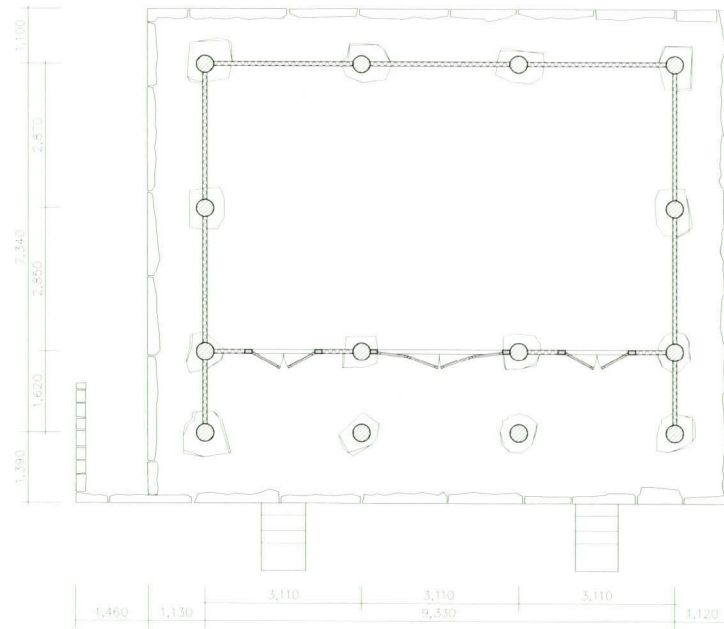
개 요	3×3칸, 전1퇴칸 / 이익공 / 홀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전돌바닥 / 연등천장 주고 2900 / 주칸 3120 / 수장폭 80 / 도리단면 $\phi=150$ / 보단면 : 대들보 360×330, 종보 240×270 주심처마길이 1450 / 기단높이 : 전면 1100, 측면 220~900, 후면 200 / 초석크기 600~800×500~900		
기단계단	단층기단 / 세벌대 / 장대석 바른총쌓기 전면 2개(4단)	보	대들보 : 전헛기둥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덤병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phi=35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동자주
공 포	이익공	창 방	방형 / 뿔목 초각
처 마	홀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붓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판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전돌바닥		
특기사항	종도리 장혀 하부 상량 목서명 기록 있음 고주 대신 헛기둥을 평주와 같은 높이로 사용하여 대들보와 뒷보를 걸구하였음 측벽에서는 전후 평주 사이에 2개의 헛기둥을 사용하였음에도 종도리 위치가 엇갈림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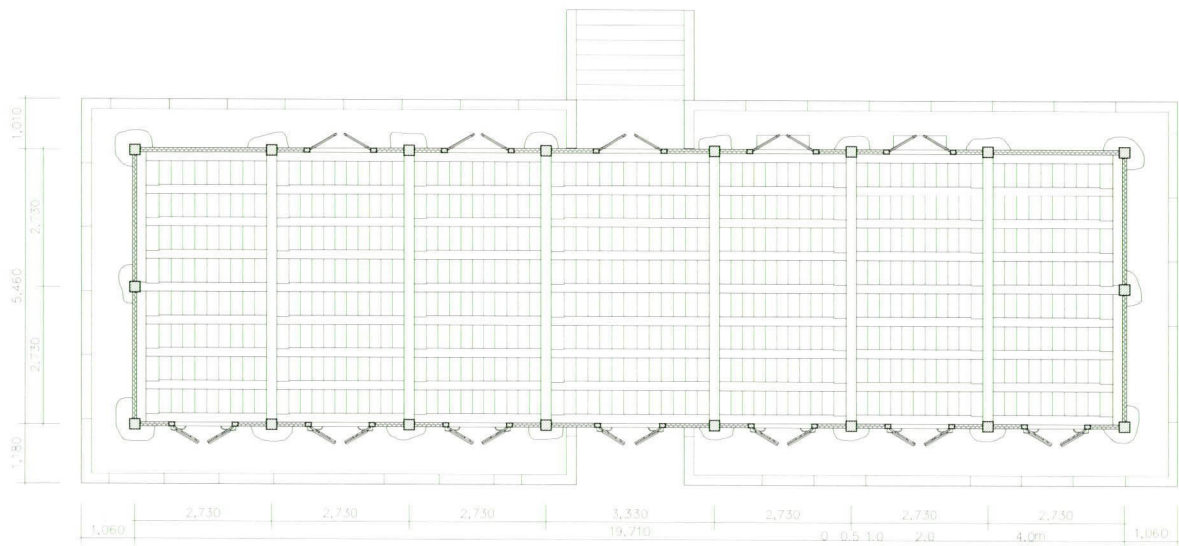
개 요	7×2칸 / 민도리 / 홀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 주고 2840 / 주칸 어칸 3330, 기타 2730 / 수장폭 80 / 도리단면 $\phi=210$ 보단면 : 대들보 330×330, 종보 300×300 주심처마길이 1530 / 기단높이 : 전면 1500, 후면 220 / 초석크기 450~700×600~950		
기단계단	단층기단 / 5벌대 / 장대석 바른총쌓기 전면 1개(6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병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방형기둥 200×20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동자주
공 포	없음	창 방	없음
처 마	홀처마 / 서까래단부 직절	지 붓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굿기단청 / 연등천장 / 우물마루		
특기사항	명륜당은 단층 건물이나 어칸 하부를 개방하고 높은 기단을 이용하여 누하진입을 이루고 있음 좌우 측면 장혀뿔목 하단에 보아지형 초각재 걸구 맞배지붕 건물이면서도 총량 사용		



배치도



대성전 평면도



명륜당 평면도





▲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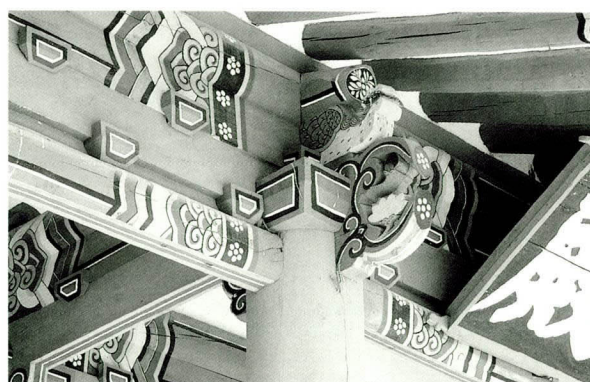
▲ 대성전 내부



▲ 대성전 전면 어칸



▲ 대성전 현판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전면 퇴칸 초석



▲ 대성전 내부 가구



▲ 대성전 전면 퇴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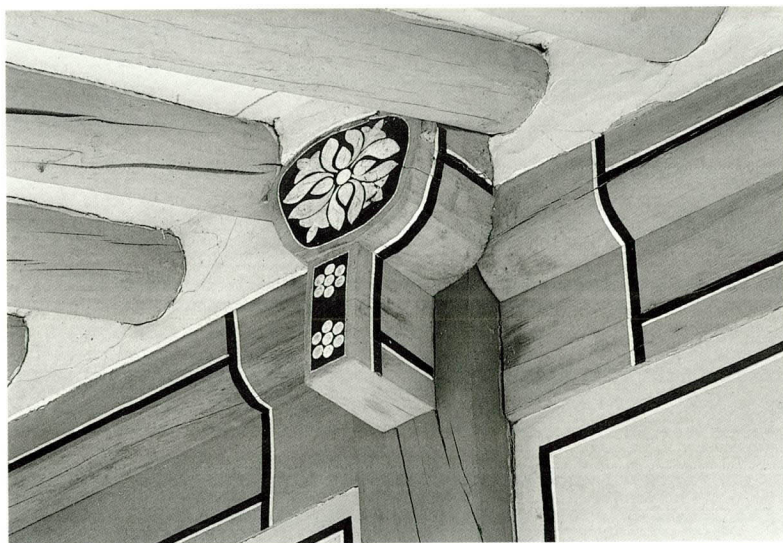
▲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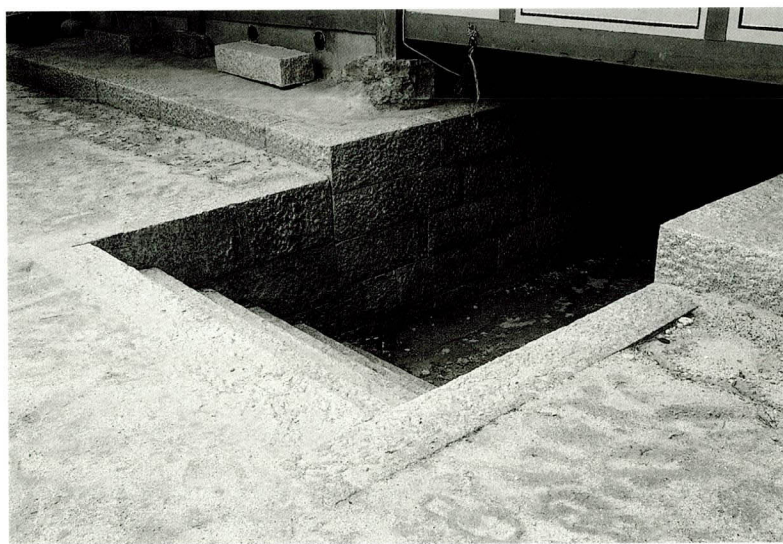
▲ 명륜당 내부



◀ 명륜당 현판



◀ 명륜당 전면 주상부 짜임



◀ 명륜당 중앙 하부 계단



▲ 명륜당 내부 어칸 기구



▲ 명륜당 내부 퇴칸 가구



◀ 동무



◀ 서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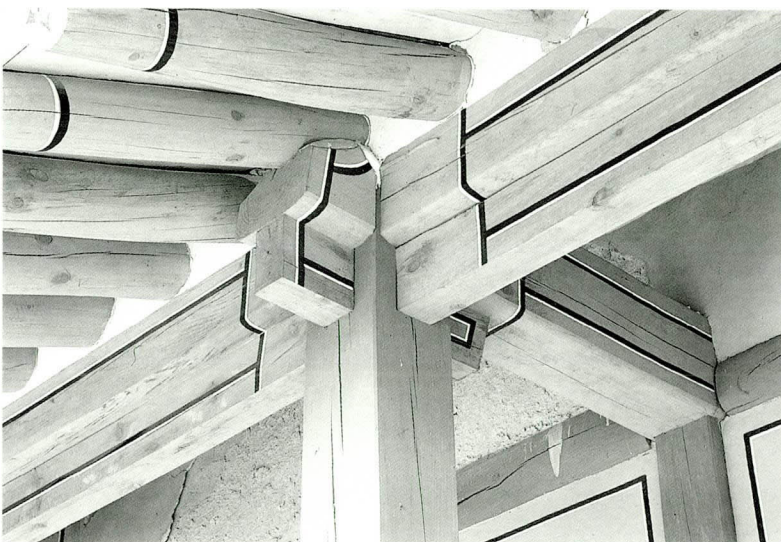
◀ 서무 내부



◀ 동재



◀ 서재



◀ 서재 전면 주상부 짜임



◀ 내삼문



◀ 내삼문 어칸 가구



◀ 홍살문



◀ 대성전 측면



◀ 강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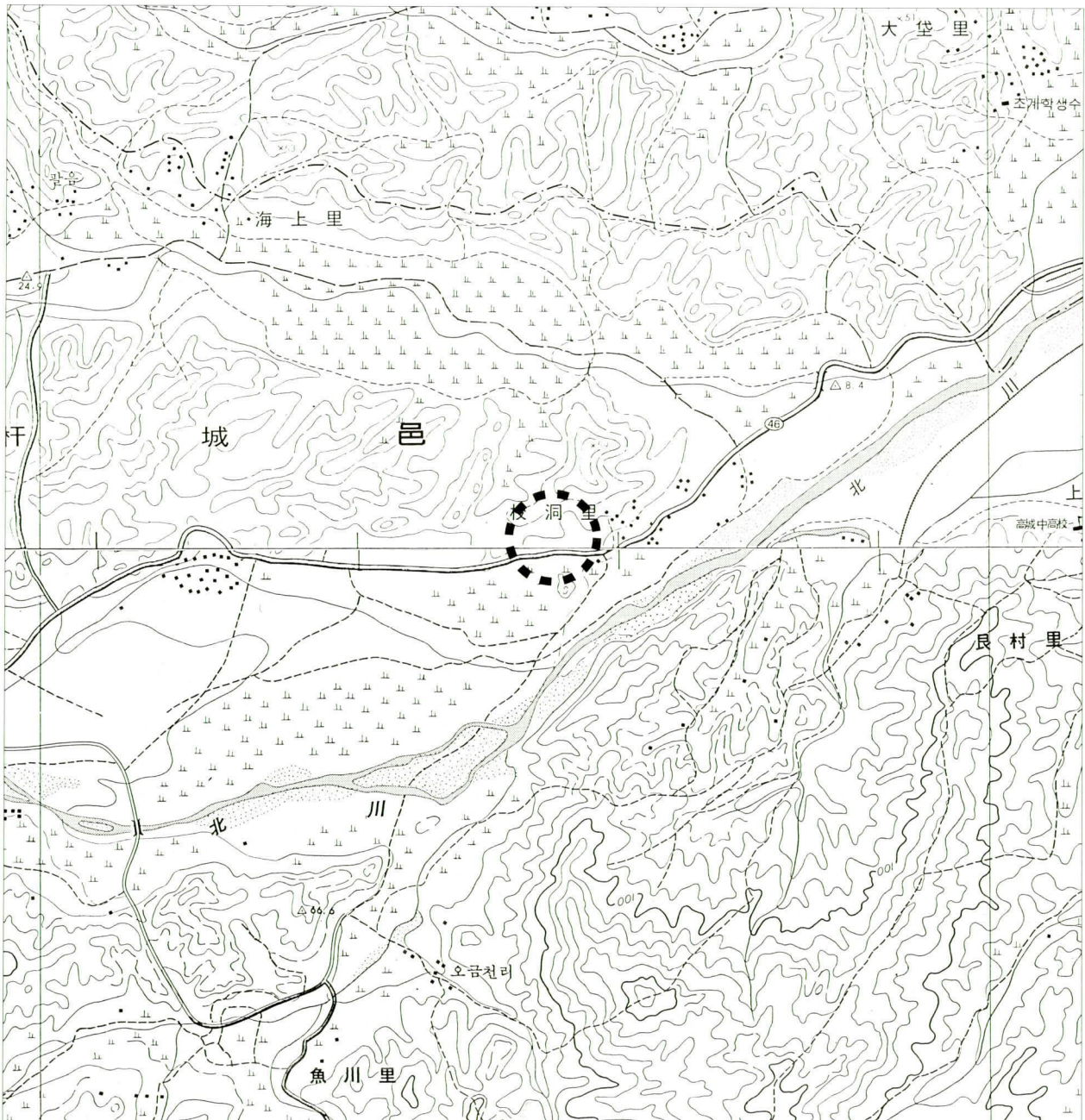


◀ 명륜당 어칸 진입

4. 간성향교(杆城鄕校)

- 지정사항 : 문화재자료 제 104호(일괄지정)
- 지 정 일 : 1985년 1월 17일
- 소 재 지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리 664
- 건축구성 :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화장실, 묘정비, 협문 2

지형도



1. 연혁

간성향교는 고성군 간성을 교리에 위치하고 있다. 고성군은 1914년 간성군과 고성군이 합쳐지고 1919년 고성군으로 개칭하였으나 현재는 휴전선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북한지역에는 고성향교가 있으며 남쪽에 있는 향교는 원래 조선조 간성군에 있던 간성향교이다.

간성향교의 창건에 대한 연혁은 문헌기록³⁾이 확실치 않다. 다만 간성향교지에 의하면 조선조 세종 2년(1420) 성북(城北) 용연동(龍淵洞)(현 간성읍(杆城邑) 상리(上里)) 쇠룽골에서 창건되었으며 이후 풍수설에 따라 대대방(大垓坊) 방축동(防築洞)으로 옮겼다고 하나 그 연대는 확실치 않다. 명종 1년(1546)에 군수 함현(咸軒)이 기지가 좁아 감상방(淦上坊) 정축화동으로 다시 이전²⁾하였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 시 왜군의 방화에 의하여 교궁이 소실되었다. 이듬해인 1593년 10월에 대성전 중간에 착수하여 그 다음해 2월에 중건,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³⁾을 하였다. 1631년에는 양사재를 창건하였다. 그후 효종 4년(1653년)에 군수 조흡(趙滄)이 전무(殿廡)를 중수⁴⁾하였다.

영조 36년(1760)에 군수 신간(申諫)이 향교가 협소함을 이유로 규봉산(圭峰山) 아래의 현 명륜당 위치로 이전⁵⁾ 하였다. 정조 11년(1787)에 군수 이최원(李最源)이 대성전을, 정조 19년(1795)에는 군수 김계겸(金啓謙)이 대성전과 동서무를 보수하였다. 현종 6년(1840)에는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고종 9년(1872)에 군수 김조헌(金祖憲)이 대성전, 동서무, 신문, 취음청(炊飮廳)을 상단으로 고종 11년(1874)에 군수 민종수(閔鍾洙)가 명륜당을 대성전 자리로 옮겨 현재와 같은 배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근대에 들어서 1950년 한국 전쟁으로 향교가 다시 소실되는 비

杆城地圖



운을 맞게 되었다. 이후 1956년에 대성전, 동서재, 신문을 1961년에는 명륜당⁶⁾, 1967년 동서무, 1968년에는 서재를 재건하였다. 이후 80년대에 들어 1982년에는 외삼문⁷⁾, 1984년 서무, 1986년 동무⁸⁾, 1988년 대성전⁹⁾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5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 104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간성향교의 창건 이후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20년	창건
1546년	교동리 척축화동 이건
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
1953~4년	중건
1631년	양사재 건립
1653년	전무(殿廡) 중수
1760년	규봉산 아래로 이건
1787년	대성전 중수
1795년	대성전, 동서무 보수
1840년	명륜당 중수
1872~1874년	배치 변경
1950년	한국전쟁으로 소실
1956년	대성전, 동서재, 신문 재건
1961년	명륜당 재건
1967년	동서무 재건
1968년	서재 중건
1982년	외삼문 건립
1986년	동무 해체복원
1988년	대성전 해체복원
1991년	명륜당, 서무, 내삼문 보수
1993년	동래문, 동정문, 동하문 복원, 담장 보수
1995년	외삼문 해체변화, 대성전 기와고르기, 내삼문 보수
1998년	내삼문 단청, 명륜당 기단 보수, 마당 포장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동서재, 동서무, 명륜당, 변소 등의 건물 6동과 대성문, 외삼문, 동래문, 동정문, 동하문 등의 5동의 문이 남아 있다. 현재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향교의 연혁 등을 알 수 있는 문헌들이 대부분 소실되어 간성향교기적비명(刊城鄉校紀蹟碑銘), 향교신기서(鄉校新基序), 간성향교이건본관정문(刊城鄉校移建本官呈文)등과 약간의 답문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2. 입지 및 배치

간성향교는 간성읍에서 진부령 고개 방면의 구봉산 아래 나지막한 구릉지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전면에는 간성천이 흐르고, 동측으로는 동해가, 서측에는 설악산과 향로봉이 놓여 있다. 인제에서 간성 방향으로 46번 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간성에 못미쳐 약 4km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향교의 원래 전묘후학형식이었으나 1872-1874년 대성전과 명륜당 등의 위치를 바꾸어 현재와 같은 전학후묘형식의 배치로 바뀌었다. 당시의 향교는 대성전 10칸, 명륜당 8칸, 동서무 6칸, 신문 5칸, 취음청 3칸의 규모였다.

현재 향교 입구 길 건너편에는 비석군이 있고, 길을 건너 전면에 놓인 돌계단을 올라서면 외삼문이 놓여 있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경사지에 크게 3개의 단을 만들어 건물들을 배치하고 있다. 첫째단에는 좌측에는 변소, 우측에는 <공부자묘정비>가 놓여 있다. 이 마당은 좌우의 크기가 달라 우측이 큰 불균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단은 다시 명륜당이 놓인 공간과 동서재가 놓인 영역이 작은 석축으로 구분되어 있다. 명륜당과 외삼문은 직선 축선상에 있다. 경사를 이용하여 누각으로 지어진 명륜당 누하를 통과하여 마당에 오르면 좌우에 동서재가 놓여 있다. 서재 남쪽에는 과거 장의실(掌議室)이 있었던 곳이다. 동재 우측에는 담으로 구획된 영역이 부가되어 있는데 과거 수복실, 창고 등의 건물이 놓여 있던 곳이다. 이곳과 명륜당 영역은 동래문(東來門)으로 연결된다. 동래문과 명륜당 사이에는 과거 전교실(典教室)이 있었다. 세번째단에는 내삼문이 놓여 있으며 여기를 통과하면 대성전이 놓여 있다. 대성전은 명륜당을 잇는 직선축선상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자리하였다. 대성전 마당 좌우에는 동서무가 놓여 있다. 대성전의 원편 뒤쪽에는 망료위가 자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지에 놓여 있는 간성향교는 외삼문, 명륜당, 내삼문과 대성전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전학후묘의 배치형식이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전면 1칸은 퇴로 개방한 익공계 맞배지붕 형식이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聖과 宋朝 6賢, 孔門十哲을 봉안하고 있다. 간성향교는 조선조 고종 이래 중설위(中設位)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대성전은 한국전쟁으로 소실한 것을 1956년 중건하였으나 1988년 다시 개건¹⁰⁾한 건물이다.

전면 기단은 지대석 위에 두터운 장대석을 한 벌 놓고 상부를 다시 갑석으로 마감한 격식을 갖춘 형식으로 오래된 것이나 측면과 후면은 최근에 새로이 축조하였다. 기단 상면은 전돌로 마감하였으며 기단 전면에는 화강석 계단 3기를 설치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을 원형과 유사하게 다듬은 것과 그대로 사용한 2가지 종류의 것을 사용하였다. 정면 5칸은 대성전 건물로는 비교적 큰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중설위에 맞추어 건물규모를 설정한 결과로 보인다. 주간은 전면은 어칸과 다른 칸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측면 주간길어도 같이 설정하였다. 바닥에는 전을 깔고 공자를 비롯한 위패를 봉안하였다. 공자를 비롯한 5聖의 위패는 어칸에 ‘ㄷ’자형으로 놓았으며 양측면 벽체

에 단을 마련하여 나머지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기둥은 원형기둥을 사용하였는데 약한 민흘림을 두어 치목하였다. 전면 퇴칸에는 고주를 사용하여 평주와 퇴보로 연결하였다. 양측면에는 종량 높이의 고주 2개를 사용하여 결구하는 등 맞배집의 일반적인 가구방식을 따르고 있다.

벽체는 전면을 제외한 양측면과 후면을 화방벽으로 마감하지 않고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전면 퇴칸에 면하는 벽체는 중방 높이까지 회사벽으로 마감하였으나 그 상부는 개방한 점이 독특하다. 전면 벽체는 여칸과 양협칸은 두 짝의 정자살 분합문을 두었으며 양퇴칸은 정자살의 들창을 1짝씩 달았다. 대성전은 평소에는 개방하지 않고 제례 시 개방하는 건물로 종묘와 같이 판문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성향교의 경우 정자살 문을 달아 일반건물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규모에 비해 입면 높이가 높지 않아 수평성이 강조된다.

기둥 상부는 익공계 가구방식에 맞추어 창방으로 결구하였다. 익공은 주두 위에 조각한 보머리를 얹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랐으며 기둥 사이 창방 위에는 화반 대신 소로를 얹었다.

지붕가구는 여칸에서는 전퇴이중량방식, 측벽에서는 분심2고주방식으로 결구하는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구하였다. 대들보는 후면 평주에 놓여 전면 고주에 장부구멍을 파고 끼워 놓은 형식으로 결구하였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를 두고 종량을 얹었다. 종량과 종도리는 판대공의 간략한 방식으로 연결하였다. 천장은 서까래가 드러나는 연등천장방식이다.

지붕은 부연을 생략한 홑처마이며 측면에는 방풍판을 붙였다. 기와는 막새를 사용하였으며 마루에는 양성을 사용하지 않고 부고와 착고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감하였다.

단청은 도리, 보 등의 단부에 연화머리초를 배푼 모로단청이다.

(2) 동서무(東西廡)

동서무는 1967년에 재건하였으나 동무는 1968년도에 다시 해체, 복원하였으며 서무는 1991년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동서무에는 해동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동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에 전면 퇴칸을 부가한 규모이다. 전면 퇴칸은 개방된 형태로 향교건축에서 보이는 전형적 유형을 따르고 있다. 건물은 자연석 단층기단 위에 건립하였는데 초석은 덩병주초이다. 기둥은 부속 건물의 성격에 맞게 방주를 사용하고 공포는 생략하였다. 벽체는 화사벽으로 처리하였으나 전면 매칸에는 대성전과 같이 2짝씩의 세살문을 달았다. 전면 퇴칸의 측면벽체는 대성전과 같이 중방 상부는 개방하고 하부는 회사벽으로 막은 형태이다. 지붕가구는 3량가 단일보이며 처마는 홑처마이다. 기와는 막새를 생략하고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단청은 중요부재에 머리초를 넣은 모로단청방식이다.

(3)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1956년에 재건한 건물로 1995년 보수, 1998년 단청공사를 한바 있다. 정면 7칸 측면 1칸으로 중앙의 3칸에 정면 2칸의 부속채가 좌우에 부가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보통 내삼문은 정면3칸 규모이나 여기서 좌우에 행랑채와 같이 부가되어 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중앙 3칸은 거칠게 다듬은 화강석을 3단으로 축조한 기단 위에 건립하였다. 기단에는 계단이 3곳에 설치하였는데 중앙과 좌우 부속채에 맞도록 위치를 설정하였다. 초석은 덩병주초이며 원형기둥을 사용하였으나 좌우 부속채는 방형기둥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기둥 위에는 연화로 장식한 양서, 수서를 겹쳐 놓은 형태의 시기가

떨어지는 익공을 사용하였다. 지붕가구는 3량가 단량보이다. 측면 중앙에는 방주를 놓아 2짝씩의 판문을 받도록 하였다. 처마는 홑처마이며 막새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단청은 간략한 모로단청을 사용하였다.

부속채는 1칸은 출입용으로 1짝의 커다란 판문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한 칸은 바닥에 마루를 설치한 창고이다. 부속채도 지붕가구는 3량가 단량보이다. 중앙문간채와 부속채의 지붕은 모두 맞배지붕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 마치 솟을대문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나. 강학영역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1961년에 중건하고 1991년에 보수하였다. 건물은 하부 기둥부분이 개방된 누각의 독특한 건축유형을 하고 있다. 명륜당은 강학 공간 마련을 위해 축조한 곳으로 단층건물이 일반적인 건축유형이나 독특하게 누각으로 건립하였다. 명륜당을 누각으로 건립한 사례는 강릉 향교, 전남 옥곡향교 등이 있다.

명륜당에 출입하는 방식은 외부 계단이 아닌 경복궁 경회루, 서울 남대문과 같은 문루건축과 같이 평면 내부에 마련된 계단을 통하는 방식으로 바닥은 마루로 마감하였다. 다른 향교의 명륜당에는 교원을 위한 온돌방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기단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야트막한 기단이다. 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이며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하부 기둥은 벽체를 막지 않고 개방하여 누하진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하부 기둥의 상부에는 귀틀을 엮어 그 사이에 마루판을 얹었다. 상부 기둥 역시 방형 단면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상부에는 공포를 사용하지 않은 간략한 형식이다. 벽체는 전체적으로 회사벽이 아닌 판장벽으로 마감하였다. 다만 전면 매칸과 후면 중앙 2칸에는 세살문 2짝을 달았다.

지붕 가구는 5량가로 구성하였다. 어칸에서는 전후면 평주를 연결하는 대들보를 걸고 여기에 동자주와 종보를 얹어 결구하였다. 종보와 종도리 역시 동자주로 결구하고 있다. 맞배지붕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측면 평주에서는 대들보에 충량을 걸었다. 건물 스펠에 비하여 대들보와 종보의 단면이 작아 보이는데 이를 감안하여 평면 전반에 걸쳐 대들보와 도리 사이에 횡가새재를 대어 보강하고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형식으로 서까래가 노출되어 있다.

처마는 모두 홑처마방식이며 지붕은 맞배형식으로 측면에는 풍판을 대었다. 기와는 막새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마루는 부고와 착고를 사용하여 마감하였다.

단청은 대들보, 도리 등 중요부재만 머리초를 넣은 간단한 모로단청으로 마감하였다. 건물전면 중앙에는 명륜당 현판이 걸려 있으며 내부에는 <전무중창기>¹¹⁾, <중수기>¹²⁾, <간성향교외삼문창건기>¹³⁾ 현판이 걸려 있다. 또한 종도리 장혀 하부에는 묵서명¹⁴⁾이 기록되어 있다.

(2) 동서재(東西齋)

동재와 서재는 한국전쟁 후인 1956년 재건하였으며 서재는 1968년 해체, 복원하였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에 전면 뒷마루가 부가된 형태로 전형적인 재사 건축유형이다. 그러나 과거 동서재의 기록을 보면 동서재는 정면 4칸으로 동재는 팔작지붕, 서재는 맞배지붕으로 서로 다른 모습¹⁵⁾을 하고 있었다. 건물은 자연석 단층기단 위에 건립하였는데 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이며 기둥은 방주를 사용하고 공포를 생략한 간략한 모습이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으며 전면 매칸에는 2짝씩의 세살문을, 후면 매칸에는 2짝씩의 정자살창을 달았다. 지붕가구는 1고주5량가이며 지붕은 맞배집이다. 처마는 홑처마로 처리하였다.

(3)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익공계 팔작지붕이다. 매칸에는 2짝씩의 판문을 달았는데 어칸에는 태극문양을 배풀었다. 초석은 원통형의 가공석을 사용하였고 기둥은 원형단면의 것을 사용하였다. 기둥 상부는 건물 전후면으로 창방머리를 짧게 직절하여 내밀고 그 상부에 초각을 한 양서와 수서를 겹쳐 놓아 마치 집게발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주두는 생략하는 등 전형적인 익공과는 많이 변형된 후기의 모습을 보여 준다. 보머리는 직절하고 여기에 봉황두초각을 덧대어 장식하였다.

지붕가구는 5량가로 구성하였는데 대들보와 종보는 받침목으로 결구하였다. 종보 하부는 천장으로 마감하고 그 외진은 연등천장으로 처리하였다. 기와는 막새를 사용하지 않고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단청은 머리초를 사용한 모로단청방식이다. 외삼문은 1982년에 건립하였으며 1995년 보수공사를 한 바 있다.

다. 기타

묘정비는 오석(烏石)으로 만든 것으로 화강석으로 만든 보호책으로 둘러 쳐져 있다.

동래문은 동재 옆에서 명륜당 구역으로 진입하는 곳에 위치하는 문으로 사주문 형태로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동정문과 동하문은 향교 외곽에서 향교구역으로 진입하는 문으로 일각문 형태의 맞배집이다. 이들은 모두 1993년도에 복원하였다.

1) 연혁은 『杆城郷校誌』(간성향교, 1989) 162~171쪽에 정리되어 있음

2) 『邑誌』

3) <杆城郷校重修紀蹟碑銘> '崇禎紀元後三乙丑'

4) <重修記> '順治十年癸巳七月二十八日'

5) <郷校新基序> '英祖己卯菊令朔戊申'

6) <明倫堂重創記> '孔夫子誕降二千五百十五年十月 日'

7) <杆城郷校外三門創建記> '孔子誕降二千五百三十七年丙寅新春下澣'

8) <東齋重建記> '歲孔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七年丙寅九月二十日'

9) <大成殿重建上樑文> '孔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九年 戊辰七月 己亥朔十九日丁巳'

10) 개건은 정면 3칸 규모였던 것을 현재와 같이 정면 5칸으로 확장하였음, 문화재관리국, 『88년도수리공사보고서』, 1990 : 217~223쪽 종도리 장혀 하단에 적힌 상량목서명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 '龍 戊辰五月初三日 壬寅 定礎 七月初七日 乙巳 立柱 七月十九日 丁巳 上樑 龜'

11) 선조 27년(1594)에 찬술

12) '順治十年癸巳年' 즉 명종 2년(1653)에 만든 현판임

13) '孔子紀元二千五百三十七年丙寅年'에 작성한 현판이다.

14) 龍 檀紀四二九四年辛丑二月初六日立柱上樑 應天上之光備入間之衆士 木工 崔同列 崔崗秀 金 九旅 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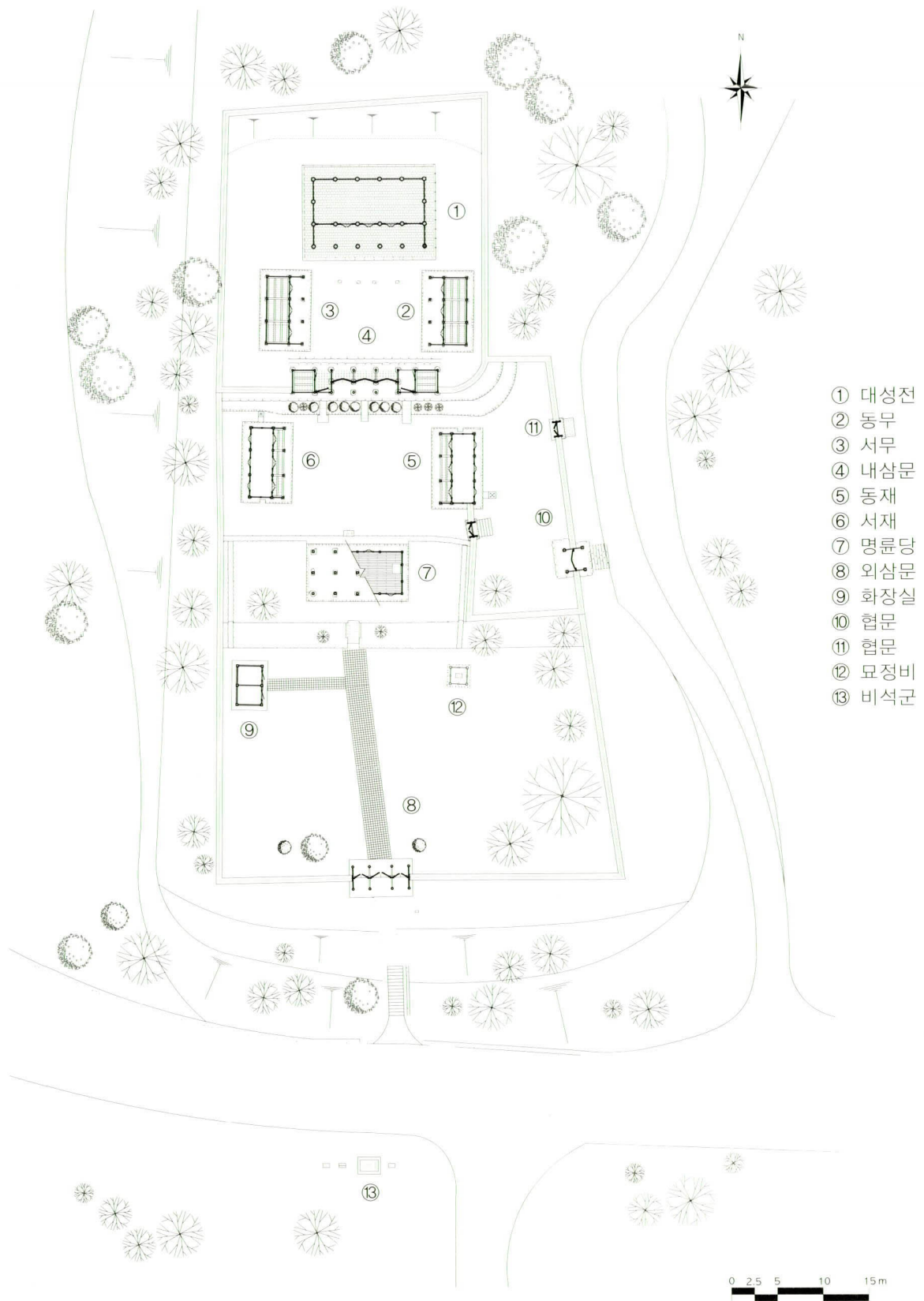
15) 1989년에 발간한 『간성향교지』에 실린 사진에는 동서재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도에 발간한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는 동서재가 동일한 평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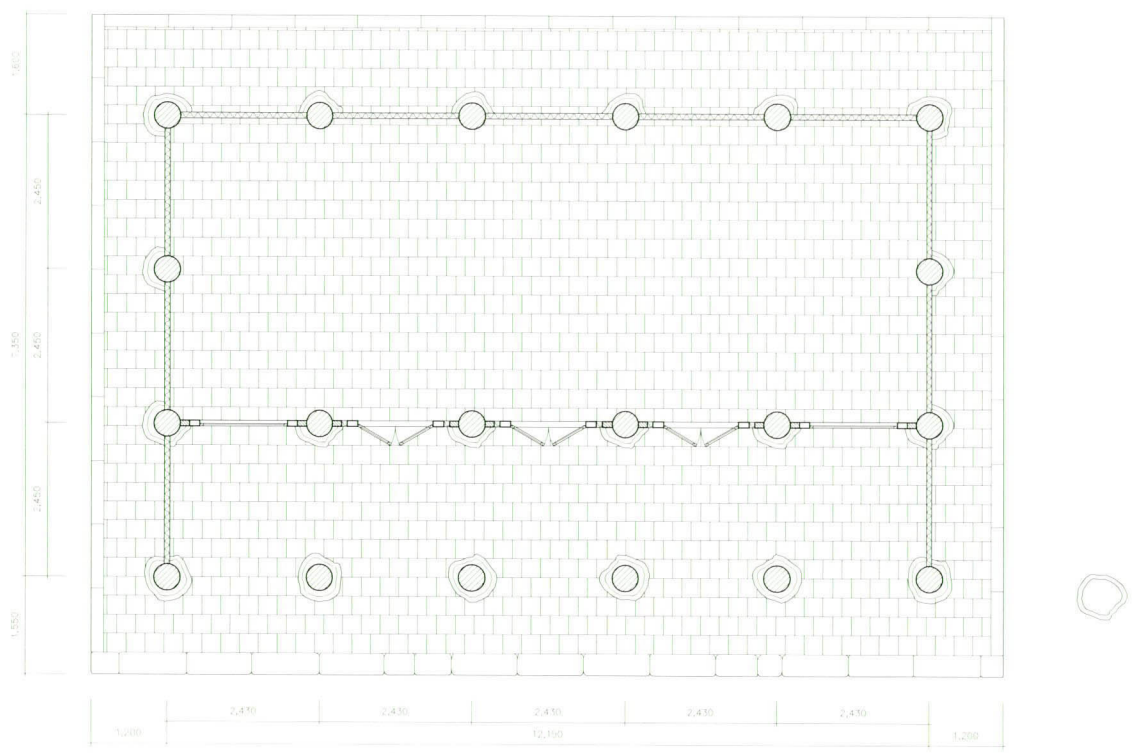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간성향교(杆城鄕校)	지정현황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4호 (일괄지정)
창건시기	조선 세종 2년(1420)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정남향 (대성전 정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堂後齋 종축 1개
중건시기	1760년 이건 및 중창 1956년 일괄 재건	대지조성	3단 : 명륜당,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 宋朝 6賢 / 孔門 10哲 (대성전 배향) 海東 18賢(동서무 배향)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외삼문 / 화장실 / 묘정비 / 협문 2		
특기사항	원래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였으나 19세기 후반 전학후묘의 배치로 바뀜 명륜당을 누각으로 하여 누하진입을 이루고 있음 내삼문을 중심으로 강학영역과 제향영역의 건물 배치가 대칭을 이루고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5×2칸, 전1퇴칸 / 초익공 / 홀처마 맞배지붕 / 1고주 5량가(측벽 2고주) / 전돌바닥 / 연등천장 주고 : 평주 2670, 고주 3560 / 주칸 : 여칸 2460, 협칸 2430 / 수장폭 85 / 도리단면 $\phi=270$ 보단면 : 대들보 420×420, 종보 270×270 / 주심처마길이 1650 기단높이 h=840(전면), 150~200(측후면) / 초석크기 450~750×550~950		
기단계단	단층기단 / 삼벌대 / 장대석 바른총쌓기 전면 3개(4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에 근접
초 석	정평주초 / 가공석+자연석	도 리	5량 / 납도리
기 둥	방형기둥 下 240×240, 上 180×18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동자주
공 포	초익공	창 방	없음
처 마	홀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붐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판벽 / 모로·긋기 단청 / 연등천장 / 장마루		
특기사항	기단 전면 장대석은 구재(舊材)를 사용하였고 좌우측은 신재(新材)를 사용함 대성전 전면에 신관의 위치를 지정하는 표석이 4개 설치되어 있음 종도리 장혀 하부에 상량묵서명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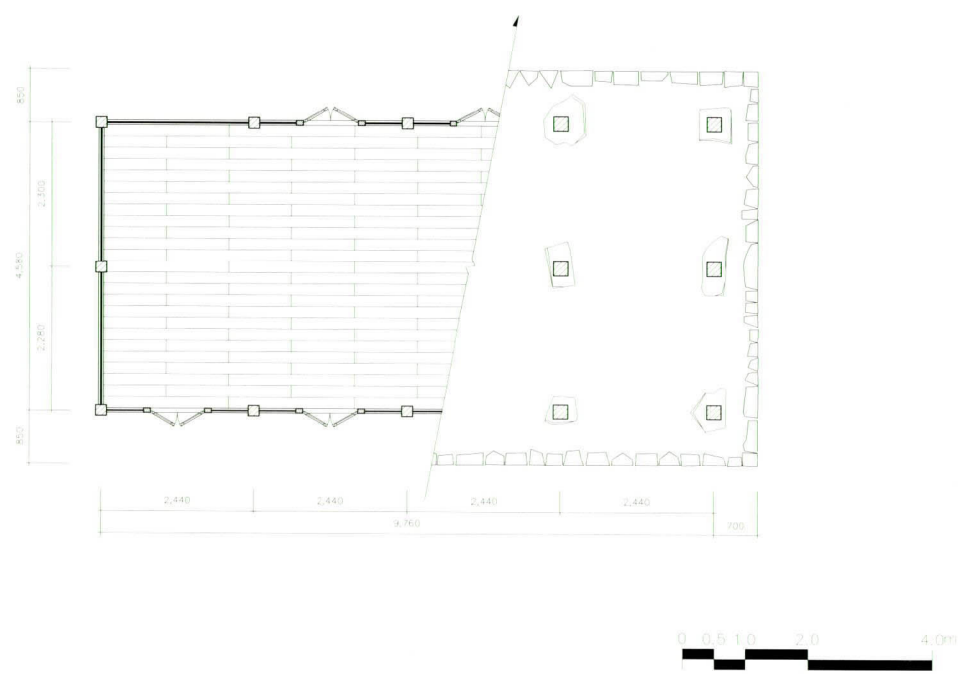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4×2칸, 2층 누각 / 민도리 / 홀처마 맞배지붕 / 무고주 5량가 / 장마루(2층) / 연등천장 주고 : 1층 1810, 2층 1950 / 주칸 : 2440 / 수장폭 85 / 도리단면 120×150 보단면 : 대들보 300×330, 종보 180×240 / 기단높이 h=220 / 초석크기 : 250~700×400~750		
기단계단	단층기단 / 외벌대 / 장대석 바른총쌓기 전면 1개(8단) / 후면 1개(2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에 근접
초 석	덤병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납도리
기 둥	방형기둥 下 240×240, 上 180×18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동자주
공 포	없음	창 방	없음
처 마	홀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붐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판벽 / 모로·긋기 단청 / 연등천장 / 장마루		
특기사항	종도리 하부 상량 묵서명에 묵공 이름 기입됨 내부 가구에서 대들보의 중앙과 도리 중앙을 잇는 횡가새재를 설치함 내부 통칸으로 동서실의 구분이 없음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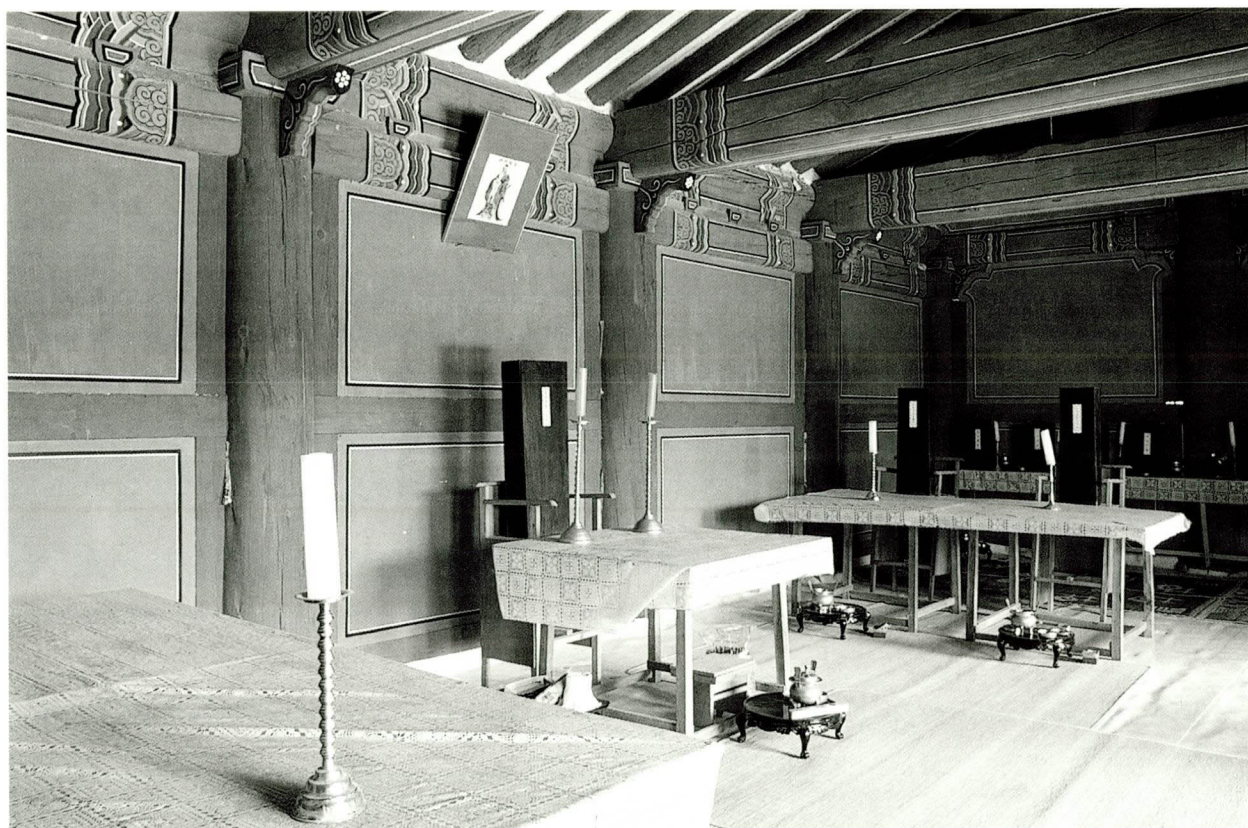
대성전 평면도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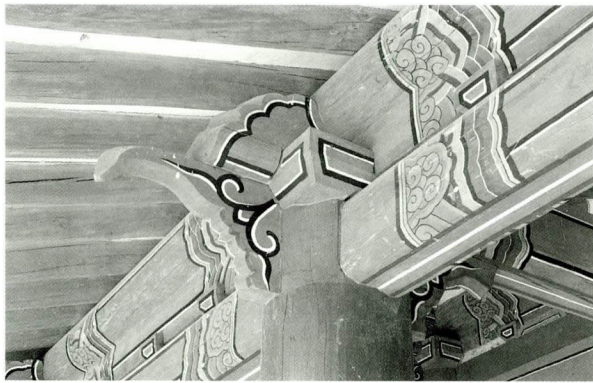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 대성전 전면 퇴칸 가구



▲ 대성전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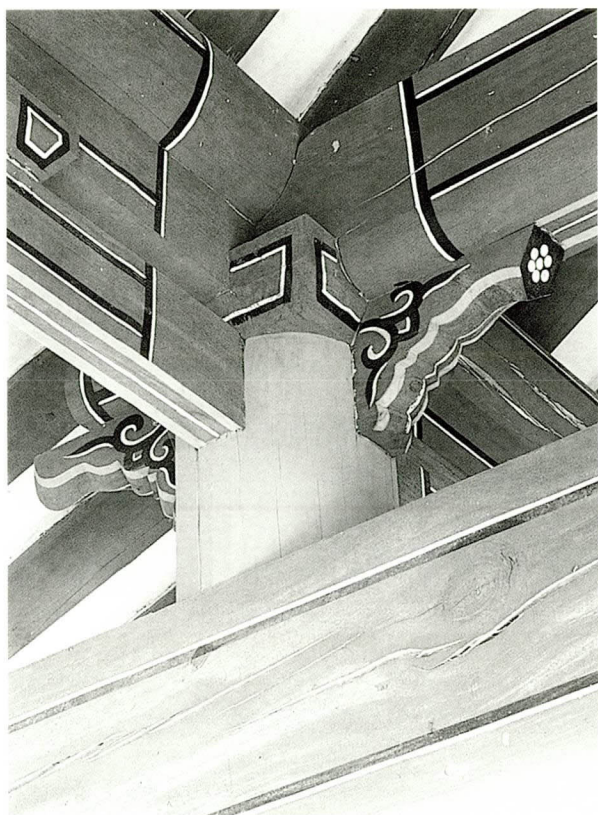
▲ 대성전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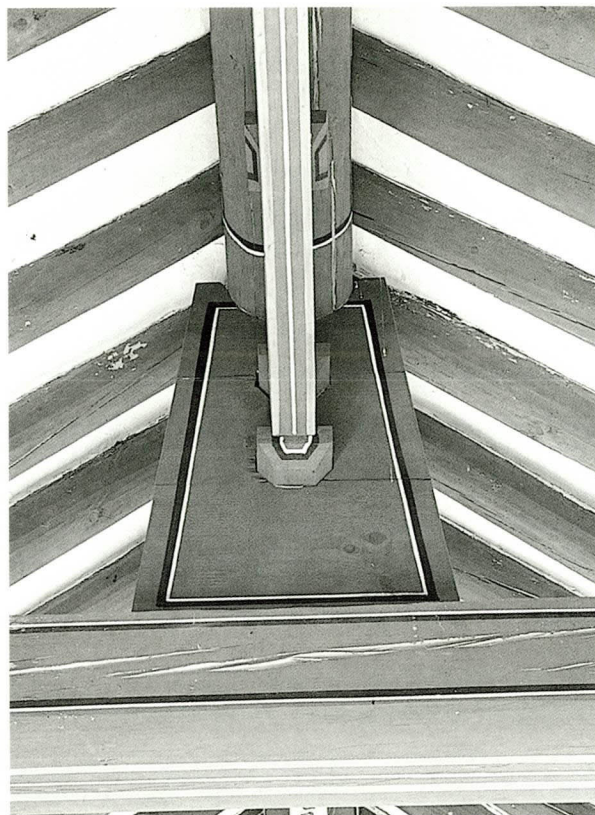
▲ 대성전 전면 우주 초석



▲ 대성전 내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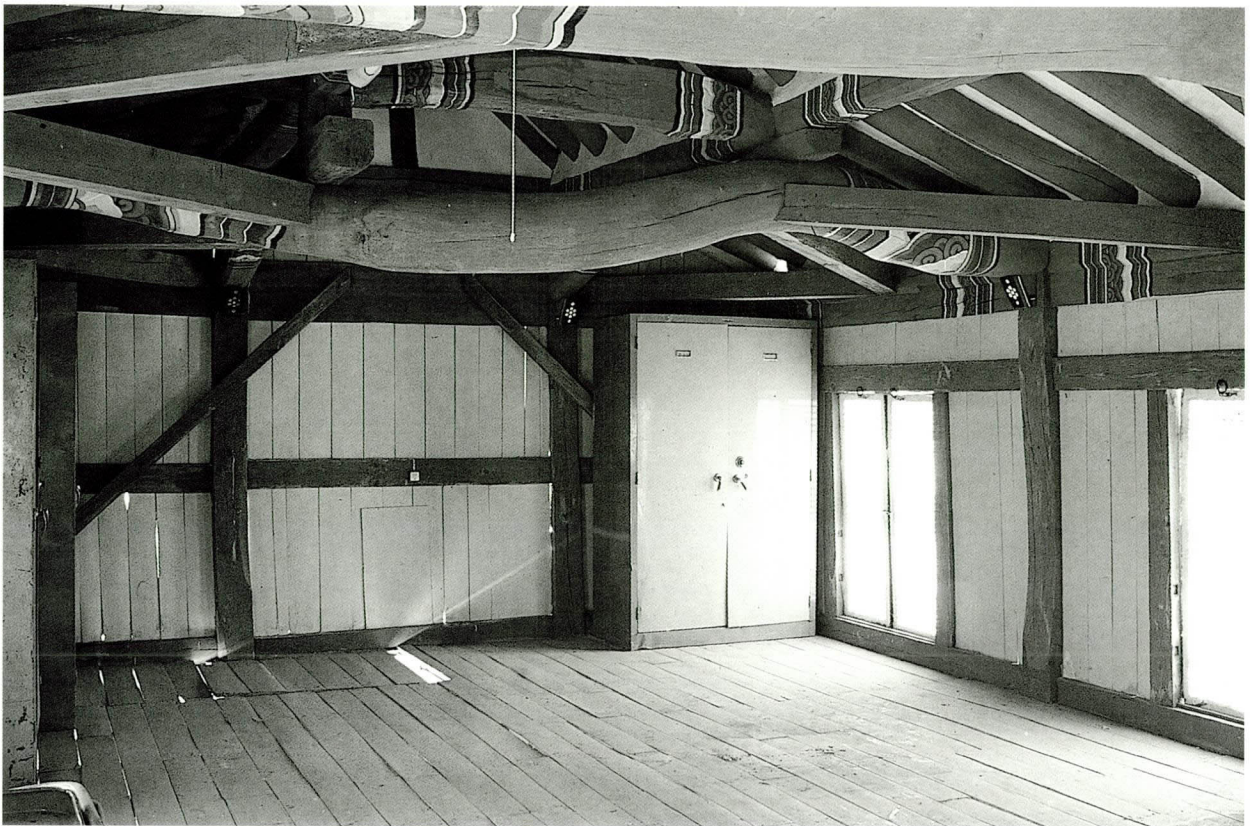
▲ 대성전 내부 종대공



▲ 대성전 내부 종대공



▲ 명륜당



▲ 명륜당 2층 내부



◀ 명륜당 주상부 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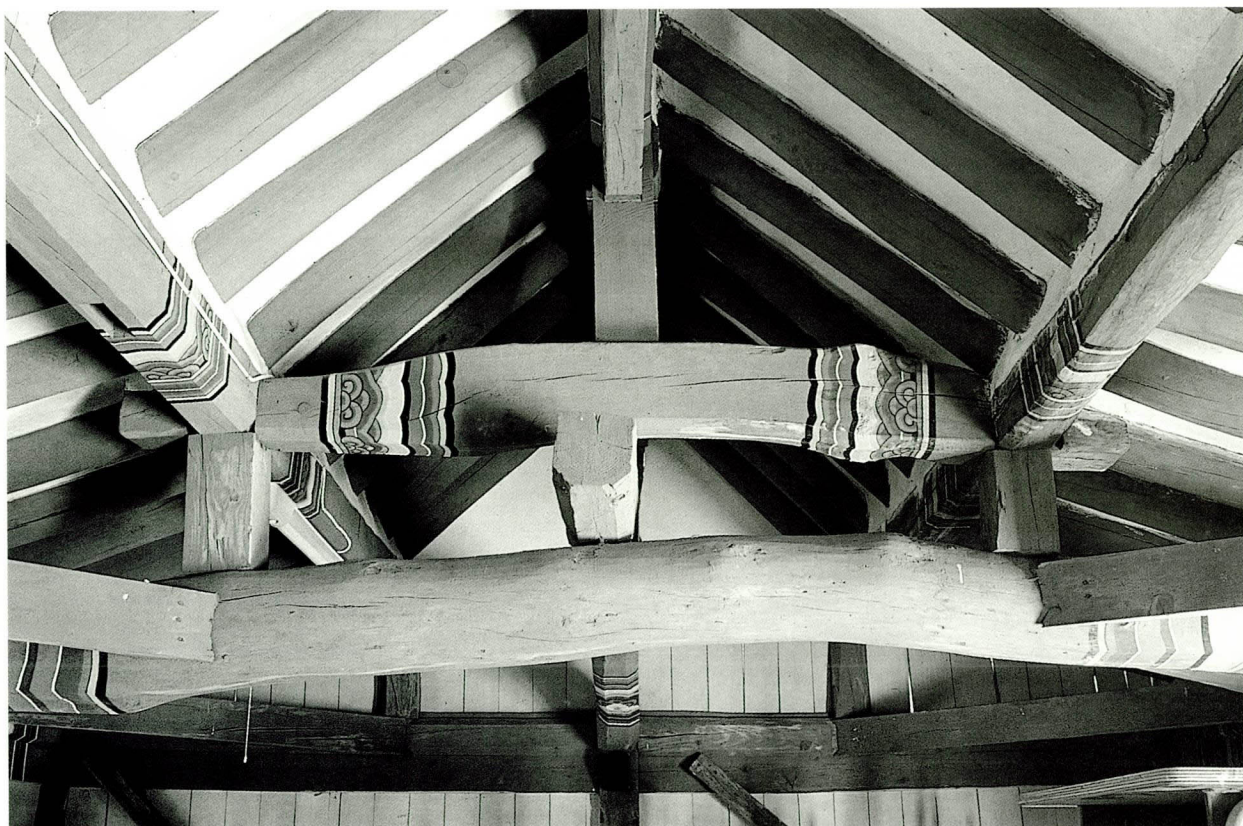
◀ 명륜당 현판



◀ 명륜당 전면 우주 초석



▲ 명륜당 상층 내부 가구(동측)



▲ 명륜당 2층 내부 가구(서측)



◀ 동무



◀ 서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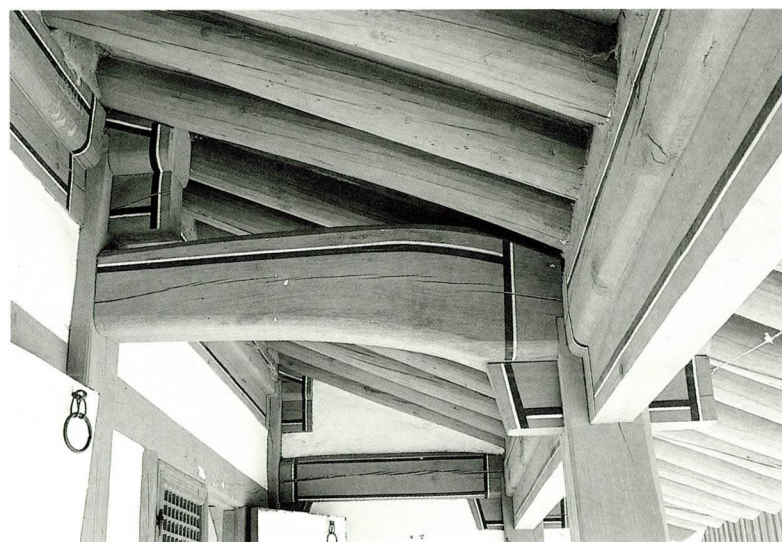
◀ 서무 내부



◀ 동재



◀ 서재



◀ 서재 전면 퇴칸 기구



◀ 내삼문



◀ 내삼문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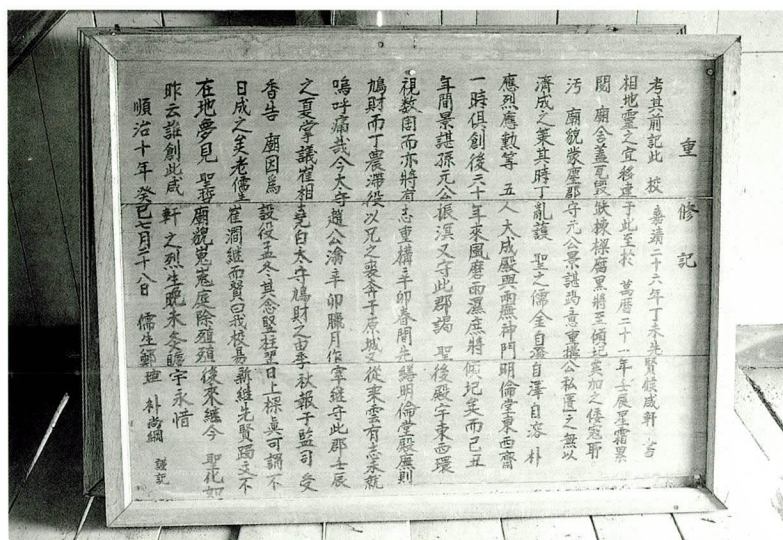
◀ 내삼문 어칸 기구



◀ 외삼문



◀ 교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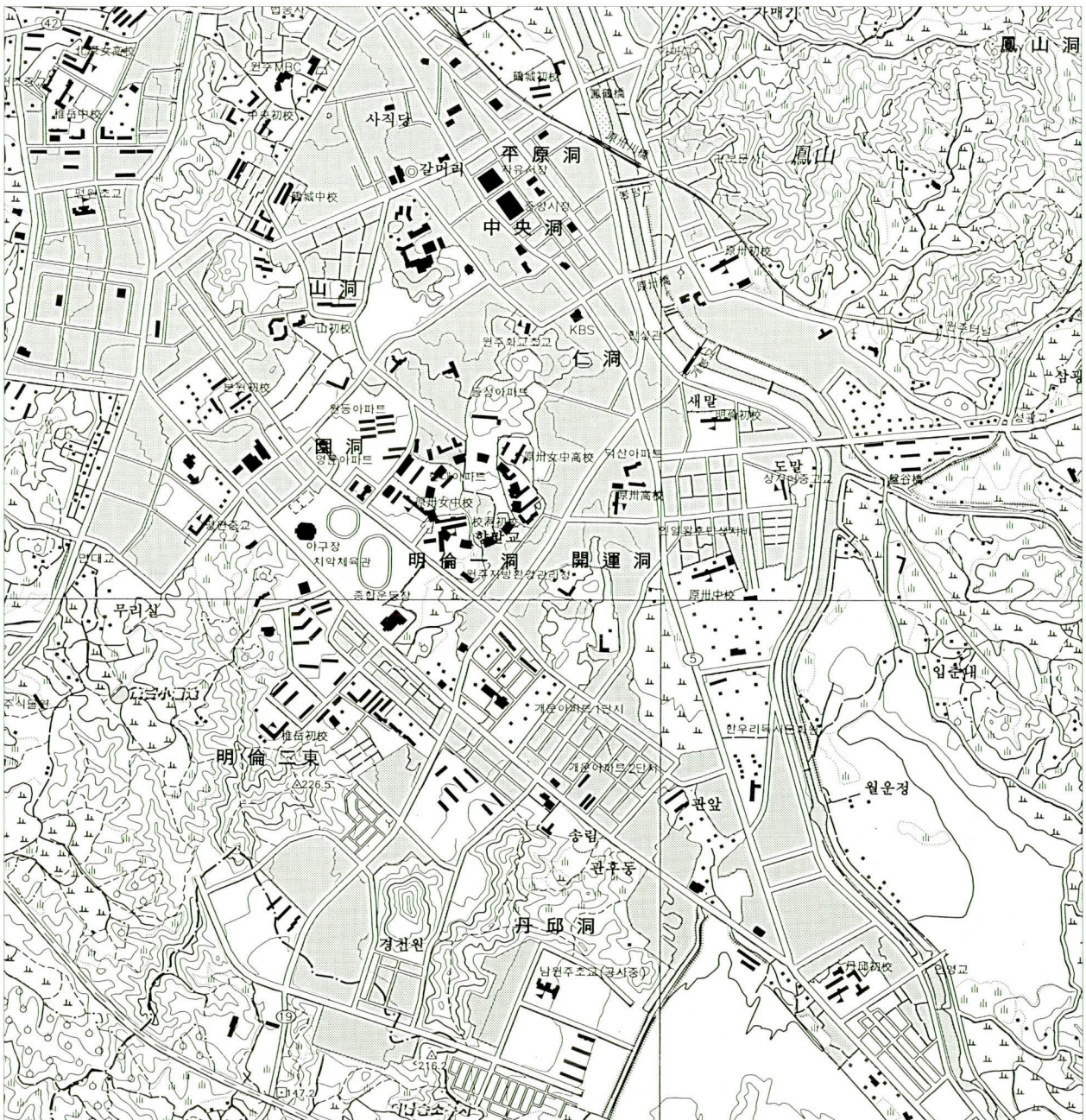


◀ 중수기문

5. 원주향교(原州鄕校)

- 지정사항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8호(일괄지정)
- 지 정 일 : 1985년 1월 17일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255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홍살문, 화장실, 협문 1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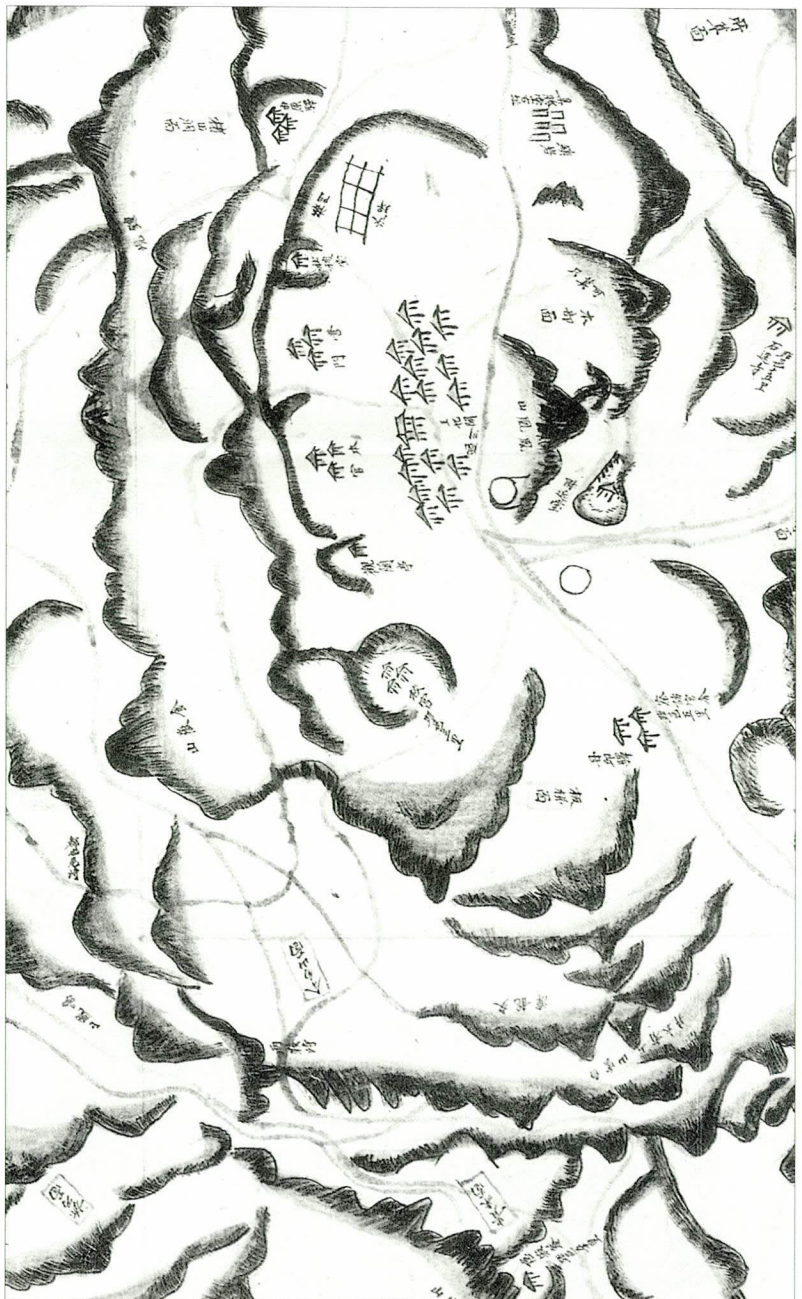
1. 연혁

원주향교는 원주시 명륜동에 자리잡고 있다. 원주는 원래 고구려의 평원군(平原郡)으로 신라 문무왕 때에 북 원소경(北原小京)을 두었다. 고려 태조 23년(940)에 원주(原州)로 개칭하였으며, 원종 10년(1269)에 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충렬왕 17년(1269)에 익흥(益興)도호부로 고치고, 충렬왕 34년(1308)에 원주목(原州牧)으로 승격되었다.

원주향교의 창건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고려 후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 태종 2년(1402)에 목사(牧使) 신호(申浩)에 의해 중건되었고 기문을 지었다고 하나 기문은 전하지 않는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상당 부분 소실되었던 것을 선조 36년(1603)에 이택(李澤)이 대성전을 중건하였다. 이후 광해군 원년(1609)에 부사(府使) 임취정(任就正)이 명륜당과 동서재를 중건하였으며, 선조 10년(1632) 목사 이배원(李培元)에 의해 한 차례 중수되었다. 영조 10년(1734) 원주목사 이우신(李雨臣)이 대성전을 중건하고, 영조 25년(1749)에 명륜당을 중수하였으며, 현종 5년(1839)에 홍치규(洪樞圭)에 의해 일곽 면모를 일신하게 된다. 1920년에서 1923년에 당시 군수(郡守)였던 이동진(李東鎭)과 최양오(崔養吾) 및 다수의 노력으로 명륜당을 중수하고 일곽을 정비하였으나, 한국전쟁 중에 동무와 동서재가 소실 당하는 비운을 겪었다.

1966년에 양재가 복원되고, 1970년에는 서무와 담장을 보수하였다. 1971년에는 대성전 단청과 번와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985년에는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8호로 지정되었다. 1986년에 대성전을 중수하고, 1987년에서 1988년까지 2년간에 걸쳐 명륜당과 서무가 중건되었다. 향교 인근에 위치한 유림회관은 1989년에 건립되었다.

原州牧地圖



고려 말	창건(추정)
1402년	중건 ¹⁾
1592년	임진왜란으로 상당 부분 소실(燒失)
1603년	대성전 중건
1609년	명륜당, 동서재 중건 ²⁾
1632년	일곽 중수
1734년	대성전 중건 ³⁾
1749년	명륜당 중수 ⁴⁾
1839년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중수 ⁵⁾
1872년	향교 중수 ⁶⁾
1905년	향교 중수 ⁷⁾
1923년	대성전, 명륜당 중수 및 일곽 보수, 제기 및 제복 마련 ⁸⁾
1951년	한국 전쟁 중 동무, 동서재 소실
1966년	동서재 중건 ⁹⁾
1970년	대성전, 명륜당 번와, 삼문, 서무 및 담장 보수 ¹⁰⁾
1971년	대성전 단청 및 번와 보수 ¹¹⁾
1986년	대성전 중수
1987년	명륜당, 서무 중수 ¹²⁾
1988년	동무 복원
1990년	동서재 보수
1992년	담장 개수
1993년	명륜당 중수, 동서무 번와 및 내삼문 신축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외삼문, 화장실 등 모두 9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향교에는 〈향교중수기(鄕校重修記)〉, 〈원주군문묘중수기(原州郡文廟重修記)〉, 〈보수기(補修記)〉 외 소수의 편액이 남아 있어 그 향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2. 입지 및 배치

원주향교는 원주 읍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주에서 충주방향으로 가는 19번 국도를 따라 시내에서 명륜동 방향으로 가면 길 좌측에 유림회관이 위치하고 있고 길 우측 골목 안쪽 구릉지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향교 후면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전면과 측면으로는 일반 민가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후면의 아파트 개발로 주산(主山)으로의 흐름이 끊겨 있으며, 다만 전면에 안산(案山)인 백운산(白雲山)으로 시야가 트여 있다.

향교는 현재 명륜당이 전면에 위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따르고 있으며, 현재의 건물 구성은 제향

영역에 대성전과 동서무, 내삼문이, 강학영역에 명륜당과 동서재, 외삼문이 자리잡고 있다.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輿地圖書』의 기록에 따르면 원주향교의 규모는 61칸으로 '청풍루(淸風樓)'가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골목길 입구에 들어서면 입구 좌우에 홍살문이 서 있고, 우측 전면에 하마비가 서있다. 골목 안쪽으로 약 50미터 가량 들어오면 약간 우측으로 꺾인 길이 나타나고 직진하면 외삼문 계단과 만나게 된다.

전체 영역은 두 영역으로 구분되며 내삼문을 중심으로 단차이를 두고 있다. 외삼문 전면에 놓인 급경사의 계단을 올라서면 좌우에 동서재가 놓여 있고 정면에 명륜당이 위치하고 있다. 중앙의 마당 보다 명륜당이 약간 높은 단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재 남측면에 있는 협문을 통하여 동재 후면의 관리사로 통한다. 명륜당이 중심에서 약간 서편으로 치우쳐져 있어 동쪽으로 진입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명륜당을 돌아서면 약간 서편으로 치우쳐져 내삼문이 자리잡고 있는데, 사이 공간이 매우 협소한 편이다. 계단을 올라 내삼문 안으로 들어서면 좌우에 동서무가 있고 정면 중앙에 대성전 건물이 놓여 있다. 동서무는 다른 향교에 비해 정면 7칸으로 규모가 크며, 대성전 좌우 측후면 까지 뻗어 있다. 쉽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으나 중앙 마당은 내삼문 쪽이 약간 좁은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사진 구릉지에 놓인 원주향교는 대성전과 명륜당을 남북 주축으로 하여 구성된 전학후묘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구서성하였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聖과 宋朝 2賢, 그리고 해동 18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기단은 장대석으로 1단을 쌓았으며 전면에 통칸으로 1단의 계단을 두었다.

기단 상면은 전돌로 마감되어 있으며, 그 위에 정평주초 형식으로 초석을 놓았다. 초석은 상면을 원형으로 다듬었으며, 그 위에 흘림이 없는 원형 기둥을 세웠다. 특히 전면 좌우측벽 기둥은 타 기둥에 비해 직경이 40mm 가량 더 크며 높이도 2치 가량 높게 치목되어 있다. 내부에 모셔진 신위는 중앙에 'ㄷ'자 형으로 5성의 위패를 모셔놓고 나머지 신위를 좌우 측벽쪽에 나누어 모셨다. 주칸은 어칸과 협칸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기둥상부에는 이익공의 포작을 결구하였다. 명륜당과 동일한 수법을 택하고 있는데, 익공재 두 개를 모두 기둥 머리를 깊게 파고 주두 하부에 결구시켰으며, 그 위에 주두를 놓고 뒷보머리를 받았다. 고주에서는 초익공으로 결구하고 도리방향으로 보머리에 첨차를 결구하였다. 주칸에는 화반대신 소로를 수장하였으며 어칸 중앙에 대성전 현판을 걸었다.

가구는 어칸에서 1고주 7량가로 측면이 3칸인 경우 대개 5량가를 채택하던 것과 달리 7량가를 선택함으로써 내부 공간의 높이가 높아졌다. 측벽에서는 전후에 고주를 두어 2고주 7량가로 되어 있다. 대들보는 어칸에서 전면 고주와 후면 평주 사이에 결구되었으며, 중보와 종보의 위치는 전체 측면을 5등분하여 1/5씩 감한 위치에 놓여졌다. 중종대공과 중대공은 모두 짧은 동자주 위에 도리방향 첨차와 보방향 첨차를 결구하고 주두를 놓은

포대공으로 짜여져 있으며, 종대공은 판대공과 도리방향 첨차가 결구되어 종도리를 받고 있다. 측벽에서는 전후 고주에 대들보를 얹었으나 퇴량 높이에 수장재 폭의 부재를 결구하였다. 뒷보는 수장재 폭과 같은 단면을 가지고 있으며, 2분두의 형태로 외단에서 마무리 되었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홑처마에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무리 되었고 측면에 방풍판을 달았다. 측면과 후면은 중방 하부를 화방벽으로 처리하였으며, 전면 각 칸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고 문 상방 상부에 광창을 달아내었다.

전면 동측 우주(隅柱) 동측에는 단일석으로 된 관세대(盥洗臺)가 있으며, 서측면 후퇴칸 옆에는 제례 후 축문(祝文)을 태우는 덮개가 없는 석함(石函)형태의 망료위(望燎位)가 놓여져 있다. 전반적으로 조선 중후기 이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명륜당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동서무(東西廡)

동무는 정면 7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다른 향교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건물은 자연석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에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가칠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내부 바닥은 강회다짐으로 마감하였고,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회사벽으로 마감하였고, 내부는 남측 3칸과 북측 4칸으로 구획되어 있다. 현재 남측에서 두 번째 칸 대들보 측면에 이전에 사용되었던 건축부재가 매달려 있으며 이 부재에는 ‘萬曆三十七年巳丙三月十九日庚子上樑 大木 崔得志 金憶昌 金名孫 韓信 趙敬歎 蔡一碩 張萬臣 文莫乃’라는 묵서명이 남겨져 있다. 직경이 약 270mm 가량 되며 명륜당의 중보 혹은 도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8년에 서무를 본따 복원되었다.

서무는 동무와 동일한 규모로 되어 있으며, 한국전쟁 이전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39년의 중수 이후 큰 변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각 칸 모두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판문 전면은 석간주 가칠을 하고 그 위에 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전면 통칸으로 장대석 계단이 놓여 있으며, 건물은 자연석으로 쌓은 단층기단 위에 서 있다. 후면 어칸 좌우의 초석만 방형으로 다듬고 나머지는 자연석 초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3량가로 전후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으며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각 칸 모두 문 상방 위에 홍살을 꾸몄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시멘물탈로 마감하였다. 1993년에 신축하였으며, 종도리 하부에 상량묵서명¹³⁾이 남아 있다.

나. 강학영역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은 거칠게 다듬은 자연석으로 쌓은 축대면에 맞추어 단층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자연석을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으며, 내부 동서실의 어칸 쪽 기둥은

방형 기둥으로 되어 있다. 기둥 상부에는 이익공의 포작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짜임새와 달리 기둥 머리를 깊게 파고 주두 하부에 익공재 두 개를 모두 결구하였으며, 기둥 상부에 주두를 놓고 보머리를 얹었다.

가구는 어칸과 측벽 모두 일반적인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거고 3분변작과 유사한 위치에 종보를 놓았다. 종대공은 주두와 첨차를 결구한 포대공으로 되어 있으며 종대공은 판대공과 첨차를 결구하고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좌우에 방풍판을 달고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무리 하였다. 동실만 따로 구분되어 있어 온돌을 놓고 지반자를 꾸몄으며, 서실과 당은 통칸으로 바닥은 우물마루로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서실도 벽체로 구분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내부에는 〈原州郡文廟重修記〉 등 2개의 기문이 걸려 있고 정면 어칸에 명륜당 현판이 걸려 있다.

전면 어칸에 사분합문을 달고 나머지 칸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서실이 동실보다 주칸 길이에서 1척 가량 작다. 좌우 측벽은 회사벽으로 마감하고 후면에서는 좌우 퇴칸에만 외짝 분합문을 달았으며 나머지 칸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익공재가 주두 밑에 2개가 결구되는 특이한 기법이며 대성전과 유사하다. 외단에 초각 장식이 추가된 점 등 전반적인 특징으로 보아 18세기 후반 이후에 중수되었을 당시의 건축으로 추정된다.

(2) 동서재(東西齋)

동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전면에 슬레이트로 차양칸을 설치하였다. 남측면에 후면의 관리사로 통하는 협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 퇴칸은 개방형으로 꾸몄다. 단층기단 위에 사다리꼴 모양의 화강석 초석을 세우고 그 위에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3량가로 전면에 퇴칸을 꾸미기 위해 전면에서 1/3지점에 헛기둥을 세웠다. 헛기둥 머리에 축을 파고 대들보와 뒹보를 결구하였으며,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내부는 지반자로 마감하였으며 각 칸별로 구획되어 있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굽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1990년에 기존의 콘크리트 기단을 철거하고 자연석 기단을 설치하였으며, 부식된 목부재를 교체하고 번와보수 하였다. 1966년에 복원한 기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서재는 동재와 같은 규모이나, 내부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세 칸으로 구분하였다. 중앙에서는 일반적인 3량가이나 북측벽에서는 중앙에 헛기둥을 두었고, 남측벽에서는 동재와 같이 1/3지점에 헛기둥을 세웠다. 1990년 보수시 기존 콘크리트 기단을 철거하고 자연석 기단을 설치하였으며, 내부의 장마루 대신 우물마루를 시설하였다. 동재와 마찬가지로 1966년에 복원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내외부의 변형이 심하다.

(3)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매칸 중앙에 두 짝씩의 판문을 달았으며, 판문 전면에는 모두 뇌록가칠 위에 태극문양을 도채하였다. 전면에 외부에서 올라오는 18단으로 된 계단을 두었다. 초석은 정평주초 형식으로 놓되 방형으로 기칠게 다듬은 초석을 사용하였으며, 기둥은 방형기둥을 사용하였다. 기둥 상부에는 전후 평주사이에 대들보를 걸고 직절한 보머리를 결구하였으며, 대들보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가구는 3량가로 구성하였고, 내부는 연등천장으로 두었으며,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바닥에는 화강암 판석을 깔았으며, 굽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일부 부재는 예전에 다른 건물에서 사용되었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건축물 대

장에 1962년 이전 건물로 명시되어 있고, 1970년에 한 차례 보수 하였다.

다. 기타

홍살문(紅箭門)은 향교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 간선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다. 화강석으로 판석을 만들어 좌우에 세우고, 상하 구멍을 뚫은 뒤 홍살문 기둥을 세워 고정시켰으며 전면 우측에는 하마비(下馬碑)를 세웠다. 하마비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화강암 판석 1매로 세워져 있으며 전면에 ‘大小人員皆下馬’라고 새겨져 있다.

신축한 화장실이 현재 서재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다. 교직사(校直舍)는 기록상으로 동재 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도 동재 후면에 관리사가 있기는 하나, 조사 당시 건축물 대장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였다.

- 1) 중건 시기에 대하여 유교대전편찬위원회에서 펴낸『儒教大辭典』에는 태종2년(1402)으로 되어 있고,『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江原道鄉校書院寺刹誌』에는 세종 4년(1422)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朝鮮王朝實錄』을 찾아본 결과, 신호(申浩)는 태종 2년에 형조전서(刑曹典書)로 있었고(태종 2년 1월 3일), 세종 3년에서 4년 사이에는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중국에 사은사(謝恩使)로 다녀와서 재궁(齋宮)의 방위를 잘못 잡아 울산으로 귀양을 간 기록이 있다. 또한 태종 5년에는 풍해도관찰사로 나간 기록이 있으나 이는 황해도 지역이므로 두 기록 모두 신빙성이 떨어지나, 세종 연간 보다는 태종 연간으로 보는 쪽이 타당할 듯 하다.
- 2) 〈上樑文〉, ‘萬曆三十七年 己酉三月十九日 庚子上樑’이라는 기록이 상량문(上樑文)에 남아 있으며,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목수는 최득지(崔得志), 김억지(金億只), 전명손(全名孫), 한신(韓信), 조경탄(趙敬歎), 채일석(蔡一碩), 장만신(張萬臣), 문막내(文莫乃) 등이다. 江原道,『江原道鄉校書院寺刹誌』, 1992 : 93쪽
- 3) 〈(제목미상)〉, ‘(前略)... 崇禎紀元後再甲寅中秋...(後略)’
- 4) 〈明倫堂上樑文〉, ‘崇禎甲申後再己巳正月二十日丁卯?上樑重建’이라는 기록과, ‘大木 僧 智? 金 善保 僧 淡成 趙守成 沈天起 鄭喆碩 治匠 趙晚興’이라는 기록이 있을 뿐 본문은 없다. 강원도, 위의 책 : 96쪽
- 5) 〈鄉校重修記〉, ‘(前略)... 聖殿兩 及??齋舍則仍?而新內門三架...(중략)... 崇禎紀元後四乙亥五月日 唐城洪穉圭記’
- 6) 판관(判官) 심영경(沈英慶)이 향교 중수를 했다는 기록이 〈原州郡文廟重修記〉에 포함되어있 으나 그 규모는 미상(未詳)이다.
- 7) 일괄 중수를 했다는 기록이 〈原州郡文廟重修記〉에 포함되어 있으나 규모는 미상이다.
- 8) 〈原州郡文廟重修記〉, ‘(前略)... 獨明倫堂一部尙未就完且沒焉 此則郡士高炳國甫待出五千金而用功 者也...(中略)... 癸亥十二月 日...(後略)’
- 9) 〈東西齋重修記〉
- 10) 〈記〉, 전(前) 원주군수가 시장으로 승격하여 시비(市費)를 내어 대성전과 명륜당에 번와하고 수리한 기록
- 11) 〈補修記〉, ‘(前略)... 孔夫子誕降二千五百二十二年...(後略)’
- 12) 〈原州鄉校重修記〉
- 13) ‘龍 孔紀二五四四年癸酉四月十九日未時立柱上樑 龜’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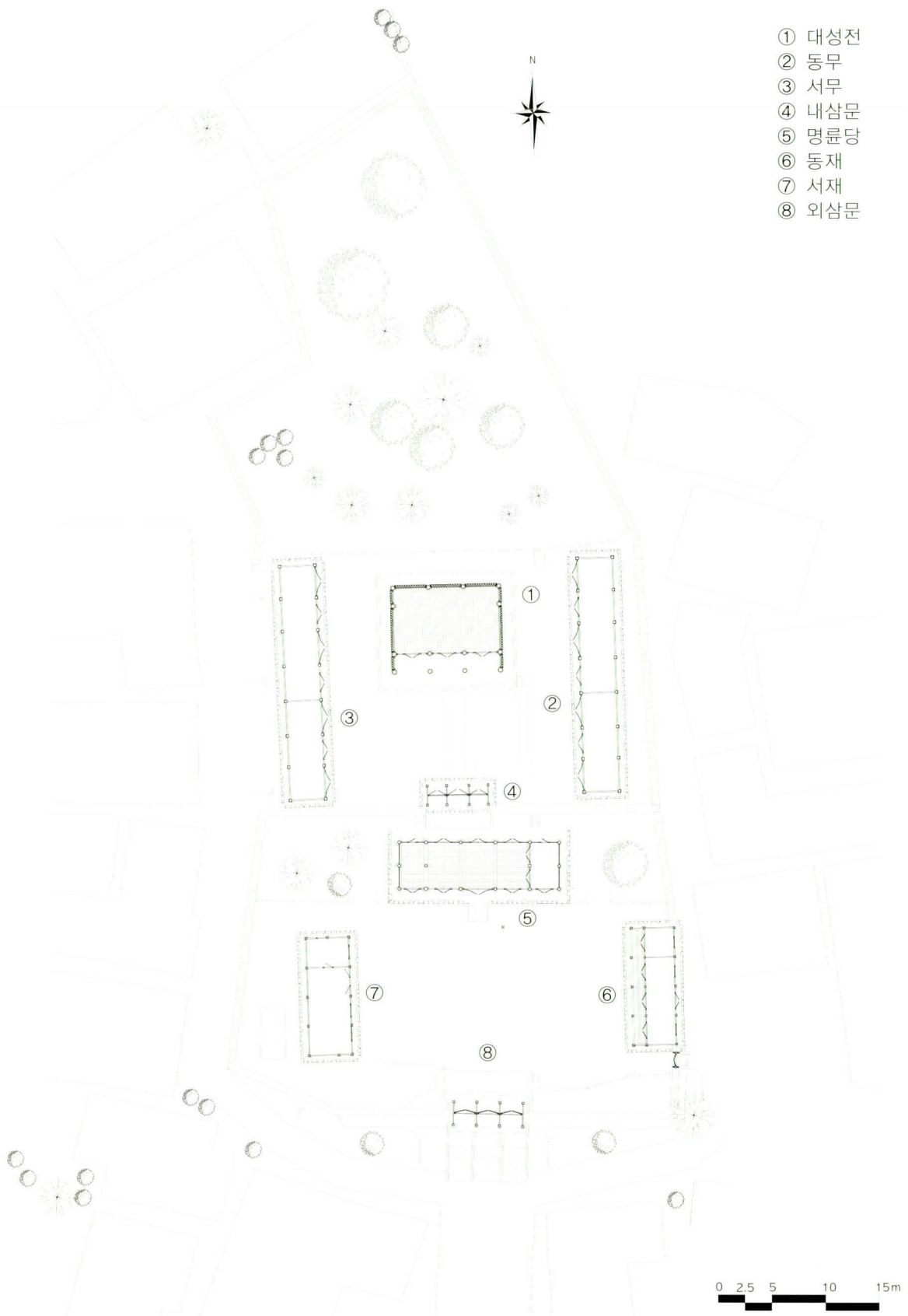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원주향교(原州鄕校)	지정현황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8호 (일괄지정)
창건시기	고려 말(추정)	입 지	구릉지 / 案山 : 백운산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전석만
좌 향	남향 (대성전 S8°W)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종축 1개
중건시기	조선 태종 2년(1402), 조선 선조 32년(1602)	대지조성	3단 : 외삼문,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칠봉서원 도철서원(혜철됨), 충렬사(소실됨)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외삼문 / 홍살문 / 화장실 / 협문 1		
특기사항	고려시대 강원도 지역을 관할 했던 도 경계내 수계 향교였음 동서무의 규모가 큼 (7×1칸)		

대성전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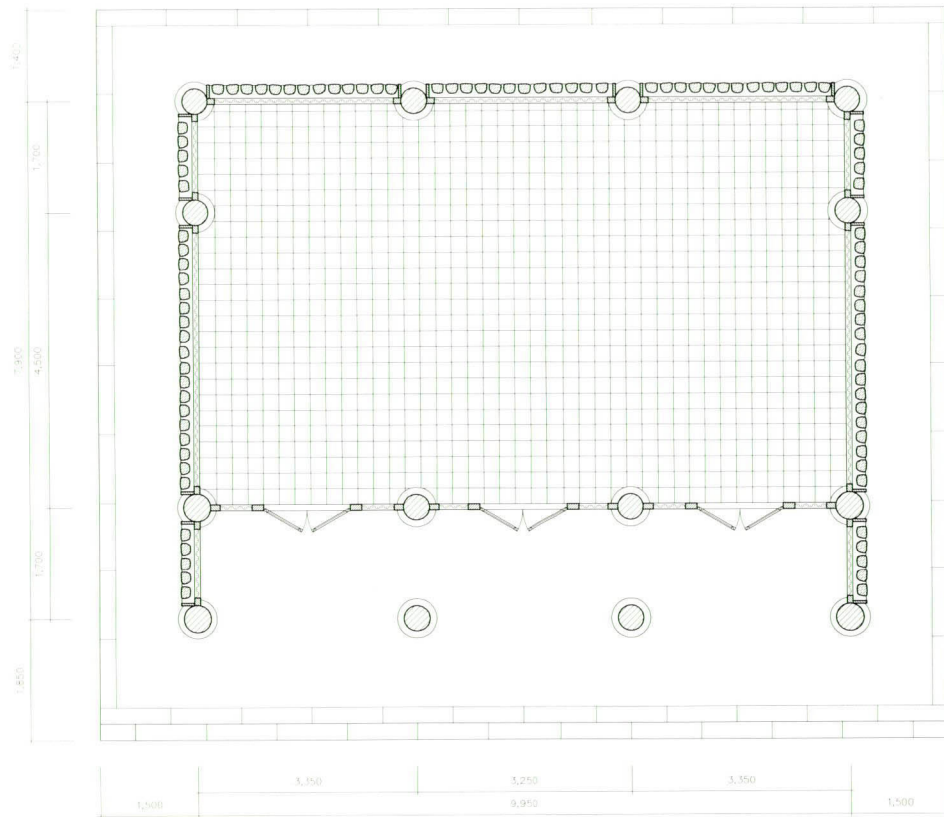
개 요	3×3칸, 전1퇴칸 / 2익공 / 홀처마 맞배지붕 / 1고주 7량가(측벽 2고주) / 전돌바닥 / 연등천장 주교 : 평주 3300, 우주 3360, 고주 4080 / 주칸 : 3300~3360 / 수장폭 120 도리단면 $\phi=300$ / 보단면 : 대들보 510×480, 중보, 종보 300×330 주심처마길이 1700 / 기단높이 전면 450, 측면 300~450, 후면 300 / 초석크기 상면 $\phi=700$		
기단계단	단층기단 / 외벌대 / 장대석 바른총쌓기 전면 전체 2단 / 측면 각 1개(1단)	보	대들보 : 전고주후평주 걸침 중 보 : 전고주후동자주 걸침
초 석	정평주초, 가공석 상면 $\phi=700$, 하면 $\phi=790$, 높이 210~240	도 리	7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phi=390\sim420$	대 공	중, 중종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판대공+도리방향 첨차
공 포	이익공	창 방	말각방향, 240×300
처 마	홀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화방벽 / 굿기단청 / 연등천장 / 전돌바닥 (240×240)		
특기사항	대성전의 가구 규모가 7량가로 일반적인 향교 대성전에 비해 규모가 큼 기둥 부재에 동바리 이음 등 덧댐과 이음이 많음 고주열 상부에 광창 있음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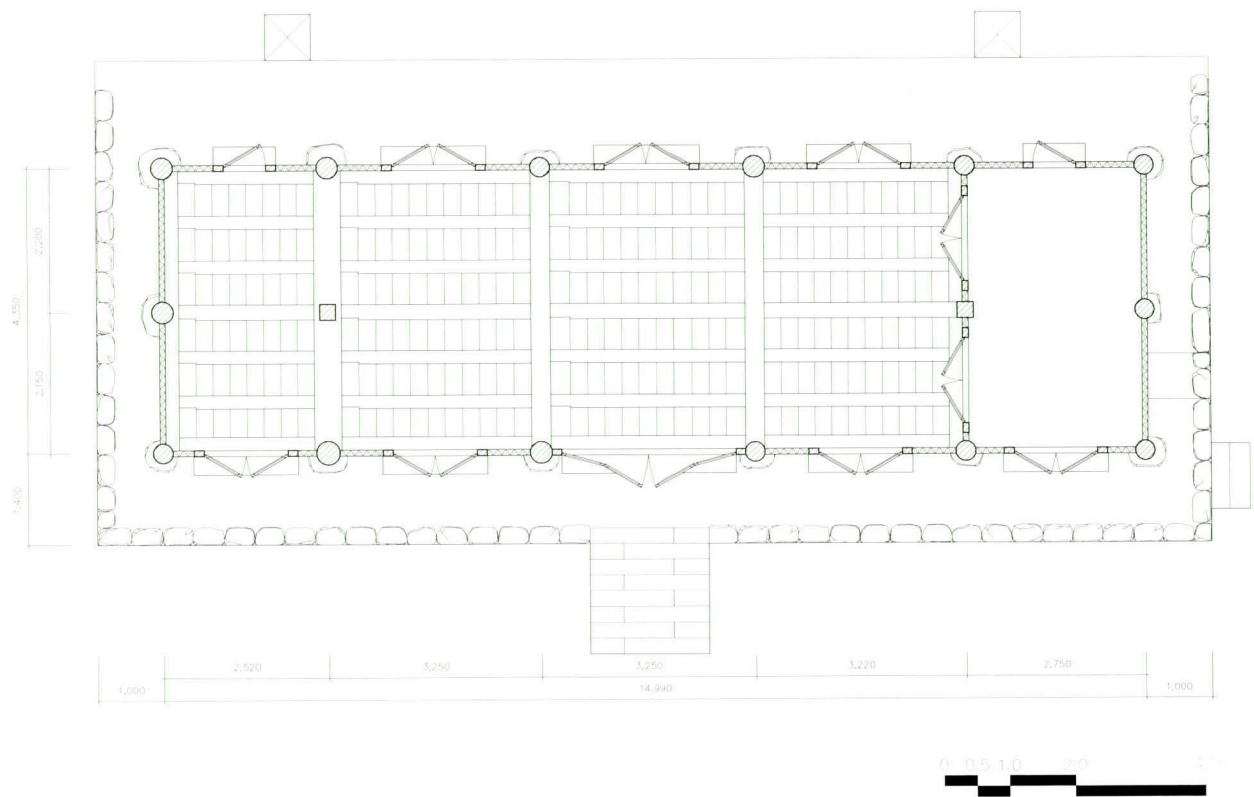
개 요	5×2칸 / 2익공 / 홀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 온돌 · 반재(동실) 주교 : 평주 2540, 우주 2580 / 주칸 : 어협칸 3240, 동실 2760, 서실 2540 / 수장폭 90 도리단면 $\phi=240$ / 보단면 : 대들보 450×360, 종보 360×330 주심처마길이 1230 / 기단높이 : 전면 1800, 후면 50 / 초석크기 약700×800 전후		
기단계단	단층기단 / 자연석 바른총쌓기 전면 1개(8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방주초 / 자연석+상면다듬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방형기둥 : 동서실 240×240 원형기둥 : 기타 $\phi=300$	대 공	종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이익공(전후면 처리 다름)	창 방	하단 말각 방형, 150×240
처 마	홀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직절 섞임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 / 굿기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반재(동실)		
특기사항	익공재의 초각부분을 전면은 앙서와 연봉으로, 후면은 보아지형태로 다르게 처리함 서실과 당을 구분 없이 연결하고, 동실만 구분하였으나 서실의 벽체 구분 흔적이 있음 좌우 측벽 기둥을 제외한 나머지 기둥 상부의 주두가 기둥 단면 보다 작음		



배치도



대성전 평면도



명륜당 평면도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향사 준비중)



◀ 대성전 현판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전면 평주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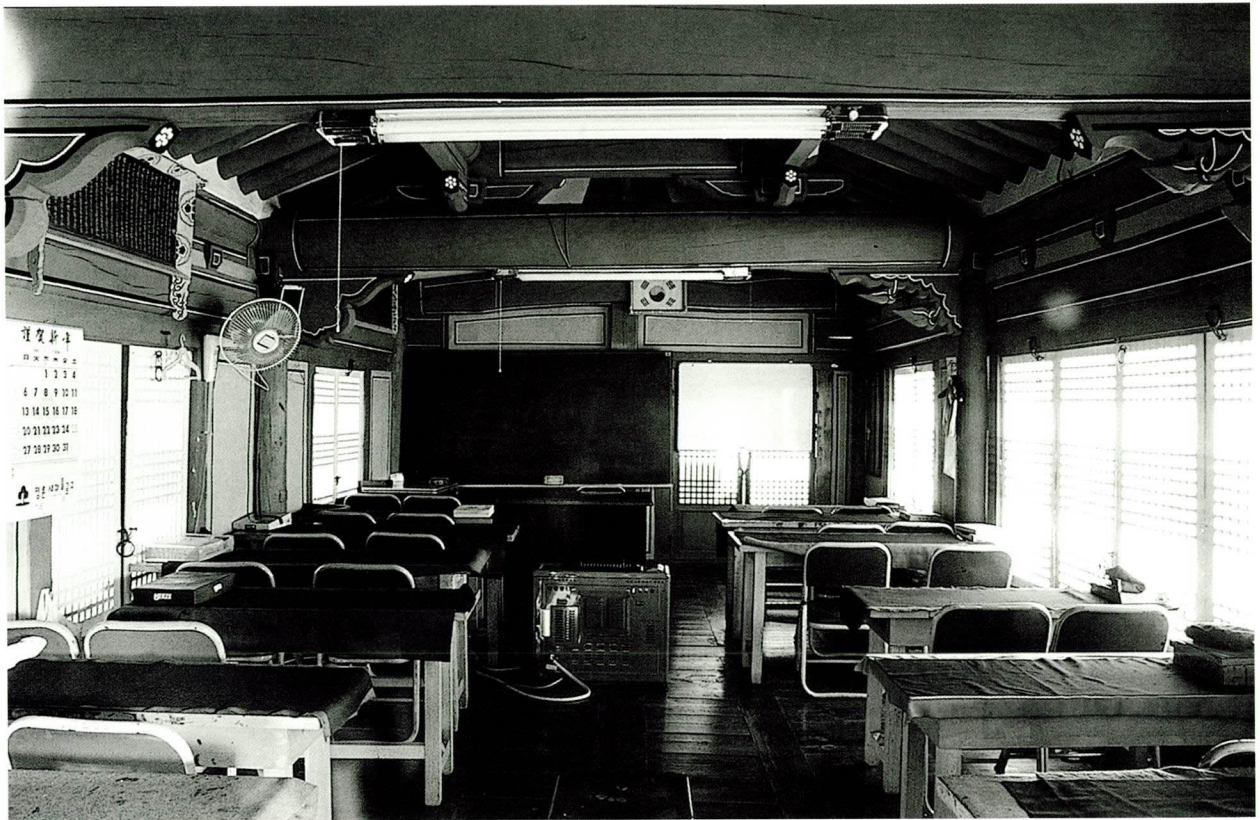
▲ 대성전 내부 가구



▲ 대성전 내부 가구 상세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 명륜당 현판



◀ 명륜당 전면 주상포



◀ 명륜당 후면 주상포



▲ 명륜당 측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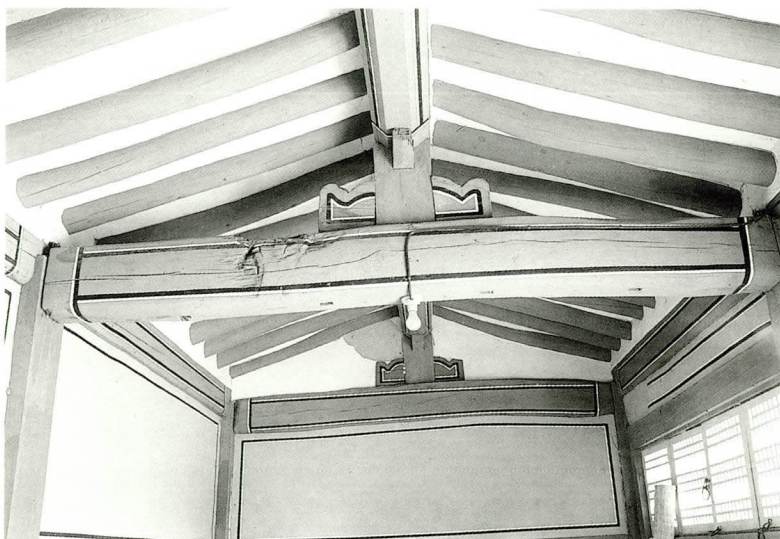
▲ 명륜당 내부 가구



◀ 동무



◀ 서무



◀ 서무 내부 가구



◀ 동재



◀ 서재



◀ 동재 측면 협문



◀ 외삼문



◀ 내삼문



◀ 내삼문 어칸 종도리 묵서 상량문



◀ 홍살문



◀ 하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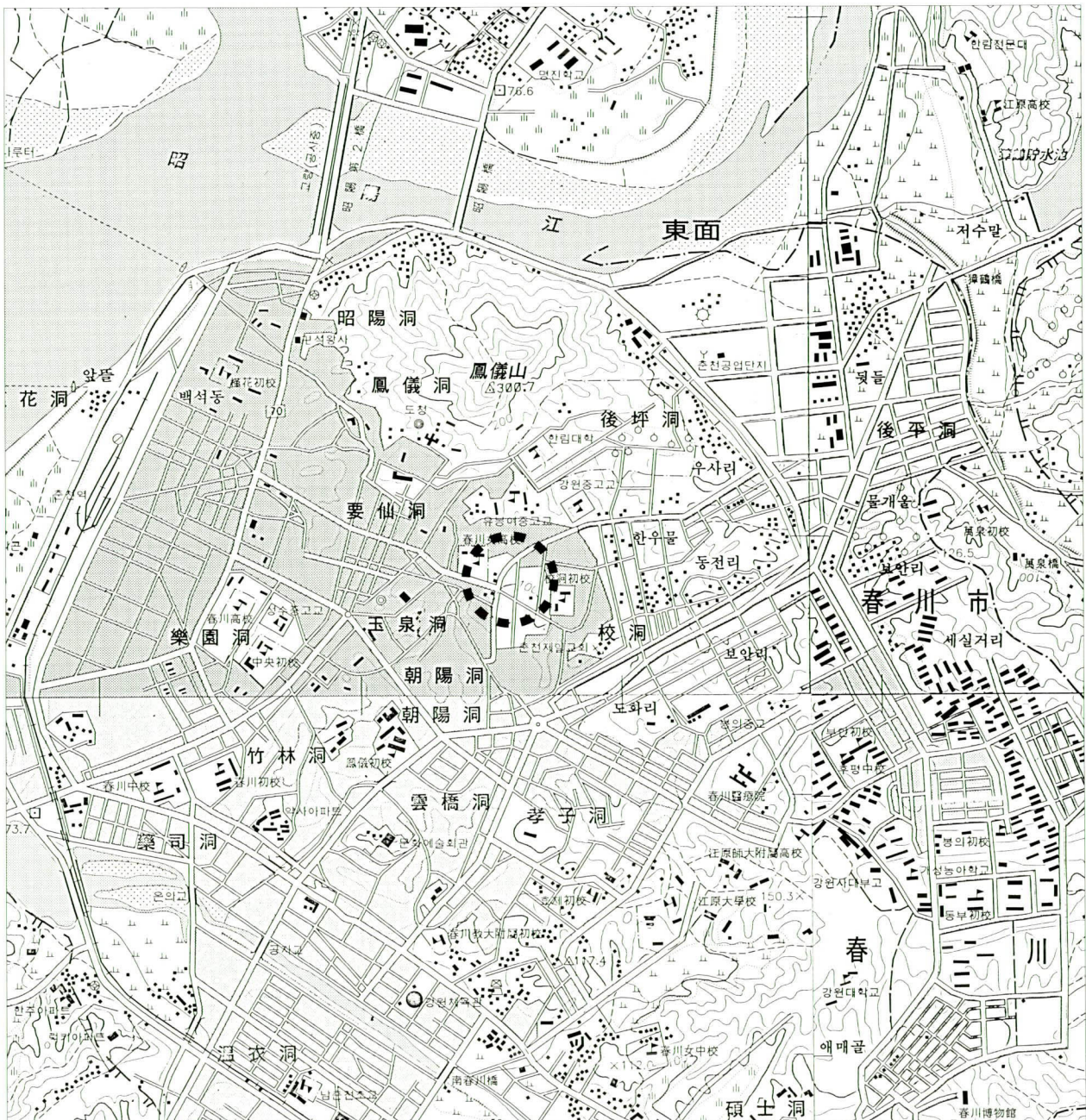


◀ 대성전 옆 석물

6. 춘천향교(平昌鄉校)

- 지정사항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8호(대성전)
- 지 정 일 : 1985년 1월 17일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교동 233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장수루, 수복실, 화장실
비각, 묘정비, 협문 2, 홍살문

지형도



1. 연혁

춘천향교는 춘천시 교동에 자리잡고 있다. 춘천은 원래 맥국(貊國)의 수도(首都)였으며, 신라 선덕왕 6년(637)에 우수주(牛首州)라 하여 군주(軍主)를 두었다. 문성왕 13년(673)에 주약주(首若州)고 개칭하고 경덕왕 대에 삭주(朔州)로 고쳤다가 후에 광해주(光海州)로 고쳐 불렀다. 고려 태조 23년(940)에 춘주(春州)라 불렀으며, 조선 태종 13년(1413)에는 춘천(春川)으로 고쳐 군(郡)으로 하였다. 2년 후에는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었고, 고종 32년(1895)에 관찰부(觀察府)가 되었으며 1949년에 춘천시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향교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유몽인(柳夢寅)¹⁾이 지은 『어우집(於于集)』에 실린 ‘수춘향교중수상량문(壽春鄕校重修上樑文)’이 가장 오래된 향교 관련 역사 기록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조선 중종 15년(1520) 8월에 당시 부사였던 이만손(李萬孫)과 문경희(文景熙)가 중수하였다. 이후 임진왜란 때에 향교가 병화로 전소(全燒)되었고, 선조 27년(1594)에 부사 서인원(徐仁元)이 대성전과 동서무, 내삼문을 중건하였다. 또한 『우강집(牛江集)』의 기록에 따르면, 우강 최충원(崔忠元)²⁾이 선조 29년(1596)에 당시 강원도 순종사(巡宗使)였던 정구(鄭球)에게 중건을 청하는 진정서를 올린 바 있으나 그 실현 여부는 알 수 없다.³⁾

선조 34년(1601)에 부사 허상(許鎬)이 명륜당과 장수루(藏修樓)를 중건하고, 광해군 11년(1619)에 부사 이원엽(李元燁)이 일곽을 개건하였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당시 교지기 지계사(池繼泗)가 성현의 신위를 모두 모셔 인근 대룡산(大龍山)에 옮겼다가 난리가 지난 후에 환안(還安)하였다고 한다⁴⁾.

부사 엄황(嚴愼)이 인조 23년(1645)에 부임하여 26년(1648)에 이임될 때 까지 향교를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부사 송광윤(宋光潤)이 숙종 11년(1685)에 향교를 수

春川府地圖



리했다고 하나 그 내용은 미상이다. 다만, 최근의 서무 복원 공사에서 발견된 와편(瓦片)에는 ‘康熙四拾五年丙戌八月 日建’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숙종 32년(1706)에 한 차례 중건된 것으로 보인다. 정조 6년(1782)에 부사 이방영(李邦榮)이 장수루를, 3년 후인 정조 9년(1785)에 부사 김락수(金樂洙)⁵⁾가 대성전, 동서무, 동서재를 중수하였다.⁶⁾

이후 1899년에 군수 권직상(權直相)이 대성전을 중수하고⁷⁾, 1916년에 군수 신규천(申圭善)이 명륜당과 동서무를 중수하고 담장 일부를 축조하였다⁸⁾. 그러나 한국 전쟁 당시 향교 일곽 상당 부분이 파손되었다.⁹⁾ 1960년에 대성전과 서무를 중건하고, 명륜당을 보수하였다.¹⁰⁾ 1962년에 일곽 담장과 석축을 보수하였고¹¹⁾, 이듬해에 역시 담장과 석축을 증설하고 보수하였다. 1968년에 대성전과 동무, 동서재를 번와보수하였으며, 1971년에 대성전 내부에 공자의 영정소(景眞所)를 신설하였다. 1974년에 대성전과 조영문(調詠門), 내삼문에 단청하였다. 1979년에 일곽 건물에 번와보수 하였으며¹²⁾, 1980년에 홍살문과 하마비를 건립하였다. 1982년에 명륜당 동측과 장수루 양측 담장을 개축하고, 내삼문 양측 담장의 기단을 보강하였으며, 교직사를 신축하였다.¹³⁾ 1983년에 대성전을 단청하고 기단을 보수하였으며¹⁴⁾, 일곽 건물 전체에 단청하였다¹⁵⁾. 1984년에 묘정비를 건립하고¹⁶⁾, 1985년에 외곽 담장을 한식으로 개축하였다. 1986년에 서무를 복원하고¹⁷⁾, 대성전 기단을 보수하였으며 이듬해에 인근에 유림회관을 건립하였다. 1991년에는 장수루와 동재, 동무, 내삼문 및 명륜당 등을 보수하였으며, 이듬해에는 화장실을 신축하였다. 1996년에 교직사 안쪽 담장을 보수하였고, 1997년에는 장수루 좌우 및 내삼문 좌우측 담장을 신설하였으며, 1998년에 서무와 명륜당, 협문 등을 보수하였다. 2000년도에 대성전 내부에 기존의 장마루를 제거하고 우물마루를 신설하였으며, 벽체 일부를 보수하고 번와하였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추정)
1520년	일곽 중수
1592년	임진왜란으로 향교 전소
1594년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중건
1601년	명륜당, 장수루 중건
1619년	일곽 개건
1645~48년	일곽 중수
1685년	일곽 보수
1706년	일곽 중건
1782년	장수루 중수



▲ 일제시대 춘천향교 전경(『小川敬吉調査文化財』, 1984에서 전재)

1785년	대성전, 동서무, 동서재 중수
1899년	대성전 중수
1916년	명륜당, 동서무 중수 및 담장 신축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일괄 파손
1960년	대성전, 동무 중건 및 명륜당 보수
1962~63년	일괄 담장 및 석축 보수, 명륜당 및 장수루 보수
1968년	대성전, 동무, 동서재 번와보수
1971년	대성전 내 영정소 신설
1974년	대성전, 내삼문, 조영문 단청
1979년	일괄 번와보수
1980년	홍살문, 하마비 건립
1982년	명륜당 동측, 장수루 및 내삼문 좌우 담장 보수, 교직사 신축 및 축대 축조
1983년	대성전 단청 및 기단 보수, 일괄 건물 전체 단청
1984년	묘정비 건립
1985년	담장 보수
1986년	서무 복원, 대성전 기단 보수, 흥학비(興學碑) 복원
1987년	유림회관 건립
1991년	장수루, 동재, 동무, 내삼문 및 명륜당 마루 보수
1992~93년	화장실 신축
1996년	교직사 담장 보수, 사주문 신축
1997년	장수루 좌우 및 내삼문 좌우측 담장 신설
1998년	명륜당, 서무, 협문 번와 및 드잡이 보수
2000년	대성전 번와 및 내부 마루 교체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대성전, 명륜당을 비롯하여 모두 13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입지 및 배치

춘천향교는 춘천시내 변화가에 자리잡고 있는데 춘천시청에서 시청 후면으로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50m 가량 진행하다 보면 좌측에 춘천여자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으며, 향교는 이 학교의 남측 담장을 경계로 맞닿아 자리잡고 있다. 전체적인 향은 남향으로 약간 남서쪽을 향하고 있다. 후면 도청 뒤쪽에 있는 봉의산을 주산(主山)으로 두었으며 안산은 없다.¹⁸⁾

시청에서 춘천여자고등학교의 담장을 따라 내려가면 향교 영역의 입구에 다다르며 이곳에는 현재 철문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를 통과하면 전면에 홍살문이 놓여져 있고, 좌측에 화장실, 교직사와 비각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 우측으로는 묘정비가 놓여져 있다. 교직사 영역으로는 홍살문 서측, 즉 외부에서 진입하는 독립적인

출입문과 향교 내부에서 출입하는 사주문 등 2개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다.

전체 대지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구릉지이며, 모두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단은 장수루 전면의 외부공간이며, 두 번째 단은 명륜당 전면의 강학 공간, 세 번째 단은 제향 공간이 된다.

홍살문을 지나면 한 단 높여진 시멘트 기단 위에 장수루가 위치하고 있고, 하부의 판문을 통하여 진입하면 계단을 몇 단 올라 강학영역이 전면에 등장한다. 양재가 명륜당의 전면에 놓여 있는 전재후당(前齋後堂)의 배치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앙에 명륜당이 있다. 양재는 중앙 마당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어 특이하다.

내삼문은 명륜당 후면 중앙 축선상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들어가면 제향영역이 등장한다. 제향영역은 좌우측에 동서무가 자리잡고 있고, 중앙에 약간 높은 기단 위에 대성전이 놓여 있으며, 중앙 마당에는 아무런 식재 없이 마사토가 깔려 있다. 전체적으로 춘천향교는 약간 경사진 구릉지 위에 명륜당과 대성전을 주축으로 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형태를 갖추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한국 전쟁 당시 전소되었던 것을 1960년에 복원한 것으로 이후 몇 차례 보수 과정을 거쳤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시붕 건물로,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聖)과 송조(宋朝) 2현(賢), 해동(海東) 18현(賢)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근래에 보수한 장대석 기단 위에 다시 1단의 장대석 기단을 두어 이중기단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대(下臺) 전면에는 장대석으로 된 5단의 계단이 3개가 놓여져 있으며, 기단 상면은 시멘트몰탈로 마감되어 있다. 그 위에 방형과 원형, 그리고 자연석 초석을 정평주초 형식으로 놓았는데, 후면 서측 퇴칸 좌우 초석은 자연석에 상면만을 다듬었으며, 후면 동측 협칸 좌우 초석과 후면 동측 귀초석 및 동측면 헛기둥 초석은 방형으로, 나머지는 원형 초석을 사용하였다. 특히 동측면 헛기둥 초석은 화방벽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반면 서측면 헛기둥 초석은 화방벽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전면 동측 퇴칸 좌측 초석에는 1단 쇠시리를 두었다. 초석 위에 민흘림을 두어 치목한 원형기둥을 세우고, 전면 중앙 3칸에는 각각 사분합문을 달아 완전 개폐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좌우 퇴칸은 중방 상부에 들어열개창을 두어 채광에 유리하도록 하였으며, 측벽 중방 하부에만 화방벽을 두고 나머지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기둥 머리에는 전면에 한하여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익공재는 명륜당의 것을 그대로 본 따으나, 일제시대 자료를 참조하여 보면 명륜당과 동일한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였으며, 후면은 익공재 없이 민도리로 결구되었다.

가구는 1고주 5랑가로 전면에 고주를 두었다. 그러나 고주는 평주와 1척 밖에 차이 나지 않으며, 고주 상부에 도리방향과 보방향으로 익공재와 첨차를 결구 시키고 그 위에 주두를 놓아 종보 머리를 받았다. 고주 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창방과 대들보 머리를 결구하였는데, 고주 전면에서 대들보 머리를 1/2로 따고 뒷보 뒷뿌리 위에 있었다. 4분변작 위치에 동자주로 된 중대공을 놓아 종보를 받고 종보 중앙에는 은혜사 거조암 극락전에서 볼 수 있는 세장(細長)한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종보와 대들보 사이에는 중앙에 화반형 부재를 놓아 지

지하였으며, 후면 중도리는 다른 도리와 달리 납도리로 되어 있다. 또 특이한 점은 종보가 수장재 단면 크기와 유사한 단면을 지니고 있으며, 측벽에서 후면 중도리 위치에 평주와 같은 높이의 헛기둥을 놓고 대들보와 뒷보를 기둥 머리에서 결구시키고 있으며, 동일한 위치에 동자주를 두고 중도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붕은 전면만 겹처마로 두고 후면은 홑처마로 두었으며,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으며,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바닥에는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¹⁹⁾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으며, 정면 어칸 중앙에 대성전 현판이 걸려 있고, 정면 동측 협칸 전면에 제례석(祭禮石)이 놓여 있다. 내부 중앙 후벽에는 공자의 영정을 모신 영정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좌우로 나머지 4聖의 신위를 모셔 놓고 宋朝 2賢과 海東 18賢의 신위는 좌우 측벽에 모셔두었다.

전체적으로 전면의 창호가 많아 내부가 밝으며, 종대공이 세로로 커서 내부 공간이 비교적 큰 편이다.

(2) 동서무(東西廡)

동무는 1960년에 복원하였으며 서무는 동무를 모방하여 1986년에 복원되었다. 건물은 모두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나, 일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동무의 경우, 장대석 단층 기단을 야트막하게 쌓고 기단 상면을 강회다짐 하였다. 기단 전면에는 내삼문 후면에서 대성전으로 이어지는 답도와 연결되어 하나의 답도를 두었다. 기단 위에는 거칠게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정평주초 형식으로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좌우 측벽과 후벽에서 중방 하부에 화방벽을 꾸몄고, 전면 어칸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좌우 협칸 전면에는 중방 상부에 세로살창을 두고 나머지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가구는 일반적인 5량가로, 대부분의 동서무 건물이 3량가인 반면에, 굳이 측면 단칸의 건물에서 퇴칸을 구성하지 않았음에도 사용된 약간 특이한 경우이다.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4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를 놓아 종보를 결구하였고, 중앙에 판대공을 놓고 중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처리하였고,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짚으며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기단 전면 남측에서 두 번째 장대석에는 물끓기 흠을 두었으며 이는 이전 건물 기단의 형식이거나 타 건물에서 사용되었던 재료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서무는 동무와 다른 점으로 초석의 형태를 들 수 있는데, 하부는 방형, 상부는 원형으로 다듬어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또한 동무와 달리 굿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어칸 중도리 하부에는 상량묵서명이 적혀 있다²⁰⁾.

(3)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정확한 건립 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비교적 근래의 것으로 보이며 1974년에 단청하고, 1991년에 한 차례 보수하였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장대석 단층기단 위에 방형의 초석을 정평주초 형식으로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기단 전면에는 전면 통칸으로 7단의 계단 1개를 두었으며 기단 상면은 강회다짐으로 마감하였다. 좌우 측벽은 회사벽으로 처리하였고, 각 칸 중앙에는 두 짝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기본적인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중도리를 받았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어칸에 한하여 전후면에 겹처마를 두고 나머지는 홑처마로 처리하였다.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단청은 굿기단청으로 마감하였고, 각 칸 판문 전면에 3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일부 판문 하인방에 선대 흔적이 있다.

나. 강학영역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의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국 전쟁 당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익공재의 형태와 기타 전체적인 건물의 특징으로 보아 최소한 19세기 후반 이전으로 건립 연대를 추정할 수 있으며, 1960년과 1983년, 1991년에 각각 보수되었다.

건물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로, 좌우에 각 1칸을 퇴칸으로 두었으며, 높직한 기단 위에 자리잡고 있다. 기단 전면에는 장대석으로 된 6단의 계단이 모두 3개 놓여져 있으며, 기단 상면은 시멘물탈로 마감하였다. 전면 중앙 5칸의 초석은 방형을, 동측면 중앙 평주 초석은 자연석을, 나머지는 모두 원형초석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상면을 고르게 다듬었다. 그 위에 약간의 배흘림을 두어 치목한 원형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면 중앙 3칸에는 네 짝 세살문을 두고, 그 좌우 협칸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좌우 퇴칸은 개방형 퇴칸으로 구성하였으며, 후면에만 회사벽을 두었다. 내부는 좌우 실을 구분하였으나, 분합문의 흔적이 있음에도 동실의 경우 서벽을 창호 없이 개방하였고, 서실의 경우 동벽을 합판으로 대어 놓았다.

기둥 머리에는 민도리식으로 결구하였으며, 주간에는 화반 대신 소로를 수장하였다. 익공재 외단은 장식성이 가미되지 않은 조선 후기 이전의 쇠서형태를 띠고 있으며, 내단은 보아지 형태로 처리하였다. 내부 중앙 헛기둥 상부에는 다른 형태로 초각된 익공재를 결구하였으며, 중대공에 사용된 첨차와도 약간의 초각형태에서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수차례에 걸친 보수의 결과로 보인다.

가구는 일반적인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4분변작의 위치에 도리방향 첨차와 주두로 이루어진 중대공을 놓고 종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에는 운형대공에 도리방향 첨차를 결구시켜 종도리를 받았는데, 중대공의 높이가 낮아 장연(長椽)의 물매가 완만하고 단연(短椽)의 물매가 급하게 되어 있다. 지붕은 흘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내부는 좌우 퇴칸을 개방형 퇴칸으로 구성하였으며, 좌우 제2협칸을 동서실(東西室)로 구분하고 중앙 3칸을 당(堂)으로 두었다. 당과 좌우 퇴칸은 상부를 연등천장으로, 바닥은 우물마루로 두었으며, 실 천장에는 반자를 짜고 서실에는 온돌, 동실에는 장마루를 깔았다.

중앙 5칸의 주간 길이가 2190mm로 동일하고 좌우 퇴칸이 1260mm로 다르며, 초석 일부 또한 자연석을 사용하였고, 규모 또한 일반적인 향교 명륜당이 5칸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래 5칸 이었던 것을 후대에 보수하면서 좌우에 퇴칸을 만들고 지붕 형태 또한 맞배지붕에서 팔작지붕으로 개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2) 동서재(東西齋)

동서재는 정확한 건립 연대를 알 수 없으나 대략 조선 후기 혹은 20세기 초로 추정되며, 1968년과 1991년에 각각 보수되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동서재 모두 기둥 높이 등 일부 구체적인 치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동서재가 중앙 마당을 향하고 있는데 반면, 여기서는 마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건물은 아트막한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기둥을 세웠다. 어칸과 북측 협칸은 후면에 퇴칸을 구성하였으며, 남측 협칸은 부엌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3칸 규모의 살림집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퇴칸에는 우물마루를 깔으며, 부엌으로 사용되는 남측 협칸 후면에는 각각 두 짝 판문을 달

았다. 전면에는 어칸과 북측 협칸 중방 상부에 두 짝 세살창을 달았으며 나머지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3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 형태의 중대공을 놓고 종보를 걸구하였으며, 종보 중앙에 동자주를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내부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어칸과 북측 협칸에는 온돌을 두었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굿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서울 문묘 등 일부 향교에서 동서재가 중앙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는데, 서울 문묘의 경우 임금이 행차하여 행사를 하는 동안, 일반 교생(校生)들이 이를 직접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임금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춘천향교 역시 이를 본딴 것으로 보인다.

(3) 장수루(藏修樓)

장수루는 정확한 건립 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대략 조선 후기 혹은 20세기 초로 추정되며, 1991년에 한 차례 보수하였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중층 민도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횡방향으로 길게 시멘트 기단을 쌓고 그 위에 1단 높이의 장대석 기단을 만들고 장주초석을 놓아 그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다. 전면 어칸 좌우 초석 후면에는 인방재를 끼웠던 홈이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중층 건물에서 하층기둥과 상층기둥이 별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기서는 통재로 사용되었다. 기단 상면은 시멘몰탈로 마감하였으며, 상층 바닥은 우물마루를 짰다. 하층 중앙 3칸은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아 외삼문의 기능을 겸하게 하였으며, 좌우 1칸은 실(室)을 구성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1층 좌우 측벽과 좌우 퇴칸 전면에는 중방 하부에 화방벽을 두었고, 좌우 퇴칸의 후면과 안쪽 측벽에는 판문을 달았다. 좌우 측면에는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으며, 전후면에 난간을 달았다. 상층 좌우 측벽에 출입문이 있으며, 상층 전후면에는 각각 네 짝 미서기 유리창을 달았다.

가구는 일반적인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과 유사한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동자주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위에 종보를 걸고 중앙에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좌우 퇴칸에서는 측벽 중앙 기둥에서 걸구된 층량이 거의 수평으로, 층량 머리가 대들보를 약간 따내고 걸구되었으며,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되었으며, 모로단청으로 마감하였다. 정면 중앙에는 장수루 현판이 걸려 있으며, 현재 향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와 비각, 화장실, 홍살문 및 협문 2동이 있다.

교직사(校直舍)는 수복실(首僕室)로 불리우며 1982년에 신축하였고, 이후 몇 차례 담장과 일부분에 대한 보수가 있었다. 건물은 현대식 벽돌 조적조 건물로 ‘ㄴ’자 형태를 띠고 있다. 전면에 차양을 신설하였으며 후면은 축대를 쌓았다. 한식 시멘트 기와를 덮은 우진각지붕 건물로, 홍살문 좌측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에 외부로 향하는 사주문 1동과 북측에 서재 남측으로 통하는 협문 1동이 자리잡고 있다.

비각(碑閣)의 형태는 맞배지붕에 사방 단칸의 규모로 시멘트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지계사(池繼泗)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가 있으며, 북측면에 공덕비 1개가 서 있다. 전면에는 홍살문 전면으로 통하는 계단이 시멘트 축대 전면에 조성되어 있다. 전체 향교 영역의 남서측 모서리 경사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비(碑) 후면 벽체에는 ‘(前略)...壬戌年 十月初六日巳時 護聖公池繼泗碑閣 上樑’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 위치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전에 목조 비각이었던 것이 중간에 소실되어 시멘트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1992년에서 1993년 사이에 건립되었다. 내부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전면에 담장을 두고 외부에서는 담장 우측을 터 건물의 동측 전면으로 출입하게 하였고, 교직사 쪽에서는 북측면에 협문을 두어 바로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홍살문(紅箭門)은 1980년에 건립되었으며, 장수루 전면에 위치하여 방형 초석 위에 원형 기둥을 세우고 상부에 홍살을 꾸며 향교 영역으로의 경계 표식 역할을 하고 있다.

협문(夾門)은 2동으로 하나는 교직사 전면에 위치한 사주문(四柱門)으로, 전면에 2단 계단을 둔 민도리계 맞배지붕 형태를 띠고 있다. 좌우 벽체는 회사벽으로 꾸미고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굿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중앙에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다른 하나의 협문은 일각문으로 교직사 북측에 있으며, 전면에 시멘트로 마감한 6단 계단 1개를 두었다.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고 좌우 벽체는 판벽으로 두었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하였다. 방형 기둥 모서리를 계눈모로 다듬었으며, 좌우에 방풍판을 달아 내고 굿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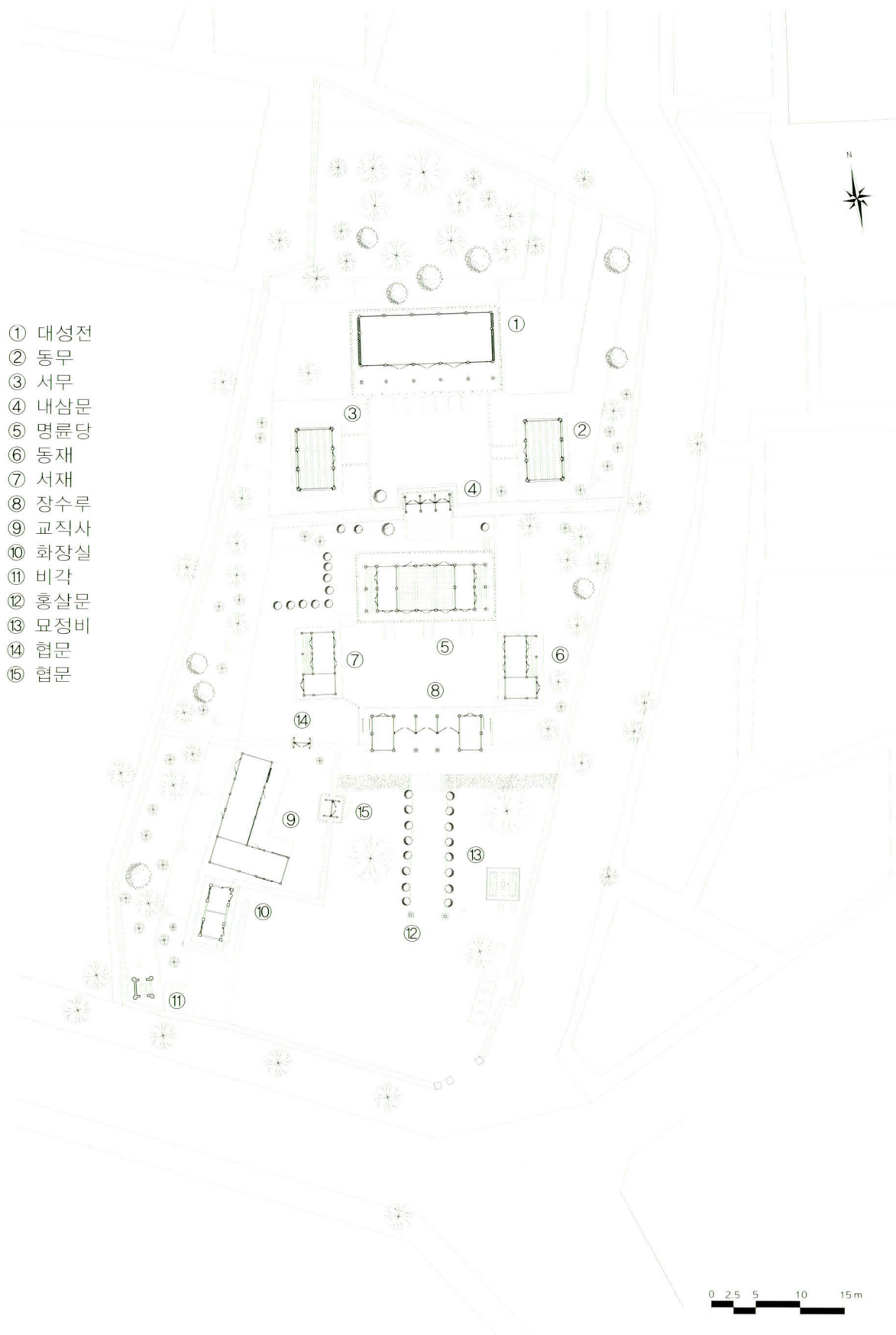
- 1) 조선 명종 14년(1559)~인조 1년(1623) 때의 사람. 호는 어우당(於于堂), 문신, 설화문학가
- 2) 조선 선조 때 문신, 성균관 직강을 거쳐 병조 정랑에 이름
- 3) <建學都有司生員崔忠元等上江原巡察使書>
- 4) <護聖公池繼泗碑文>, ‘(前略)...崇禎紀元後三壬戌十月上澣 通政大夫行府使李廷顯謹述...(後略)’
- 5)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 일부 문헌에 김계수(金系洙)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오기(誤記)임
- 6) <鄉校重修記>, ‘(前略)...崇禎紀元後三乙巳七月下澣 一善後人 金樂洙 鄉校重建時 監色工匠錄...(中略)...木手 韓成大 朴得 姜福童 盖匠 朴希章 石手 卓泰建 泥匠 孫莫山 畫工 崔允憲 僧義律’
- 7) <校宮重修記>, ‘(前略)...是歲五月 郡守 權直相’
- 8) <校宮重修記>, ‘(前略)...孔子紀元二千四百六十七年丙辰六月下澣 郡守 申圭善 謹記’
- 9) 당시 교지기였던 김순남(金淳南)이 성현의 신위를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 전쟁 후 1960년에 대성전이 복원될 때 까지 명륜당에 보관하였다.
- 10) <春川文廟大成殿重建上樑文>, ‘(前略)...夫子誕降二千五百十一年庚子五月九日辛酉奉 後學 金泳河’
- 11) <大成殿重建記>, ‘(前略)...檀紀四千二百九十五年壬寅八月八日 後學 沈震澤...(後略)’
- 12) <春川鄉校重修記>, ‘(前略)...檀紀四千三百十二年己未八月下澣 後學 安龍淳 謹記’
- 13) <守僕室重建記>
- 14) <大成殿重修記>, ‘(前略)...聖記二五三五年甲子三月日 典教 審昌均 謹識’
- 15) <明倫堂重修記>, ‘(前略)...明倫堂東西齋藏修樓重修丹青...(中略)...檀紀二五三五年甲子三月日 後學 崔舜和 謹記’ 기록은 1984년이나 실제 공사는 1983년에 진행되었다.
- 16) <春川鄉校廟庭碑陰記文>, ‘(前略)...孔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五年歲甲子 月 日 成均館長 李載瑞對撰’ <孔夫子廟庭碑建立記>, ‘(前略)...孔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五年甲子八月 日 典教 審昌均 謹識’
- 17) <春川鄉校西 重建記>, ‘(前略)...檀紀四三一十九年十一月二日 春川鄉校 典教 審昌均 謹識’
- 18) 향교 인근에 말탕개미 고개가 있는데, 예전에 목사(牧使)가 말을 타고 부임할 때 말이 이곳에 이르러 움직이지 않았다. 마을 주민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공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말에서 내려 향교에 절을 하자 말이 움직였다는 설화가 있다.
- 19) 조사 당시인 1999년에는 장마루였으나 2000년에 보수하면서 우물마루로 교체되었다.
- 20) ‘龍 孔子誕降二千五百三十七年丙寅七月初一日辰時立柱上樑 龜’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춘천향교(春川鄕校)	지정현황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8호 (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초(추정)	입 지	구릉지 / 主山 : 봉의산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전교 윤범모
좌 향	남향 (대성전 S9°W)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종축 1개
중건시기	1594~1601년 중건 1706년 중건 1960년 한국 전쟁 후 대규모 중건	대지조성	3단 : 장수루,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향교 서편 춘천여고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장수루 / 교직사 / 화장실 / 비각 / 묘정비 / 협문 2 / 홍살문		
특기사항	장수루 초석 및 동무 기단석 등 다수의 건물 부재에서 다른 건물에 사용됐던 흔적 보임 동서재가 중앙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린 채 배치되어 있음(동재 : 동향, 서재 : 서향) 향교에서 분향 및 석전제 외에 봉의산제, 위암문화제의 제례를 주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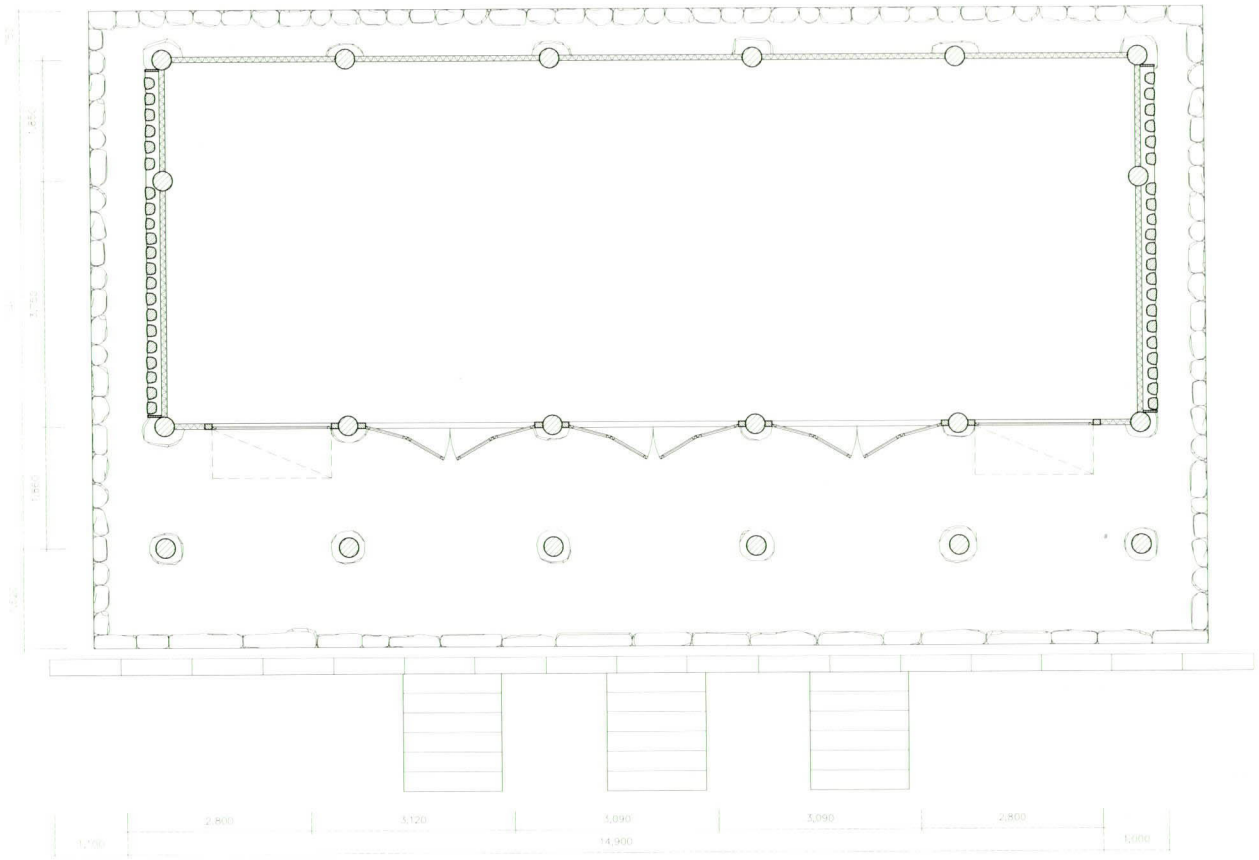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5×3칸, 전1퇴칸 / 초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1고주 5량가(측벽 2고주) / 장마루 / 연등천장 주고 : 평주 3090, 고주 3330 / 주칸 : 주칸 3080, 협칸 2800 / 수장목 85 / 도리단면 $\phi=240$ / 보단면 : 대들보 390×330, 종보 240×270 주심처마길이 1550 / 기단높이 : 전면 1300, 측후면 240 / 초석크기 $\phi=500$ (上), 600(下), h=240		
기단계단	이중기단 / 上 외별대, 下 4별대 / 장대석 바른총쌓기 전면 3개(5단)	보	대들보 : 전고주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가공석(원형, 방형) 원형초석 $\phi=500$ (上), 600(下), h=240	도 리	5량 / 굴도리 (후면 중도리 : 납도리)
기 등	원형기등 $\phi=300\sim31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전면)	창 방	말각방형, 150×210 / 뿔목 운궁형초각
처 마	겹처마(전면) / 서까래단부 직절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장마루		
특기사항	전후면의 공포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음 종보와 대들보 사이 중앙 지점에 화반형 부재를 삽입하여 종보를 받침 측벽의 대들보와 종보의 단면 크기가 어칸, 협칸의 부재 단면크기에 비하여 작음 고주 상부 결구시 주두가 고주 머리 위에 놓이지 않고 첨차를 놓은 뒤 주두를 놓았음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7×2칸, 좌우 반 퇴칸 / 초익공 / 홑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반자(실) 주고 2460 / 주칸 2190, 좌우퇴칸 1260 / 수장목 85 / 도리단면 $\phi=210$ / 보단면 : 대들보 360×420, 종보 240×270 주심처마길이 1380 / 기단높이 전면 1300, 측면 840, 후면 720 / 초석크기 $\phi=550$, 550×550		
기단계단	단층기단 / 6별대 / 자연석 바른총쌓기 전면 3개(6단, 장대석)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가공석 원형초석 $\phi=550$, h=100 방형초석 550×550, h=270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등	원형기등 평주 $\phi=280\sim300$, 우주 $\phi=310\sim330$	대 공	중대공 : 주두+도리방향 첨차 종대공 : 운형대공+도리방향 첨차
공 포	없음	창 방	방형, 120×180 / 뿔목 쇠서형 초각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반자(실)		
특기사항	좌우 반 퇴칸은 우물마루로 마감하고, 방형초석과 원형초석이 혼용되어 있음 서실은 분합문으로 당과 구분되어 있으나 동실은 문선만 남아 있고 창호는 제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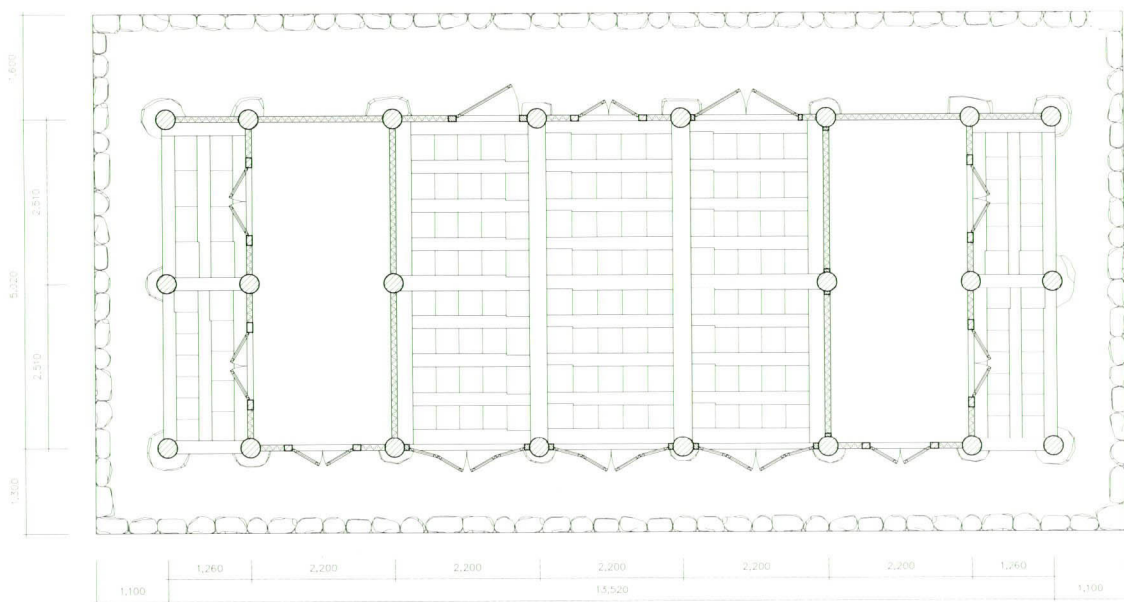


- ① 대성전
- ② 동무
- ③ 서무
- ④ 내삼문
- ⑤ 명륜당
- ⑥ 동재
- ⑦ 서재
- ⑧ 장수루
- ⑨ 교직사
- ⑩ 화장실
- ⑪ 비각
- ⑫ 홍살문
- ⑬ 묘정비
- ⑭ 협문
- ⑮ 협문

배치도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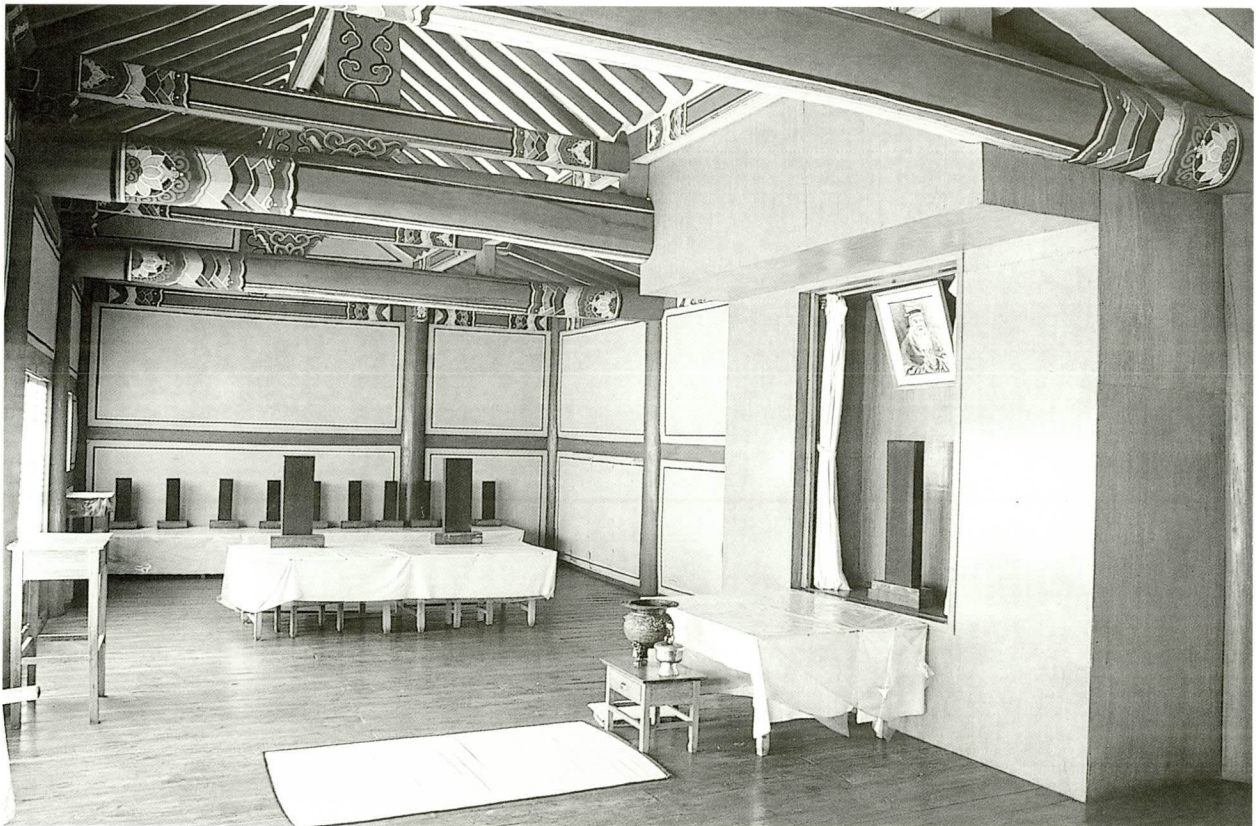


명륜당 평면도





▲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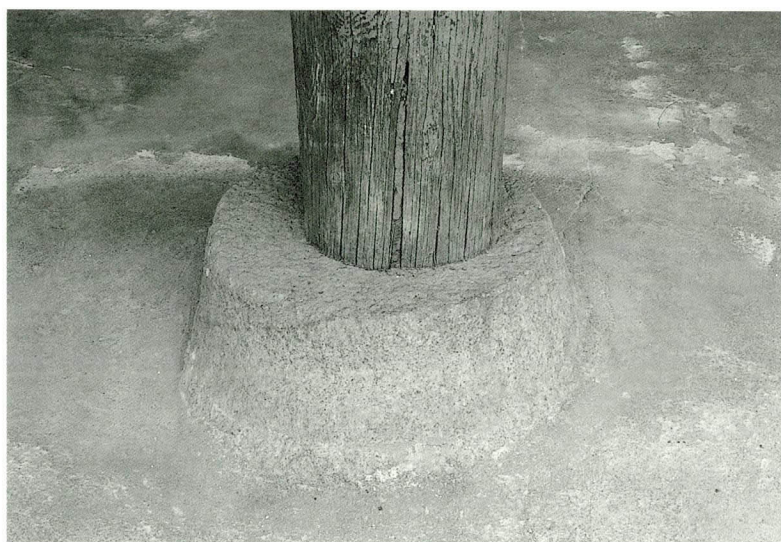
▲ 대성전 내부



◀ 대성전 현판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전면 초석



▲ 대성전 내부 가구



▲ 대성전 내부 공자 신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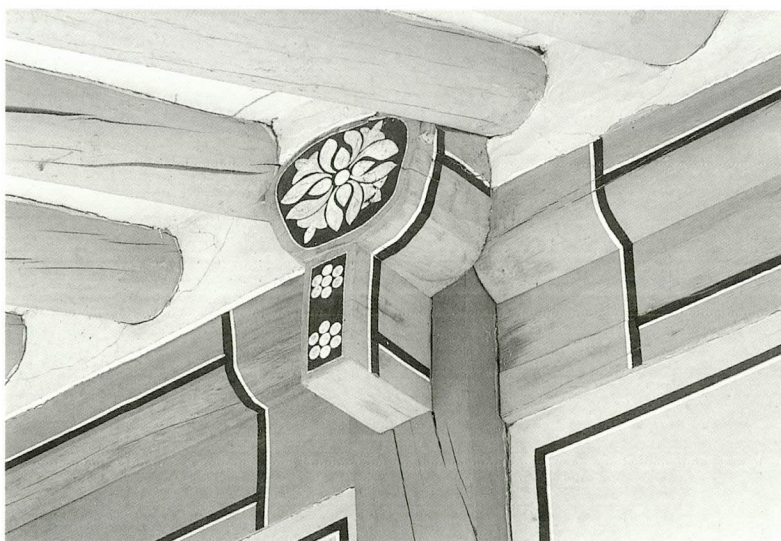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 명륜당 현판



◀ 명륜당 전면 주상부 짜임



◀ 명륜당 중앙 하부 계단



▲ 명륜당 내부 어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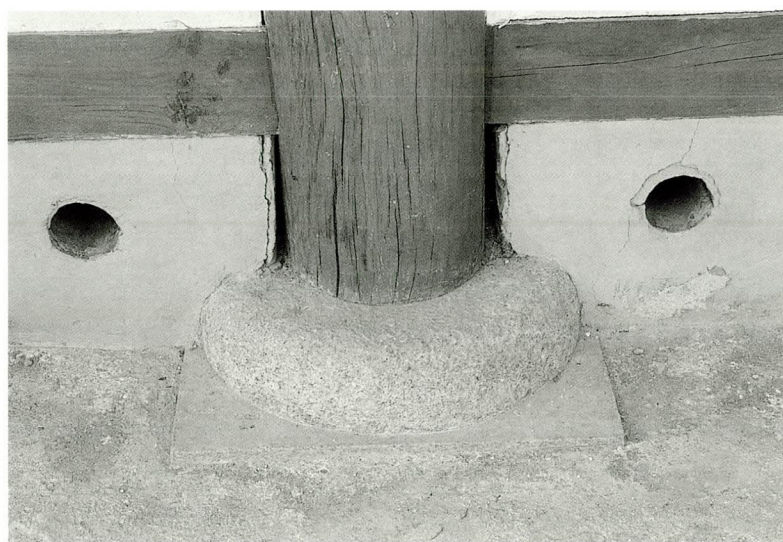
▲ 명륜당 내부 협칸 가구



◀ 동무



◀ 서무



◀ 서무 전면 초석



◀ 동재



◀ 동재 후면



◀ 서재



◀ 장수루



◀ 장수루 전면 초석



◀ 내삼문



◀ 홍살문



◀ 비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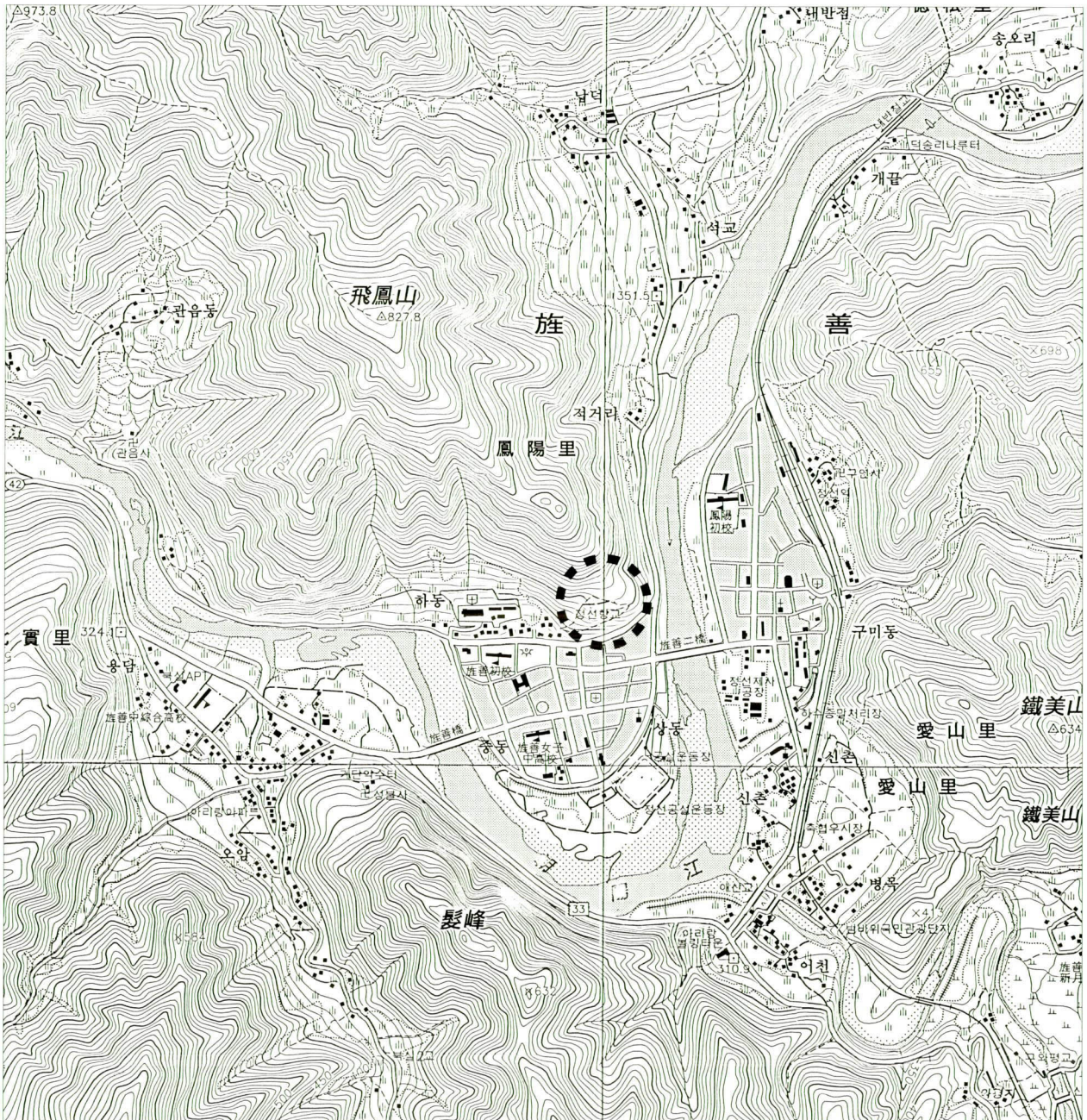


◀ 교직사 영역 전경

7. 정선향교(旌善鄕校)

- 지정사항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1호(일괄지정)
- 지 정 일 : 1985년 1월 17일
-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7리 385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숙청당, 교직사, 제기고, 홍살문, 화장실, 묘정비, 협문 3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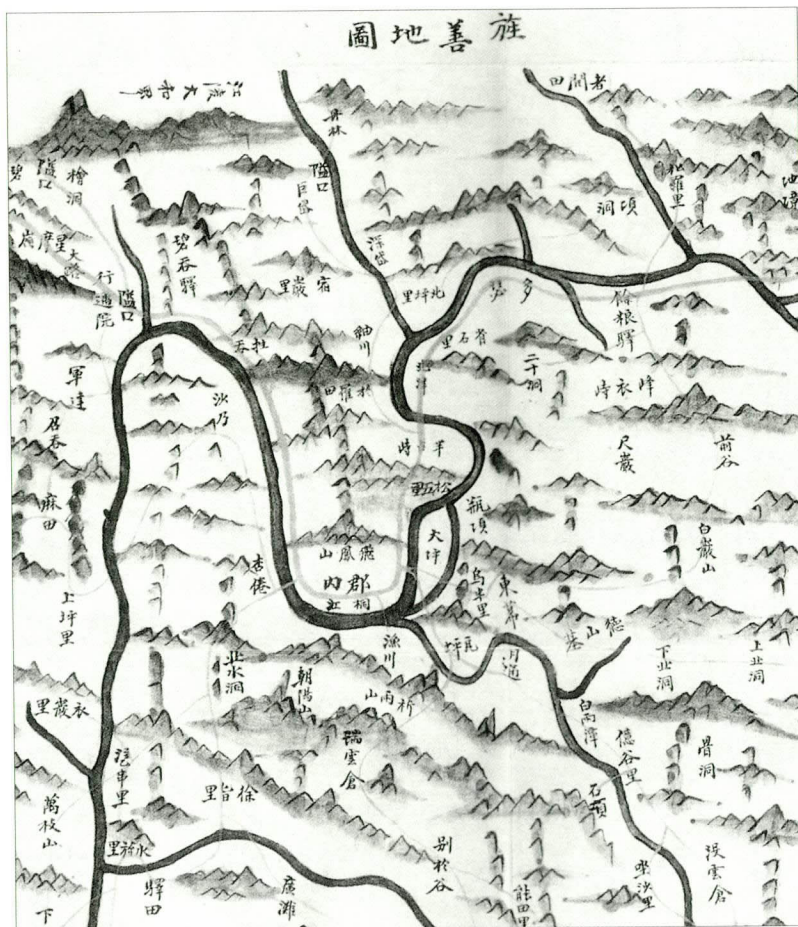
1. 연혁

정선향교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위치하고 있다. 정선군은 원래 고구려의 잉매현(仍買縣)으로, 신라 경덕왕 대에 정선현으로 개칭하여 명주(溟州)의 영현(領縣)으로 있었다가, 고려 현종 9년(1018)에 속현(屬縣)이 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변천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선향교의 창건 기록은 명확하지 않으나 창건은 고려시대인 예종 5년(1110)으로 추정되며, 원래 인근 삼봉산(三峯山) 기슭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조선 선조 38년(1605) 7월 20일의 대홍수로 향교가 유실됨에 따라 당시 향촌 유림이었던 정유열(鄭有說), 유대방(劉大芳), 최흥립(崔興立) 등 3명이 정선을 북쪽에 위치한 덕송리 반점현(半点峴) 아래 석교양구(石橋陽邱)에 모옥(茅屋) 여러 간(數間)을 건립하고 5성(聖)의 신위를 모셨다고 한다. 이 기록은 향교의 임시 거처를 뜻하는 듯 하며 이후 광해군 3년(1611)에 군수 한여징(韓汝徵)이 녹도(綠島) 삼봉산 아래로 이건하였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정월초 관찰사 신제(申堤)의 지적을 받고, 인근 북면의 화천산(花遷山)에서 채목하여 군인(軍人)을 동원하여 6월 1일에 상량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시 현종 2년(1661)에 정선을 부근으로 이건하였는데, 당시 지관(地官)이 터가 좋지않다 하여 이건을 제정하였다. 이후 숙종 8년(1682) 8월 13일에 군수 한명(韓明)이 한 차례 중건하였고, 영조 8년(1732) 10월 19일에 군수 신치근(申致謹)에 의해 현재의 위치로 최종 이건, 상량을 마침으로써 비로소 격식을 다시 갖추었다. 당시의 건물 규모는 대성전과 양무가 먼저 완공되었고 명륜당과 기타 몇 동의 부속 건물은 이듬해 8월에 완공되었다. 당시의 공사 참여자 가운데 목수장(木手匠)으로는 부석사(浮石寺) 승(僧) 태백(太伯), 죽겸(竺謙), 여찬(呂讚) 등이었다. 1746년에 홍철흙(洪哲欽)에 의하여 제복(祭服)을 제작하였으며, 영조 44년(1768)에 최도진(崔道晋)에 의하여 전사고(奠祀庫)와 흥학당(興學堂)이 신축되었다. 1880년, 1897년, 1917년, 1924년, 1931년, 1934년, 1938년, 1942년, 1963년에 각각 향교 건물에 대한 보수가 진행되었다.

현재의 대성전 건물은 1960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거쳤으며, 이어 명륜당을 비롯한 일괄 건물에 대하여 한국 전쟁 이후 피폐되었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수하였다. 명륜당 앞에는 1983년에 세워진 묘정비(廟庭碑)가 건립되어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旌善地圖



1110년	창건(추정)
1605년	대흥수로 향교 유실
1611년	이건
1661년	이건
1732년	현 위치로 이건 ¹⁾
1880년	향교 보수
1897년	향교 일곽 보수 ²⁾
1917년	향교 보수 ³⁾
1929년	대성전 판장(版帳), 계단 축조, 수리 및 단청 ⁴⁾
1931년	대성전, 서무, 제기고 보수 ⁵⁾
1933년	누각 중건, 외삼문 중건, 관복(官服) 마련 ⁶⁾
1934년	명륜당 중수 ⁷⁾
1938년	향교 일곽 변화 보수 ⁸⁾
1942년	동서재, 동서무 수리 ⁹⁾
1960년	향교 일곽 단청 ¹⁰⁾
1961년	명륜당 단청 및 수리 ¹¹⁾
1963년	도서관, 홍살문, 재포사(宰包舍), 교직실(庫直室), 원장(垣牆) 보수 ¹²⁾
1971년	홍살문 건립, 외삼문 전면 진입로 정비, 외삼문 중수, 명륜당 앞 계단 정비
1977년	향교 일곽 중수 ¹³⁾
1980년	대성전, 명륜당 단청 ¹⁴⁾
1981년	하마비 보수 건립 ¹⁵⁾
1983년	묘정비 건립 ¹⁶⁾
1988년	대성전 해체보수 ¹⁷⁾
1989년	숙청당 보수
1990년	외삼문, 담장 보수
1991년	동서재 보수
1993년	교직사 해체 복원
1994년	명륜당 보수 및 주변 정비
2000년	담장 보수

정선향교는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동서무, 숙청당, 제기고, 명륜당, 동서재, 교직사, 외삼문 등 10여 동의 건물과 3개의 협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향교 내에는 상당 수의 기문류가 잘 남아 있으며, 보존 상태 또한 좋은 편이다. 이상의 연혁은 남아 있는 기문, 편액과 향교지 등을 참조하였다.¹⁸⁾

2. 입지 및 배치

정선향교는 정선읍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봉산의 남측 한 자락 끝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산(主山)은 비봉산(飛鳳山)이며, 안산(案山)은 기우산(祈雨山)으로 되어 있고 향교 전면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1개 있으며 조양강(朝陽江)이라 하고, 전체적으로 반월(半月)형으로 굽이쳐 돌아가고 있다. 정선읍내에서 평창 방향으로 가는 42번 국도 방향으로 진입한 뒤 주유소를 지나치기 전 옆 골목으로 들어서면 골목 안쪽에 홍살문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홍살문은 최근에 콘크리트로 주초를 만들고 철제 봉으로 만들었으며 좌측에 역시 근래에 제작한 하마비가 놓여 있다. 진입부 좌측에는 유림회관이 들어서 있으며, 향교 후면을 제외한 전측면이 민가에 둘러싸여 있다.

향교 전체의 대지는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에 가까우나, 명륜당을 전후로 하여 약간의 단차를 두고 있다. 전체 영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 데 외삼문을 들어서면 먼저 강학영역이 자리잡고 있다. 강학영역에는 동재와 서재, 그리고 명륜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동편에 묘정비가 자리잡고 있다. 동재와 서재는 대칭되어 배치되지 않고, 동재가 동편으로 약간 떨어져 있고, 서재는 전면 남측으로 교직사 영역과 구분되는 담장을 두어 공간 전체가 어설픈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제향영역은 따로이 내삼문을 두지 않고 명륜당 좌우에 인접한 협문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하였다. 동입서출(東入西出)의 원칙에 따라 동쪽 협문으로 들어서면 전면에 횡으로 긴 장방형의 마당이 펼쳐지고, 동일한 형태의 동서무가 좌우에, 중앙에는 대성전이 자리잡고 있다. 정선향교에서 특징적인 점으로 제향영역에 따로 제기고와 숙청당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제기고는 대성전 서편에, 숙청당은 동편에 사방 단 칸 규모의 건물로 자리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지에 놓여있는 정선향교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남북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전학후묘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1988년 해체 보수를 거쳤다. 전면에만 장대석 기단을 꾸몄으며 좌우 측면은 경사지로 처리하였다. 전면에서 4단으로 쌓고 각 칸 중앙에 4단 계단을 1개씩 두었다. 초석은 정평주초 형식으로 원형 초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퇴칸열에는 방형기둥을, 나머지는 원형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기둥 상부에는 2익공을 구성하였다. 초익공재는 외단에 끝이 뭉툭한 양서와 연봉을 초각하고, 이익공재 외단은 초익공재와 유사한 양서와 연화(蓮花)를 초각하였으며 고주 익공 역시 동일한 형태로 초각되어 있다.

가구는 어칸에서 1고주 5량가이며 측벽에서 2고주로 되어 있으나 고주의 위치가 중도리와 어긋나 있다. 어칸에서는 중도리가 고주보다 약간 안쪽에 놓여서 종보와 결구되어 있으며, 중대공은 익공재 내단 끝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공 위치에 따로 장혀를 놓고 그 위에 회사벽을 꾸몄다. 종보는 3분변작에 유사한 위치에 놓여

졌으며 중대공은 포대공 형식을 취하고 있고 종대공은 판대공으로 되어 있다. 측벽에서는 대들보 중간에 평주와 같은 높이의 헛기둥을 두어 측벽에서 충량을 결구하고 있다.

지붕은 전면을 겹처마로 처리하였으며,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으며,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내부에는 전돌을 깔았으며 연등천장으로 처리하였다.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 대들보 측면에 일부 별지화를 그려 넣기도 하였다.

대성전 내부에는 중앙에 ‘ㄷ’자 형태로 5성의 신위를 모셔 놓고 좌우 측벽에 송조 2현과 해동 18현의 신위를 모셔두었다.

현재 대성전 건물은 종보의 위치가 고주보다 안쪽에 위치함으로써 대들보의 하중이 기둥이 아닌 익공재 내단에 일부 전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아지가 처지면서 뒷보의 뒷부분을 들어올리고 있으며, 충량의 측면 높이와 대량에 걸친 높이가 대량의 형태와 어울리지 않아 안쪽으로 충량이 쏠리는 등 전체적으로 가구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또한 내부 좌우 퇴칸에서 사용된 충량은 현 건물이 이전 어느 시기에 팔작지붕에서 맞배지붕으로 개수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현 건물은 조선 후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건 당시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동서무(東西廡)

동서무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건물은 야트막한 자연석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기둥을 세웠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 형태의 종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면에서 1/3지점에 셋기둥을 두고 개방형 퇴칸을 구성하였으며, 각 칸 모두 중앙에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모로단청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바닥은 시멘 몰탈로 마감하였다. 서까래 단부를 직절한 것과 사절한 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신구(新舊)부재가 섞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숙청당(肅淸堂)

숙청당은 대성전 동편에 정남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창건 연대는 순조 23년(1823)년이다. 정선향교에서 발간한『旌善鄕校誌』에 수록된 〈숙청당기(肅淸堂記)〉¹⁹⁾와 〈肅淸堂 鄕校大成殿의 東便에 在함〉에 따르면 숙청당은 5성(聖)과 송조(宋朝) 5현(賢)의 영정(影幀)을 봉안한 사우(祠宇)이다.

숙청당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은 강돌과 자연석이 섞인 단층기단 위에 텁병주초 형식으로 초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전면에는 원형기둥을, 후면에는 방형기둥을 세웠으며, 타 건물에 사용되었던 흔적이 있다. 지붕은 홑처마에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가구는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전퇴를 만들기 위해 전면에서 1/3 지점에 셋기둥을 놓고 전면 중앙에 두 짝 세살문을 두었다. 내부 후벽에 간이 단집을 설치하였고, 모두 8분의 초상을 모셨다. 전면만 모로단청으로 하고 후면과 내부는 굿기단청으로 마무리 하였다.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 중앙에 숙청당 현판이 걸려 있다.

(4) 제기고(祭器庫)

제기고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대성전 서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출입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 건물은 1931년에 보수한 바 있으나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다. 자연석으로 쌓은 단층기단 위에 덩벙주초 형식으로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정면 중앙에 외짝 판장문을 달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홑처마에 막새기와 얹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가구는 3량가로 전후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대들보 중간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건물 전후면 하방 하부에 통풍구가 있으며, 일부 부재에서 이전에 다른 건물에 사용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나. 강학영역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은 거칠게 다듬은 장대석으로 만든 이중기단 위에 세워졌다. 전면 중앙에는 기단 중앙을 파내어 계단을 형성하였으며 상단기단은 외벌대로 되어 있다. 그 위에 덩벙주초 형식으로 초석을 놓고 원형과 방형 기둥을 세웠다. 방형기둥은 좌우 측면과 후면에, 원형기둥은 전면에 두었다. 기둥 상부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초익공재 외단은 전면의 경우 연봉을 깎은 짙막한 쇠서형태로 되어 있다. 후면은 주두 없이 기둥 상부에 바로 보머리를 얹었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얹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4분변작 위치에 종보를 얹었다. 중대공은 동자주 형태로 되어 있으며 중대공은 판대공으로 되어 있으며 표면에 당초문을 도채하였다. 동실(東室)과 서실(西室)은 각각 벽체로 구획되어 있으며, 당(堂)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고 좌우 실은 온돌로 되어 있다. 천장은 당은 연등천장, 실은 종이반자로 되어 있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에서 보 중앙에 별지화를 그려 넣기도 하였다. 전면 어칸 중앙에 명륜당 현판이 걸려 있다.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나 일부 부재에 있어 조선 후기적 특징이 보이고 있다. 건물의 건립 연대는 조선 후기로 추정되며 최근 보수시 상당 부분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 동서재(東西齋)

동재와 서재는 모두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나 그 평면 구조는 약간씩 다르다.

동재는 자연석으로 쌓은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얹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가칠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전면 각 칸 모두 외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남측면에 살창을 두었다. 내부는 온돌로 처리하였으며, 남측 1칸을 따로 구획하였다.

서재는 측면은 1칸이나 후면쪽 1/3지점에 셋기둥을 두어 반 칸 퇴로 구분하였다. 어칸과 북측 1칸은 우물마루로 두고 남측 1칸은 내부에 입식 부엌을 설치하였다. 전면 어칸에 외짝 세살문을 달고 좌우 칸은 중방 상부에 살창을 두었다. 기단 전면이 명륜당 측면과의 사이에 놓인 계단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에 인접한 담장으로 인하여, 교직사 측에서 서재 후면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3)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1933년에 건립되었던 것을 1971년과 1990년에 각각 중수하였다.

건물은 야트막한 장대석 기단 위에 정평주초 형식으로 방형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기둥을 세웠다. 전면 전체에 걸쳐 2단의 장대석 계단을 두었으며, 후면 어칸에는 명륜당으로 이어지는 답도가 접해 있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세웠다. 벽체는 판벽으로 되어 있으며, 어칸 상부는 널찍하게 반자를 짜 넣은 반면 좌우칸은 연등천장으로 처리하였다. 바닥은 시멘몰탈로 마감하였고, 도리 이상은 모로단청으로 마감하였다. 각 칸 모두 전면에 2짝 판문을 달았으며, 어칸에는 3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다. 기타

교직사(校直舍)는 정면 4칸, 측면 1칸에 사방 1칸을 북측으로 덧달아 낸 ‘ㄴ’자형 살림집의 형태를 띠고 있다. 공포 없이 민도리 형식에 맞배지붕을 취하고 있으며 1993년에 기존의 교직사를 해체하고 새로 지었다. 건물은 자연석으로 2단을 쌓은 단층기단 위에 덩병주초 형식의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기둥을 세웠다. 지붕은 홑처마에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가구는 3량가를 채택하였다.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고, 부엌을 제외한 나머지 칸 모두 전면에 외짝 여닫이 문을 달았다. 내부 천장은 종이반자로 마감하고, 바닥에 온돌을 두었으며 가칠단청으로 마무리 하였다.

홍살문(紅箭門)은 1971년에 건립된 것으로 콘크리트 초석 위에 지름 270mm의 철제 관을 세웠다. 홍살문 서측에는 1981년에 세워진 오석(烏石)으로 된 하마비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에 ‘大小人皆下馬’라 새겨져 있다.

협문(夾門)은 모두 2개가 있는데, 명륜당의 동편과 서편에 접하고 있다. 두 협문 모두 일각문 형태로 되어 있으며, 각각 문상방에 ‘東夾門’과 ‘西夾門’이란 이름이 쓰여져 있다. 한편 외부에서 교직사로 들어가는 협문이 있었으나 조사당시에는 현존하지 않았다.

- 1) 旌善鄕校, 『旌善鄕校誌』, 1988 : 100쪽
- 2) 〈鄕校重修記〉, ‘(前略)...上之三十四年丁酉陽月上澣全東夏書 別看役高鏞聲 都料匠全秉鉉’, 전당(殿堂), 실방(室房), 무문(廡門) 보수
- 3) 〈重修記〉, ‘(前略)...丁巳孟冬...(中略)...都料匠金昌憲’
- 4) 〈鄕校重修記〉, ‘(前略)...大成殿內版帳築階沙面塗修理之功...(中略)...歲己巳八月七日...(後略)’
- 5) 〈重修記〉, ‘(前略)...辛未殷春上澣全龍珪記...(中略)...都料匠崔宗希’
- 6) 〈重修記〉, ‘(前略)...癸酉二月 都料匠安定鎬’
- 7) 〈重修記〉, ‘(前略)...甲戌九月日全龍珪記...(中略)...都料匠崔宗希’
- 8) 〈鄕校重修記〉, ‘戊寅 月下澣...(下略)’
- 9) 〈兩齋兩 奉?基修理記〉, ‘(前略)...孔夫子誕降后二千四百九十三年...(後略)’
- 10) 旌善鄕校, 〈鄕校丹青記〉, 『旌善鄕校誌』, 1988 : 147~148쪽
- 11) 〈文廟及明倫堂建物丹青修理記〉, ‘(前略)...檀紀四二九四年八月上澣全鳳集 記...(後略)’
- 12) 〈鄕校重修記〉, ‘(前略)...癸卯南之後學...(後略)’, 『旌善鄕校誌』, 1988 : 148쪽
- 13) 〈鄕校大重修記〉, ‘(前略)...殿堂之頽가 難支原形이라...(中略)...孔夫子誕降二千五百二十八年丁巳八月 旌善鄕校儒林 一同 南弘基 謹寔’
- 14) 〈전당단청기(殿堂丹青記)〉, ‘(前略)...孔夫子誕降二五三一年庚申八月上澣’
- 15) 旌善鄕校, 위의 책, 103쪽
- 16) 〈廟庭碑建立讚揚記〉, ‘(前略)...癸亥年臘月上澣後學善山人金秉奎...(後略)’
- 17) 〈大成殿重修記〉, ‘(前略)...戊辰年十月 日 上澣’
- 18)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영조(英祖) 때 문서인 〈하침향중(下帖鄕中)〉외에 여러 문서가 있다. 그 가운데 이 문서에 대하여 언급하면, 최창유(崔昌愈)가 군수로 재직시에 영조가 각 고을에 보내 문학지사(文學之士) 가운데 훈장(訓長)을 뽑아 경내(境內)에서 강의 토록 함을 지시하는 글이다. 최창유는 정선군수 재직기간이 1757년 정월 28일부터 1760년 11월 11일로 되어 있다. : 정선군, 『旌善郡誌』, 1978 : 376쪽
- 19) 〈肅淸堂記〉는 1823년(癸未) 여름(夏)에 쓰여진 것으로 정선군수 이화연(李和淵)이 썼다. 군수 재임기간은 1822년 3월 19일부터 1825년 7월 16일로 되어 있다. 정선군, 위의 책, 377쪽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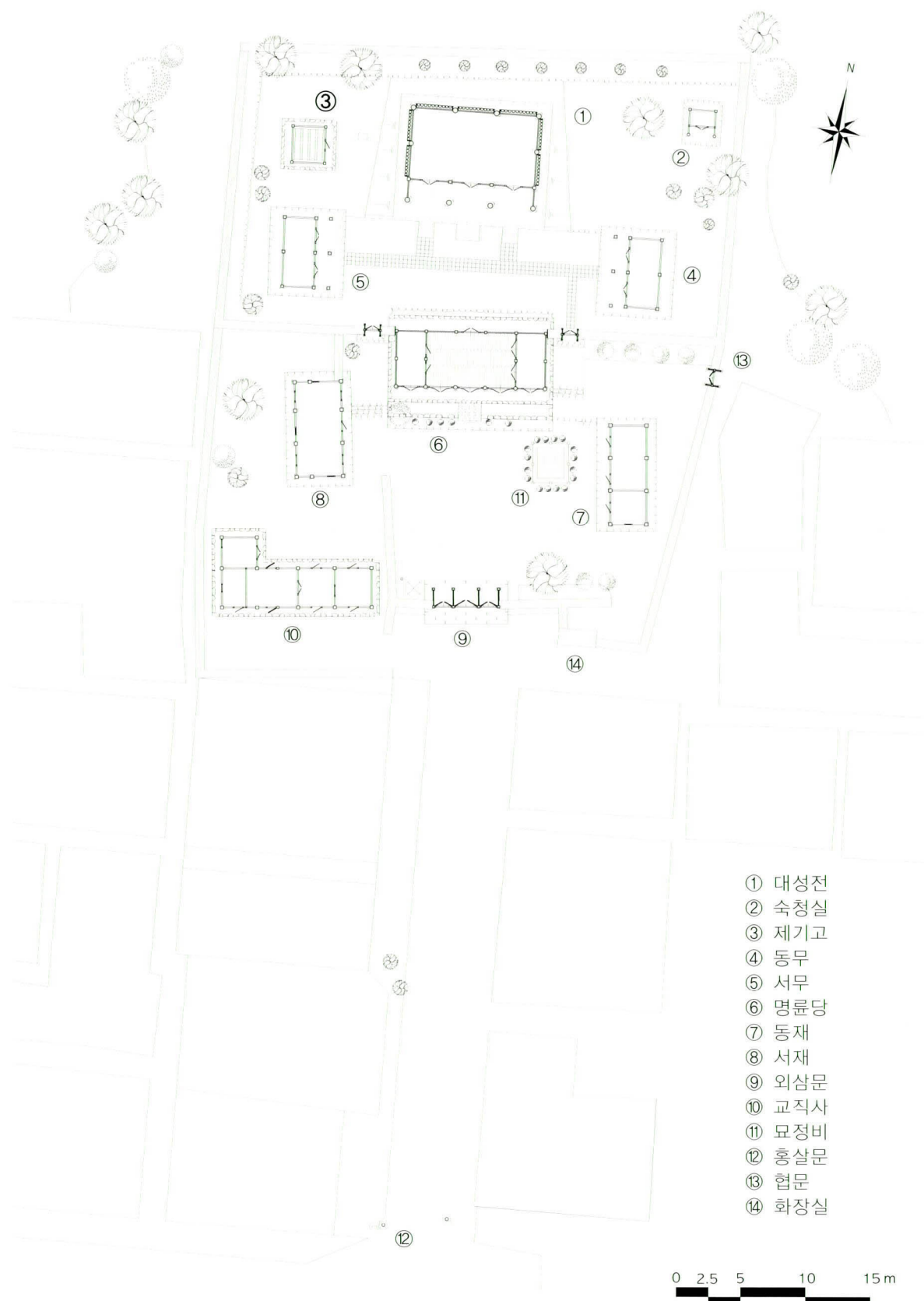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정선향교(旌善鄕校)	지정현황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1호 (일괄지정)
창건시기	1110년 (추정)	입 지	구릉지 / 主山 : 비봉산 / 案山 : 기우산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전교 유돈대
좌 향	남동향 (대성전 S10°E)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종축 1개
중건시기	조선 영조 8년(1732)	대지조성	2단 : 명륜당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향현사(사당, 정선유림 7명 위패 모심)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명륜당 / 동서재 / 외삼문 / 숙청당 / 교직사 / 제기고 / 홍살문 / 화장실 / 묘정비 / 협문 3		
특기사항	서재가 교직사와 인접해 있으며 교직사와 명륜당 사이에 내외담이 있음 대성전 좌우 후측에 대기실 및 숙직실(숙청당)이 각각 위치함		

대성전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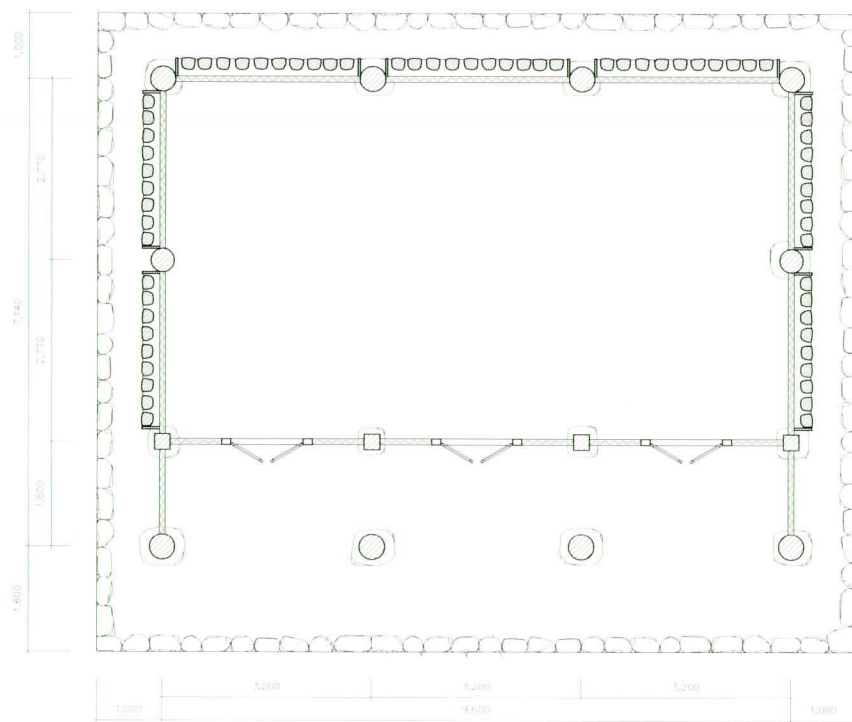
개 요	3×3칸, 전1퇴칸 / 2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전돌바닥 / 연등천장 주고 : 평주 2500, 우주 2580 / 주칸 320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ϕ = 210 보단면 : 대들보 420×450, 종보 240×270, 뒷보 270×300 주심처마길이 1660 / 기단높이 : 전면 1100, 후면 100 / 초석크기 약 700×800 전후		
기단계단	단층기단 / 네벌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전면 3개(4단)	보	대들보 : 전횡기둥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에 근접
초 석	정평주초 / 원형초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ϕ =390(上420) 방형기둥 下 280×280, 上 240×240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판대공+이중 장혀
공 포	이익공 / 주칸 화반(전후면 공통)	창 방	말각방형 / 뿔목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화방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전돌바닥		
특기사항	맞배지붕 건물임에도 팔작지붕 건물의 특색인 총량을 사용하였음 종보의 위치가 고주보다 안쪽에 위치함으로써 대들보가 전후 보아지에 주는 하중 큼 바닥 전돌을 내부는 줄을 맞추고 외부는 엇갈리게 포장함		

명륜당 건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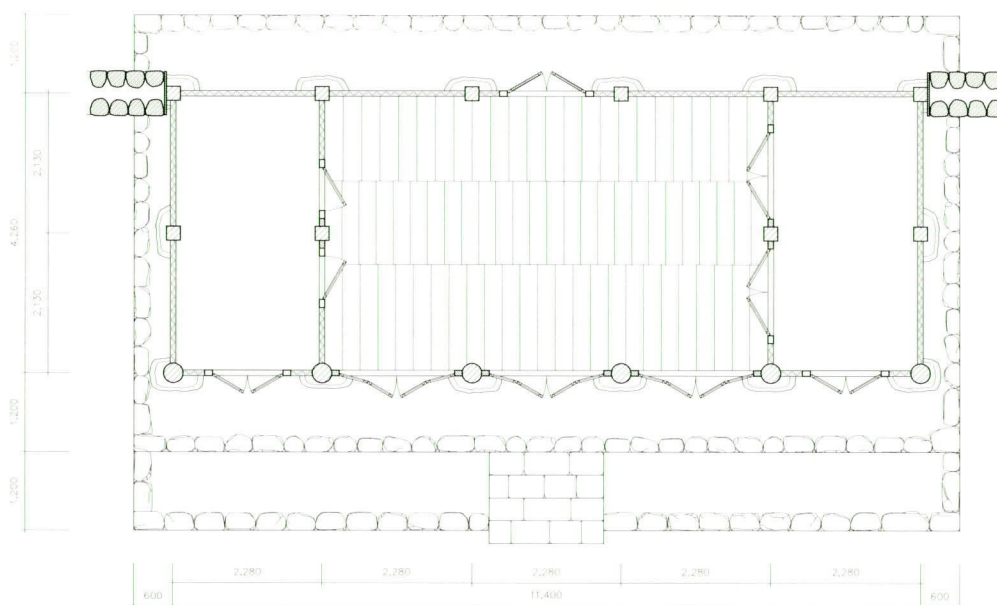
개 요	5×2칸 / 초익공 / 홑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반재(실) 주고 : 평주 2200, 우주 2420 / 주칸 225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ϕ =240 보단면 : 대들보 360×390, 종보 240×270 / 주심처마길이 1100 / 초석크기 약 700×800 전후		
기단계단	2중기단 / 하단 4벌대, 상단 외벌대 장대석 바른층쌓기 전면 1개(6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에 근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ϕ =210 방형기둥 : 210×210(下 230×23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	창 방	방형, 90×165 / 뿔목 첨차형
처 마	홑처마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반재(실)		
특기사항	전면에서는 기둥위에 주두와 익공재를 결구하였으나 후면에서는 주두를 생략함 대들보 중앙에 용 문양 및 연화 문양 등 사찰에서 사용되는 단청 소재 다수 발견됨		



배치도



대성전 평면도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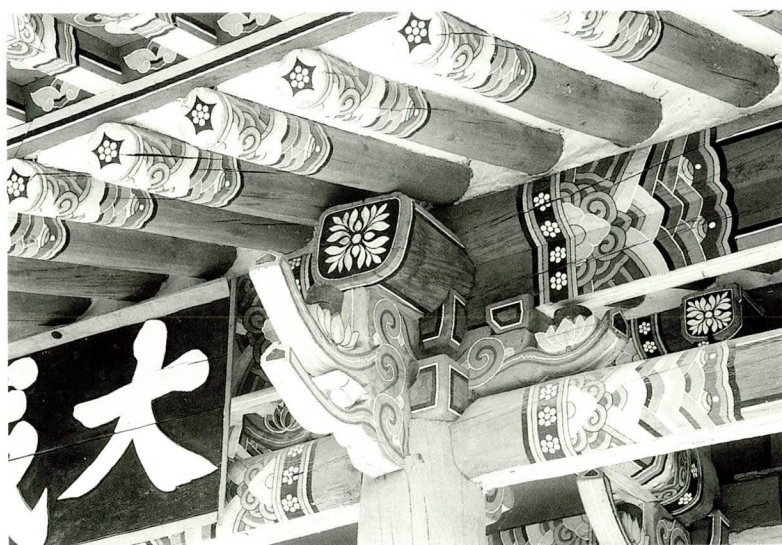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 대성전 현판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후면 주상포



▲ 대성전 전면 퇴칸 가구



▲ 대성전 전면 고주 상세



▲ 대성전 전면 화반



▲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 대성전 내부 협칸 가구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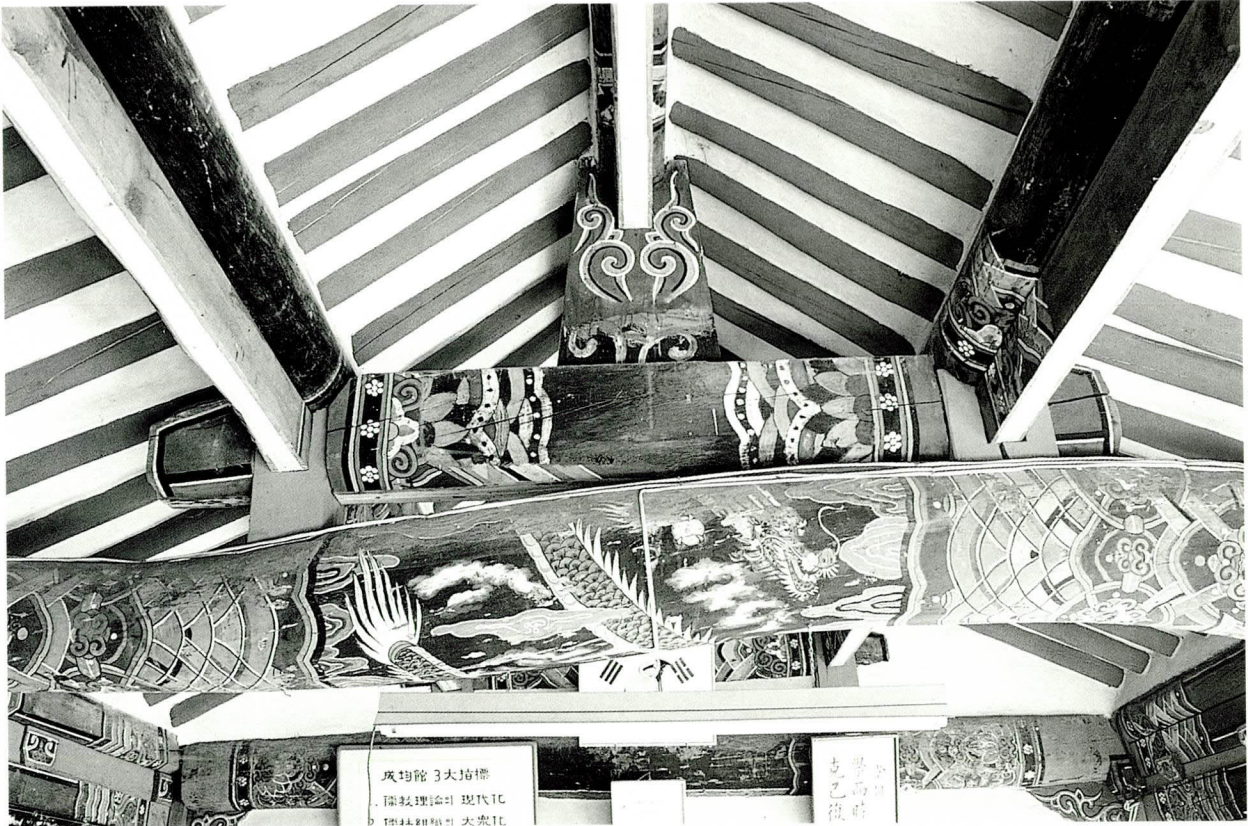
◀ 명륜당 현판



◀ 명륜당 전면 평주 주상포



◀ 명륜당 전면 우주 주상포



▲ 명륜당 내부 어칸 가구



▲ 명륜당 내부 측벽 가구



◀ 동무



◀ 동무 북측면



◀ 서무



◀ 동재



◀ 동재 남측면



◀ 서재



◀ 제기고



◀ 숙청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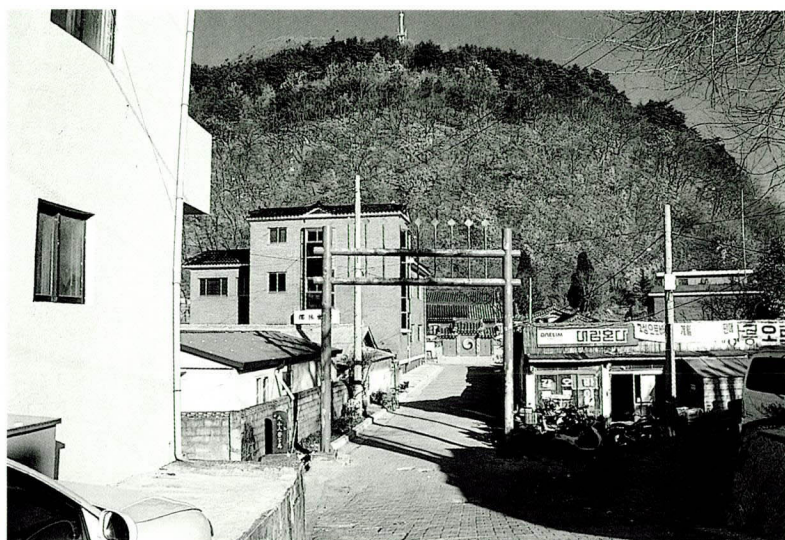
◀ 외삼문



◀ 교직사



◀ 강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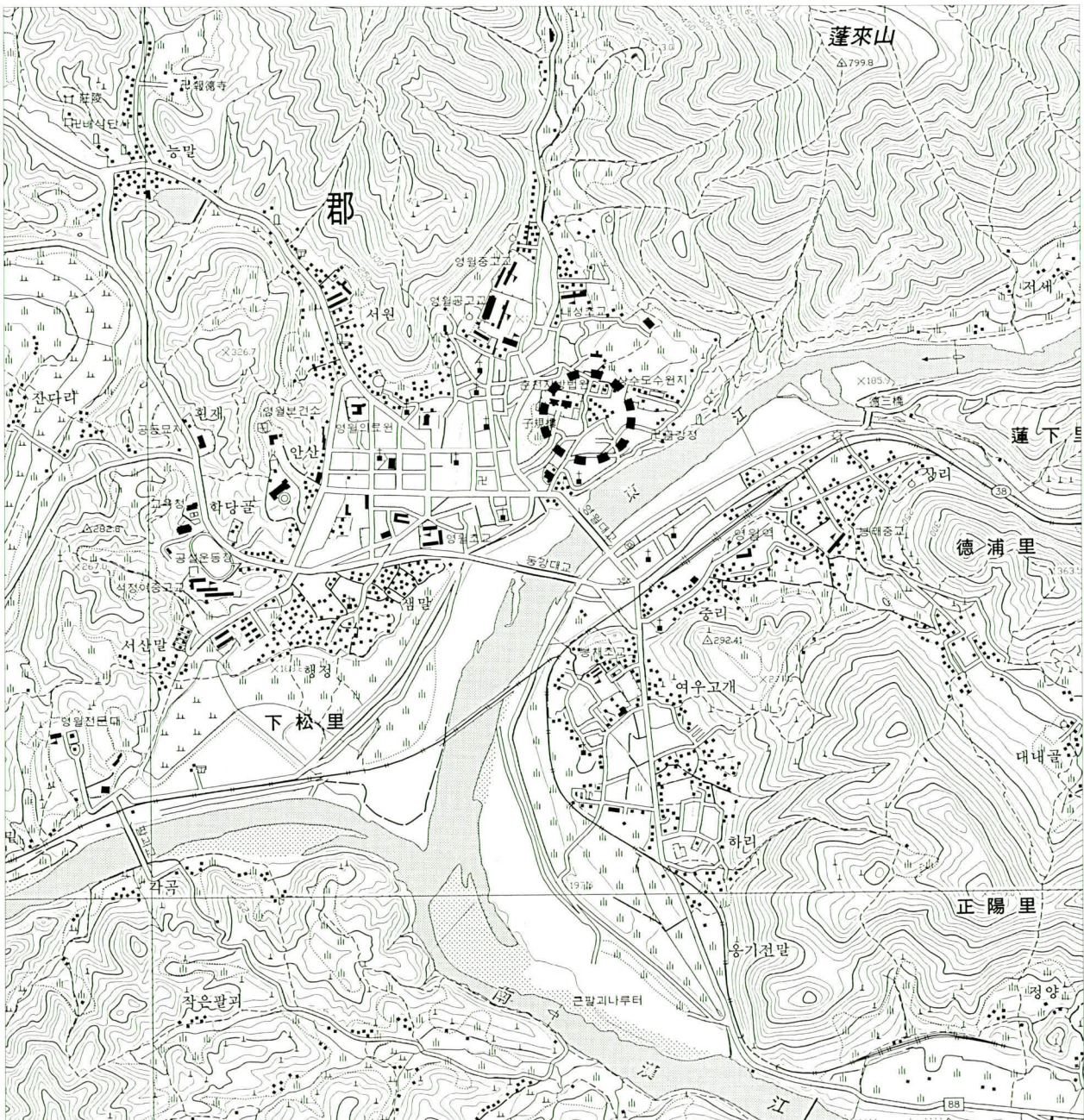


◀ 진입부

8. 영월향교(寧越鄕校)

- 지정사항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0호(대성전)
- 지정일 : 1985년 1월 17일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2리 892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풍화루, 교직사, 화장실

지형도



1. 연혁

영월향교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2리에 위치하고 있다. 영월군은 원래 고구려의 내생군(奈生郡)으로 신라 덕흥왕 대에 내성군(奈城郡)으로 개칭되었고, 고려시대에 영월현(寧越縣)으로 개칭되었다. 조선 중기인 숙종 22년(1696)에 영월부로 승격되었으며, 조선 말기인 고종 32년(1895)에 군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월향교의 창건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인근 향교의 창건 기록을 참고하여 볼 때 조선 초기로 추정된다. 조선 성종 4년(1473)에 일괄 건물에 대한 번와보수를 하였으며, 선조 7년(1574)에 개건(改建)하였다. 선조 26년(1593)에 중수하였으며, 선조 37년(1604)에 중창(重創)되었다. 광해군 9년(1617)에 다시 한 차례 보수하였으며, 인조 12년(1634)에 일괄 건물에 번와 보수를 하였다. 숙종 3년(1677)에 대대적인 중건이 있었고, 정조 19년(1795)에는 동서무를 중수하였다. 순조 25년(1825)에는 다시 번와보수 하였고, 한국 전쟁당시인 1950년에 풍화루, 명륜당, 내삼문이 완전 전소되었다.

이후 1958년 3월에 명륜당과 내삼문을 중건하였고, 1964년에는 풍화루와 장의실을 재건하였으며, 1981년에는 명륜당과 내삼문, 풍화루, 장의실 등에 번와보수 하였다. 2년 후인 1983년에는 대성전을 중건하였으며, 1986년에는 동서무를 중수하였고, 1988년에 고직사를 개수 번와하였다. 1992년에는 장의실을 개건하고, 풍화루의 기와를 교체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대성전을 새로이 단청하고, 현판을 새로 제작 하였다. 1993년에는 장의실(서재)을 중건하였으며, 1996년에 명륜당과 대성전을 보수하였다.

이상의 기록을 바탕으로 향교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 ^①
1473년	일괄 번와보수 ^②
1574년	일괄 개건
1593년	일괄 중수
1604년	중창 ^③
1617년	일괄 보수

寧越地圖



1634년	일곽 번와보수
1677년	일곽 중건
1795년	동서무 중수 ⁴⁾
1826년	향교 일곽 번와보수
1950년	풍화루, 명륜당, 내삼문 완전 전소
1958년	명륜당 ⁵⁾ , 내삼문 중건
1960년	대성전 번와, 명륜당 도리 교체, 동서재 보수 ⁶⁾
1964년	풍화루 ⁷⁾ , 장의실 재건
1973년	동서무 보수 ⁸⁾
1979년	일곽 보수
1981년	일곽 보수
1981년	명륜당, 내삼문, 풍화루, 장의실 번와보수
1983년	대성전 해체 보수
1984년	동서무 중수
1987년	고직사 해체 보수 및 번와
1992년	풍화루 번와보수, 대성전 단청 및 현판 제작, 동재 중건
1993년	서재 중건
1996년	대성전 기단 보수, 명륜당 서까래 이상 해체 보수 및 기단, 마루 보수
2000년	화장실 재축, 담장 정비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영월향교는 대성전, 명륜당을 비롯 10여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입지 및 배치

영월향교는 영월읍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영월 방향으로 88번 국도를 타고 가다 영월 읍내에서 동강교를 건너기 전 좌측길로 송산사 가는 방향을 따라 조금만 들어가면 길 우측에 자리잡고 있다. 인근에 한국방 송공사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찾기가 쉬우며, 부근에 민충사, 창절서원 및 장릉 등이 위치하고 있다.

건물의 향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대지는 야트막한 경사가 있는 구릉지로 경사는 그리 심하지 않다. 안산(案山)은 없으며 현재 대지도 거의 평지에 가까우나 멀리 후면의 야산을 현지에서는 ‘금강경’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 지역의 옛 마을 이름도 향교골로 되어 있다.

전체 영역은 크게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륜당을 전후로 약간의 단차를 두고 있으나 그리 큰 경사가 없는 완만한 구릉지이다. 배치는 전면에 명륜당이 위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양재(兩齋)가 명륜당 전면에 위치한 전재후당(前齋後堂)형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면에 위치한 풍화루의 하층 출입문을 통해 강학영역으로 들어서면 동일한 형태로 건립된 동서재가 좌우에 자리잡고 있다. 중앙에 명륜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풍화루 우측으로 새로 지어진 화장실이 있으며, 명륜당 후면에 근접하여 제향영역으로 통하는 내

삼문이 자리잡고 있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제향영역으로, 좌우에 동서무가 자리잡고 있고 중앙에 대성전이 자리잡고 있다. 완만한 구릉지에 자리잡고 있는 영월향교는 대성전과 명륜당을 주축으로 하는 전학후묘의 배치 형태로 서쪽을 향하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기록에 의하면 1983년에 이전 건물을 완전 해체하고 새로 지었으며,⁹⁾ 해체 보수시 발견된 상량문에는 ‘崇禎戊辰後 一百九十八年之乙酉三月二十六日午時’라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 그 연대는 1826년이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聖)과 송조(宋朝) 2현(賢) 및 해동(海東) 18현(賢)의 신위를 모셔 두었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둔 익공계 맞배지붕 형태를 띠고 있다. 장대석으로 쌓은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다. 전면에는 내삼문 후면에서 이어지는 답도가 놓여져 있으며, 전면 전체에 1단의 계단을 두었다. 벽체는 좌우측벽과 후벽 중방 하부를 화방벽으로 꾸미고 나머지는 회사벽으로 두었다. 창호는 전면 중앙 3칸에 두 짝 세살문을, 좌우 퇴칸에는 외짝 세살문을 달았다. 측면의 규모는 2칸으로, 전면의 퇴칸은 전면칸의 약 1/3 되는 곳에 중앙에는 원형기둥을, 좌우 측벽에는 방형 기둥을 두어 구성하였다. 주칸 길이는 어칸에서 협칸, 퇴칸을 거치면서 각각 1척씩 감소하고 있다.

기둥상부에는 전면에서만 1출목 2익공의 공포를 구성하고 후면에서는 초익공을 구성하였다. 익공재의 외단은 초익공이 양서에 연봉을 초각하였고, 이익공은 짧은 쇠서형태로 되어 있으며, 보머리에는 봉황두를 초각하여 결구하였다. 창방의 형태 또한 전후면이 다른데, 후면의 경우 수장재와 동일한 단면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칸에는 전면에 한하여 화반을 두었다. 후면에서는 익공재 없이 보머리를 직절하고 봉황두 조각을 끼워 넣었다.

건물의 가구는 어칸에서 1고주 5량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전면 고주의 위치는 중도리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으며, 고주는 평주보다 약 1척이 길어 그 위에서 뒷보와 대들보가 맞보형태로 결구되어 있다. 중대공은 동자주에 도리방향 첨차를 결합한 포대공으로, 4분변작의 위치에 놓여 종보를 받고 있다. 중대공은 판대공에 도리방향 첨차를 결구하였으며, 종보 중앙에 놓여 중도리를 받고 있다. 고주 상벽은 광창을 두지 않고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특이한 점은 맞배지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층량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층량은 좌우측벽 기둥 상부에서 대들보와 결구되어 협칸의 대들보에 걸렸다.

지붕은 겹처마로 막새기와 얹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좌우 측면에 방풍판을 달아 내었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두고 바닥에는 전(塹)을 깔았으며, 중앙에 ‘ㄷ’자 형태로 5聖의 신위를 모셔두고, 나머지 신위는 좌우 측벽에 모셔두었다. 건물은 모로단청으로 마무리되었고, 대성전 좌측에는 망례위가 설치되어 있다.

(2) 동서무(東西廡)

동서무는 1973년과 1984년에 각각 보수되었으며, 내부에는 신위를 모시고 있지 않다. 건물은 동서무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형태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통칸이다.

야트막한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다. 기둥에는 약간의 흘림을 두어 치목

하였으며, 벽체는 전면을 회사벽으로, 측면과 후면은 중방 하부에 화방벽을 구성하였다. 창호는 전면 어칸에 두 짝 세살문을, 좌우 협칸에는 외짝 세살문을 달았다. 가구는 기본적인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주간에는 전후면 각 칸 모두 창방과 장혀 사이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내부는 바닥에 전(搏)을 깔았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고,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3)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한국전쟁 당시 소멸되었던 것을 1958년에 중건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되어 있으며 솟을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자연석으로 쌓은 단층기단 위에 놓여져 있으며, 자연석 초석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어칸이 좌우 퇴칸 보다 약 1.5척 정도 크며, 각 칸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고,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있다. 가구는 기본적인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홑처마에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각 칸 문 상방 위에는 홍살을 꾸몄으며, 단청은 모로 단청으로 마무리하였고, 어칸 판문 전면에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나. 강학영역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1958년에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었던 것을 복원한 것으로 이후 1960년과 1981년에 각각 보수하였고 1996년에 대대적인 중수를 하였는데, 이 때 이전의 장마루를 해체하고 우물마루로 교체하였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약간 높게 쌓은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약간의 민흘림을 두어 치목한 원형 기둥을 세웠다. 기단 전면 중앙에는 2단의 계단을 1개 두었으며, 기단 상면은 강희다짐으로 마감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 중앙 3칸에는 4짝 분합문을 달고 좌우 퇴칸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내부는 좌우실을 구분하였고 중앙 3칸을 당으로 두어 우물마루를 짚으며, 상부는 연등천장으로 둔 반면, 좌우 실은 온돌과 지반자로 마감하였다.

기둥 상부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는데, 익공재 외단은 쇠서형태로 되어 있다. 보머리에도 초각한 부재를 결구하였으며, 주간에는 화반 대신 소로를 수장하였다. 가구는 5량가로 전후면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4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놓았다. 중대공은 동자주로 되어 있고 이 위에 중보를 걸고,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건물 전면 중앙에는 명륜당 현판이 걸려 있으며, 내부에는 〈明倫堂 上樑文〉 등 다수의 편액이 걸려 있다.

(2) 동서재(東西齋)

동서재는 각각 1992년과 1993년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 해체복원하였는데, 동서재가 동일한 형식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형태로 되어있다.

건물은 약간 경사진 대지 위에 놓여져 있는데,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명륜당 쪽 1칸을 마루로 두고 나머지 두 칸은 실로 구성하여 온돌을 두었다. 실 전면에는 각 칸 모두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당 후면에는 2짝 판장문을 달았다.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로 전후면 평주위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고, 굿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3) 풍화루(風化樓)

풍화루는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었던 것을 1964년에 중건하였으며, 이후 1981년, 1992년에 번와보수 하였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중층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자연석으로 1단을 쌓은 단층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았고 그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으나, 전면 하층 기둥에 한하여 8각으로 다듬었다. 상층과 하층의 기둥 직경은 약 30mm가량 차이 나며, 우주(隅柱)와 평주도 동일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층 전면에 두 짝 판문을 달고 나머지와 상층은 벽체를 두지 않았으며, 하층 후면 서재측 협간에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다.

하층 바닥은 강회다짐으로 마감하고, 상층 바닥에는 우물 마루를 짚으며, 상층 주변에는 잘 짜여진 난간을 둘렀다. 기둥 상부에는 1출목 2익공의 포작을 구성하였으며, 주간에는 방형의 화반을 하나씩 두었다. 익공재 외단은 모두 연봉을 두어 초각하였으며, 보머리에는 봉황두를 초각하여 끼웠다.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중대공을 두었다. 중대공은 판대공에 도리방향 첨차와 주두를 결구하였으며 그 위에 종보를 놓고 종보 중앙에는 판대공 형식의 중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겹처마에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천장은 좌우 협간 외기 부분에만 반자를 짜고 나머지는 연등천장으로 두었다. 단청은 금단청으로, 대량 중앙에도 별지화를 그려 넣었으며, 하층 판문 전면에는 각 칸 모두 3태극문양을 도채하였다. 풍화루 현판 좌측에는 ‘西紀一九六七年三月’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다. 기타

이외의 건물로 교직사와 화장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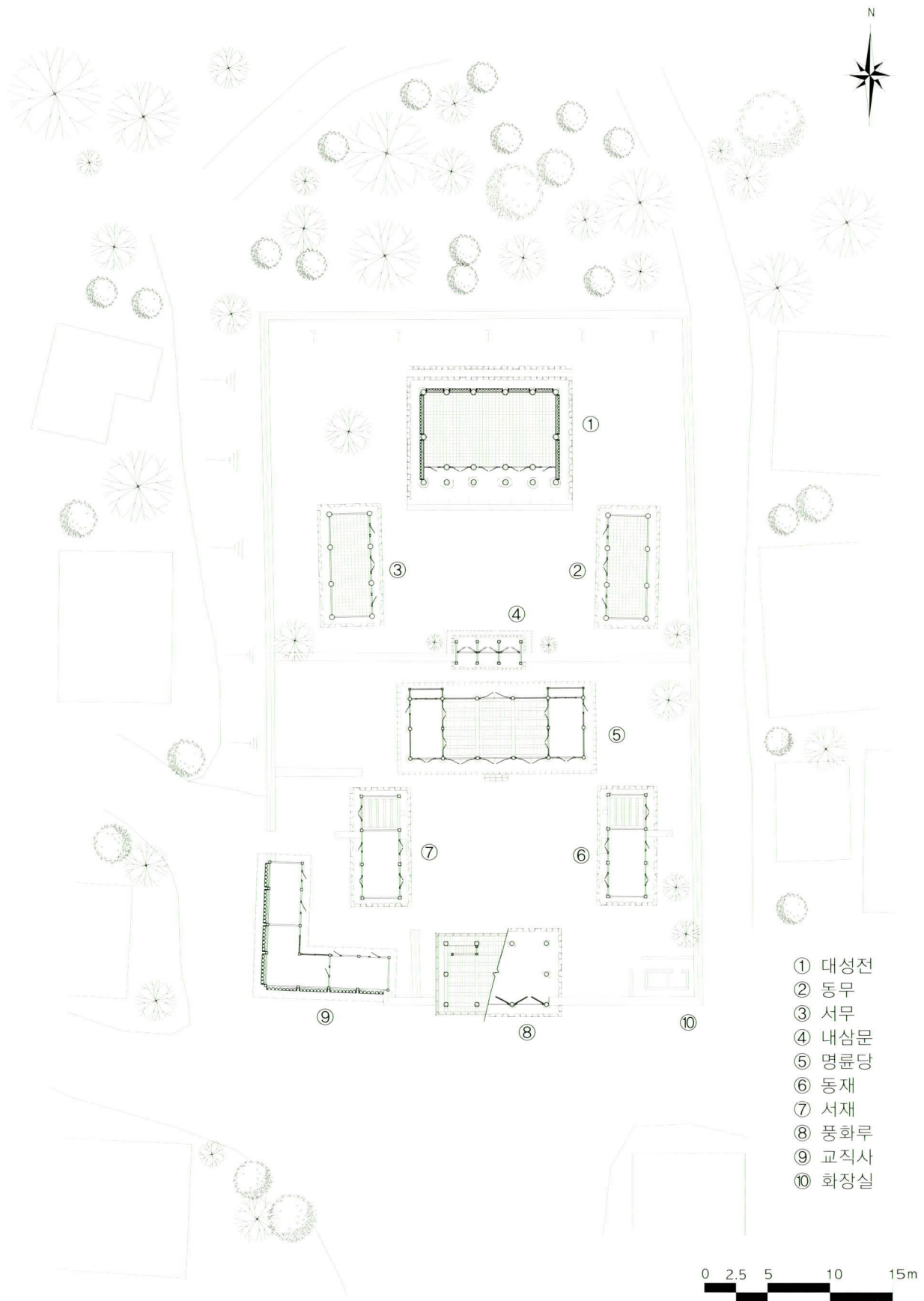
교직사(校直舍)는 서재 후면에 자리잡고 있다. 전체 평면 형태는 ‘ㄷ’자 형태의 일반 민가 형식을 따르고 있다. 4칸집과 3칸집이 결합된 형태로 건물은 야트막한 단층 기단위에 자연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기본적인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맞배 지붕으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홑처마로 되어 있다. 내부 천장은 지반자로 되어 있고, 바닥은 온돌로 되어 있다.

화장실은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로 풍화루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에 신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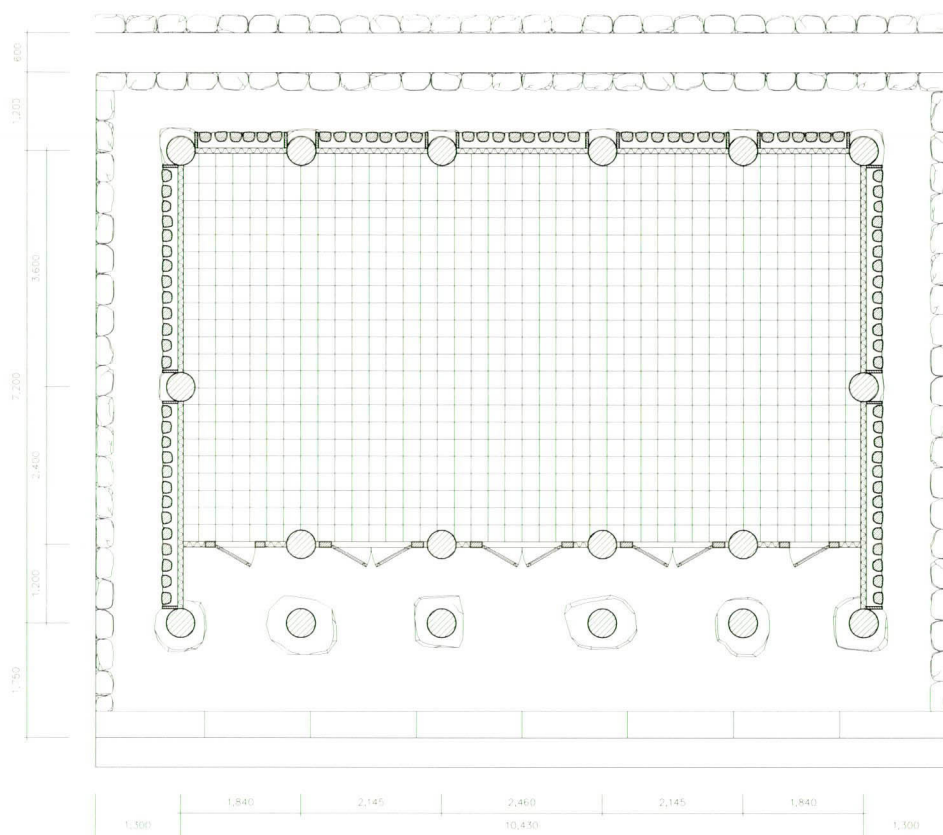
- 1) 유교대사전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儒教大辭典』에는 향교에서 발견된 상량문을 근거로 1404년 창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 2) ‘成化九年歲次’
- 3) ‘萬曆三十二年甲辰月日重創’
- 4) 향교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상량문 말미에 ‘乾隆六十年乙卯五月改造重建’이라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료의 전후가 내용상 맞지 않고, 일부만이 발견되어 그 자세한 중건 내용은 알 수 없다. 19세기 이전의 자료는 이 상량문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은 고증이 어렵다.
- 5) 〈明倫堂 上樑文〉, ‘(前略)...檀紀四二九一年三月 日...(後略)’
- 6) 〈寧越文廟〉, ‘(前略)...檀紀四二九三年春三月上澣...(後略)’
- 7) 〈風化樓 重修記〉, ‘(前略)...檀紀四二九七年甲辰至月日...(後略)’
- 8) 〈鄉校重修記〉, ‘(前略)...孔子紀元二五二四年癸丑二月...(後略)’
- 9) ‘(前略)...孔子紀元二千五百三十四年癸亥二月十五丙辰日壬辰時上樑’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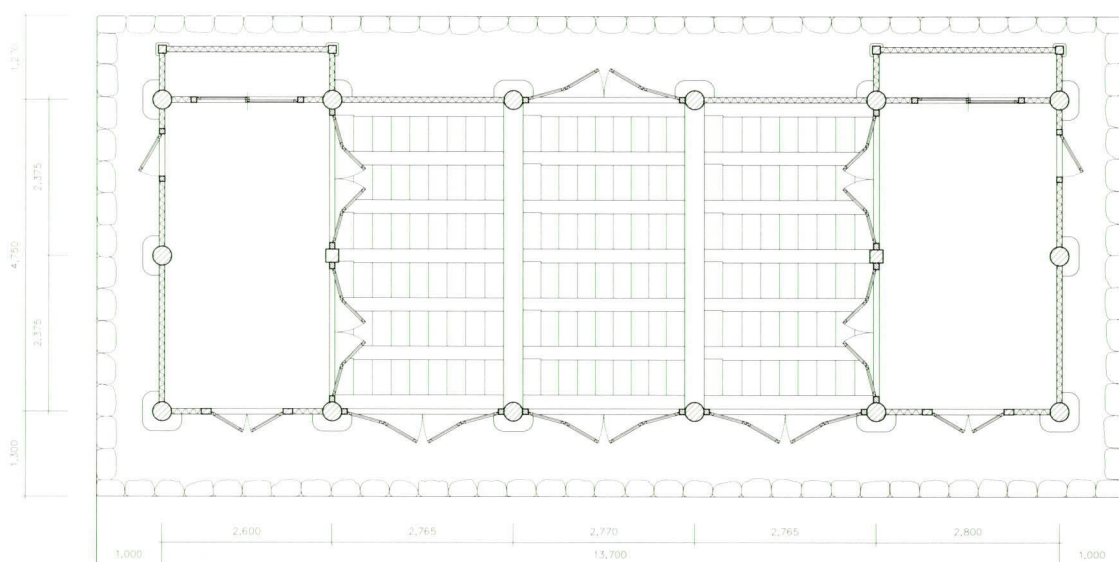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영월향교(寧越鄕校)	지정현황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0호 (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초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교직사 내 관리인 거주	
좌 향	정서향 (대성전 정서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동서중축 1개	
중건시기	조선 선조 37년(1604) 1958년(한국전쟁시 일부 소실, 재건)	대지조성	2단 : 명륜당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창절서원, 민충사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풍화루 / 교직사 / 화장실			
특기사항	일반적인 남향을 따르지 않고 서향을 취하고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5×2칸, 전1퇴칸 / 1출목 2익공(전면, 민도리(후면) / 겹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전돌바닥 / 연등천장 주교 : 평주 2200, 고주 2500 / 주칸 : 어칸 2460, 협칸2130, 퇴칸 1860 / 수장폭 85 / 도리단면 ϕ=270 보단면 : 대들보 390×360, 종보 270×240 / 주심처마길이 1550 / 기단높이 전측면 480, 후면 300 / 초석크기 약 900×800			
기단계단	단층기단 / 이별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전면 전체 2단 구성	보	대들보 : 전횡기둥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ϕ= 390(평주), 410(우주)	대 공	중대공 : 동자주+포대공 종대공 : 판대공+도리방향 첨차	
공 포	전면 : 1출목 2익공 / 주간 화반 후면 : 초익공 / 주간 소로수장	창 방	전면 : 말각 방형 270×270 후면 : 방형 85×210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화방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전돌바닥			
특기사항	고주가 평주와 높이 차이가 나지 않아 헛기둥으로 쓰여지며, 중도리 위치와 어긋남 맞배지붕 건물임에도 종량을 사용함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5×2칸 / 초익공 / 홑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반자(실) 주교 : 평주 2670, 우주 2750 / 주칸 2780 / 수장폭 80 / 도리단면 210×240 / 보단면 : 대들보 360×400, 종보 180×210 주심처마길이 1270 / 기단높이 : 전면 740, 측면 240, 후면 100 / 초석크기 약 400×600			
기단계단	단층기단 / 자연석 바른층쌓기 전면 1개 (2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납도리	
기 둥	원형기둥 ϕ=30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	창 방	없음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우물마루(당), 반자 · 온돌(실)			
특기사항	서실 후면에 반칸 퇴를 달아 벽장으로 활용함 실의 당쪽 창호는 모두 4짝 분합문으로 내부 공간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음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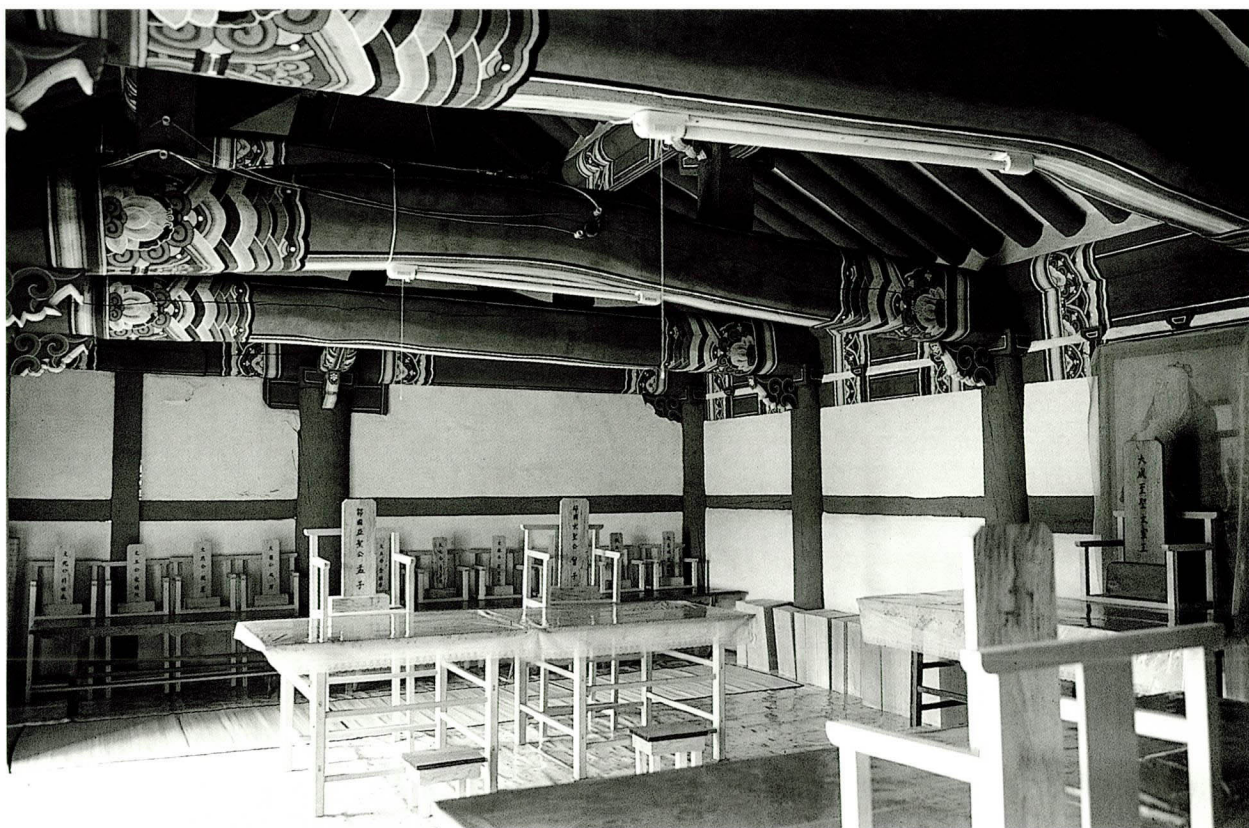
대성전 평면도



명륜당 평면도



▲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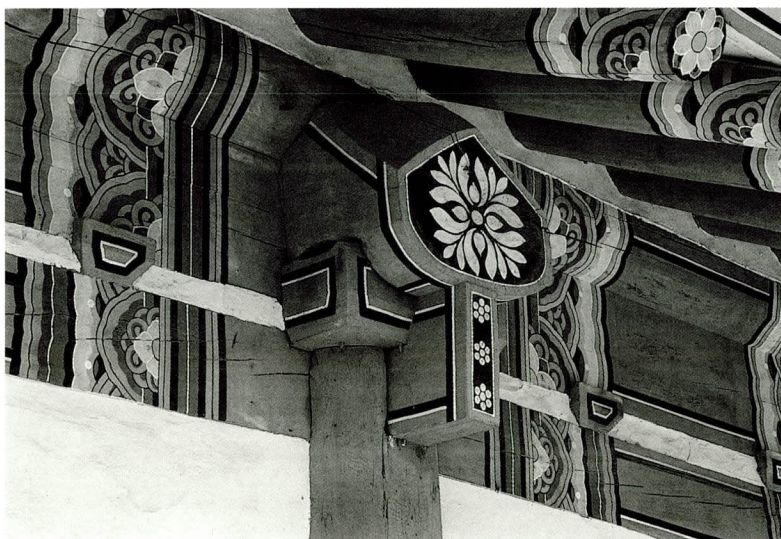
▲ 대성전 내부



◀ 대성전 현판



◀ 대성전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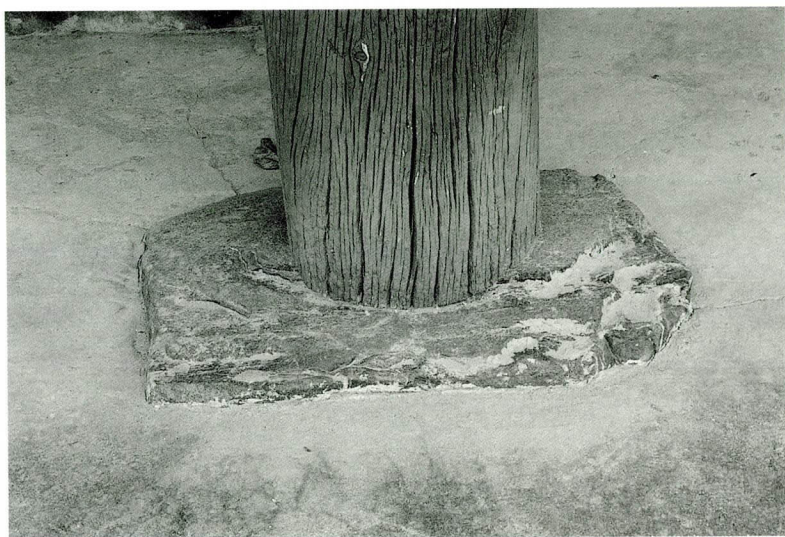
◀ 대성전 후면 주상포



◀ 대성전 전면 퇴칸 가구



◀ 대성전 전면 주간 화반



◀ 대성전 전면 초석



▲ 대성전 내부 가구



▲ 대성전 내부 종대공



▲ 대성전 내부 종대공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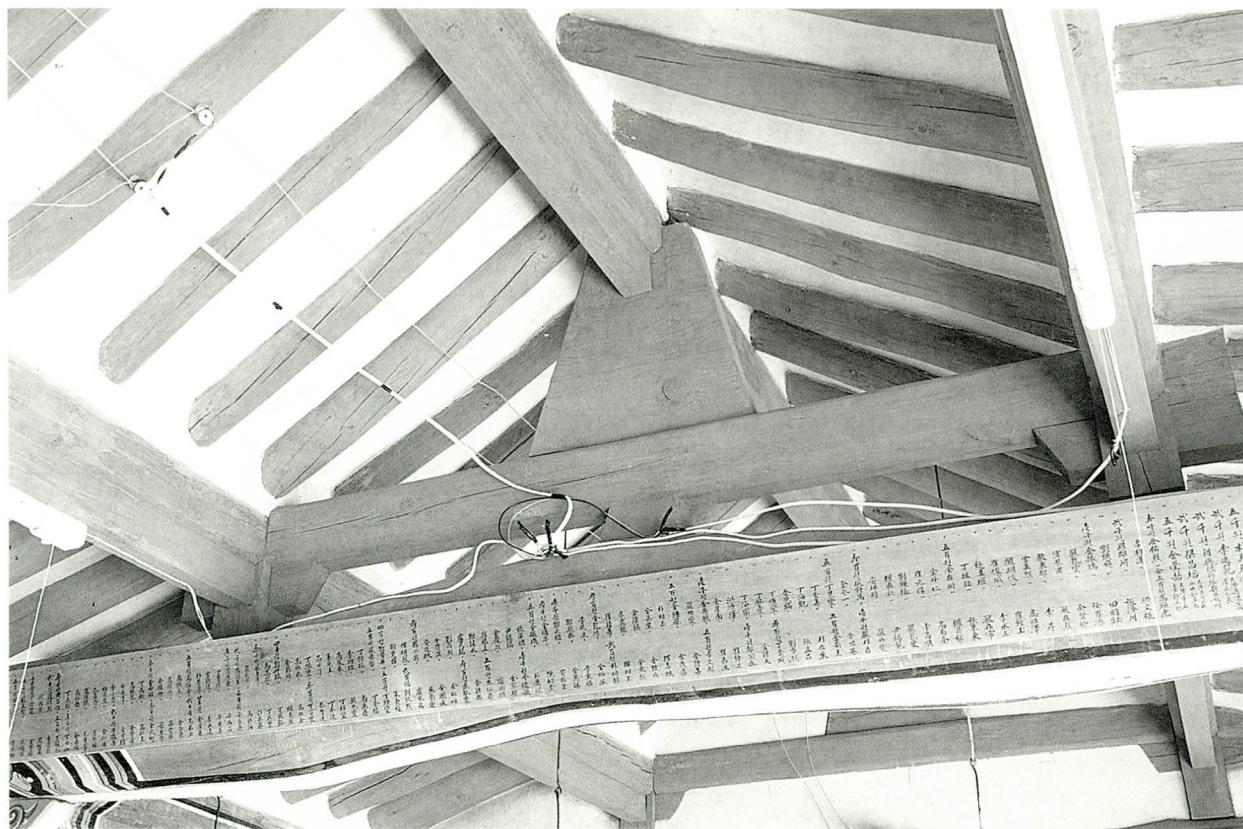
◀ 명륜당 현판



◀ 명륜당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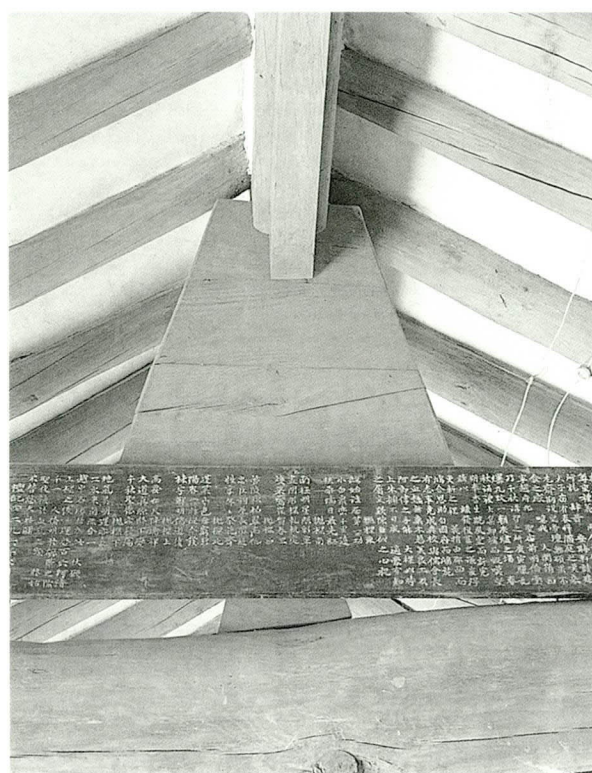
◀ 명륜당 전면 초석



▲ 명륜당 내부 가구



▲ 명륜당 내부 종대공



▲ 명륜당 내부 종대공



◀ 동무



◀ 서무



◀ 서무 내부 가구



◀ 동재



◀ 서재



◀ 서재 전면 주상부 짜임



▲ 풍화루



▲ 풍화루 상층 내부



▲ 풍화루 내부 가구



▲ 풍화루 전면 하층 기둥



▲ 풍화루 현판



▲ 풍화루 전면 주상포



◀ 내삼문 후면



◀ 내삼문 어칸 가구



◀ 교직사



▲ 대성전 측면 제향공간



▲ 서무 측후면



▲ 내삼문 측후면



▲ 서재 북측면



▲ 서재와 교직사 사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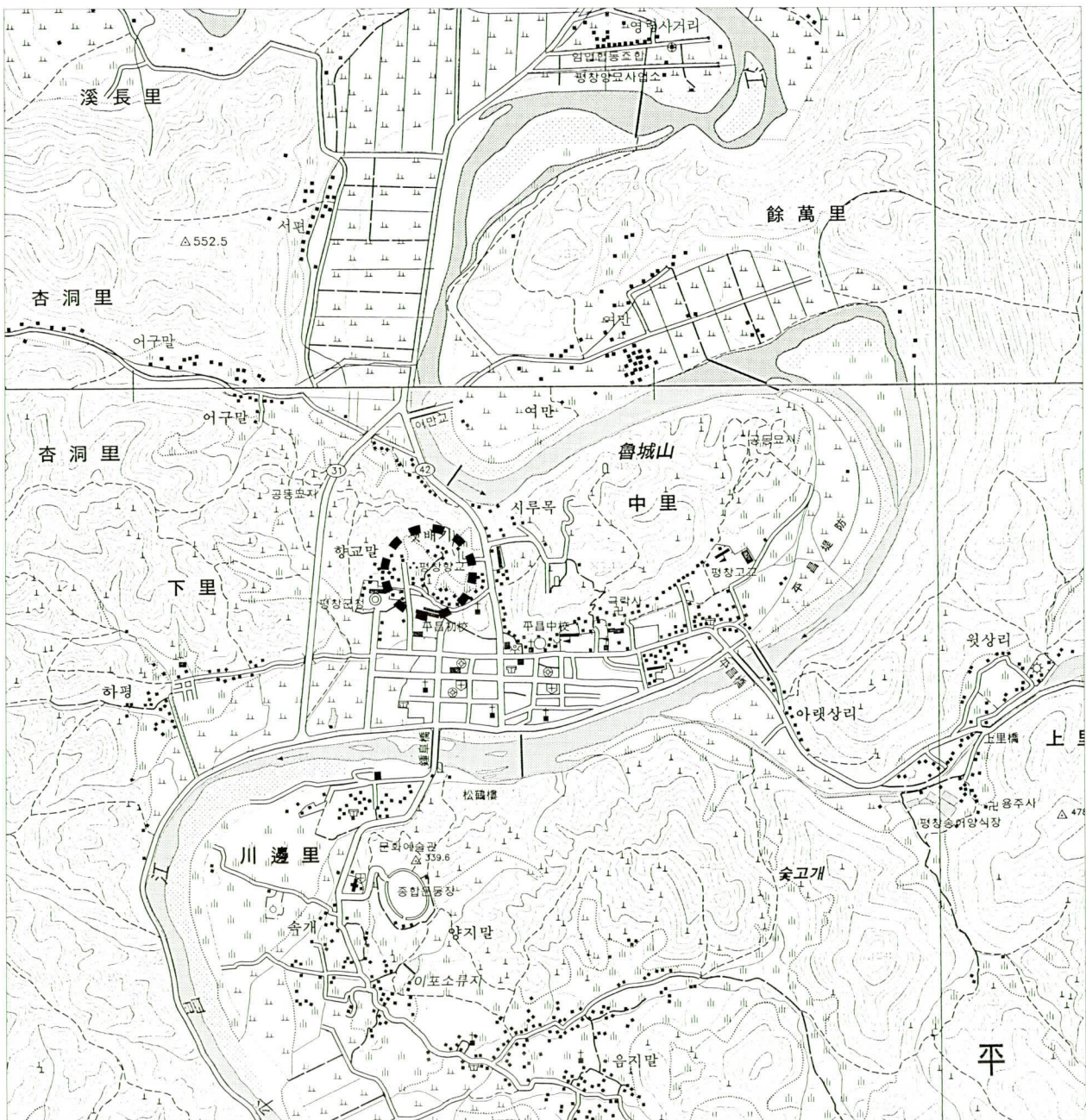


▲ 풍화루 측후면

9. 평창향교(平昌鄉校)

- 지정사항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1호(대성전)
- 지정일 : 1985년 1월 17일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04
- 건축구성 :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풍화루, 장의실, 교직사, 홍살문, 협문 3

지형도



1. 연혁

평창향교는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위치하고 있다. 평창군은 원래 고구려의 옥오현(郁烏縣)으로, 신라 대에 백오(白烏)로 고치고, 나성군(奈城郡)의 영현(鎭縣)으로 두었다. 고려 대에 평창(平昌)으로 개칭하고, 조선 태조 원년(1392)에 목조(穆祖) 효비(孝妃)의 고향이라 하여 군(郡)으로 승격하고, 후에 몇 차례 변천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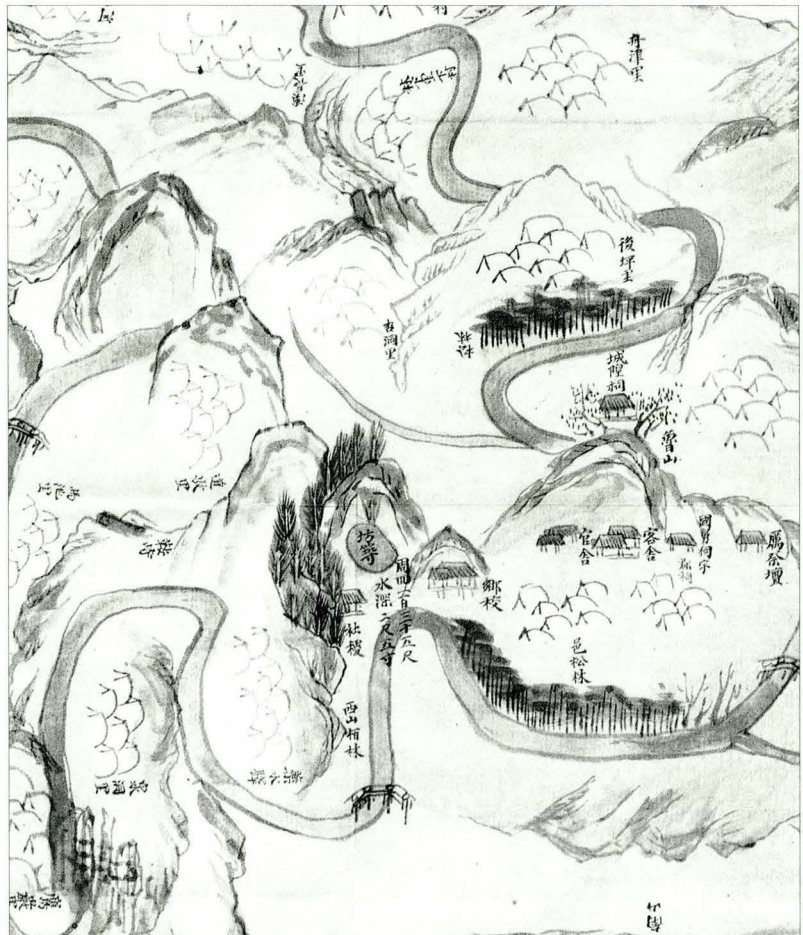
향교의 창건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으나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선 효종 9년(1658)에 평창군수 최창민(崔昌敏)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며, 도유사(都有司) 나만정(羅萬程)에 의해 유림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의 변천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초기에 전국에 일제히 향교가 건립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대적인 중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창건은 조선 초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

이후 숙종 45년(1719)과 영조 5년(1729)에 중수되고, 철종 9년(1858)에 명륜당을 개건하였다. 7년 후인 고종 2년(1865)에는 풍화루를 중수하고, 이후 몇 차례의 중수 및 정비과정을 거쳤다. 그러던 것이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었고, 1953년에서 1954년에 걸쳐 중건하였다. 평창향교 대성전은 1985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 101호로 지정되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추정)
1658년	중건
1719년	중수
1729년	중수
1825년	일괄 보수 ²⁾
1858년	명륜당 개건(改建) ³⁾
1865년	풍화루 중수 ⁴⁾
1885년	일괄 중수
1915년	일괄 중수
1917년	일괄 중수 ⁵⁾
1954년	한국 전쟁 당시 폐허가 된 것을 중건 ⁶⁾
1977년	명륜당 해체 보수
1986년	대성전 해체 보수
1987년	풍화루 보수, 내삼문 및 동서무 해체 보수
1988년	향교 일괄 정비

平昌郡五面地圖



1996년 교직사 개축⁷⁾

1999년 홍살문 보수 및 대성전, 명륜당, 내삼문, 동무, 서무 번와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풍화루, 교직사, 장의실 등 8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향교 내에는 〈明倫堂改建上樑文〉, 〈風化樓重修記〉, 〈平昌郡文廟重修記〉, 〈校直舍改築記〉 등 다수의 편액과 현판류 등이 남아 있다.

2. 입지 및 배치

평창향교는 평창 읍내에 원주에서 영월로 향하는 31번 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동편에는 평창초등학교가, 서편에는 평창군청이 위치하고 있는데, 향교는 그 사이에 오목하게 ‘U’ 자형으로 생긴 야트막한 구릉지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향교의 배치는 전학후묘의 배치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대성전을 중심으로 남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명륜당은 동편 담장쪽에 치우쳐 서향을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향교로 들어 가는 입구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구릉지 전면에 홍살을 두고 풍화루까지 계단을 두었다. 풍화루 전면에는 크게 자란 수목이 두 그루 좌우에 식재되어 있어 전면에서 보았을 때 풍화루의 정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 풍화루를 들어서면 크게 내삼문을 기준으로 2단으로 구분되어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먼저 풍화루를 들어서면 우측에 명륜당이 서향하여 자리잡고 있고, 좌측에 강학영역을 형성하는 담장에 엮물려 장의실이 남쪽 담장에 인접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인접한 협문을 통하여 좌측 담장 밖의 고직사와 연결된다.

계단을 올라 내삼문에 들어서면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자리잡고 있으며 정면에 대성전이 위치하고 있다. 영역은 비교적 좁은 편이며, 대성전의 하층 기단 모서리와 양무의 기단 모서리가 거의 맞닿아 있다. 양무는 정면 2칸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지에 놓여 있으며, 평창향교는 대성전과 명륜당의 향이 직교하는 축을 가진 전학후묘형 배치를 지니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전면에 반 칸 퇴를 둔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1977년에 해체 보수 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보수를 거쳤다.

건물은 전면에서 보았을 때 이중기단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단마다 3단씩 계단을 각각 3개씩 두었다. 장대석으로 기단을 쌓았으며, 자연석을 방형에 가깝게 다듬거나 상면을 평평하게 다듬어 정평주초 형식으로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서측 우주(隅柱)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둥은 약하게 배흘림이 되어 있는 반면, 서측 우주는 상부와 하부의 직경 차이가 약 30mm에 이르는 민흘림 기법으로 치목되어 있다. 또한 중앙의 고주에 한하여 방형의 기둥을 사용하였다. 기둥상부에는 짙막하게 직절한 익공재를 기둥 머리에 끼

우고 주두와 뒷보 머리를 받았다.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였으며 어칸 중앙에 대성전 현판을 걸었다.

가구는 1고주 5량가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고주가 평주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며, 뒷보 뒷뿌리와 대들보 머리가 기둥 위에서 맞보형태로 결구되었다. 기둥의 위치는 중도리와 일치하지 않으며, 종보는 4분변작의 위치에 놓여졌다. 중대공은 동자주로 되어 있으며, 종대공은 동자주로 되어 있으나 어칸에서 하부에 보방향으로 짧은 부재를 덧대었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측면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내부는 연등천장으로 처리하였고 바닥은 시멘물탈로 마감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으며, 어칸 전면에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좌우 퇴칸은 어칸쪽으로 두 짝 세살문을 달음과 함께 정방형에 가까운 들어열개창을 함께 달았다.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마감하였으며, 내부에는 5성(聖)과 송조(宋朝) 2현(賢), 해동(海東) 18현(賢)의 위패를 모셨다. 신위의 배치는 중앙에 ‘ㄷ’자 형으로 5성의 위패를 모시고, 좌우 측벽에 나머지 위패를 모셨다.

전체적으로 건립 시기는 후대로 떨어지는 편이며, 한국 전쟁 당시 상당부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대의 보수 흔적이 많아 한국 전쟁 이후의 건립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

(2) 동서무(東西廡)

동서무는 1987년에 해체 보수 되었으며,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건물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자연석을 2단으로 쌓은 단층기단 위에 덩병주초 형식의 초석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약간의 민흘림을 두어 치목하였으며,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로, 전후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두어 중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다. 전면에는 중앙 기둥 쪽으로 각 칸 모두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전체적으로 좁은 대지에 아담한 규모로 지어졌다.

(3)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1987년에 해체 보수 되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건물은 자연석으로 쌓은 단층기단 위에 덩병주초 형식의 초석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중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연등천장으로 두었고, 각 칸 모두 전면에 두 짝 판문을 달아 출입문으로 사용하였다. 굿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어칸 판문 전면에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나. 강학영역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민도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1858년에 개건(改建)되었으며, 1977년에 해체 보수된 이후 몇 차례의 보수 과정을 거쳤다.

건물은 강돌로 쌓은 단층기단 위에 덩병주초 형식의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다시 원형기둥을 세웠다. 초석 일부는 상면을 평평하게 다듬었으며, 기단 상면은 시멘 물탈로 마감되어 있다.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에 근접한 위치에 종보를 놓았으며, 종대공과 중대공은 동자주로 되어 있다. 지붕은 홑처마이며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서까래 단부가 직절된 것과 사절된 것이 섞여 있는 것은 보수시의 영향으로 보인다. 천장은 좌우 합각부에 반자를 짜고 나머지는 연등천장으로 두었다. 내부는 실(室) 구분 없이 통칸

으로 되어있으며,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외부는 굿기단청으로, 내부는 청록색으로 채색하였다.

건물이 서향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며, 또한 후벽은 담장과 맞물려 영역 외곽을 면하고 있다. 남측 1칸은 후면에 반 칸을 더 내어 수장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앙 2칸은 후면에 각각 두 짝 세살창을 두었다. 건물 북편에는 외부로 출입이 가능한 협문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가구 수법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1858년 당시 개건된 것에서 한국전쟁 이후 상당 부분이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에는 <경재잡(敬齋箴)>, <교직사개축기(校直舍改築記)>, <평창군문묘중수기(平昌郡文廟重修記)>, <명륜당개건상량문(明倫堂改建上樑文)>, <평창향교연혁(平昌鄉校沿革)> 외 1개 등 모두 6개의 편액이 걸려 있다.

(2) 풍화루(風化樓)

풍화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중층 초익공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한국 전쟁으로 손실되었던 것을 1987년에 보수하였다. 건물은 전면 어간에 홍살문에서 올라오는 35단으로 구성된 1개의 계단을 두고, 자연석으로 쌓은 단층 기단위에 덩벙 주초 형식의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다. 하층 중앙 기둥렬에 한하여 상면을 평평하게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사용하였다. 출입문은 하층 중앙에 각 칸 모두 두 짝씩의 판문을 달았으며, 후면 서측 협간에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상층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난간이 쳐져 있고 기둥에는 약간의 민흘림을 두어 치목하였다. 기둥 상부는 익공 형식으로 절구하고, 보머리에는 봉황두를 조각하여 끼웠다. 가구는 5량가로 전후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종보를 걸었다. 중대공은 뜬장허와 보방향 첨차위에 주두를 놓고 종보를 받았으며, 종보 중앙에 판대공 형식의 중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얹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천장은 좌우 퇴간 합각부에만 반자를 짜고 나머지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정면 어간 중앙에 풍화루 현판이 걸려 있으며, 모로단청으로 마감되었으나, 상층 어간 대들보 측면에는 매화 등이 그려져 있다. 또한 기둥 하부에 검은 색으로 가칠을 한 것도 특이하다.

다. 기타

이외의 건물로는 장의실과 교직사, 협문, 그리고 홍살문 등이 있다.

장의실(掌議室)은 정면 4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으로 1단을 쌓은 단층 기단 위에 덩벙주초 형식으로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홑처마에 막새기와 얹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풍화루 서편에 위치하여 강학영역을 구획하는 담장이 건물 전면 중앙 기둥과 맞닿아 있어 이 건물은 교직사와 강학영역의 중간에 걸쳐 있다. 건물의 용도는 정확하지 않으나 현재는 향교 사무를 보는 장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문헌에는 재실(齋室)로 표기되어 있다.

교직사(校直舍)는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으로 약간 경사진 곳에 기단을 쌓고 그 위에 덩벙주초 형식으로 초석을 놓았다. 방형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로 중앙에 동자주를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현 건물은 1996년에 개축한 것으로 현재 관리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협문(夾門)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장의실 앞에 있어 강학영역과 교직사를 연결시켜주는 출입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명륜당 북측에 자리잡고 있어 강학영역과 외부공간의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출입이 풍화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마당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협문은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의 협문은 풍화루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조 출입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홍살문(紅箭門)은 주초만 남기고 쓰러져있던 것을 1999년에 보수한 것이다. 원형의 화강함 초석 위에 방형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홍살을 달았다.

- 1) 이러한 추정은 儒敎事典編纂委員會에서 간행한『儒敎大事典』(博英社, 1990) 226쪽 평창향교 편에 언급된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평창문화원에서 발간한『平昌邑誌』學校篇과『平昌郡誌』, 평창군에서 발간한『平昌郡의 歷史와 遺蹟』에는 1658년 창건으로 되어 있다.
- 2) 강원도,『江原道鄕校書院寺刹誌』, 1992 : 131쪽.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공사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都廳手 李宅堂 李寅老 智渤, 木手 張就漢 李仁鐵’ 등을 언급하고 있다.
- 3) 〈明倫堂改建上樑文〉, ‘(前略)...崇禎紀元後四戊午陽月日’
- 4) 〈風化樓重修記〉, ‘(前略)...同治四年?蒙亦??八月 日’
- 5) 〈平昌郡文廟重修記〉, ‘(前略)...大正六年丁巳菊秋’
- 6) 당시 참여했던 목수는 ‘朴泰湖 金明俊 高聖一’ 등이었다. 강원도, 위의 책, 같은 쪽
- 7) 〈校直舍改築記〉, ‘(前略)....孔夫子誕降二千五百四十七年丙子’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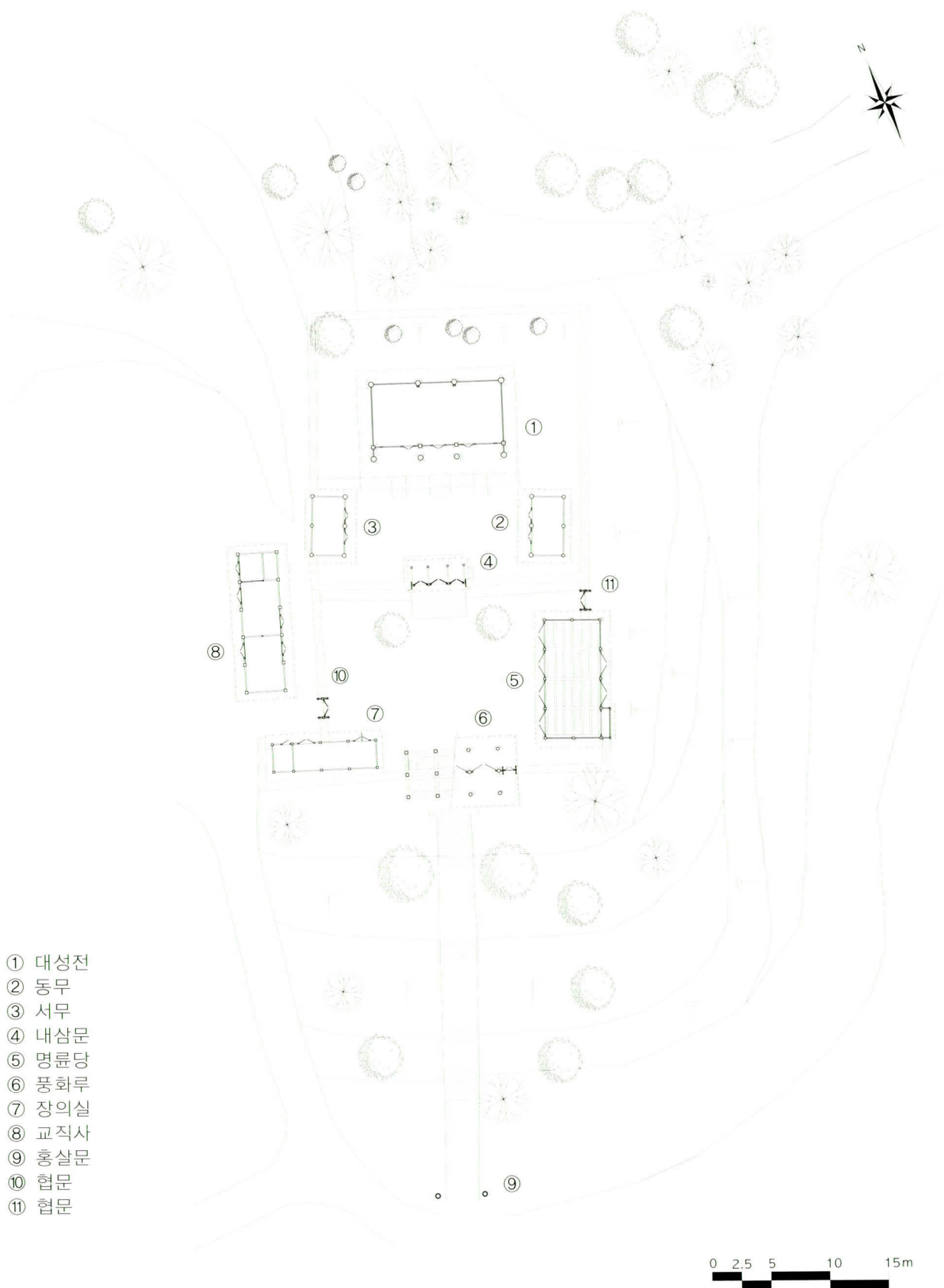
지정명칭	평창향교(平昌鄕校)	지정현황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1호 (대성전)
창건시기	조선 초(추정)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박수정
좌 향	정남향 (대성전 정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남북중축(대성전), 동서횡축(명륜당) 각 1개
중건시기	한국 전쟁 이후 전부 중건	대지조성	2단 :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길 맞은편 정자각 1동, 서측 군청
건축구성	대성전 / 동서무 / 내삼문 / 명륜당 / 풍화루 / 장의실 / 교직사 / 홍살문 / 협문 3		
특기사항	명륜당이 서향하여 직교축을 이루고 있음 전면에 풍화루를 두고 누하진입 형식을 취하고 있음 서무의 후면이 담장과 일체화 되어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2칸, 전1 퇴칸 / 민도리 / 홀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시멘물탈 / 연등천장 주고: 평주 2610, 고주 2730 / 주칸: 여칸 3900, 퇴칸 4050 / 수장폭 95 / 도리단면 $\phi=270$ / 보단면: 대들보 450×450, 종보 330×330 주심처마길이 1560 / 기단높이: 전면 900+900, 기타 100 / 초석크기 약 900×1000 전후		
기단계단	이중기단 / 삼별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각 단 마다 3개(3단)	보	대들보: 전고주후평주 걸침 종 보: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자연석 상면 다듬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phi=460$ (평주), 490(우주) 방형기둥(고주) 300×300	대 공	중대공: 동자주 종대공: 동자주
공 포	초익공	창 방	방형, 95×255 / 뿔목 직절 / 후면생략
처 마	홀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시멘물탈		
특기사항	고주는 헛기둥의 역할을 하며, 평주와 높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 좌우 측벽에서 대들보가 퇴칸으로 돌출하여 1/2 지점에서 수장폭으로 감소하여 평주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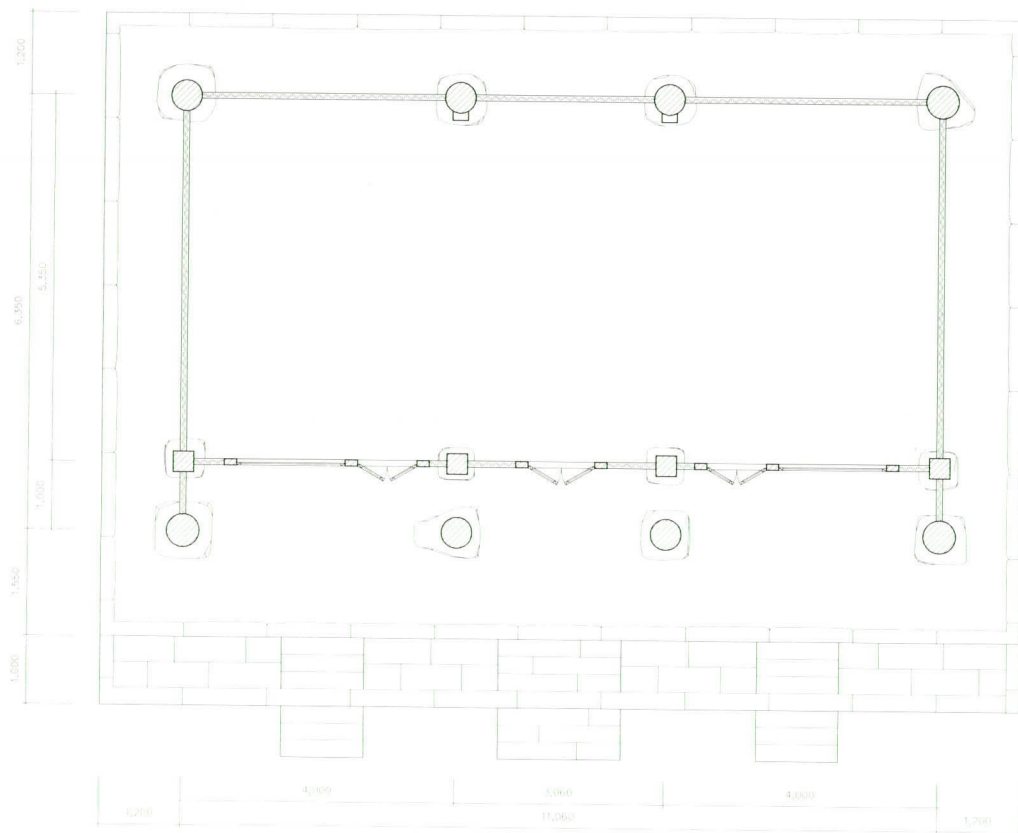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4×2칸 / 민도리 / 홀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반재(실) 주고 2700 / 주칸 2370 / 수장폭 80 / 도리단면 180×180 / 보단면: 대들보 330×330, 종보 180×210 주심처마길이 960 / 기단높이 150 / 초석크기 약 450×550 전후		
기단계단	단층기단 / 외별대 / 강돌 바른층쌓기 없음	보	대들보: 전후평주 걸침 종 보: 3분변작에 근접
초 석	덤병주초 / 자연석(일부 상면 다듬)	도 리	5량 / 납도리
기 둥	원형기둥 $\phi=240$	대 공	중대공: 동자주 종대공: 동자주
공 포	민도리	창 방	없음
처 마	홀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직절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회사벽 / 외부 굿기단청, 내부 가칠단청 / 연등천장, 좌우 합각부 반자 / 우물마루		
특기사항	동서실 구분 없이 내부 통칸으로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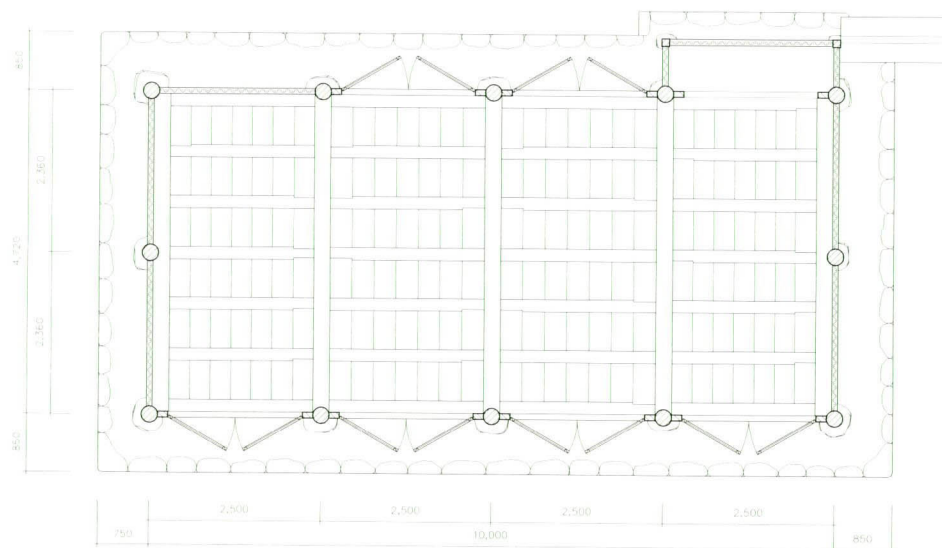


- ① 대성전
- ② 동무
- ③ 서무
- ④ 내삼문
- ⑤ 명륜당
- ⑥ 풍화루
- ⑦ 장의실
- ⑧ 교직사
- ⑨ 홍살문
- ⑩ 협문
- ⑪ 협문

배치도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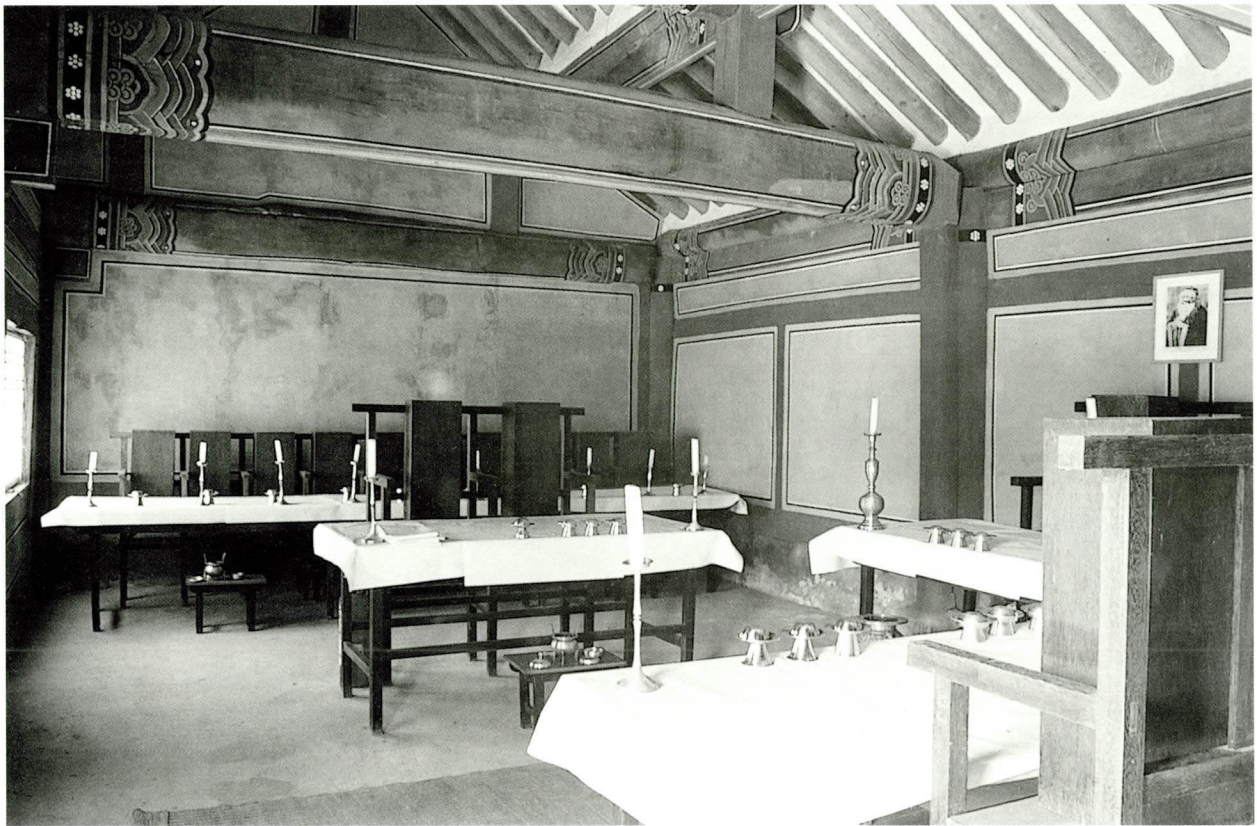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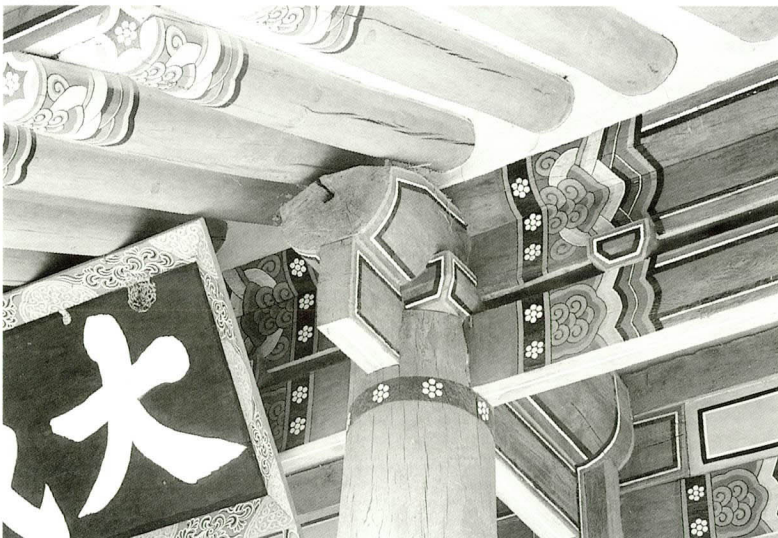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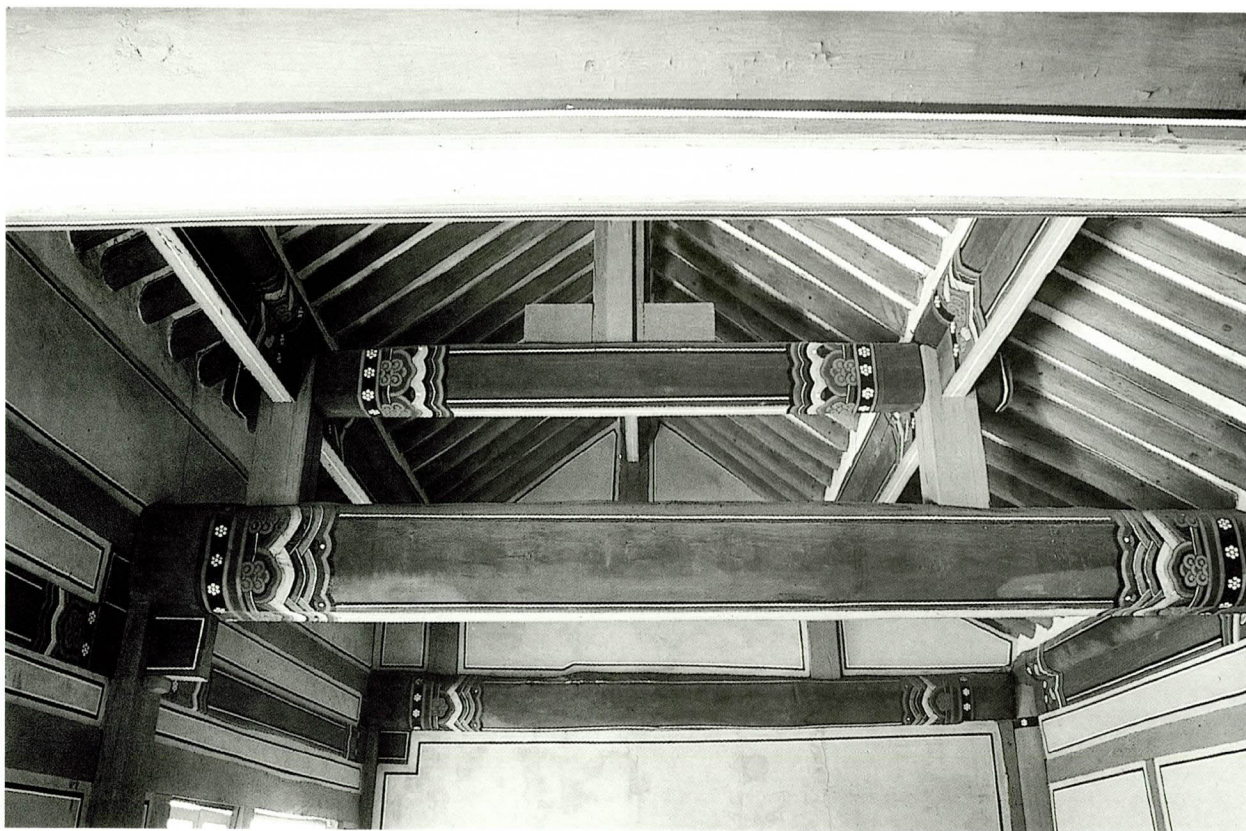
◀ 대성전 현판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후면 주상부 짜임



▲ 대성전 내부 가구



▲ 대성전 전면 퇴칸 가구



▲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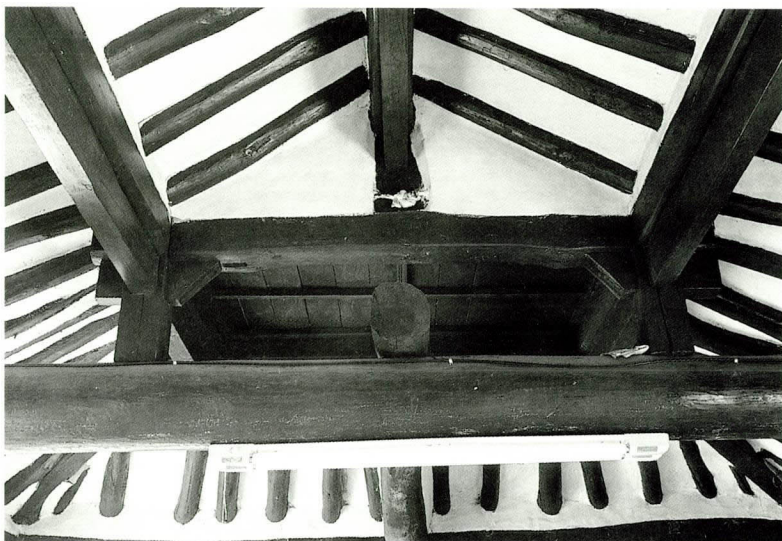
▲ 명륜당 내부



◀ 명륜당 현판



◀ 명륜당 전면 주상부 짜임



◀ 명륜당 내부 합각부 가구



◀ 동무



◀ 서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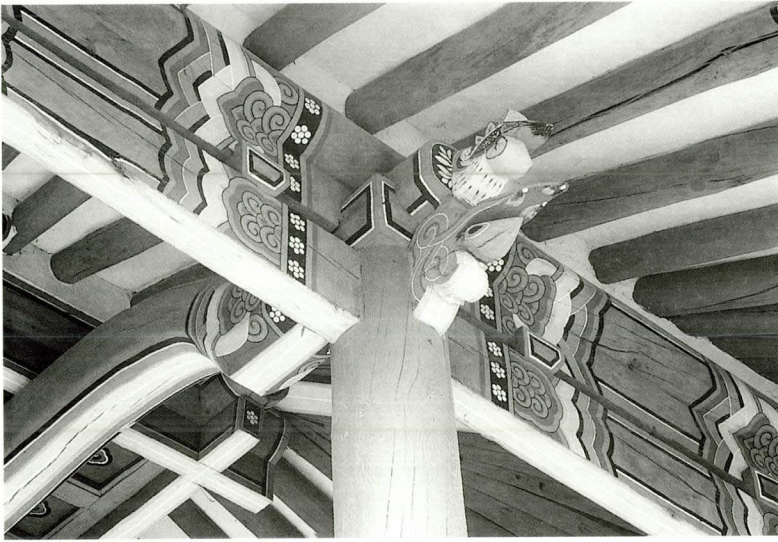
◀ 내삼문



▲ 풍화루



▲ 풍화루 상층 내부



◀ 풍화루 전면 주상포



◀ 장의실 및 협문



◀ 교직사



◀ 측후면에서 본 전경



◀ 동측면에서 본 명륜당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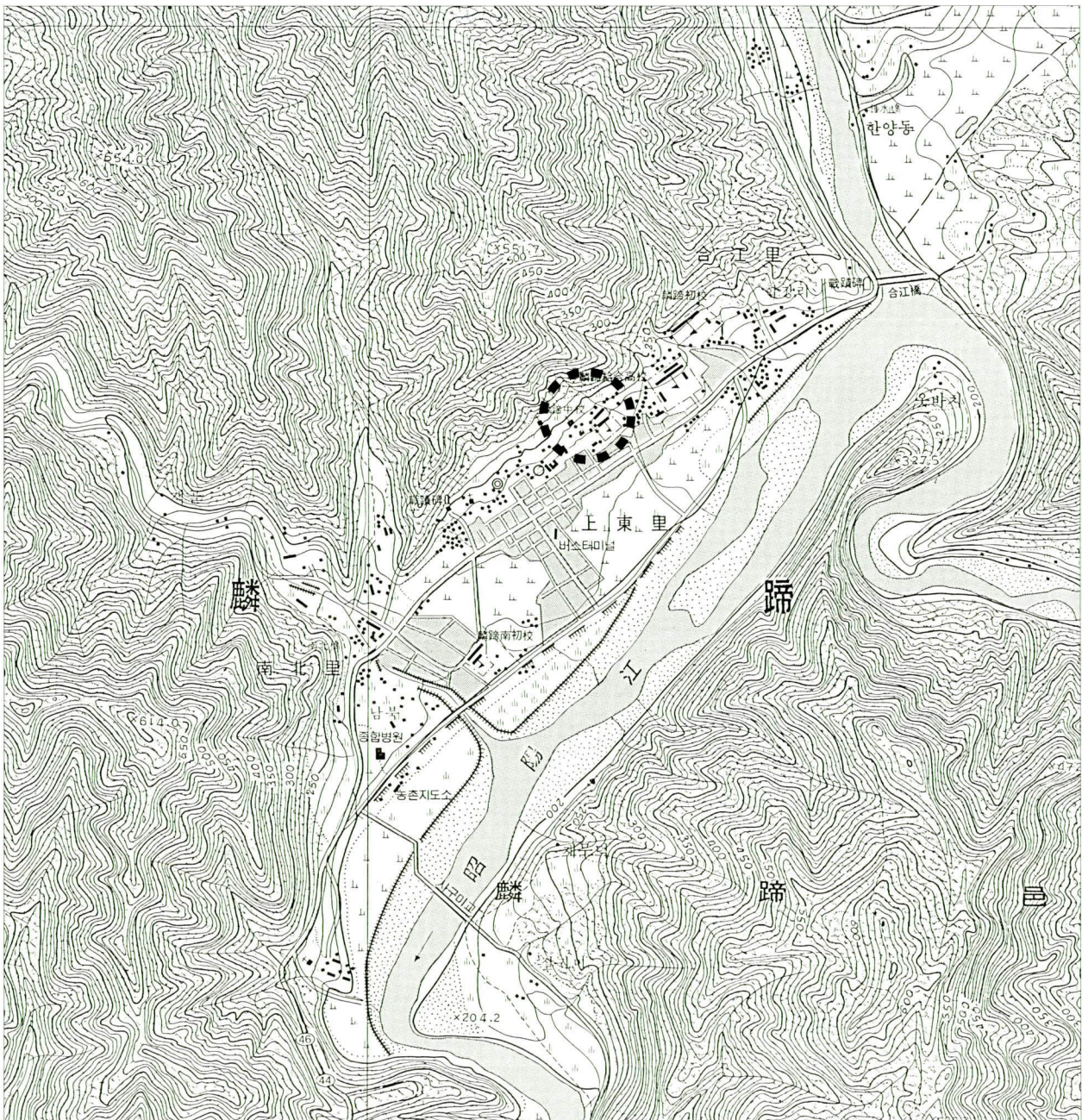


◀ 진입부

10. 인제향교(旌善鄕校)

- 지정사항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3호(일괄지정)
- 지정일 : 1985년 1월 17일
-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8-1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영소루, 화장실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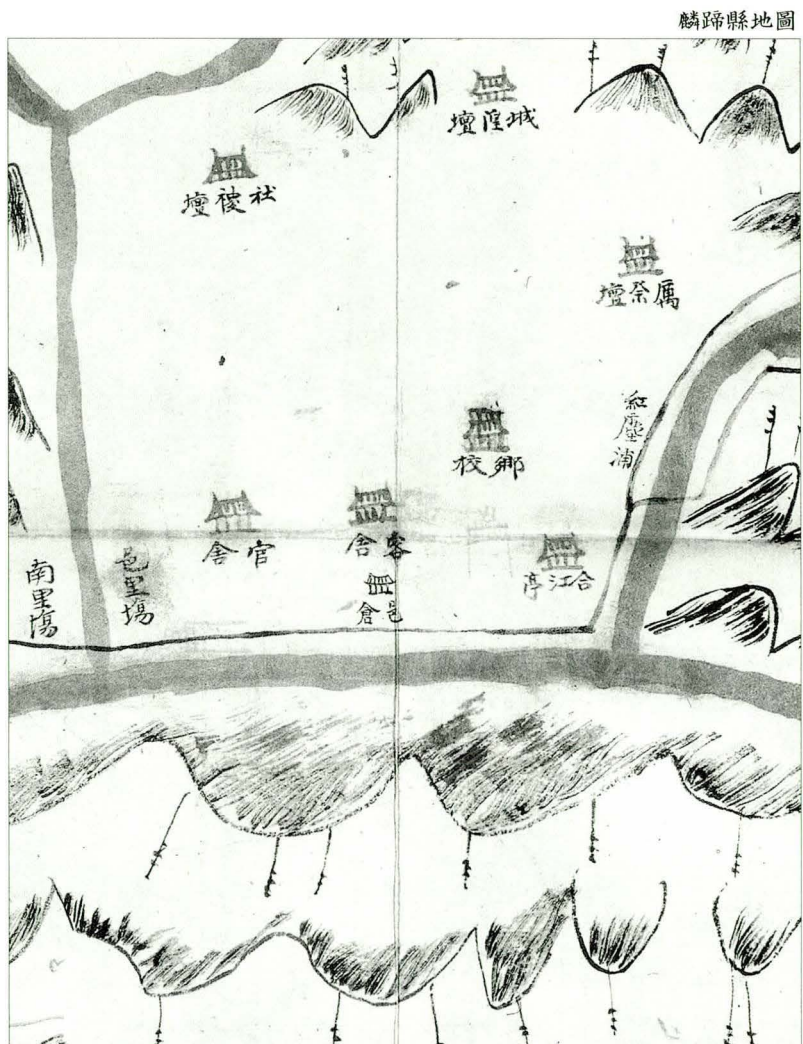


1. 연혁

인제향교는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위치하고 있다. 인제군은 고구려 때에 저족현(猪足縣)으로 불리었다가 신라의 영토가 되면서 희제(狝蹄)라 고치고 양록군(楊麓郡)에 귀속되었다. 고려 때에 인제(麟蹄)로 개칭하고, 고려 공양왕 원년(1389)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조선 태종 13년(1413)에 현감(縣監)을 두었으며, 고종 32년(1895)에 군(郡)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제향교의 창건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지 않으나, 성종 12년(1481)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鄕校在縣東一里’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창건은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에 따라 조선 초기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광해군 2년(1610)에 당시 현감이었던 이빙(李憑)에 의해 인제읍 남북리(南北里) 동쪽으로 옮겨 새로 지어졌다고 한다.¹⁾ 그 후 광해군 7년(1615)에 현감 구인기(具仁基)에 의해 서쪽으로 이건되었다가, 영조 20년(1744)에 현감 신진하(申鎭夏)에 의해 다시 동쪽으로 옮겨 세웠다 한다.²⁾

1930년에 인제에 대홍수가 발생하였고 인제 시내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으며 향교도 유실되었다. 4년 후인 1934년에 군수(郡守) 정하형(鄭河亨)에 의해 현 위치인 상동리 28-1번지로 이군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대성전 일부를 제외하고 전 건물이 소실되었으며, 1957년에 당시 전교(典敎) 이종익(李鍾益)과 인제군내 유림 및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명륜당을 재건하고 대성전을 복구하였다.³⁾ 1964년에는 전교 손원삼(孫元三)이 대성전을 중수하고, 내삼문과 동서재를 재건하였으며 삼문루(三門樓, 영소루를 지칭함)를 신축하였다.⁴⁾ 1979년에 전교 변용성(卞龍成)이 주관하여 향교 일곽을 보수하고, 1980년에는 전교 조운구(趙雲九)가 창고를 신축하고 일곽을 보수하였다.⁵⁾ 1989년에 전교 심재필(沈在弼)이 주선하여 군비(郡費)를 지원 받아 대성전을 해체 보수하였다.⁶⁾ 1991년에 기존의 건물을 해체하고 내삼문을 재축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동서재를 재축(再築)하였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 추정
1610년	인제읍 남북리 에 재건
1615년	이건
1744년	이건

1930년	수해로 향교 유실(流失)
1934년	현 위치로 이건
1950년	대성전 일부 파손, 기타 건물 완전 소실
1957년	명륜당 재건, 대성전 복구
1964년	대성전 중수, 삼문루(영소루) 신축, 동서재·내삼문 재건
1979년	일괄 보수
1980년	일괄 보수, 창고 신축
1989년	대성전 보수
1991년	내삼문 개축
1992년	동서재 재축
1993년	명륜당 개축, 동서재 단청, 내삼문 재축
1995~96년	영소루 개축, 명륜당·내삼문 단청 및 담장 보수
1997년	담장 및 화장실 신축
2000년	대성전, 명륜당 전면 마당 및 석축 보수, 명륜당 전면 계단 신설 영소루 석축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명륜당 등 7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전쟁 당시의 피해로 인하여 현재 향교 내에는 남아 있는 기문이 없고, 1996년에 간행된 『麟蹄鄕校誌』에 향교에 대한 연혁과 관련 기록이 정리되어 있다.

2. 입지 및 배치

인제향교는 인제읍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제에서 속초, 양양 방향 44번 국도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좌측에 인제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대지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구릉지이다. 인제읍 전면에는 소양강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흘러 내리고 있으며, 전면에 안산(案山)으로 기룡산이 있다.

전체영역은 크게 2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삼문을 기준으로 전면의 강학영역과 후면의 제향영역으로 나뉜다. 도로에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면 전면에 영소루가 약간 높은 단위에 위치하고 있다. 영소루 앞에 놓인 계단을 올라 중층 누각인 영소루 하층 판문을 들어서면 좌우에 동서재가 놓여 있고 중앙에 명륜당이 있다. 명륜당과 동서재가 이루는 마당은 횡방향으로 길고 좁게 되어 있으며, 후면의 내삼문과 명륜당 후면은 매우 밀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잦은 위치이동과 다수의 중수 과정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두 번째 단인 제향영역이 나타나는데 현재 동서무는 생략되어 있고 중앙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대성전만이 홀로 서 있다. 후면은 담장을 벗어나면 약간의 밭을 지나 바로 산 아래 자락으로 연결되며, 산지 경사는 대성전 후면부터 시작하여 경사가 급해진다.

현재 좌측에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교회와 다수의 민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인제향교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중심축을 형성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형성하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둔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1930년에 현 위치로 이진, 건립되었으며, 1989년 기둥 상부 및 벽체를 해체 수리하고 목부재와 기와 일부를 교체하였다고 한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聖)과 송조(宋朝) 2현(賢)을 비롯 해동(海東) 18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건물은 전면에 장대석 2단으로 쌓은 단층기단 위에 놓여져 있는데, 좌우는 단차이로 인하여 기단의 높이가 150mm 정도로 얇다. 특히 전면 장대석은 형태와 특징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형성된 구기(舊基)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며, 측면과 후면은 최근 개축시의 것이다. 기단 상면은 강회다짐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전면에 3단으로 구성된 계단이 중앙에 놓여져 있고, 전면 기단 좌우 밖으로 1단의 계단이 1개씩 위치하고 있다.

기단 상면은 강회다짐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정평주초 형식으로 다듬은 초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초석은 하부를 자연석으로 두고, 상부를 방형으로 다듬었으며, 좌우측 일부 초석은 자연석을 사용하였다. 내부는 우물마루를 구성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전(塼)을 깔아 놓은 것과 다르며 이는 해체 수리시의 결과로 보인다. 내부에는 어칸 후벽에 공자의 초상을 걸고 중앙에 ‘ㄷ’자 모양으로 5성의 신위를 모셨으며, 좌우 측벽으로 나머지 신위를 모셨다.

기둥은 약간의 민흘림이 있는 원형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좌우 측벽에서 고주를 방형 기둥으로 하였다. 전면 퇴칸에는 고주를 두어 평주와 뒷보로 결구하였다. 측벽에서는 종보 높이의 고주를 전후에 두어 결구하는 등 5량가 맞배집의 전형적인 가구법을 따르고 있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전면 퇴칸열에 각 칸 모두 두 짝 교살문을 달았다. 퇴칸 좌우의 벽체는 개방하지 않고 모두 회사벽으로 막았으며, 퇴칸열 창호 상부 역시 광창 없이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기둥 상부는 삼익공을 구성하였는데, 도리 방향으로 첨차 상하면을 맞대어 소첨과 대첨을 각각 이익공재와 삼익공재에 결구하였다. 초익공재와 이익공재 사이에 주두를 놓았으며, 삼익공재 위에 재주두를 놓고 보머리를 받았다. 익공재 외단은 모두 쇠서형태로 초각하였고, 첨차 좌우 단부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주간에는 각 칸 모두 전면에 2개씩의 화반을 두었으며, 초각하였다. 그러나 후면에서는 초각이 생략되고 표면에 먹긋기만 한 화반을 1개씩 두었다.

가구는 어칸에서 1고주 5량가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측벽에서는 전후에 기둥을 둔 2고주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후측 고주는 중도리 위치에서 헛기둥 형식으로 대들보를 받고 있다. 대들보는 전고주 후평주에 걸고, 4분 변작의 위치에 포대공과 동자주가 결합된 중대공을 놓고 종보를 결구하였으며, 종보 중앙에는 판대공을 두어 중도리를 받았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전후면 모두 겹처마에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다. 단청은 창방 이하는 석간주 가칠을, 창방 이상은 모로단청을 하였다.

내부에 전돌 대신 우물마루를 짜고, 판장문 대신 교살문을 사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향교 대성전 건물의 법식을 약간 벗어나 일반 건물을 건립한 듯한 느낌을 주는 건물이다.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1993년에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재축하였다. 전면에 통칸으로 3단의 계단을 놓고 후면에서 보았을 때 자연석 1단으로 야트막한 기단을 축조하였다. 기단 상면은 강회다짐하였고,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두었다. 기둥에는 약간의 민흘림을 두었으며, 각 칸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았고, 벽체는 회사벽으로 꾸몄다. 문 하방 없이 지도리를 좌우 헛기둥에 붙여 고정시켰으며 문 상방 상부에는 어칸에만 홍살을 꾸몄다.

가구는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헛기둥을 두었으며, 대들보 중앙에 동자주를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에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고, 내부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굿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어칸 판문 전면에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전면의 명륜당과 매우 협소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으며, 계단 맨 아랫단과 명륜당 기단과는 불과 약 300m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나. 강학영역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로, 1993년에 개축(改築)하였다. 건물은 자연석으로 2단을 쌓은 단층기단 위에 덩병주초 형식으로 초석을 놓았다.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는데, 약간의 민흘림을 두었고, 우주(隅柱)는 평주(平柱)에 비해 직경이 20mm 가량 크다. 기둥 상부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는데, 익공재 외단은 쇠서형으로 조각하였으며, 그 위에 주두를 놓고 보머리를 받았다.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4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를 두어 위에 주두를 놓은 뒤 종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에는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으며, 정면에는 각 칸 모두 두 짝 세살문을 달고, 후면에서는 어칸과 동측 퇴칸에만 2짝 판장문을 달았다. 내부는 서실(西室)만 실로 구분하였으며, 당(堂)과 의 사이에는 남측칸에만 분합문을 달았다. 서실은 바닥에 온돌을 두고 지반자를 꾸몄으며, 당은 우물마루와 연등천장으로 처리하였다.

단청은 창방 이상만 모로단청을 하고 나머지는 석간주 가칠을 하였다. 내부에는 상량 묵서명⁷⁾이 종도리 장혀 하부에 적혀 있어 명륜당의 건축 연대를 밝혀 주고 있다.

(2) 동서재(東西齋)

동서재는 모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전면에 퇴칸을 두었다. 동서재는 모두 1992년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형식의 목조건물로 개축하였다.

자연석 단층기단 위에 덩병주초 형식의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다. 기둥 머리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는데, 익공재는 외단을 직절하고 내단은 사절한 간략한 형태로 되어 있다. 주간에는 화반 대신 소로를 수장하고 어칸 상부에 현판을 간략한 형태로 만들어 걸었다. 기둥 머리에 사괘를 트고 익공재와 창방을 결구한 위에 주두를 놓고 보머리를 얹었다. 가구는 5량가로, 전면에 고주를 두었으며, 전면 퇴칸을 마루로 구성하였다. 대들보를 전후 평주에 걸고 4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를 놓았으며, 그 위에 종보를 얹었다. 종보 중앙에는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남측 퇴칸은 마루로 두고 후벽에 외짝 판문을 달았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바닥은 우물마루를 짚다. 어칸과 북측 퇴칸은 전면에 두 짝 세살문을 달고 내부는 지반자와 온돌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다. 기둥 이하는 석간주 가칠로, 창방 이상은 녹간주 가칠에 굿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3) 영소루(靈昭樓)

영소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중층 팔작지붕 건물로, 1995년에서 1996년 사이에 기존의 건물을 해체하고 일부 기둥을 재사용하여 개축하였다. 전면 중앙에 10단으로 구성된 계단 1개를 두었으며, 화강암 장대석으로 1단을 쌓은 단층기단 위에 방형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약간의 민흘림을 두어 치목하였고 상단과 하단의 직경은 약 20mm 가량 하부가 크다.

하층에는 각 칸 중앙에 2짝 판문을 두어 출입문으로 사용하였으며, 벽체는 구성하지 않았다. 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후면 동측 퇴칸에 있다. 상층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으며,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기둥 위에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익공재의 외단은 짙막한 쇠서 형태로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였다.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종보를 놓았다. 중대공은 보방향 침차를 결구한 포대공, 종대공은 판대공이다. 종도리와 종도리 하부에는 뜬장혀를 두었고 사이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지붕은 겹처마로 암수막새기와를 사용하였으며, 천장은 좌우 퇴칸에서 외기부분은 반자를 두고 나머지는 연등천장으로 하였다.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으며, 상층 정면 어칸 중앙에 영소루 현판을 걸어 두었다. 개축 이전에 서측에 협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철거되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서재 남측에 위치한 화장실이 있다. 현 건물은 1997년에 신축한 것으로, 정면 2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며, 단층기단 위에 방형기둥을 세우고 3량가의 가구를 구성하였다.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벽체는 회사벽이며, 전면 각 칸마다 외쪽 판문을 달고, 좌우측면 및 후면 상부에 교살창을 두어 통풍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내부는 연등천장으로, 단청 없이 니스를 칠하여 마무리하였다.

- 1) 이 기록은 인제향교에서 발간한 『인제향교지(麟蹄鄕校誌)』에 언급된 내용으로, 유교대사전편 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유교대사전(儒敎大辭典)』에도 언급된 내용이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발간한 『강원도향교서원사찰지(江原道鄕校書院寺刹誌)』에는 서북리(西北里)로 언급하고 있다. 연혁부분에서 내용이 상반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은 『麟蹄鄕校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내용이 다른 경우 미주에 그 내용을 서술하였다.
- 2) 이 기록은 『麟蹄鄕校誌』, 『儒敎大辭典』, 『江原道鄕校書院寺刹誌』 등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제향교 부분에만 언급되어 있다.
- 3) 유교대사전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儒敎大辭典』에는 1954년으로 되어 있으나 강원도에서 간행한 『江原道鄕校書院寺刹誌』에는 대성전 중수와 명륜당 및 동서재 재건을 1959년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麟蹄鄕校誌』에 1957년으로 기록되어 있음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 4) 『儒敎大辭典』에는 1957년으로, 『江原道鄕校書院寺刹誌』에는 1966년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단번에 이와 같은 대규모의 공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3~4년간에 걸쳐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5) 『儒敎大辭典』에는 1982년으로 되어 있고, 『江原道鄕校書院寺刹誌』에는 1980년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추가로 경내 조경공사를 언급하고 있다.
- 6) 『儒敎大辭典』과 『江原道鄕校書院寺刹誌』 모두 1987년으로 언급되어 있다. 향교지에 따르면 원사주(原四柱), 즉 네 개의 본대 기둥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 7) 龍檀紀 四千三百二十六年 癸酉八月二十七日 巳時立柱上樑 定天下之靈麟蹄近萬歲之明倫堂 龜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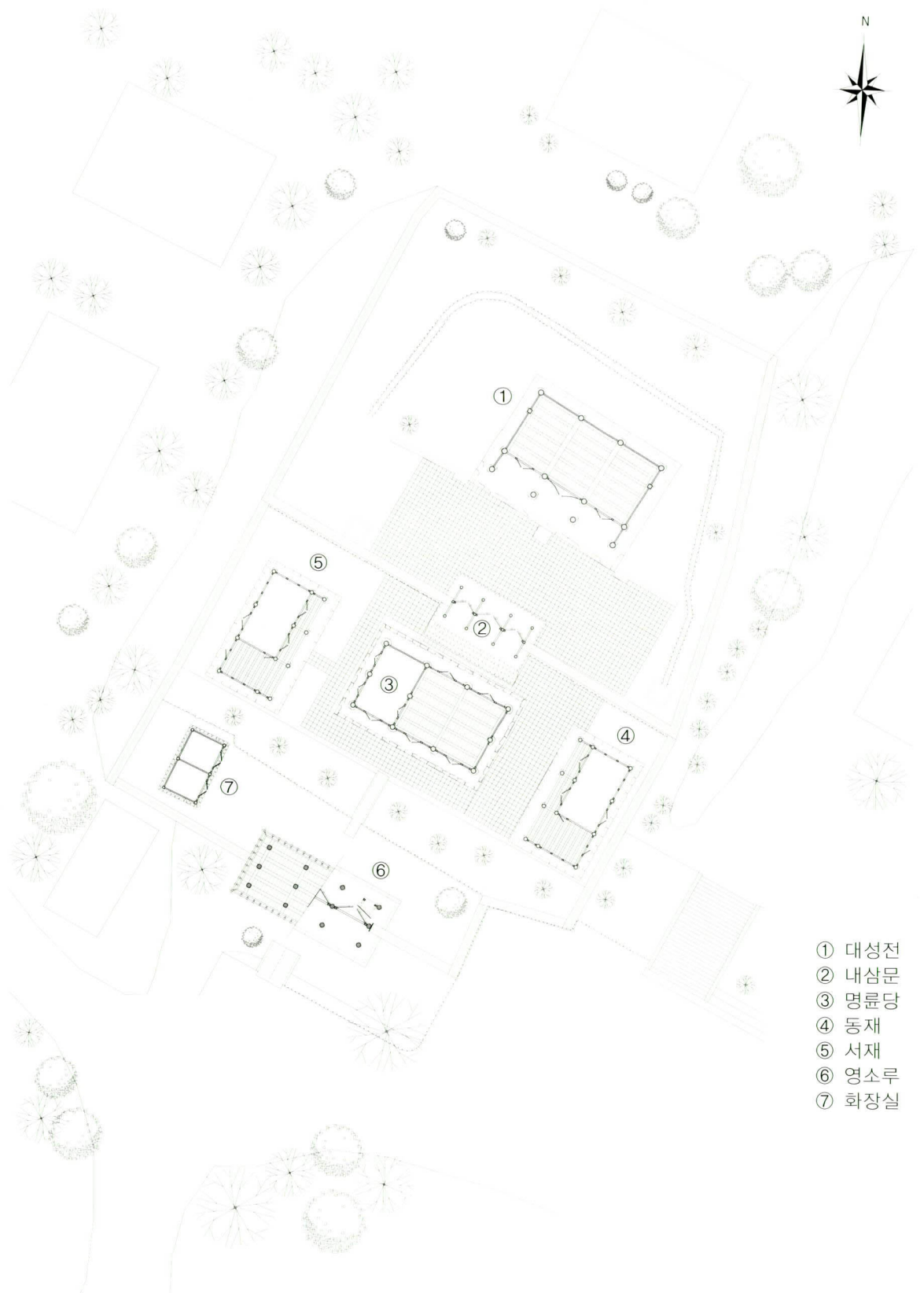
지정명칭	인제향교(麟蹄鄕校)	지정현황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3호 (일괄지정)
창건시기	조선 초 (추정)	입 지	구릉지 / 案山 기룡산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전교 정동화
좌 향	남동향 (대성전 S30°E)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종축 1개
중건시기	1610년 이건 중창 1934년 이건 중창	대지조성	2단 :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동측에 인제중학교 위치
건축구성	대성전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영소루 / 화장실		
특기사항	동서무가 생략되어 있음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2칸, 전1퇴칸 / 3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1고주 5량가(측벽 2고주) / 우물마루 / 연등천장 주교 : 평주 2520, 고주 2970 / 주칸 : 3480 / 수장폭 95 / 도리단면 ϕ=240 보단면 : 대들보 300×480, 종보 300×360 / 주심처마길이 1450 기단높이 : 전면 750, 측후면 150 / 초석크기 : 방형초석 510×550, 높이 260, 자연석		
기단계단	단층기단 / 이별대 / 장대석 바른총쌍기 전면 3개(3단, 좌우 1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방형초석+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평주 ϕ=390, 우주 ϕ=41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2중 장혀
공 포	3익공 / 주간 화반	창 방	말각 방형, 240×270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직절 / 끝건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우물마루		
특기사항	화반은 전면의 경우 각 칸 마다 2개를, 후면은 1개를 두었으며 전면만 새김하였음 대들보는 전후평주에 걸었으나 전면 중도리 위치에 헛기둥을 두어 퇴칸을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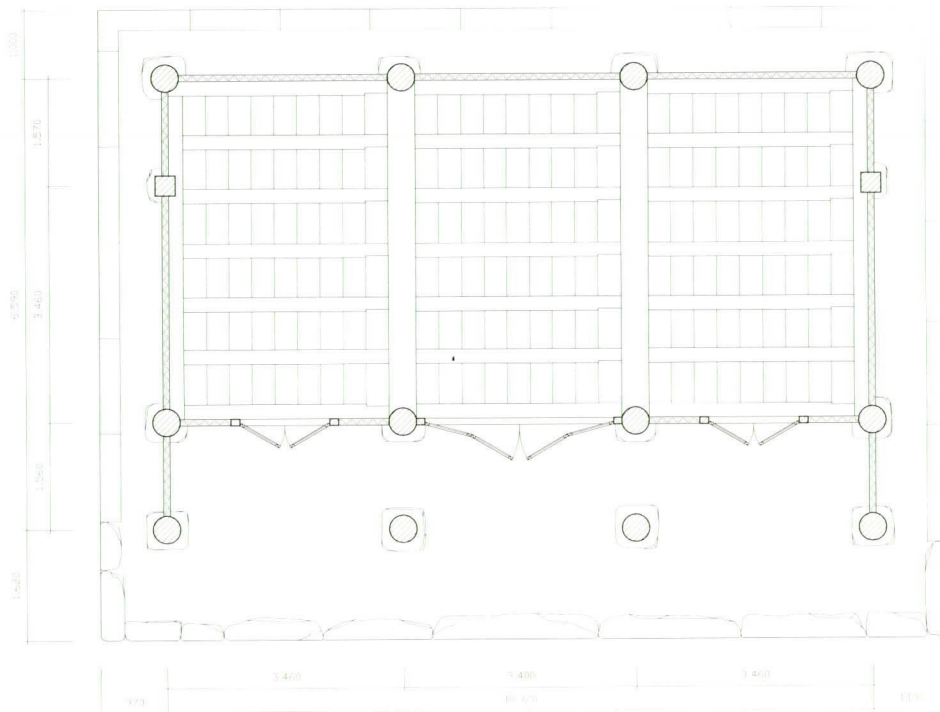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3×2칸 / 초익공 / 홑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반자(서실) 주교 2620 / 주칸 3360 / 수장폭 85 / 도리단면 ϕ=270 / 보단면 : 대들보 285×390, 종보 285×330 주심처마길이 1290 / 기단높이 370 / 초석크기 약 700×650 전후		
기단계단	단층기단 / 이별대 / 자연석 바른총쌍기 전면 1개(10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덤방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평주 ϕ=310, 우주 ϕ=33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	창 방	말각방형, 210×300 / 뿔목 쇠서형초각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붕	팔작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우물마루 · 연등천장(당), 온돌 · 반자(서실)		
특기사항	중대공의 높이가 낮아 장연의 경사가 비교적 낮은 편임 종도리 장혀 하단 상량 목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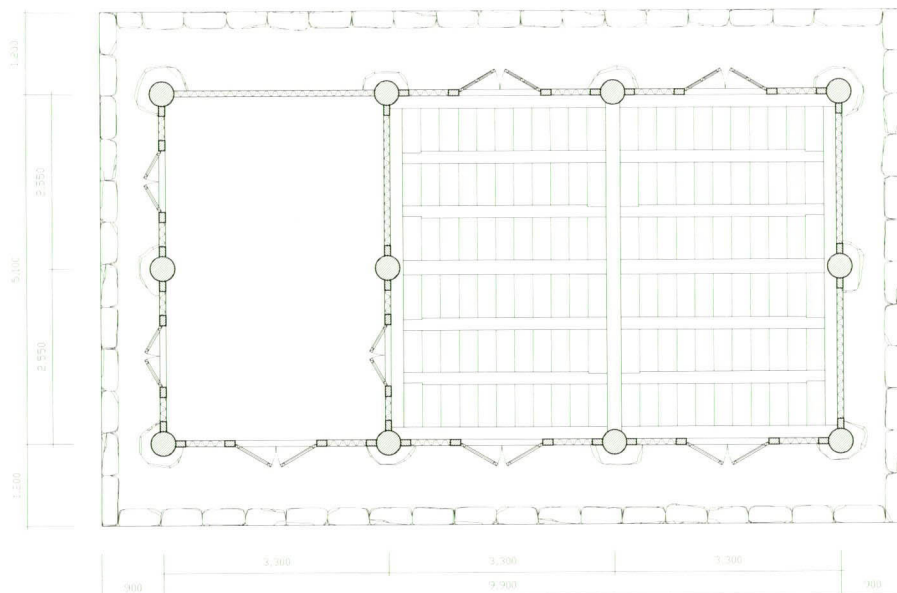


- ① 대성전
- ② 내심문
- ③ 명륜당
- ④ 동재
- ⑤ 서재
- ⑥ 영소루
- ⑦ 화장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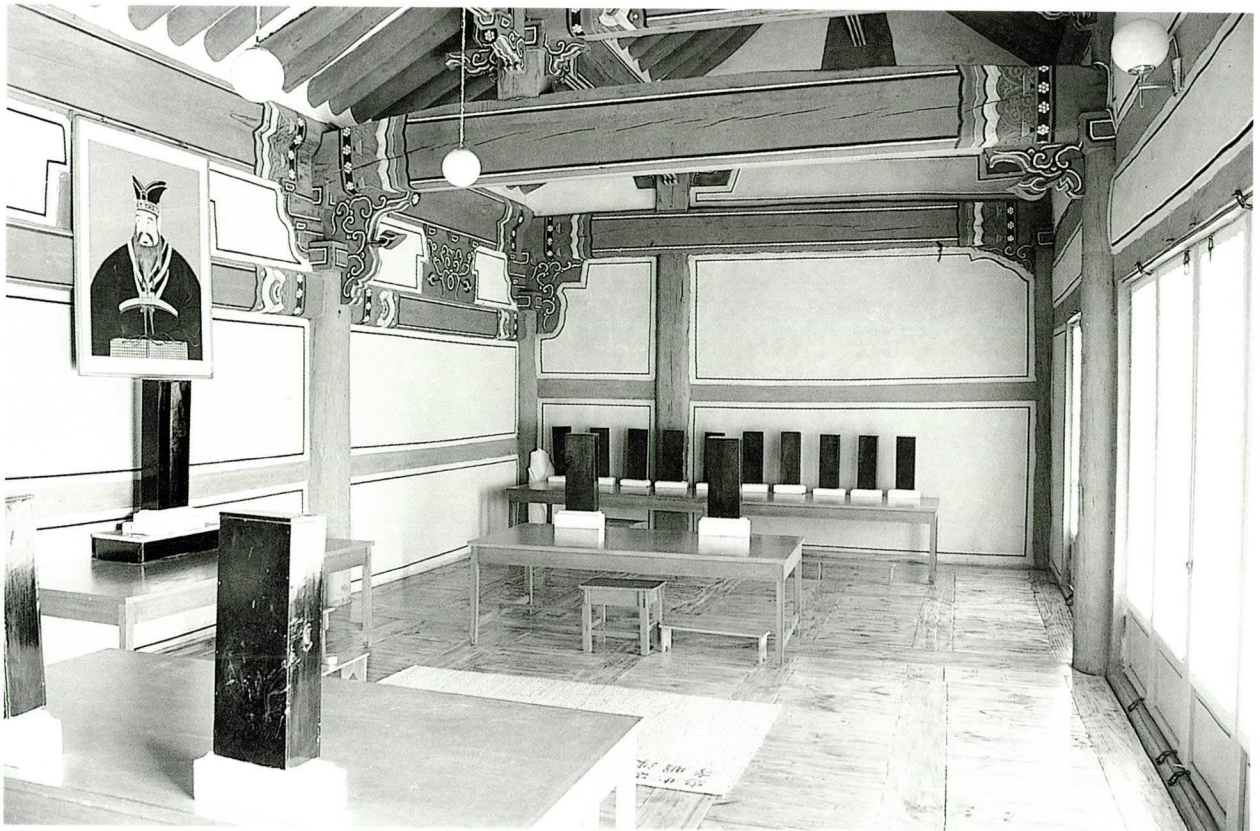
대성전 평면도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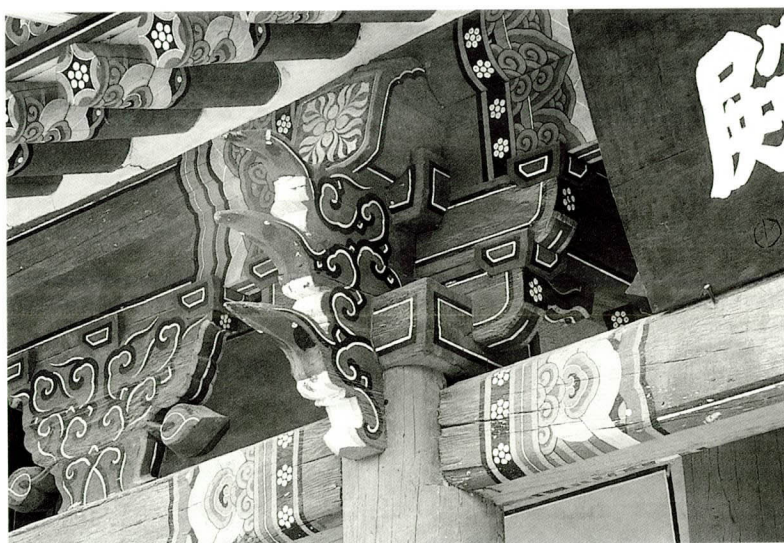
▲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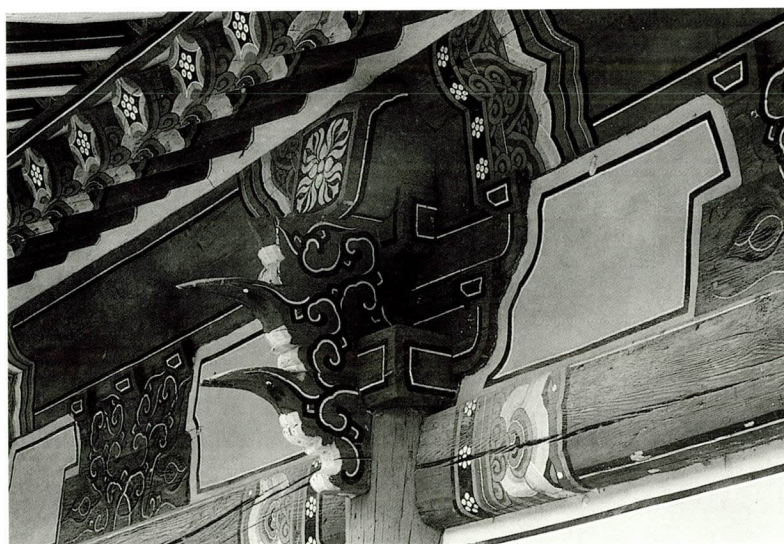
▲ 대성전 내부



◀ 대성전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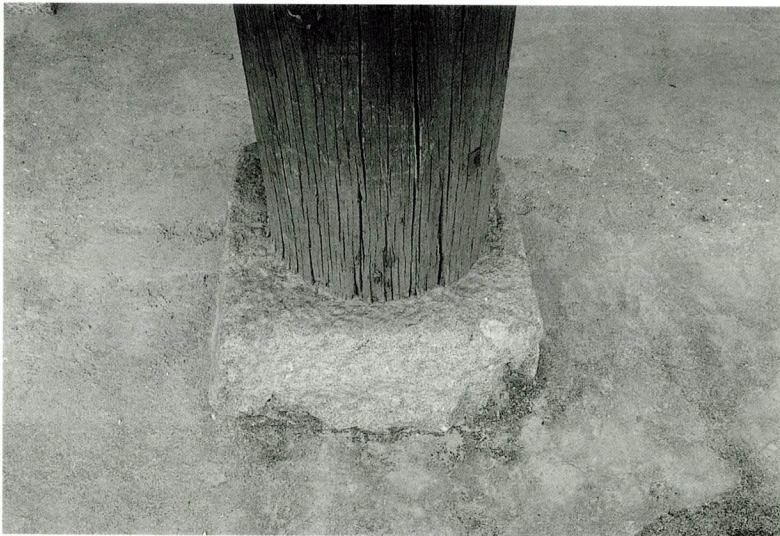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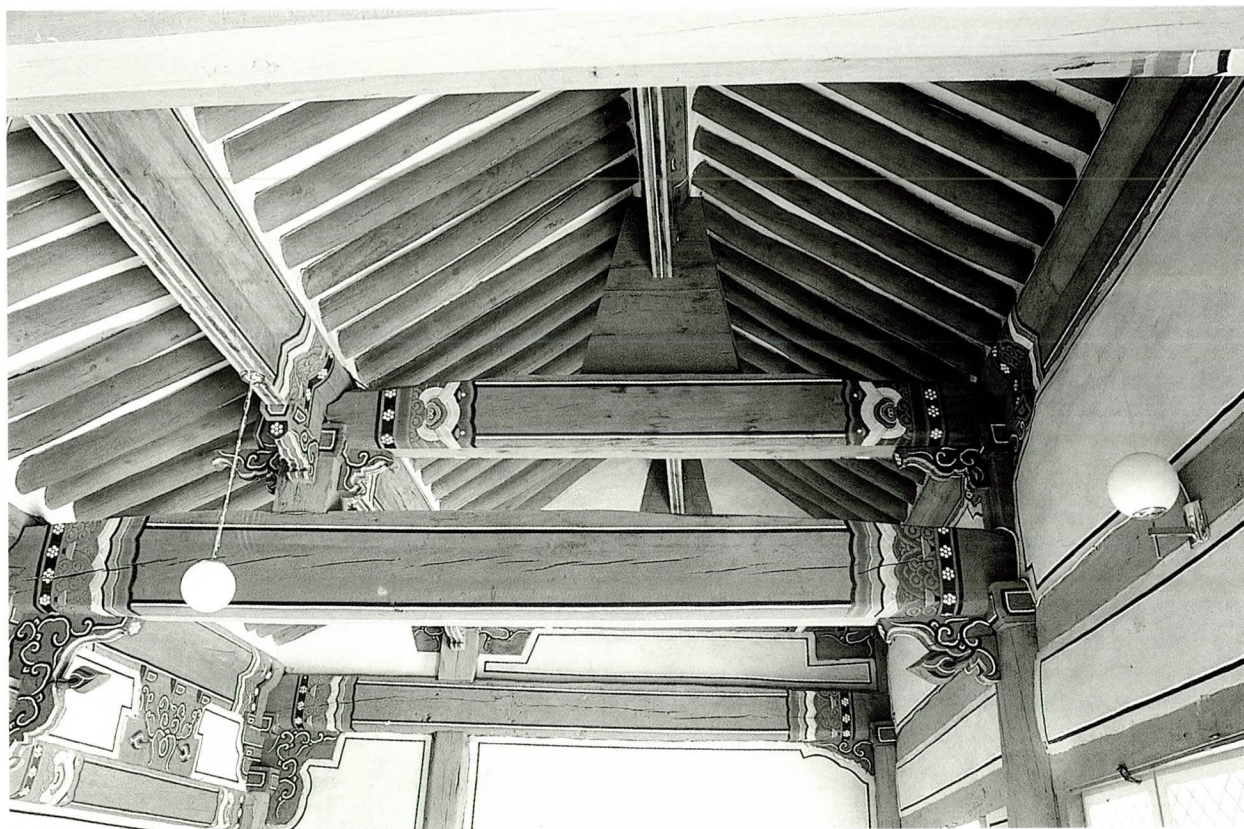
◀ 대성전 전면 주간 화반



◀ 대성전 전면 초석



◀ 대성전 전면 계단



▲ 대성전 내부 가구



▲ 대성전 내부 중대공



▲ 대성전 내부 고주 결구



▲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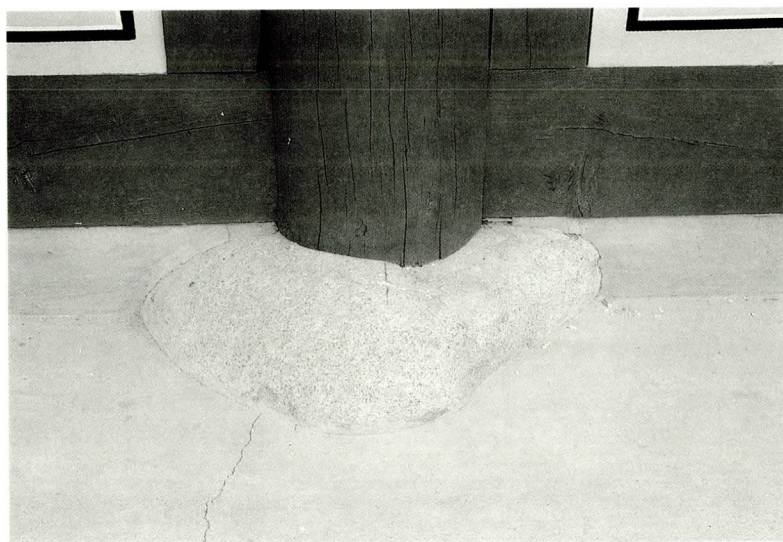
▲ 명륜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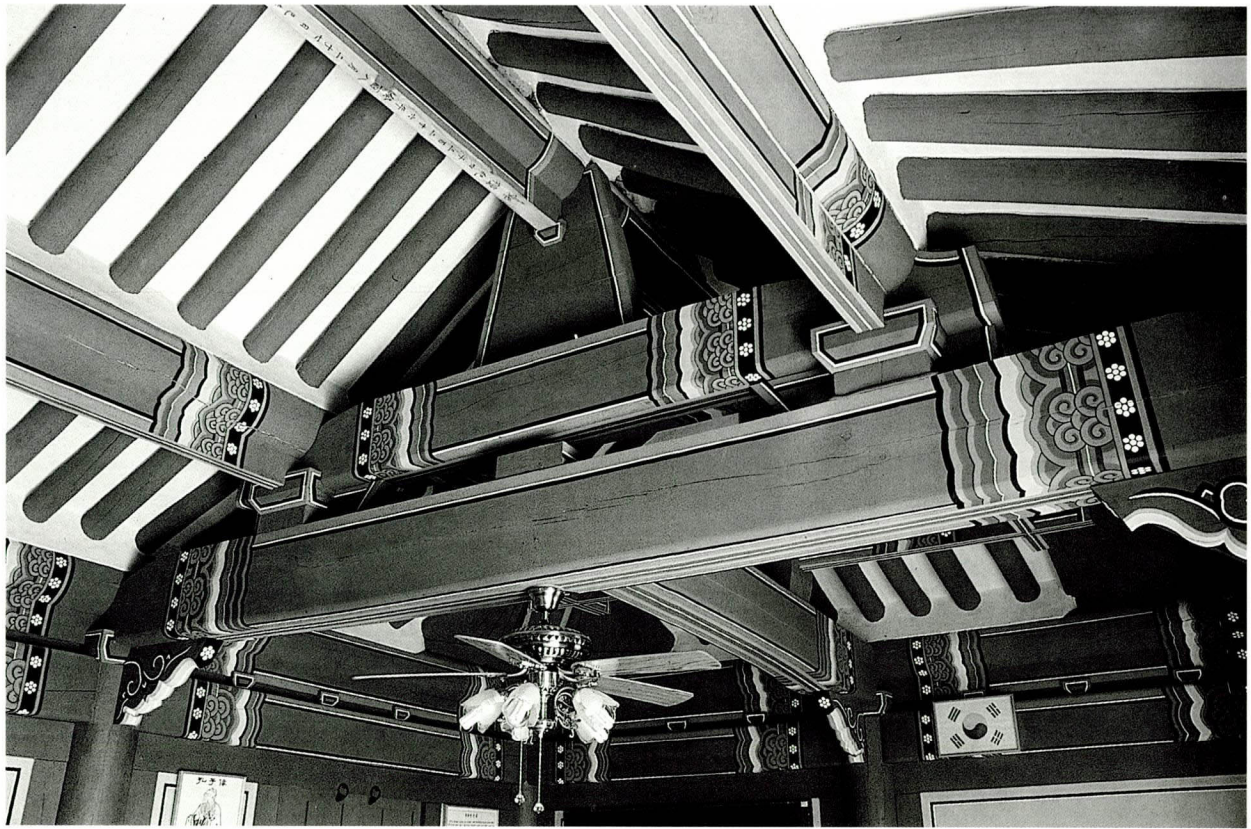
◀ 명륜당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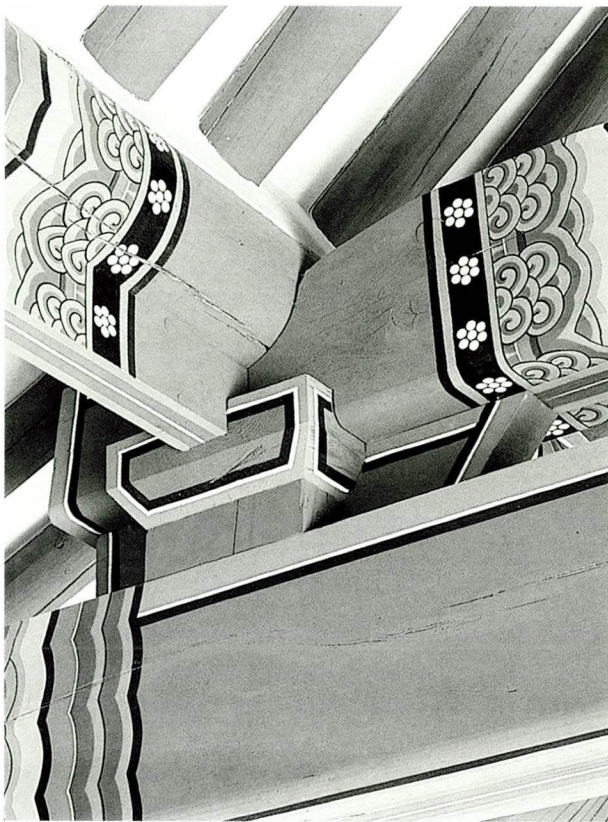
◀ 명륜당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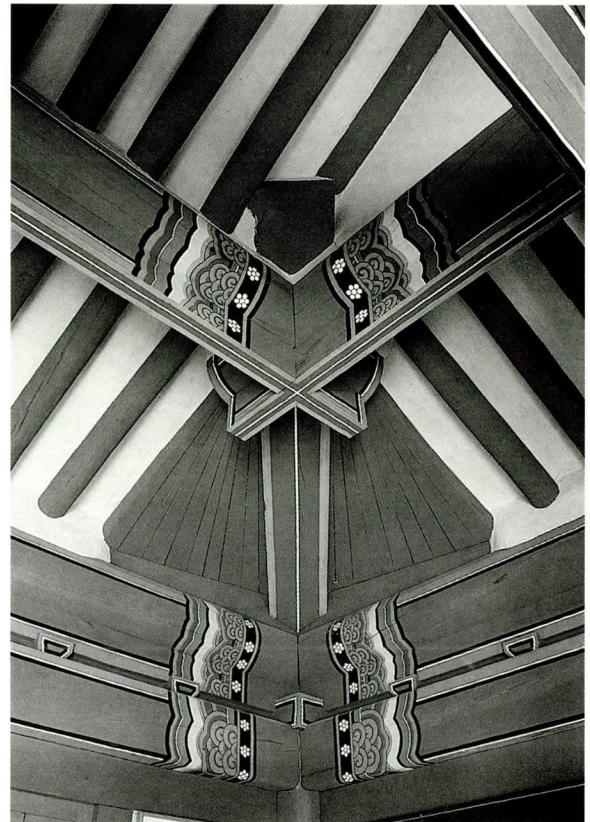
◀ 명륜당 전면 초석



▲ 명륜당 내부 가구



▲ 명륜당 내부 중대공



▲ 명륜당 내부 추녀 뒷뿌리 부분



◀ 동재



◀ 서재



◀ 서재 내부 가구



▲ 운소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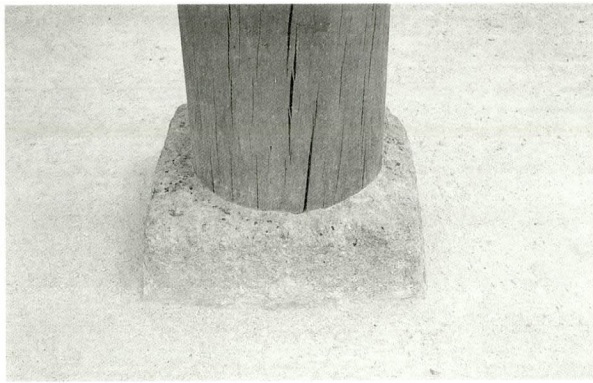
▲ 운소루 상층 내부



▲ 운소루 현판



▲ 운소루 전면 주상포



▲ 운소루 전면 초석



▲ 내삼문



▲ 측면 전경



▲ 제향공간



▲ 명륜당 후면 공간



▲ 강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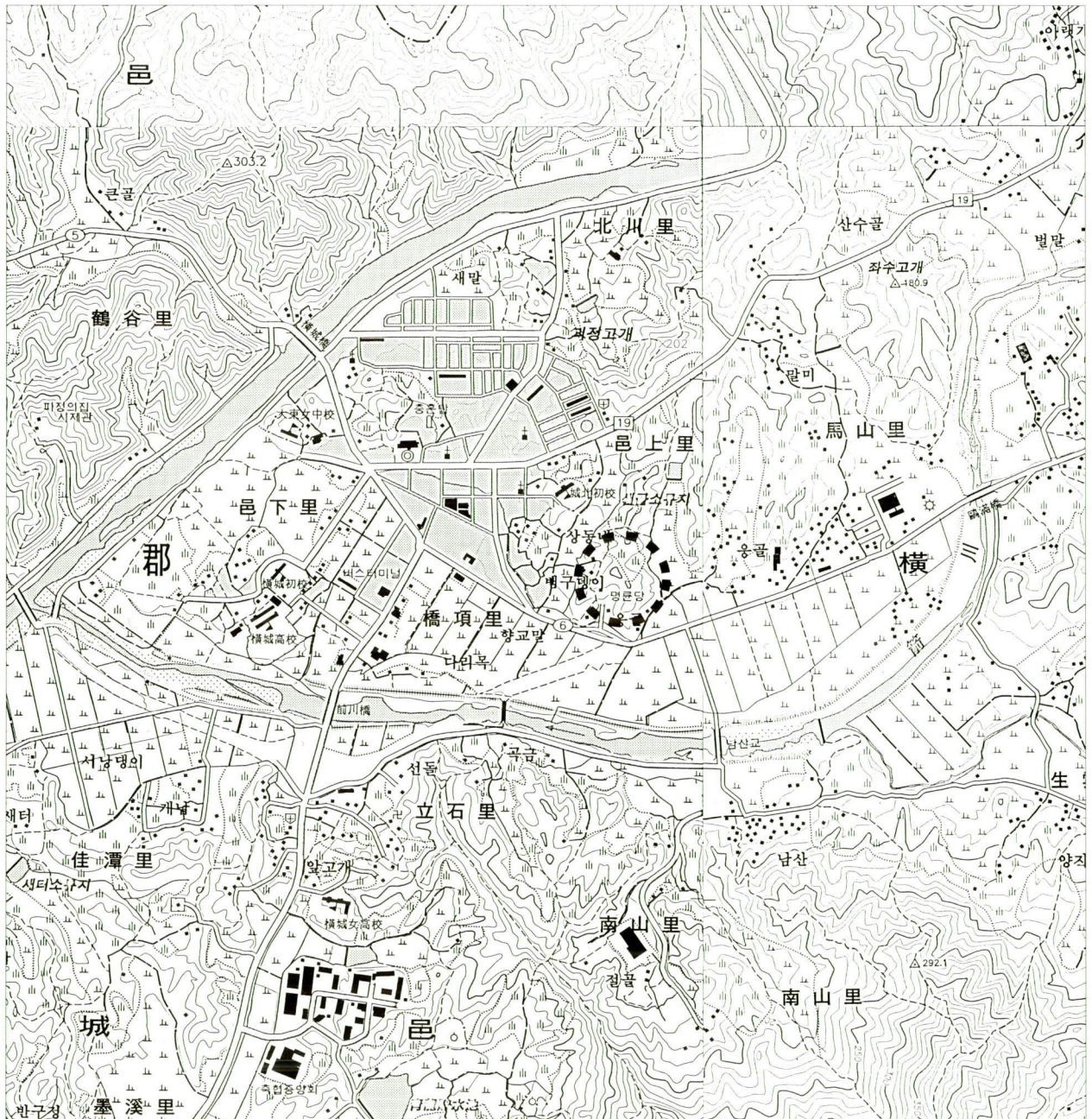


▲ 진입부

11. 횡성향교(橫城鄉校)

- 지정사항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0호(일괄지정)
- 지 정 일 : 1985년 1월 17일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산12-2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교직사, 화장실, 홍살문

지형도



1. 연혁

횡성향교는 횡성군 횡성을 읍상리에 위치하고 있다. 횡성군은 본래 고구려의 횡천현(橫川縣)으로, 신라 때에 황천(潢川)으로 고쳐서 삭주(朔州)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이후 고려 대에 이르러 횡천(橫川)으로 개칭하고, 후에 원주로 속하게 된다. 조선 태종 13년(1403)에 현감을 두고, 이듬해에 횡성(橫城)으로 고쳐 불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건연도는 태조 7년(1398)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 위치와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¹⁾. 현재의 위치로 옮기기까지 다수의 이건 및 중창이 있었으며, 약 260여년 전에 북천(北川)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고 한다. 갑천면 중금리와 청일면 유동리에는 ‘향교터’로 불리는 곳이 남아 있고, 특히 유동리 지역에는 ‘향교말’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 이러한 이전의 흔적을 추측하고 있다.

대성전을 제외한 건물과 소장 전적류 등이 한국전쟁시 모두 소실되었으며 현재의 건물들은 그 이후에 재건된 것들이다. 1954년에 먼저 양재(兩齋)를 건립하고, 1960년에 명륜당을 건립하였다. 대성전은 1971년에 중건하면서 발견된 상량문²⁾에 따르면, 인조 25년(1647)에 당시 현감이었던 이조(李稠)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1667년에 현감 정수기(鄭壽耆)에 의해 대성전 중수가 한 차례 있었으며, 이후 한국 전쟁 시기까지의 기록은 알 수 없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추정)
1647년	대성전 중건
1667년	대성전 보수
1727년	대성전 보수
1950년	대성전 제외 일괄 소실
1954년	동재, 서재 재건
1960년	명륜당 재건

橫城縣地圖



1966년	교직사(敎直室) 변화, 창고 설치 ³⁾
1971년	대성전 중수
1978년	대성전 보수, 담장 증축, 명륜당 및 양재 단청 ⁴⁾
1980년	수복실(守僕室, 교직사) 재건
1984년	홍살문, 안내판 설치
1988년	대성전 기와 변화 및 연목 교체
1990년	명륜당 변화, 서재 개축
1991년	서재 및 내삼문 단청, 담장 및 계단 보수
1992~93년	동재 재축, 협문 및 일곽 담장 보수
1994년	명륜당 전면 계단 보수
1996년	대성전 변화, 단청 및 담장 보수
1998년	화장실 재축
1999년	대성전 주변 정비 및 내삼문, 석축 보수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양무(兩)가 생략된 채,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교직사, 화장실 등 7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횡성향교 내에는 <동서재명륜당중건기(東西齋明倫堂重建記)>, <문묘보수기(文廟補修記)>, <문묘보수서(文廟補修序)> 등의 기문과 1978년에 발간된 『橫城鄕校誌』 등이 남아 있다.

분향은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 두 번에 걸쳐 하고, 제향은 가을 하정(下丁)일에 치른다.

2. 입지 및 배치

횡성향교는 횡성읍내 5,6 번 국도 접속 지점에서 6번 국도를 따라 우천면 방향으로 약 300여미터를 가다보면 좌측의 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는 인근에 유림웨딩홀이 건립되어 있으며 향교는 이 건물의 후면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향교 전면으로는 앞내개울이 동에서 서로 흐르며, 뒤편에도 역시 뒷내개울이 흐르고 있다.

향교의 배치는 남북 단일축을 중심으로 전학후묘의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영역은 크게 3단으로 구분된다.

먼저 향교 앞에 이르면, 홍살문이 자리하고 있고, 가파른 장대석 계단을 오르면 현대식 콘크리트로 지어 놓은 2층 명륜당이 누각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하부의 출입문을 지나면 다시 강학영역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고, 양재는 전당후재(前堂後齋)의 형식으로 명륜당 후면에 자리잡고 있다. 서재의 후면에는 교직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명륜당 서측 편에 신식 화장실이 자리잡고 있다.

강학영역을 지나면 내삼문이 나오는데, 내삼문 앞에는 이중 단을 두고 중앙에 계단을 두었다. 계단은 내삼문의 어칸으로 향하는 중앙 부분을 한 단 높게 두어 좌우와의 위계를 두었으며, 내삼문 후면의 제향영역에서는 대성전과의 사이에 전돌로 된 담도를 두었다.

제향영역은 양무(兩廡)가 생략되어 내삼문과 대성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에 전면에 1칸 퇴를 둔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聖과 海東18賢의 위패를 모셔 두었다. 대성전은 조선 인조 25년(1647)에 건립되었고 1996년에 번와보수 하였다.

기단은 단층 기단으로 화강암 장대석을 한 벌 놓았다. 정면 어칸에는 1단의 계단이 3개 놓여져 있으며 기단 상면은 전돌로 마감하였다. 초석은 덩벙주초 형식으로 자연석 상면을 거칠게 다듬어 원형 기둥을 세웠다. 전면을 5칸으로 둔 것은 중설위 이상의 향교에서 설위 규모에 맞추어 지은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서는 양무(兩廡)가 없는 관계로 해동 18현의 위패를 모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대성전 건물이 조선 중기의 것이고 전면의 내삼문과의 사이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보아 양무가 애초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칸은 좌우 퇴칸만 한 자 정도 적게 하고 중앙 3칸은 동일하다. 바닥에는 전을 깔고 공자를 비롯한 5성과 해동 18현의 위패를 모셨다.

기둥은 원형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약하게 민흘림을 두었다. 전면 퇴칸에는 고주를 두어 평주와 뒷보로 연결하였고, 양측면에서는 전후에 고주를 두어 결구하는 등 일반적인 맞배집 형식을 따르고 있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고, 전면 퇴칸은 좌우를 개방하지 않고 벽체를 두었다. 중앙 3칸에는 두 짝 분합문을 달고 좌우 퇴칸에는 세살문을 들어열개창으로 달았다.

기둥 상부는 일반적인 익공계 가구 방식에 따라 결구되었으며 초익공 형태로 되어 있다. 뒷보는 대들보나 종보와 달리 수장재와 유사한 단면으로 되어 기둥 위에서 초각되었다.

가구는 어칸에서 전퇴를 둔 1고주 5량가, 측면에서는 2고주 5량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들보는 전고주후평주에 걸쳐 있으며, 종보는 4분변작과 유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중대공은 주두의 굽 부분을 세장하게 늘인 형태에 첨차와 뜯장혀를 결구하였으며, 중대공은 운형대공으로 역시 뜯장혀와 결구되어 종도리를 받고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홑처마에 맞배지붕으로 측면에 방풍판을 달았다. 기와는 막새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고,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다.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각 칸 모두 두 짝씩의 판문을 달았으며 중앙에 3태극 문양을 배필었다. 바닥은 시멘몰탈로 마감하였고, 전면 에 통칸으로 계단을 두었다. 계단은 전면의 이중 화단에 맞추어 상하로 구분되며 각각의 계단에서 중앙 부분을 좌우보다 한 단 높여 위계를 구분하였다. 초석은 덩벙주초 형식으로 자연석을 방형으로 거칠게 다듬어 사용하였으며 모를 죽인 방형기둥을 사용하였다. 보머리는 외부로 나타나지 않고 기둥 안쪽에서 결구되었으며, 어칸에서만 직절하였다. 어칸 종도리 하부에만 장혀를 두었으며, 지붕 가구는 3량가로 구성하였다.

전후 평주에 보를 걸고 동자주를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단청은 굿기단청으로 되어 있으며, 내삼문은 1991년과 1999년에 각각 보수를 하였다. 내삼문 후면에는 대성전으로 향하는 답도가 각 칸마다 1개씩 연결되어 있다.

(3) 기타

제향영역에는 각각 동쪽과 서쪽에 1개의 협문을 두어 내부에서 외부로 직접 출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각각의 협문은 사방 1칸 같은 형태의 사주문(四柱門)으로 간략한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며 중앙에 두 짝의 판문을 달았다.

나. 강학영역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중층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것을 1960년에 복원하였다. 누하진입 식으로 하층의 중앙 3칸을 출입문으로 두고 상층은 명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상층과 하층으로 나뉘며 하층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뼈대는 콘크리트로 구성하고 벽체는 시멘 물탈로 마감하였다.

전면에는 각 28단으로 된 3개의 계단이 중앙 3칸의 중심에 맞추어 자리잡고 있으며, 기단은 시멘 물탈로 마감되어 있다. 하층의 중앙 3칸은 건물 전면에 두 짝 판문을 달고 3태극 문양을 도채하였고, 좌우 1칸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건물 후면에 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 외부에 달려 있으며, 2층 후면 좌우 퇴칸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상층으로 통한다. 상층은 내부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바닥은 장마루로 되어 있다.

기둥 상부는 익공계 가구방식에 따라 창방과 초익공재를 결구하였다. 익공은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초익공재와 창방을 결구한 뒤 주두를 얹고 도리와 약하게 사절한 보머리를 얹었다.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4분변작의 위치에 종보를 두었다. 지붕은 홑처마로 측면에 방풍판을 달았다. 기와는 막새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단청은 건물외부에는 굿기단청을, 내부는 가칠단청을 하였다.

(2) 동서재(東西齋)

동재는 정면 5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으며, 후면은 담장선과 맞물려 외부에 면하였다.

건물은 장대석 단층 기단 위에, 덩벙주초 형식으로 자연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으며, 좌우 퇴칸 1칸에 온돌을 두고 전면에 아궁이를 두었다. 중앙 3칸 중 북측 협칸은 마루로 하고 후면에 창호를 두었으며 나머지 2칸은 전면에 툇마루를 두고 실(室)로 꾸몄다.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종보는 3분변작의 위치에 두었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어칸 종도리 하부에는 상량묵서명이 적혀 있는데, 수장폭 만큼 수평으로 깎아낸 자리에 써놓았으며, 이 건물이 1954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⁶⁾.

서재는 동재와 동일한 규모이며, 북측 한 칸을 실(室)로 두고 나머지 네 칸은 전퇴 없이 회사벽으로 마감하고, 내부 통간으로 바닥을 우물마루로 처리하였다. 어칸 종도리 장혀 하부에는 상량묵서명⁶⁾이 남아 있으며, 1990년에 개축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3) 기타

강학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타 건물로는 교직사와 화장실이 있다. 교직사는 일반적으로 독립 영역을 이

루고 있으나 횡성향교에서는 서재 후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화장실은 명륜당 서측편에 자리잡고 있다.

교직사는 정면 5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5량가의 가구에 벽체는 시멘 몰탈로 마감하였으며 현재 관리인이 거주 하고 있다.

화장실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1998년에 원래 있던 화장실을 헐고 새로 지었다. 3량가의 가구에 벽체는 화방벽으로 마감하였다.

다. 기타

제향영역과 강학영역 이외의 향교 관련 시설물은 홍살문과 하마비가 있다.

홍살문은 향교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기초 위에 철제 원형관으로 만들었다. 하마비는 홍살문 동측에 인접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역시 콘크리트 기초 위에 화강석을 세우고 전면에 ‘大小人員皆下馬’라 새겨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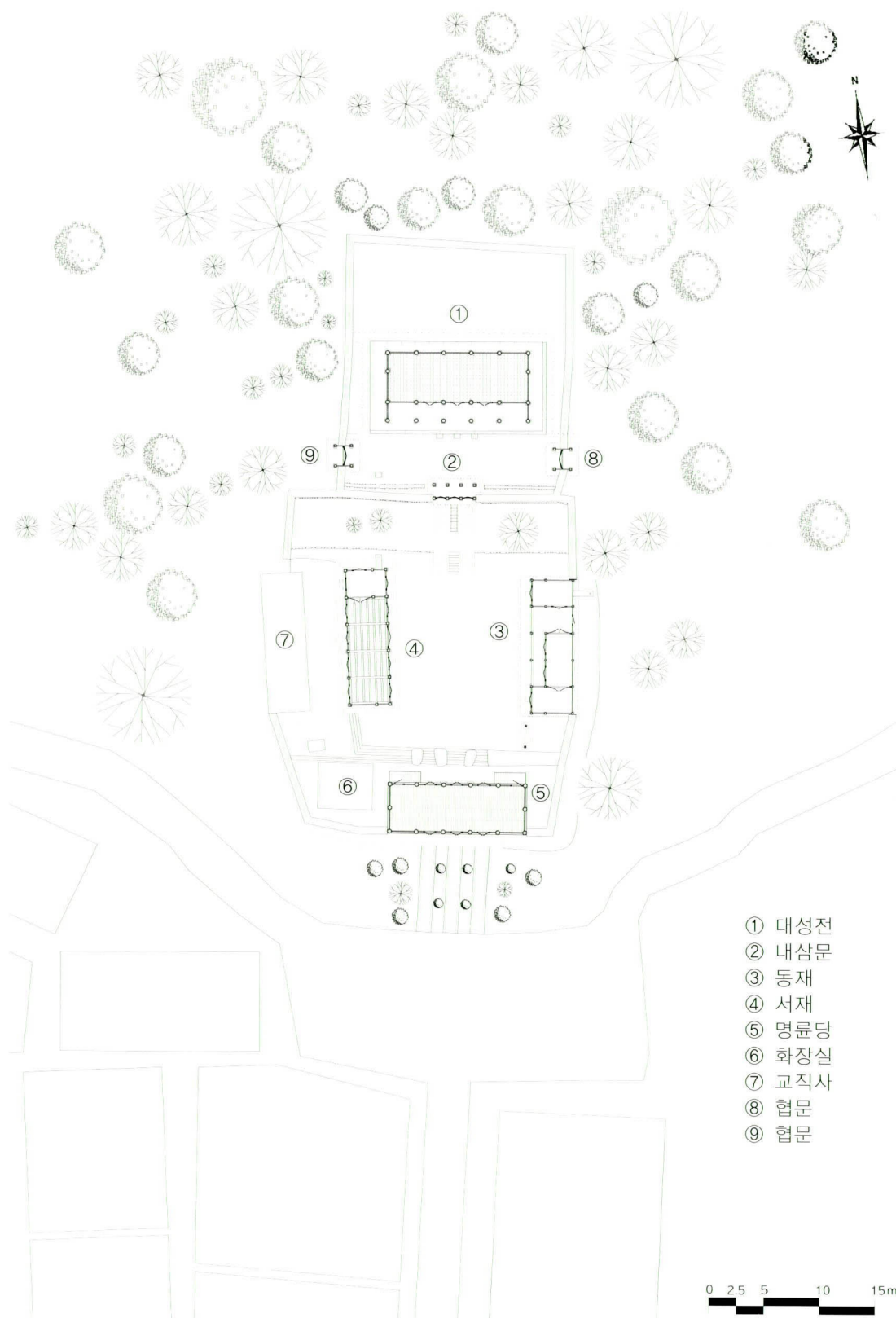
- 1) 향교지에는 창건 연대를 1398년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문헌 근거가 없이 조선초에 향교를 전국적으로 건립하도록 한 역사적 사실만을 근거로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淸順治四年 明隆武二年 丁亥 九月二十七日’, 횡성향교, 『橫城鄉校誌』, 1978 : 171쪽. 상량문에는 또한 ‘崇禎後再丁未六月十七日’(1667)에 중수상량한 기록을 덧붙이고 있다. 이상의 기록들에는 목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먼저 1647년의 기록은 ‘(前略)...大木 僧道雲 色吏 趙應榮 木手 惠通謀生’이며, 1667의 기록은, ‘大木 李世徵 禮吏 林英茂 木手 權天一 鄭戒巾 崔重白 金孝贊...(後略)’이다.
- 3) 〈文廟補修序〉, ‘(前略)... 厓直室蓋尾 倉庫設置...(中略)...孔夫子誕降二千五百十七年丙午九月 日’, 橫城鄉校, 『橫城鄉校誌』, 1978 : 172쪽
- 4) 〈大成殿重建記〉, ‘(前略)...孔夫子誕降二千五百二十九年八月上朔’
〈明倫堂東西齋丹青及垣牆高築記〉, ‘(前略)...孔夫子誕降二千五百二十九年九月上朔’
- 5) ‘檀紀四二八七年甲午陰四月十七日申時立柱上樑卯坐酉向’
- 6) ‘孔紀二千五百四十一年陰七月二十七日癸未午時立柱上樑’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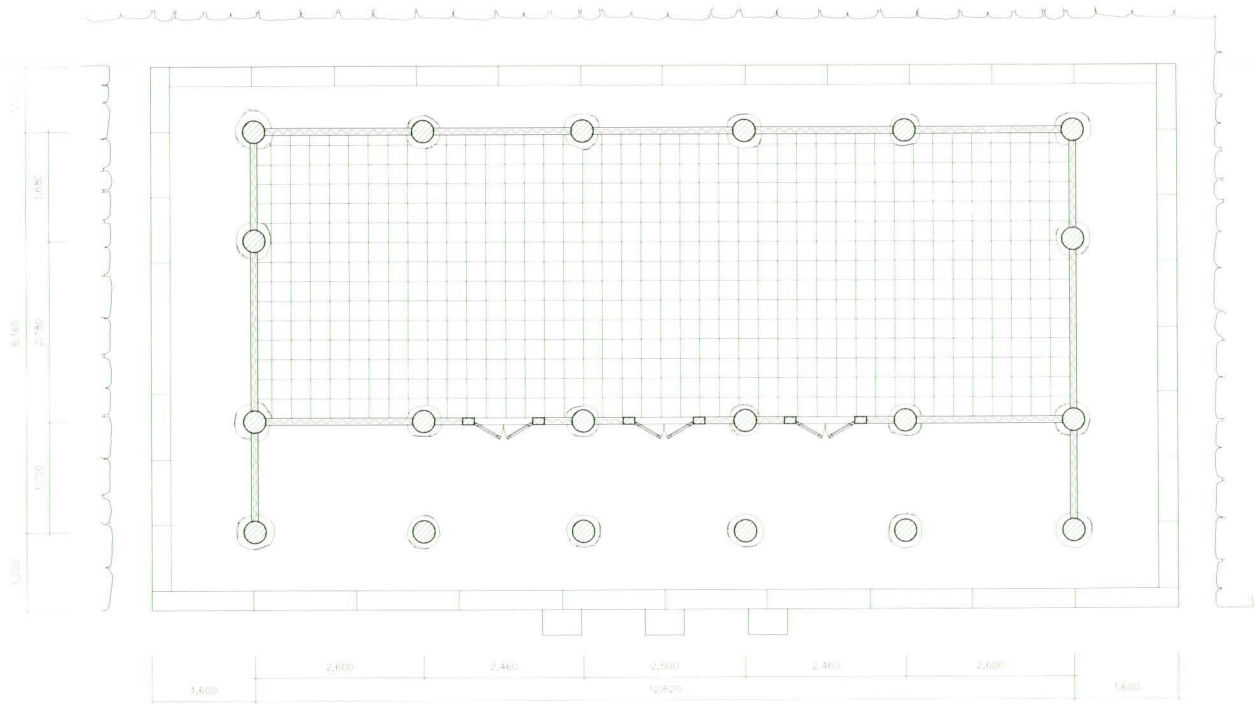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횡성향교(橫城鄕校)	지정현황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0호 (일괄지정)
창건시기	조선 초(추정)	입 지	구릉지 / 主山 : 紅桃山 / 案山 : 남산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김광배
좌 향	남향 (대성전 S8°W)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堂後齋 종축 1개
중건시기	한국 전쟁중 대성전 제외 소실	대지조성	3단 : 명륜당,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대성전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교직사 / 화장실 / 홍살문		
특기사항	명륜당을 중층으로 두고 누하진입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대성전의 규모가 정면 5칸으로 타 향교에 비해 규모가 큼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5×3칸, 전1 퇴칸 / 초익공 / 홀처마 맞배지붕 / 1고주 5량가(측벽 2고주) / 전돌바닥 / 연등천장 주고 : 평주 2600, 고주3630 / 주칸 : 어협칸 2490, 퇴칸 2610 / 수장폭 95~100 도리단면 Ø=240 / 보단면 : 대량 330×360, 종보 270×300, 뒷보 105×255 주심처마길이 1380 / 기단높이 : 전면 270, 측후면 120 / 초석크기 600×600		
기단계단	단층기단 / 외벌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전면 3개(1단) / 후면 1개(2단)	보	대들보 : 전고주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에 근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거친 방형)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Ø=345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운형대공
공 포	초익공	창 방	방형, 100×210 / 뿔목 직절
처 마	홀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내부 굿기단청) / 연등천장 / 전돌바닥		
특기사항	좌우 퇴칸의 주칸길이가 어, 협칸 보다 넓음 수장폭이 일정하지 않으며 다른 건물에 사용되었던 부재가 석인 흔적이 있음 중대공에서 동자주와 주두 형태를 합친 듯한 형태의 부재가 보, 도리방향 첨차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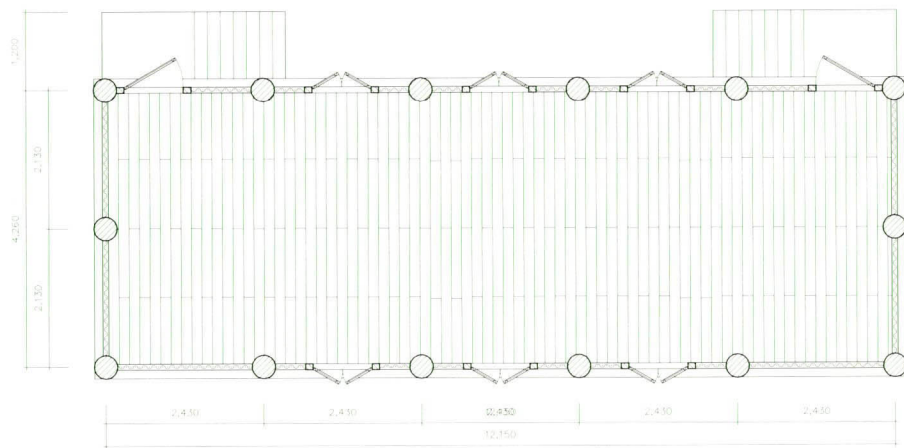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5×2칸 / 초익공 / 홀처마 맞배지붕 / 5량가 / 2층 장마루 / 연등천장 주고 : 하층 1650, 상층 2250 / 주칸 243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Ø=240 보단면 : 대들보 330×360, 종보 180×240 / 주심처마길이 1020 / 기단높이 100~150 / 초석크기 600×600		
기단계단	단층기단 / 시멘트 마감 전면 3개(28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시멘트 마감 600×600, h=150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하층 콘크리트, 상층 원형기둥 上下 Ø=36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	창 방	말각방형, 180×180 / 뿔목 직절
처 마	홀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하층 콘크리트, 상층 회사벽 / 굿기단청 / 연등천장 / 장마루		
특기사항	1960년에 재건한 건물로 1층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음		



배치도



대성전 평면도



명륜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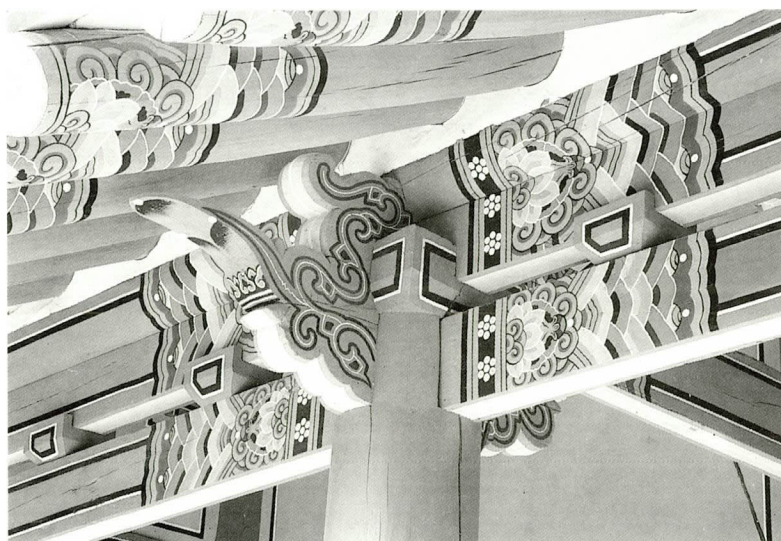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 대성전 현판



◀ 대성전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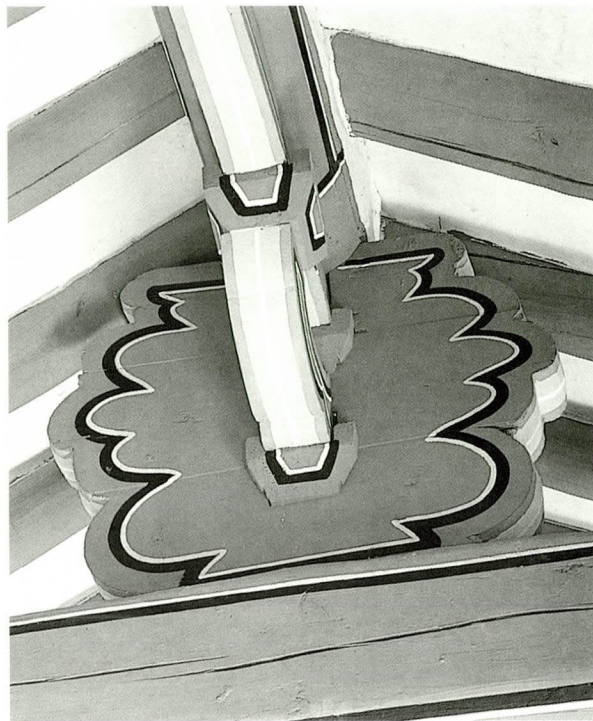
◀ 대성전 전면 초석



▲ 대성전 내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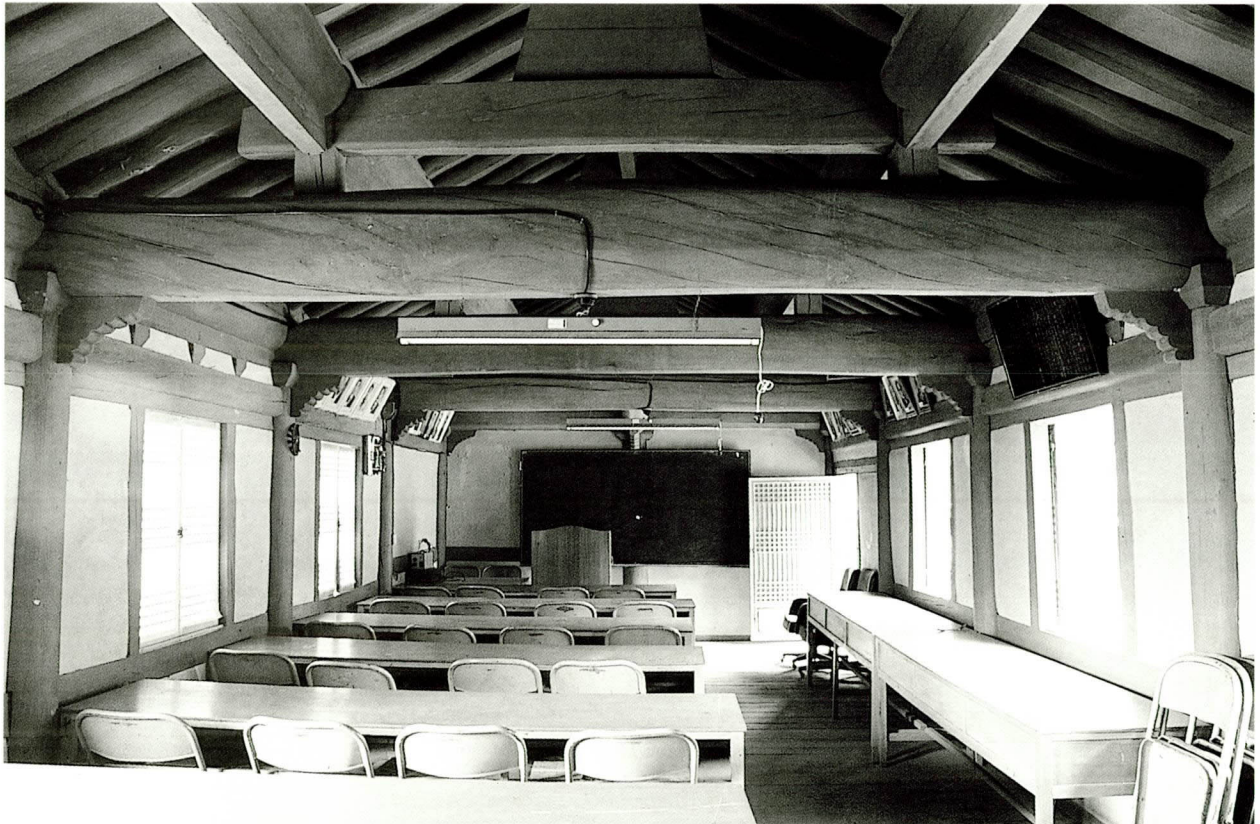
▲ 대성전 내부 중대공



▲ 대성전 내부 종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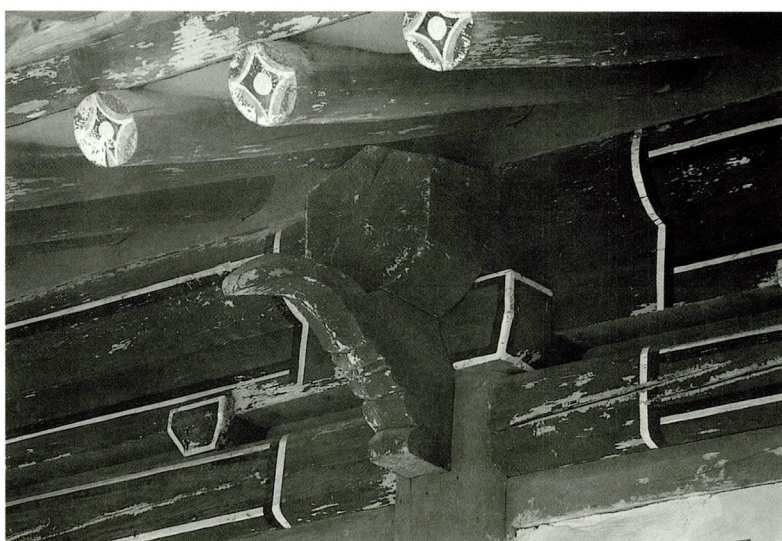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 명륜당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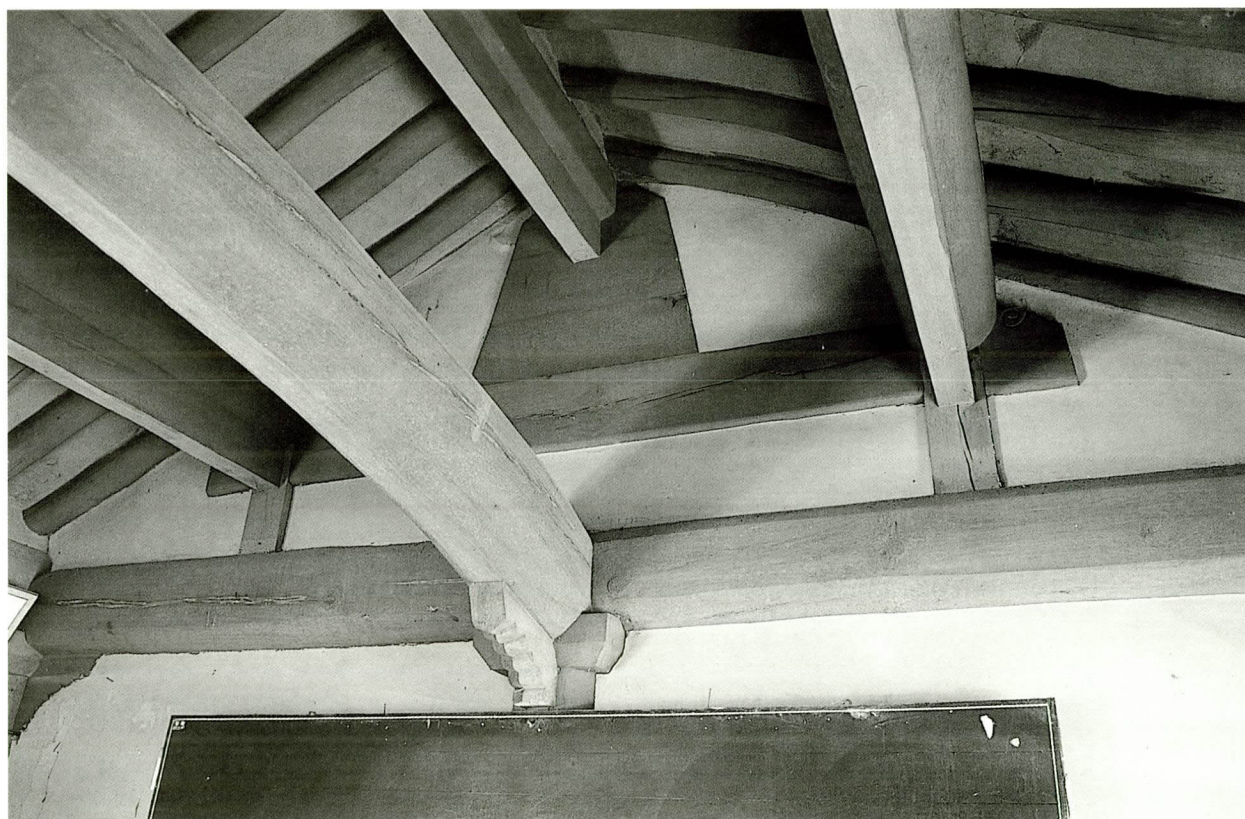
◀ 명륜당 전면 주상포



▲ 명륜당 전면 계단



▲ 명륜당 내부 가구



▲ 명륜당 측벽 가구



◀ 동재



◀ 서재



◀ 서재 내부 가구



◀ 내삼문



◀ 내삼문 후면



◀ 망례위



▲ 내삼문 측면 및 제향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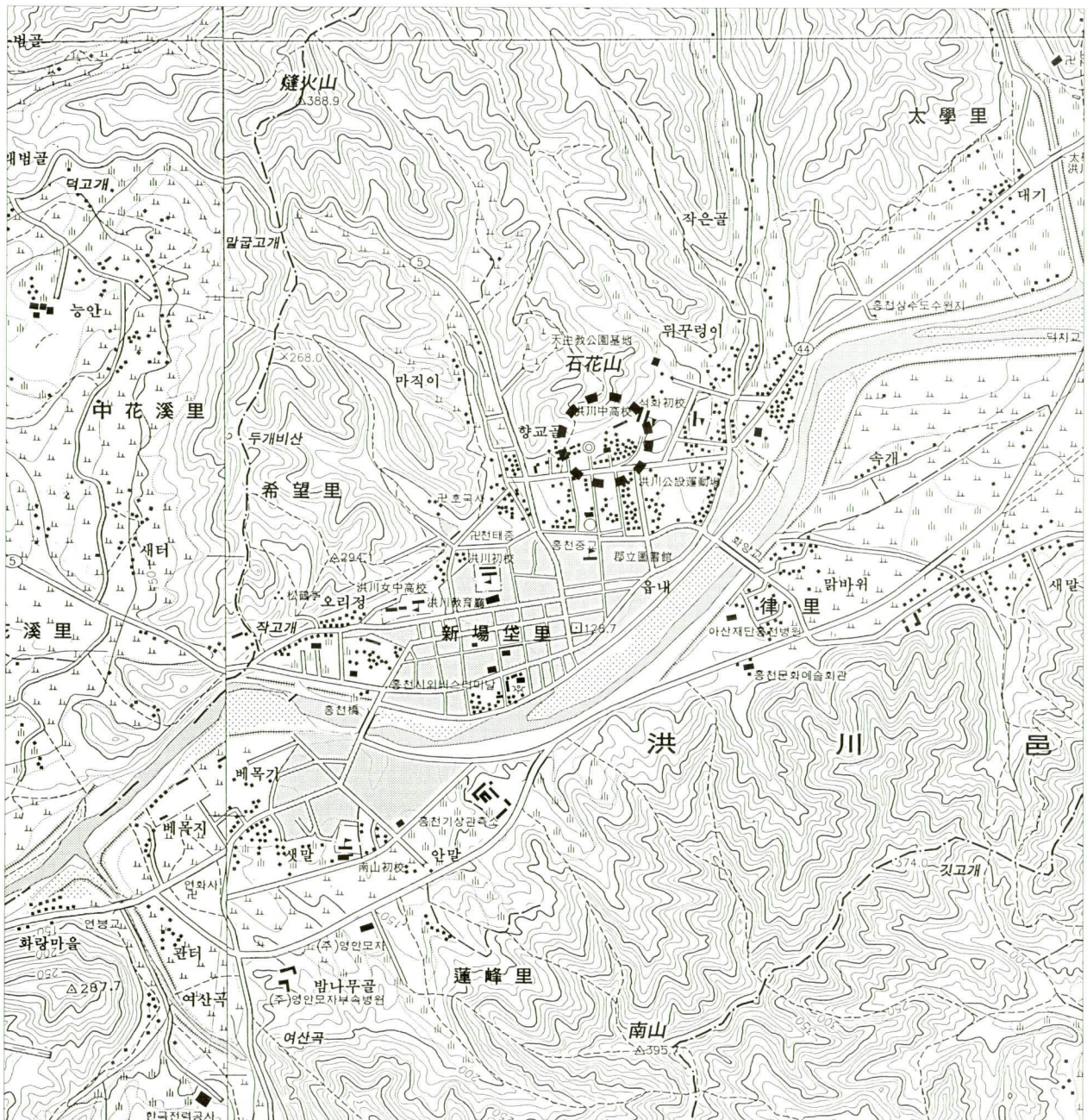


▲ 강학공간

12. 홍천향교(洪川鄕校)

- 지정사항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9호(일괄지정)
- 지 정 일 : 1985년 1월 17일
- 소 재 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74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석화루, 교직사, 화장실, 협문 2

지형도



1. 연혁

홍천향교는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위치하고 있다. 홍천군은 원래 고구려의 벌력천현(伐力川縣)으로 신라 대에 녹효(綠驍)로 개칭하고 삭주(朔州)의 영현(聆縣)으로 두었다. 이후 고려 대에 홍천(洪川)으로 개칭하였고, 인종 21년(1142)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고종 32년(1895)에 군(郡)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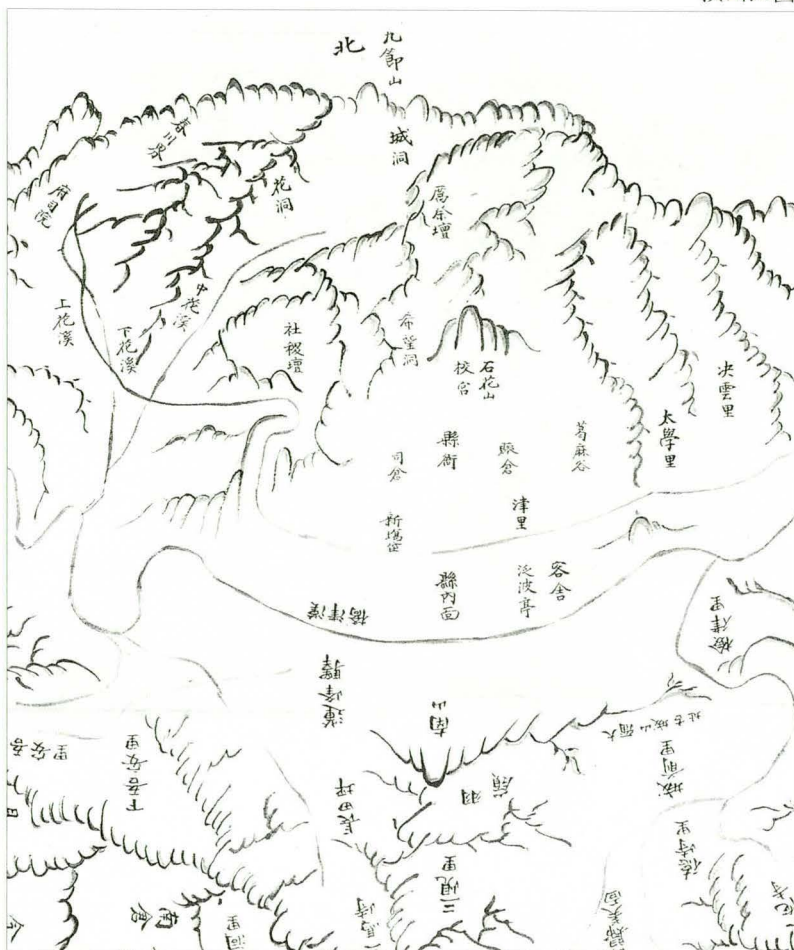
홍천향교의 창건에 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으나 중종 26년(1531)에 창건되었다고 하며, 창건 당시의 위치가 현재의 홍천군 두촌면(斗村面) 철정리(哲亭里) 라고 하나 이 역시 명확하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이후 명종 15년(1560)에 화촌면(化村面) 내삼포리(內三浦里)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선조 28년(1595)에 현재의 홍천읍 희망 2리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이후 인조 13년(1635)에 현(縣)에서 북쪽으로 1리(里) 떨어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기문 등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또한 명륜당 현판 뒤의 명문에 기록되기를 인조 20년(1642)에 명륜당을 건립하였다고 하며, 현재의 건물 역시 이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향교에는 대성전을 비롯하여 7동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나, 대성전과 명륜당을 제외한 건물은 모두 한국 전쟁이후 복원한 것들이다.

홍천향교의 창건 이후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31년	창건
1560년	내삼포리로 이전
1595년	희망 2리로 이 건(현 호국사 (護國寺) 터)
1642년	명륜당 중건 ¹⁾
1635년	현 위치로 이진
1884년	향교 내 제기 보완 ²⁾
1910년	동재, 서재, 문 로(門路) 증설
1951년	1.4 후퇴시 대 성전 일부, 명 륜당을 제외한 일괄 건물 파손
1953년	대성전 일부, 내삼문, 외삼 문, 서재 복원
1957년	대성전, 명륜 당, 서재 보수

洪川地圖



1972년	대성전, 명륜당, 내삼문, 외삼문 중수, 동재 신축
1981년	대성전 중수 및 일곽 단청
1986년	담장 보수 및 진입로 정비, 주변 조정
1987년	명륜당 보수 및 담장 설치
1988년	대성전 보수
1989년	대성전 단청
1990년	외삼문 해체, 석화루 복원, 내삼문 보수
1991년	서재 개축
1992년	동재 개축
1993년	교직사 복원, 사주문 설치, 담장 보수
1995년	교직사 앞 협문, 홍살문 설치, 대성전 석축 공사
1999년	화장실 개축
2000년	대성전 보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석화루, 교직사, 협문 2동,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천향교는 한국 전쟁 당시 상당수의 관련 문헌과 기록을 소실하여 그 정확한 변천 과정을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도향제기신보기(徒享祭器新補記)>, <중수기(重修記)>, <홍천향교중수기(洪川鄕校重修記)> 등의 현판 기록이 남아 있다.

2. 입지 및 배치

홍천향교는 홍천읍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에 44번 국도가 지나고 있고 향교는 안쪽 간선도로 변에 자리 잡고 있다. 홍천군청과 석화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뒤에는 석화산(石花山)이 자리잡고 있는데 향교의 주산(主山)이다. 안산(案山)은 정확한 명칭은 없으나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거북등’이라 칭한다.

건물 배치는 전학후효의 배치를 따르고 있으며, 입구에 홍살문을 두었다. 1990년에 지은 석화루 앞에는 ‘三公鄕校發展功德碑’를 비롯하여 3개의 비석이 자리잡고 있다. 향교 전체는 크게 2개의 단으로 구분되는데 석화루 하층을 지나 향교에 들어서면, 동재와 서재가 놓여 있고 중앙에 명륜당이 자리잡고 있다. 명륜당을 끼고 돌면 경사진 계단 위에 내삼문이 자리잡고 있으며, 내삼문을 지나면 후면에 연결된 담도를 따라 대성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단이다. 동재 후면으로 협문이 있고 이 문을 통하면 교직사에 이르는데 교직사 영역은 따로 전면에 외부로 향하는 출입문을 지니고 있다. 홍천향교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지에 놓여 있으며,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하는 종축선에 의해 형성된 전학후효, 전재후당의 배치형식을 지니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전면 1칸은 개방형 퇴칸으로 구성하였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聖과 宋朝 2賢, 海東 18賢의 위패를 모셨다. 바닥에는 전돌을 깔았으며, 중앙 후측에 공자의 위패를 놓고 후벽 중앙 동측에 공자초상을 걸어두었다. 5성의 위패는 ‘ㄷ’자 형태로 놓여졌으며 후벽 일부와 좌우 측벽쪽에 나머지 신위를 모셨다. 건물은 장대석 2벌대로 쌓은 단층기단 위에 놓여졌으며 정평주초 형식으로 초석을 놓았다. 초석은 자연석과 가공석이 섞여 있으며, 특히 전면 동측 귀초석의 경우 주좌와 쇠시리 흔적이 남아 있어 타 건물에서 사용되었던 부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둥은 원형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민흘림을 두고 치목 되었다. 전면 퇴칸은 전면을 개방하고 좌우 측벽은 중방 하부는 화방벽, 상부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벽체는 퇴칸과 마찬가지로 측후면 모두 중방 이하는 화방벽으로, 상부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으며, 전면 퇴칸열에는 벽체 없이 각 칸 모두 네 짝 분합문을 달았다. 기둥상부에는 초익공 결구 수법에 따라 익공재와 창방을 결구하고, 주두와 보머리를 얹어 구성하였다. 주간에는 화반 대신 소로를 수장하였으며, 기본 가구는 어칸에서 1고주 5량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들보는 전면 고주와 후면 평주 사이에 걸쳤으며, 4분변작의 위치에 종보를 놓았다. 중대공은 동자주, 종대공은 판대공 형식을 취했다. 측벽에서는 후면 종도리의 위치 보다 종도리 방향으로 안쪽에 평주와 같은 높이의 기둥을 두고, 측벽의 대들보를 둘로 나누어 기둥 위에서 맞대어 연결하였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있고, 바닥은 강회다짐하였다. 지붕은 전면에 겹처마, 후면은 홑처마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막새기와 얹어 아귀토로 마감되었다. 좌우에 풍판널을 달았으며,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다.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솟을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건물 전면에 각각 18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이 2개 놓여 있다. 장대석으로 1단을 쌓은 단층 기단 위에 정평주초 형식으로 향아리형의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공포 없이 민도리 형식으로 도리 위에 바로 서까래를 받았다. 가구는 3량가 형식으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치고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각 칸 모두 전면에 두 짝 판문을 달고 전면에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좌우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고 단청은 굿기단청으로 되어 있다. 어칸 출입문 상부에는 간략화된 홍살이 설치되어 있다.

나. 강학영역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건물은 전면에서 보았을 때 이중기단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장대석을 면석으로 사용하였다. 정면 어칸에 6단으로 구성된 1개의 계단을 두었으며, 덩병주초 형식으로 자연석을 초석으로 놓았다.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우고, 기둥 상부에 초익공 형태의 포작을 구성하였다. 창방은 귀 부분에서 쇠서형으로 초각되었으나 모양이 서로 달라 보수시 부재가 섞인 것으로 추정된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고, 정면 어칸과 동측 퇴칸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고 서측 퇴칸에는 들어열개창을 달았다.

건물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4분변작의 위치에 종보를 놓았다. 중대공은 간략한 동자주

로 되어 있고, 종대공은 판대공으로 되어있다. 바닥은 장마루를 짜았으며, 전장은 좌우 퇴칸의 외기 부분을 반각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연등천장으로 두었다. 단청은 모로 단청으로 마감하였으며, 전면 어칸 상부에는 명륜당 현판이 걸려 있다. 내부에는 따로 기문류를 걸어두지 않았으며, 동서실 구분없이 통칸으로 구성하였다.

(2) 동서재(東西齋)

동재와 서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에 전면에 퇴칸을 둔 전형적인 재사(齋舍) 건물이다. 두 건물 모두 각각 1992년과 1991년에 기존 건물을 헐고 개축한 것으로, 1고주 5량가에 맞배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건물은 단층 기단 위에 덩병주초 형식으로 자연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생략한 민도리 형식으로,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내부에는 온돌을 두고 굿기단청으로 마무리 하였다.

(3) 석화루(石花樓)

석화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중층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지 자체의 단 차이를 이용하여 후면으로 누하진입 방식으로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초석은 정평주초 형식으로 야트막한 장대석 기단 위에 전후면 평주 열에 한하여 비교적 높은 방형 초석을 놓았고 원형기둥을 세웠다. 중앙 기둥렬에서는 방형 초석을 두고 방형기둥을 세웠다. 출입문은 중앙 기둥렬에 맞추어 각 칸 모두 두 짝 판문을 달고 전면에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상층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기둥 상부에는 초익공을 걸구하였다. 가구는 5량가로 전후면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4분변작의 위치에 중보를 놓았다. 종대공은 포대공으로 되어 있으며 도리방향 첨차와 보방향 첨차의 형태는 서로 다르다. 종대공은 판대공으로 되어 있으며, 어칸 종도리 하부에는 1990년 건립 당시의 상량 묵서명이 적혀있다.³¹⁾ 지붕은 겹처마에 측면에 풍판을 달고, 막새 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2층 주변에는 난간을 설치하였으며, 건물 후면 좌우 측면 기둥쪽에 2층으로 오르는 야트막한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다. 기타

제향영역과 강학영역에 속한 건물 이외에는 교직사, 홍살문, 협문 등이 있다.

교직사(校直舍)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동재 후면에 자리잡고 있다. 어칸과 동측퇴칸은 전면에 반 칸 퇴를 두었으며, 가구는 어칸에서 전면에 고주를 둔 1고주 5량가로 되어 있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고, 단청은 하지 않았다. 교직사 전면에는 화장실 1동이 자리잡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로 되어 있으나 크기는 매우 작다. 벽체는 시멘물탈로 마감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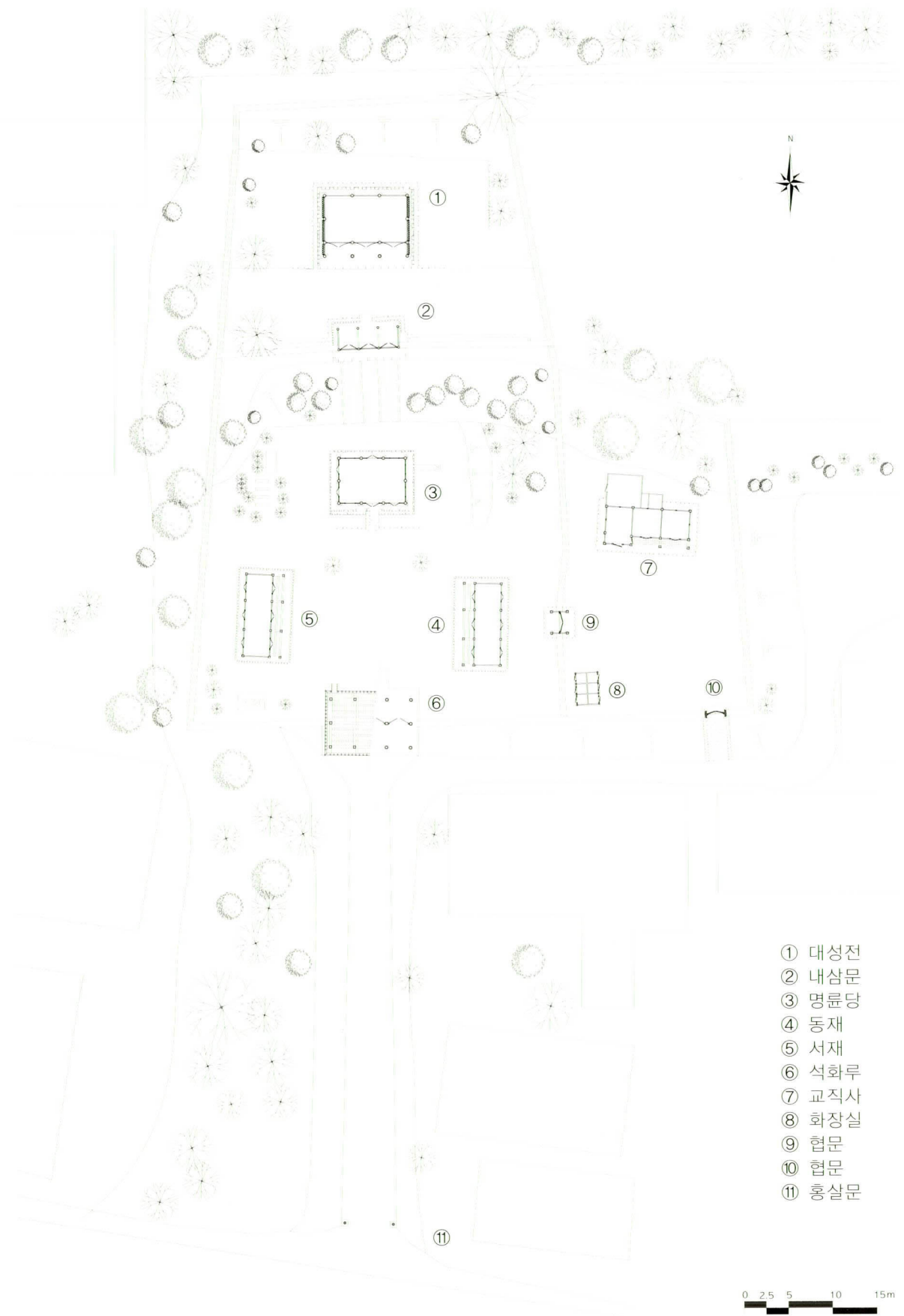
홍살문(紅箭門)은 향교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1995년에 신설하였다. 홍살문 좌측에는 하마비가 놓여져 있으며, 전면에는 ‘大小人員下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협문(夾門)은 모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향영역에서 교직사로 통하는 문으로, 사주문 형태를 띠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교직사 전면에 위치하여 향교 밖으로 통하는 문으로 1995년에 홍살문과 함께 건립되었다. 전면에 계단이 있으며 두 건물 모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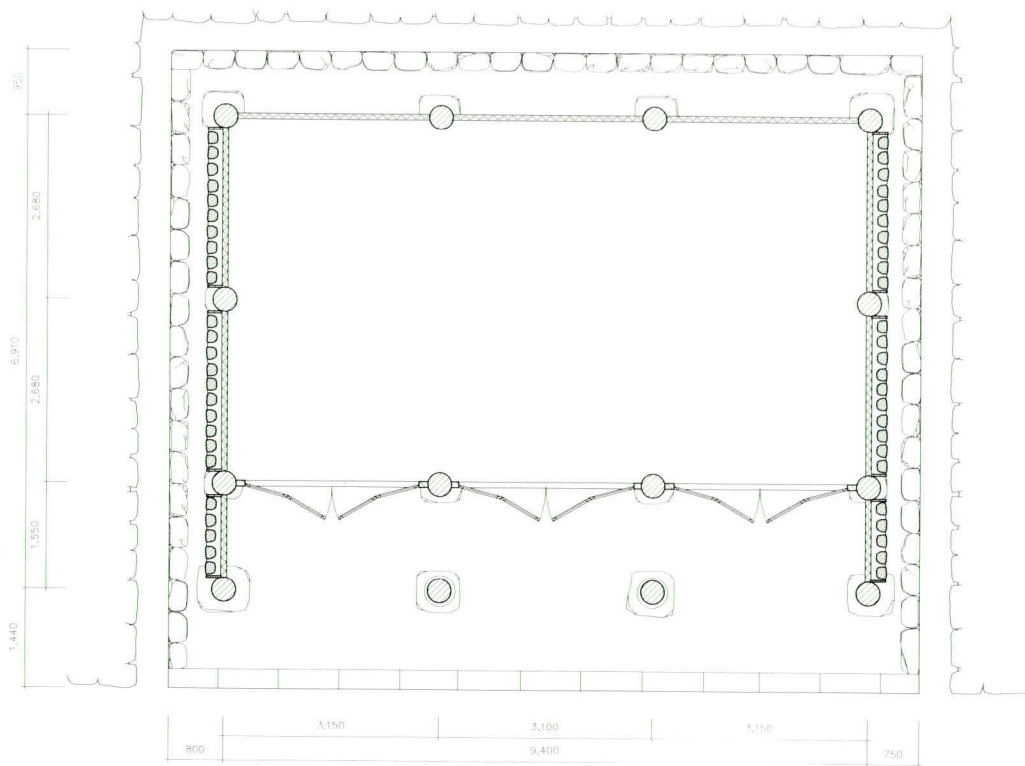
1) 실제 명문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향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홍천향교연혁(洪川鄉校沿革)>에 따르면 ‘崇禎壬午年間七月初日’이라 적혀 있다. 또한『新增東國輿地勝覽』洪川縣篇 學校條에 보면 ‘鄉校在縣西二里’라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향교의 형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 <徒享祭器新補記>, (前略)... 崇禎紀元後五甲申二月十五日...(後略)
3) 孔紀二五四一年庚午陰七月十一日復元立柱上樑永世有光

4. 향교 조사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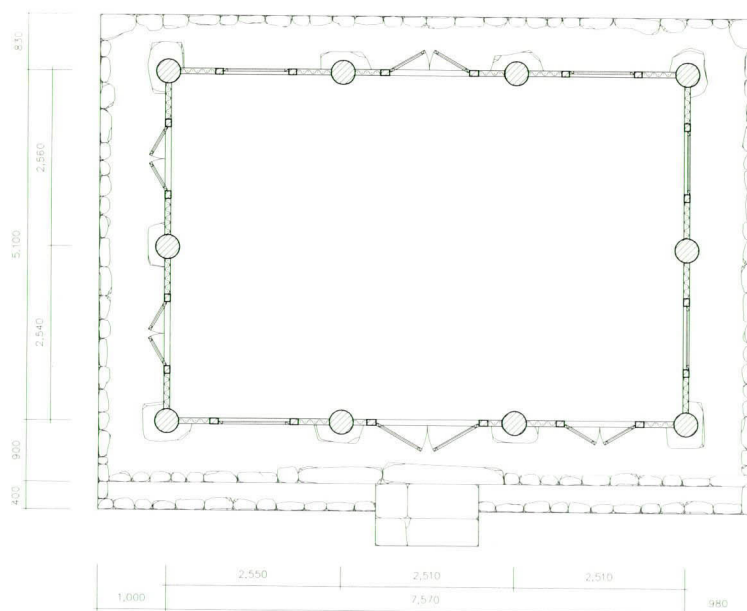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홍천향교(洪川鄕校)	지정현황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9호 (일괄지정)
창건시기	조선 중종 26년(1531)	입 지	구릉지 / 主山 : 석화산 / 案山 : 거북등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정남향 (대성전 정남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종축 1개
중건시기	1560, 1595, 1635년 이건 1967년 일괄 중창	대지조성	2단 :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2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서편에 군청 인접
건축구성	대성전 / 내삼문 / 명륜당 / 동서재 / 석화루 / 교직사 / 화장실 / 협문 2		
특기사항	명륜당이 동서실 구분 없이 3칸 규모로 간략하고, 약간 서재 쪽으로 치우쳐져 위치함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3칸, 전1 퇴칸 / 초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1고주 5량가 / 강화다짐 / 연등천장 주교 : 평주 2430, 고주 3400 / 주칸 3120 / 수장폭 90 / 도리단면 $\phi=210$ / 보단면 : 대들보 300×330, 종보 210×240 주심처마길이 1450 / 기단높이 : 전면 600, 측면500, 후면350 / 초석크기 약600×750 전후		
기단계단	단층기단 / 이별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전면 3개(2단)	보	대들보 : 전고주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자연석에 원형 주좌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phi=33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	창 방	말각방형, 165×210 / 뿔목 직절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측후면 하부 화방벽,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강화다짐		
특기사항	전면 동측 깃기둥 초석에 고막이 흔적이 있고 원형 주좌와 원형 쇠시리가 되어 있음 측벽에서 대량이 중앙의 헛기둥에 맞보 형태로 결구됨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3×2칸 / 초익공 / 겹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장마루 / 연등천장(당), 우물반재(합각부) 주교 2630 / 주칸 2510 / 수장폭 80 / 도리단면 $\phi=180$ / 보단면 : 대들보 300×330, 종보 210×240 주심처마길이 1300 / 기단높이 400+400 / 초석크기 약 650×720 전후		
기단계단	전면 이중기단 / 외별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전면 1개(6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phi=33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	창 방	방형, 120×210 / 뿔목 쇠서형 초각 (위치별로 형태가 약간 다름)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당), 우물반재(합각부) / 장마루		
특기사항	전면 좌우 협칸의창호가 다르며 내부는 실 구분 없이 통간임 전면에서는 이중기단으로 계단이 기단에 걸쳐 있으나 측면과 후면은 단층기단임		



배치도



대성전 평면도



명륜당 평면도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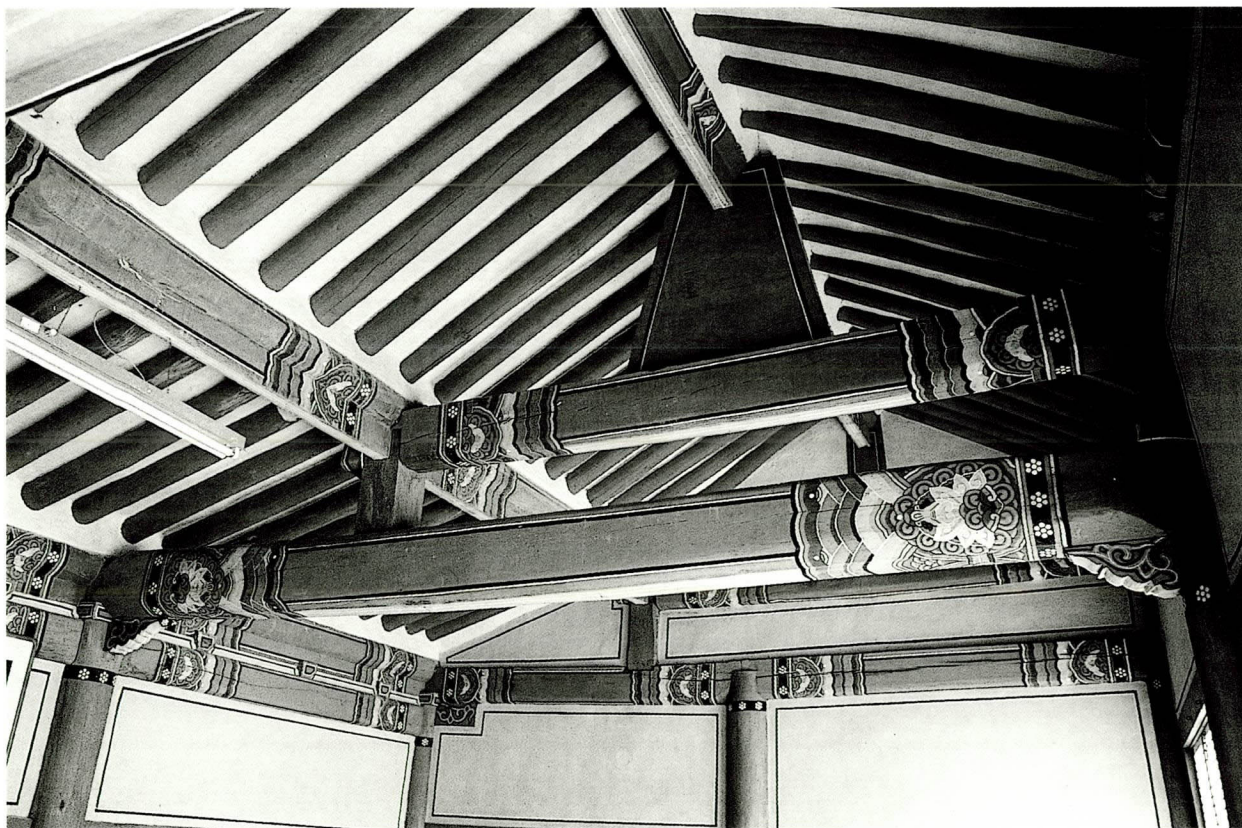
◀ 대성전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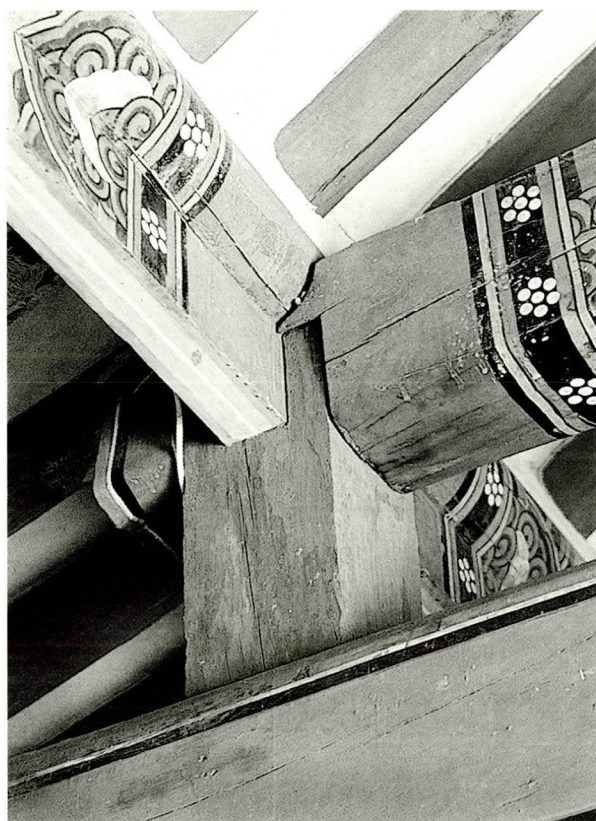
◀ 대성전 전면 주상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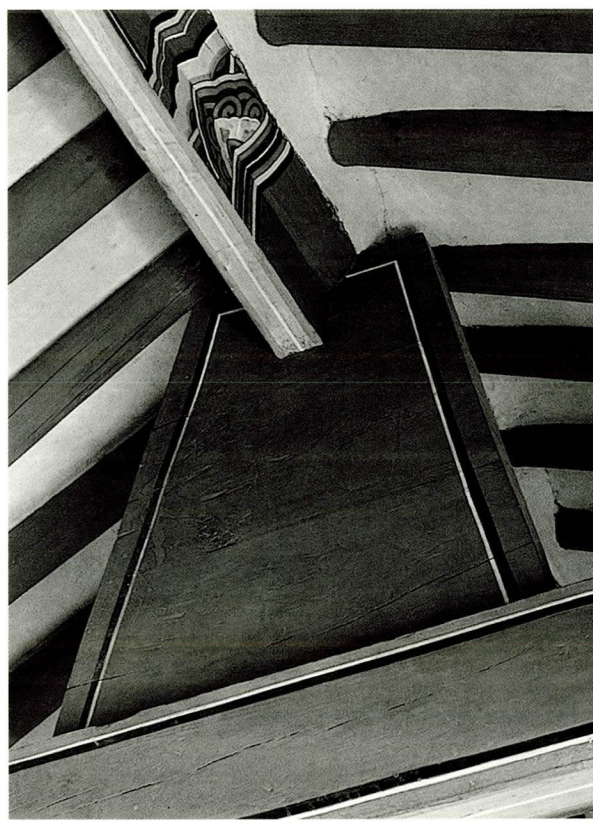
◀ 대성전 전면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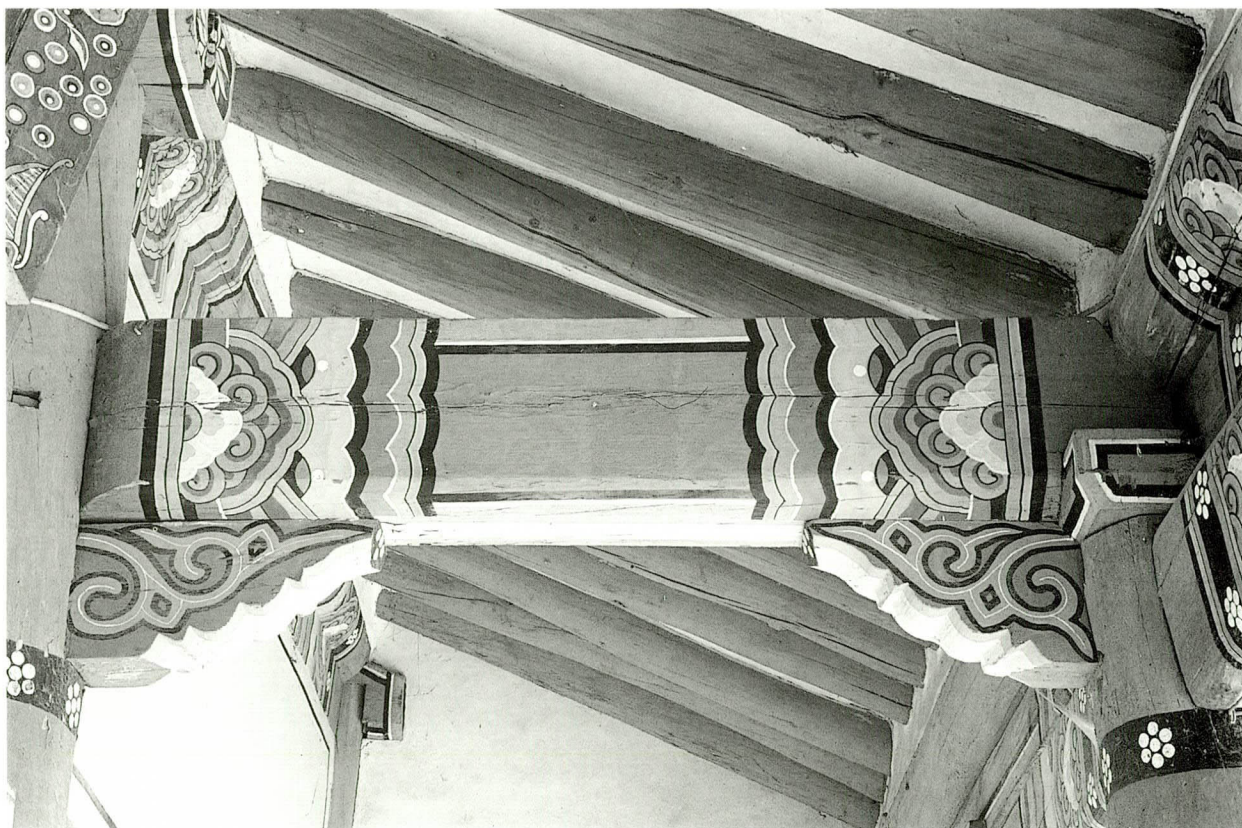
▲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 대성전 내부 종대공



▲ 대성전 내부 종대공



▲ 대성전 전면 퇴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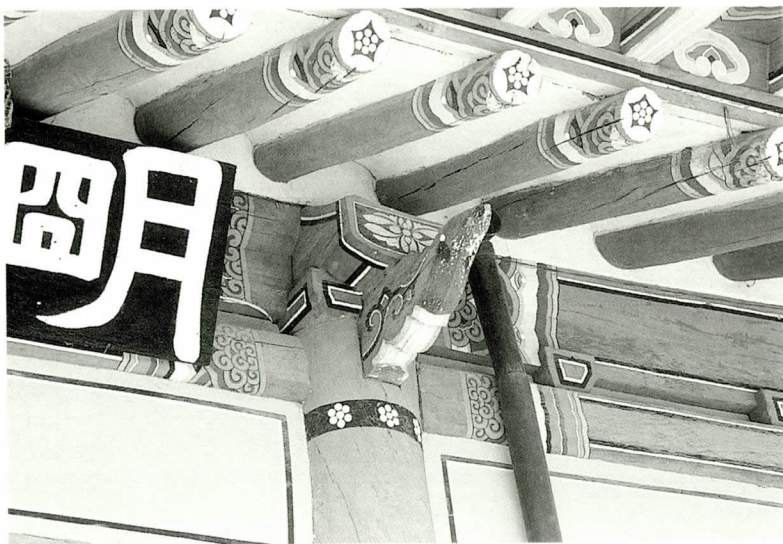
▲ 대성전 내부 측벽 가구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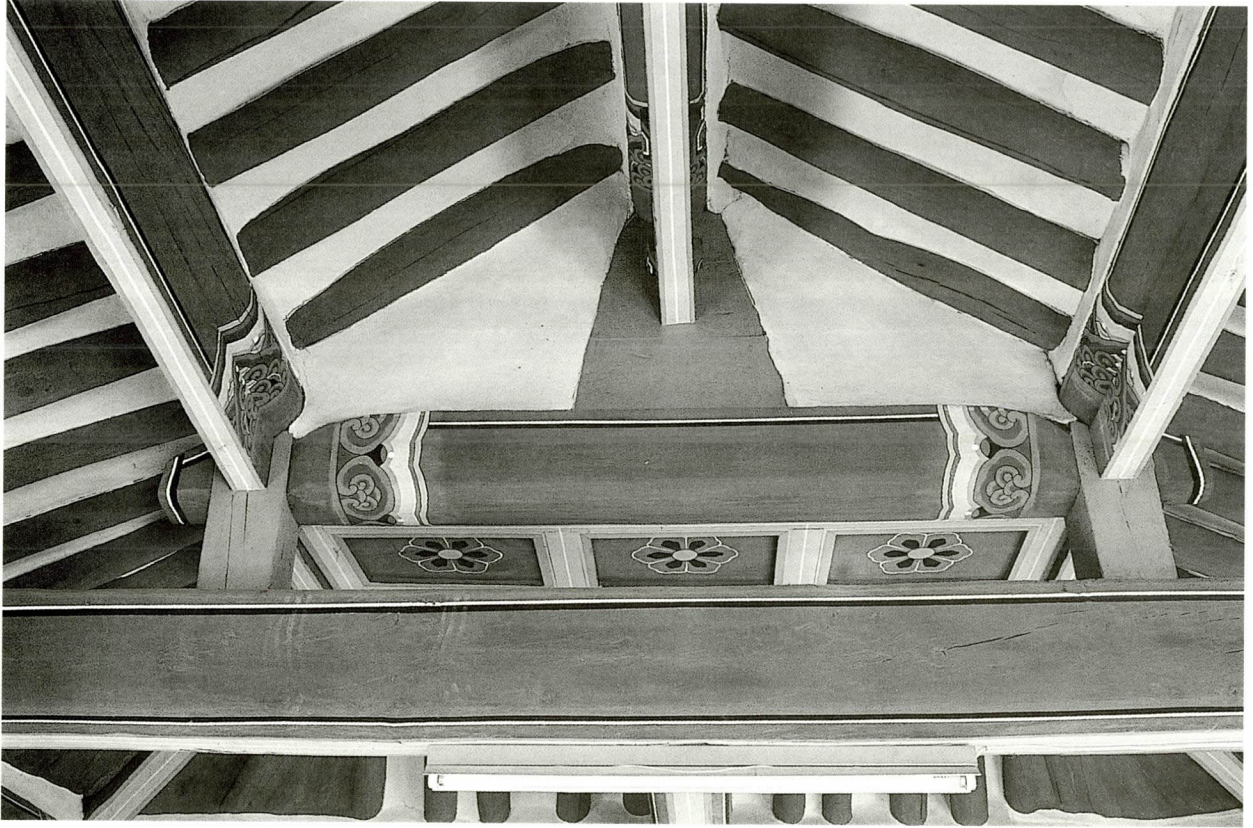
◀ 명륜당 전면 주상포



◀ 명륜당 전면 초석



◀ 명륜당 기단 및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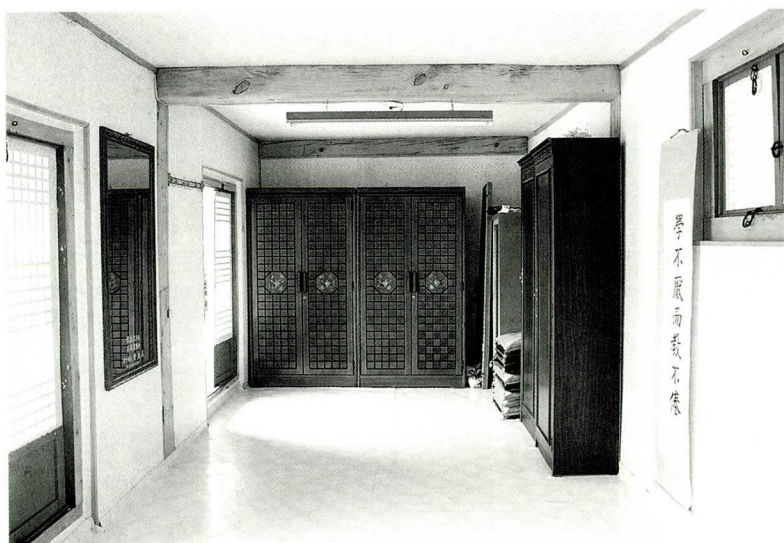
▲ 명륜당 내부 어칸 가구



▲ 명륜당 내부 협칸 가구 상세



◀ 동재



◀ 동재 내부



◀ 서재



▲ 석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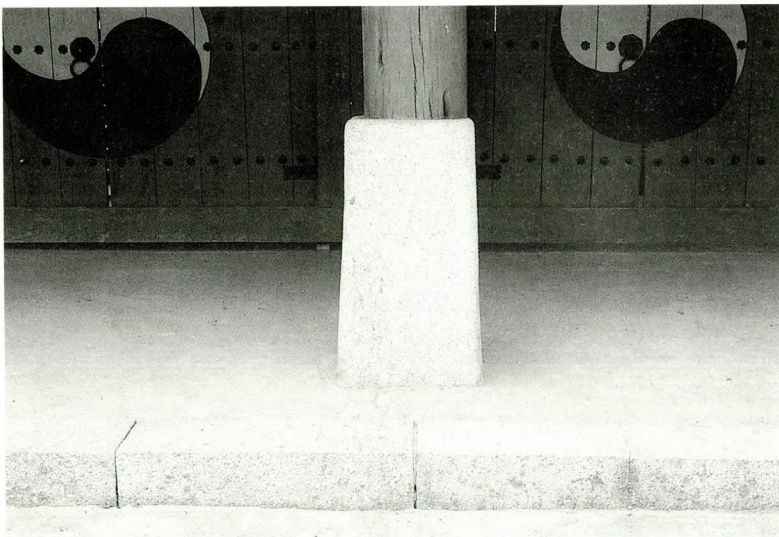
▲ 석화루 내부 어칸 가구



◀ 석화루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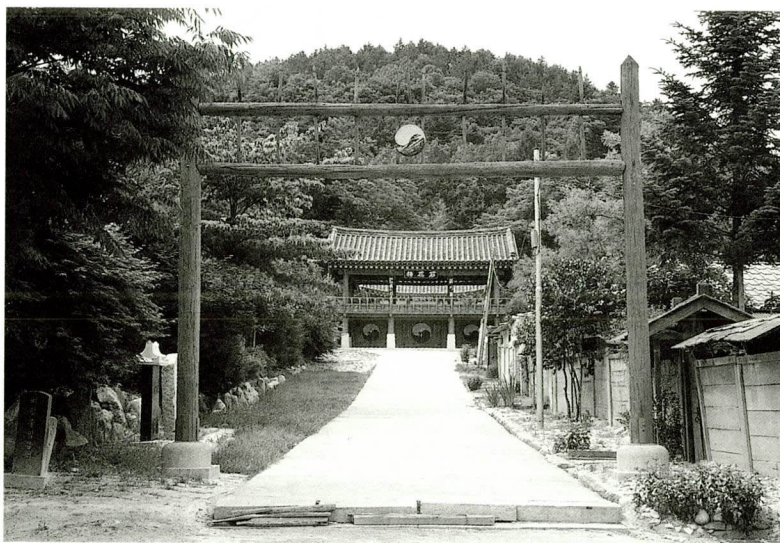
◀ 석화루 전면 주상포



◀ 석화루 전면 초석



◀ 내삼문



◀ 홍살문



◀ 교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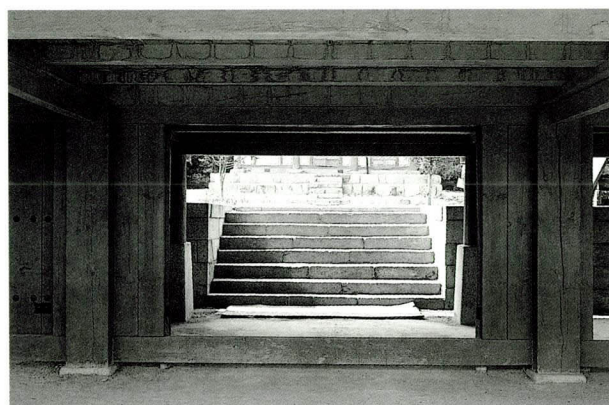
▲ 제향공간



▲ 명륜당 측면 공간



▲ 교직사 영역



▲ 석화루 하부 누하진입



▲ 석화루 2층에서 본 진입부

13. 화천향교(華川鄉校)

- 지정사항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2호(일괄지정)
- 지 정 일 : 1985년 1월 17일
- 소 재 지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108
- 건축구성 :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외삼문, 제기고, 교직사, 홍살문

지형도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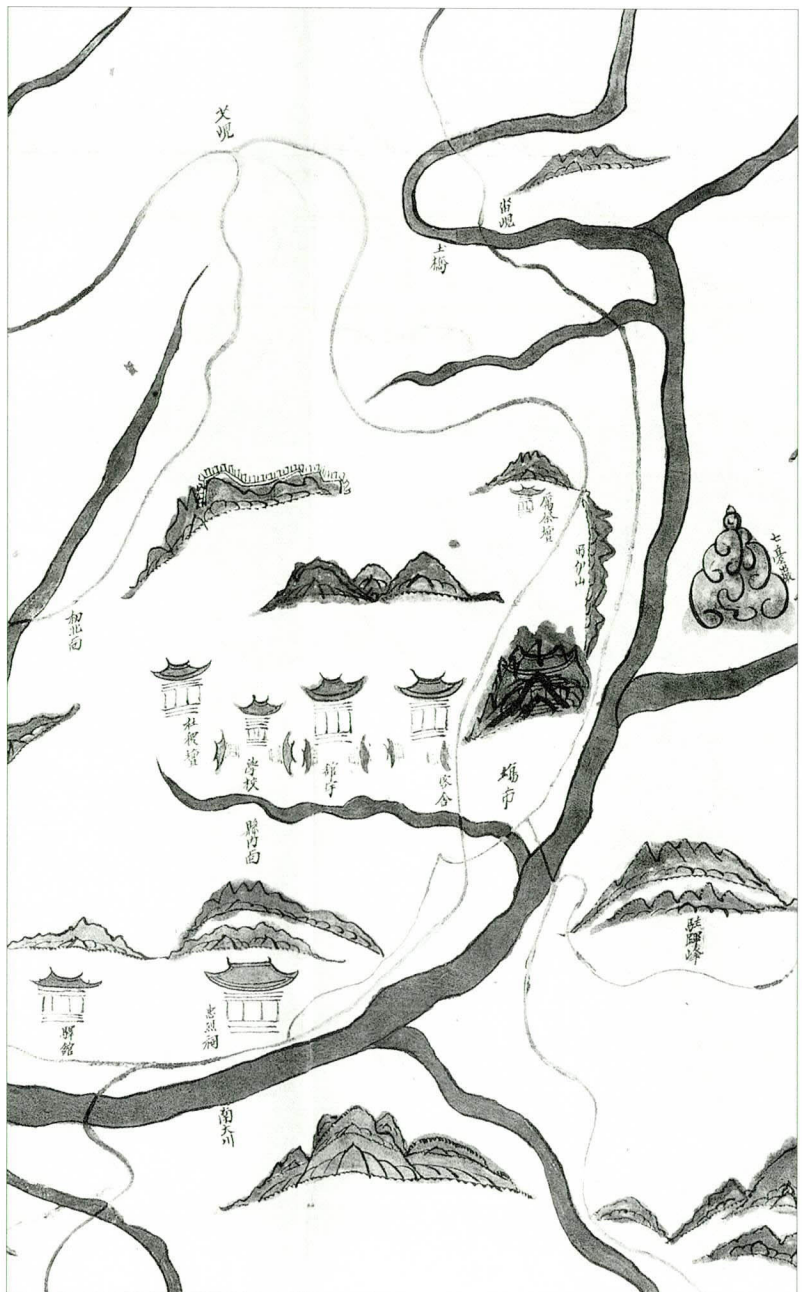
화천향교는 화천군 화천읍 하리에 자리잡고 있다. 화천군은 원래 고구려의 성천군(狝川郡)이었으며, 신라 경덕왕 대에 낭천군(狼川郡)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초에는 춘천의 속현이었다가, 고려 예종 1년(1106)에 감무(監務)를 두어 양구(楊口)를 같이 관할토록 하였다. 이후 조선 태종 13년(1413)에 현감(縣監)을 두고, 인조 22년(1644)에 일시적으로 금화(金化)에 병합되었다가, 효종 4년(1653)에 다시 현령을 두었다. 고종 32년(1895)에 화천군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화천향교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인근 지역의 향교 건립 연대에 비추어볼 때 대략 조선 초기 정도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화천군향교지(華川郡鄉校誌)』에도 일제 치하 시절부터 한국 전쟁 전후까지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전의 기록

이 전무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부 자료에는 1735년 김시민(金時敏)이 현감으로 부임하여 향교의 전사청(典祀廳)을 건설하고 외문루(外門樓)를 창건하였다고 되어 있다.¹⁾

건물은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완전히 파괴되었고, 1960년 4월 15일에 대성전과 내삼문 건립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5일에 준공하였다. 1966년 4월 30일에는 당시 전교(典敎) 함철호(咸徹鎬)가 사재(私財)를 들여 대성전과 내삼문의 단청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인근 군부대의 건물을 임대하여 명륜당과 재실의 기능을 겸용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당시 교지기의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 건물이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명륜당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1971년 6월 10일 당시 도유사(都宥司) 박제묵(朴齊默)이 주관하여 명륜당 건축에 착공하였으며, 1974년 4월 10일에 명륜당 및 외삼문, 제기고를 준공하였다. 1973년 9월에는 일곽에 단청을 새로 하였으며,

金化地圖



1979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번와보수를 하였다. 또한 1980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담장을 보수하였고, 1982년 4월에 홍살문을 건립하였으며 향교 안내판은 같은 해 6월에 완공하였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 (추정)
1960년	대성전, 내삼문 중건
1963년	담장 공사, 관복 마련, 인근 분묘(墳墓) 이장
1966년	일곽 단청
1973년	일곽 단청
1974년	명륜당, 외삼문, 제기고 중건
1978년	대성전, 명륜당 번와 보수, 교직사 보수
1979년	일곽 번와 보수
1980년	담장 보수
1982년	홍살문 건립
1983년	대성전, 명륜당 보수
1984년	대성전 마루 및 담장 보수
1986년	교직사 자체 보수, 담장 보수
1988년	안내판 내용 교체
1990년	대성전 전면 개보수
1991년	대성전 보수, 담장 번와 보수, 석축 보수
1995년	내외삼문 판문 보수, 단청 및 홍살문 건립
1992년	내외삼문, 담장 보수
1993년	담장 보수
1995년	내외삼문 보수 및 단청, 홍살문 건립, 담장 보수
1997년	담장, 석축 및 안내판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외삼문, 제기고, 교직사 등 6동의 건물과 홍살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향교에는 〈대성전중건기(大成殿重建記)〉, 〈명륜당중건기(明倫堂重建記)〉 등의 기문이 남아 있다.

2. 입지 및 배치

화천향교는 화천읍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화천읍내에서 군청방향으로 가는 길 좌측 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안산(案山)은 성재산이다. 전체적인 향은 약간 남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배치는 동서무와 동서재가 생략된 간략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대성전과 명륜당을 주축으로 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로 되어 있다.

전체 영역은 세 개로 구분되며, 제향영역과 강학영역 외에 동측으로 교직사 영역이 자리잡고 있다. 경사가 급한 산지에 자리잡고 있어 전체 영역은 4단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최근에 정비한 진입로를 따라 홍살문을 지나면 외삼문 전면에 횡방향으로 넓은 주차공간과 중앙에 외삼문이 자리잡고 있다. 외삼문을 지나면 전면에 계단이 있고 중앙에 명륜당이 있는데, 이곳이 두 번째 단이다. 명륜당을 끼고 후면으로 돌아가면 다시 계단이 있고 내삼문이 자리잡고 있다. 계단을 올라 내삼문을 지나면 우측에 제기고가 있고 다시 한 단을 높인 높직한 기단 위에 명륜당이 자리잡고 있다. 제기고는 대성전 동편에 위치하여 서향(西向)하고 있다.

후면과 측면은 대부분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면으로만 공간이 열려 있으며, 전면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작은 1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영역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에 전면 퇴칸을 둔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1960년에 중건하였고, 1990년에 전면 개보수하면서 지붕 물매를 주기 위하여 부연을 달았다. 이 때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기존의 화방벽을 보수하고, 계단과 기단을 정리하고 부식된 기둥 하부를 잘라내고 동바리 이음하는 등의 수리 과정을 거쳤다. 현재 1981년에 지은 <大成殿重建記>²⁾가 남아 있다.

장대석 단층기단 위에 방형의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약간의 민흘림이 있는 원형기둥을 세웠다. 기단 전면에는 각 칸 중앙에 5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각각 1개씩 두었으며, 기단 상면은 강회다짐으로 마감되었다. 초석은 하부를 방형으로 상부를 원형으로 다듬었다. 내부 바닥은 장마루를 꾸몄으며, 그 위에 5성을 비롯한 해동 18현의 신위를 모셔두었다. 후벽 상부에 공자의 초상을 걸고, 공자 신위 후면에 병풍을 두었으며, 중앙에 ‘ㄷ’자 형식으로 5성의 신위를 모셨다. 나머지 18현의 신위는 좌우 측벽에 모셔두었다.

벽체는 좌우 측면에서 중방하부를 화방벽으로 구성하고, 전면에는 각 칸 모두 사분합문을 달았다. 대개 고주를 놓음으로써 퇴칸 문 상방 상부에 광창을 구성하나 여기서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고, 후면은 전부를 회사벽으로 구성하였다.

기둥상부는 전면에서 일반적인 초익공의 결구 수법과 달리 주두를 생략한 채 결구되었으며, 익공계 외단은 약간 길게 내 뺀 쇠서형태를 띠고 있고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다. 후면에서는 민도리 형태로 결구되어 있다. 고주에서는 주두 위치에 방형의 부재를 놓아 주두의 역할을 하게 하였고 익공재는 외단을 직절하였다. 보머리는 전면 어칸 좌우에서 사절하고 양 측벽에서는 직절하여 약간 다르게 되어 있다.

가구는 1고주 5량가 형식을 띠고 있으며, 측벽에서는 대들보 중앙에 헛기둥을 두었다. 대들보는 전면 고주와 후면 평주 사이에 결구되었다. 중대공은 4분변작의 위치에 동자주 형태로 놓여졌고 그 위에 종보를 놓았다. 종보 중앙에는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종도리하부에는 뜯장혀를 결구하였으며 장혀와의 사이에 화반을 두었다.

내부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전면만을 겹처마로 구성하였다.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

으며, 좌우 측면에 방풍판을 달았다. 단청은 굿기단청으로 마무리 되어 있으며, 전면 퇴칸 중앙 문 상방 상부에는 대성전 현판이 걸려 있다.

또한 전면 퇴칸에서, 각 칸 서측 초석의 옆에는 사방 120mm 의 크기에 높이는 약 90mm인 방형 화강석 상부에 직경 130mm 크기의 원형으로 약 10mm 정도를 파 낸 형태의 석물이 있다.

(2)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1960년에 중건하였고, 1995년에 보수하였다. 정면 중앙에 명륜당 후면에서 이어지는 34단으로 된 계단을 1개 두었다. 자연석을 1단으로 쌓은 얇은 단층기단 위에 정평주초 형식의 초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기둥과 초석은 각각 형태가 섞여 있는데, 전면 평주와 후면 어칸 평주는 원형기둥을, 나머지는 방형기둥을 사용하였다. 초석은 전면에 한하여 원형을, 후면은 장방형의 초석을 놓았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꾸몄으며, 각 칸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로, 전후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으며, 굿기단청으로 마무리 하였다. 각 칸 모두 문 상방 상부에 홍살을 꾸몄으며, 협칸 홍살은 어칸 홍살 길이의 약 1/2 정도이다.

(3) 제기고(祭器庫)

제기고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1974년에 중건한 건물로 근래에 한 차례 보수하였다. 자연석으로 1단을 쌓은 단층기단 위에 덩병주초 형식의 초석을 놓고 방형의 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고 전면 남측간에 외짝 판장문을 달았다.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처마는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내부 바닥은 장마루를 꾸몄으며, 상부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석간주 가칠로 마무리하였으며, 도리 이상에는 굿기단청을 하였고, 각 칸 판문 정면에 2태극 문양을 도채하였다.

나. 강학영역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로, 1974년에 중건하였으며, 당시 지은 〈明倫堂重建記〉가³⁹⁾ 남아 있다.

건물은 자연석으로 1단을 쌓은 얇은 단층기단 위에 세워졌으며 기단 전면 중앙에 16단으로 된 계단 1개를 두었다. 초석은 원형초석을 두었고 그 위에 약간의 배흘림을 둔 원형기둥을 세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꾸몄고, 전면 중앙 2칸에는 사분합문을 달았다. 좌우 측면에는 각각 외짝 세살문을 달았으며 후면에는 중앙 2칸에만 외짝 세살문을 달았다. 내부는 동서실을 구분하였고 당(堂)과의 사이에는 각각 네 짝 미달이문을 두었다.

기둥 위에는 초익공을 결구하였으며, 익공재 외단은 짙막한 쇠서를 초각하고 보머리 전면에 운궁형으로 초각한 부재를 끼워 넣었다. 주간에는 화반 대신 소로를 수장하고, 장혀와 창방 사이는 판으로 덧대어 막았다. 정면 동측 어칸 상부에는 명륜당 현판을 걸어 두었다.

가구는 일반적인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었다. 3분변작에 유사한 곳에 중대공을 놓고 그 위에 종보를 놓았다. 중대공은 주두 위에 각각 보방향과 도리방향으로 첨차를 놓고 재주두를 두었다. 종보 중앙에는 운

형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내부는 좌우 실 상부를 합판으로 마감하고 당은 연등천장으로 두었다. 좌우 실에는 온돌을 깔고 전면 기단 상부에 아궁이를 구성하였으며, 당에는 장마루를 구성하였다.

(2) 외삼문(外三門)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1974년에 중건하였고 1995년에 보수하였다. 건물은 자연석으로 1단을 쌓은 단층기단 위에 정평주초 형식의 초석을 놓았다. 초석은 원형초석으로 크기는 약간씩 다르며, 후면 서측 귀초석은 방형으로 되어 있다. 기단 전면 중앙에 8단으로 된 계단을 놓았으며 기단 상면은 강회다짐하였다. 원형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벽체는 회사벽으로 되어 있고, 전면 각 칸 모두 두 짝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일반적인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홑처마로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도리 이상 곳기단청을 하였다.

다. 기타

교직사는 향교 전면 동측에 자리잡고 있다.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1980년 전후에 보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ㄱ’ 자형 살림집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본 구조는 3량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다. 전면에 문짝 없이 좌우 시멘트 기둥만 있는 출입구가 있으며, 서편에 명륜당 측면으로 연결되는 간이 판문이 달려 있다.

홍살문은 이전의 것을 없애고 현재 진입로를 정비하면서 1995년에 세웠다. 하부는 방형, 상부는 원형으로 높직하게 만든 화강암 초석 위에 원형 기둥을 각각 세우고 상부에 홍살을 꾸몄다.

1) 이 기록은 근거를 찾기 어려우나, 김시민(1681~1747)은 조선 후기 문인이자 학자로, 낭천현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선정(善政)을 베풀어 현민들이 환향(還鄕)시에 거사비(去思碑)를 세웠다고 한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권 4, 757쪽) 따라서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으나, 『華川郡鄕校誌』를 비롯하여 『朝鮮王朝實錄』 등의 문헌에서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외에도 1773년에는 조무(趙懋)가 명륜당을 중수하고 외삼문(外三門)을 중건하였고, 1786년 이재항(李在抗)이 향교를 중수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역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2) 華川鄕校, 『華川郡鄕校誌』, 1984 : 88~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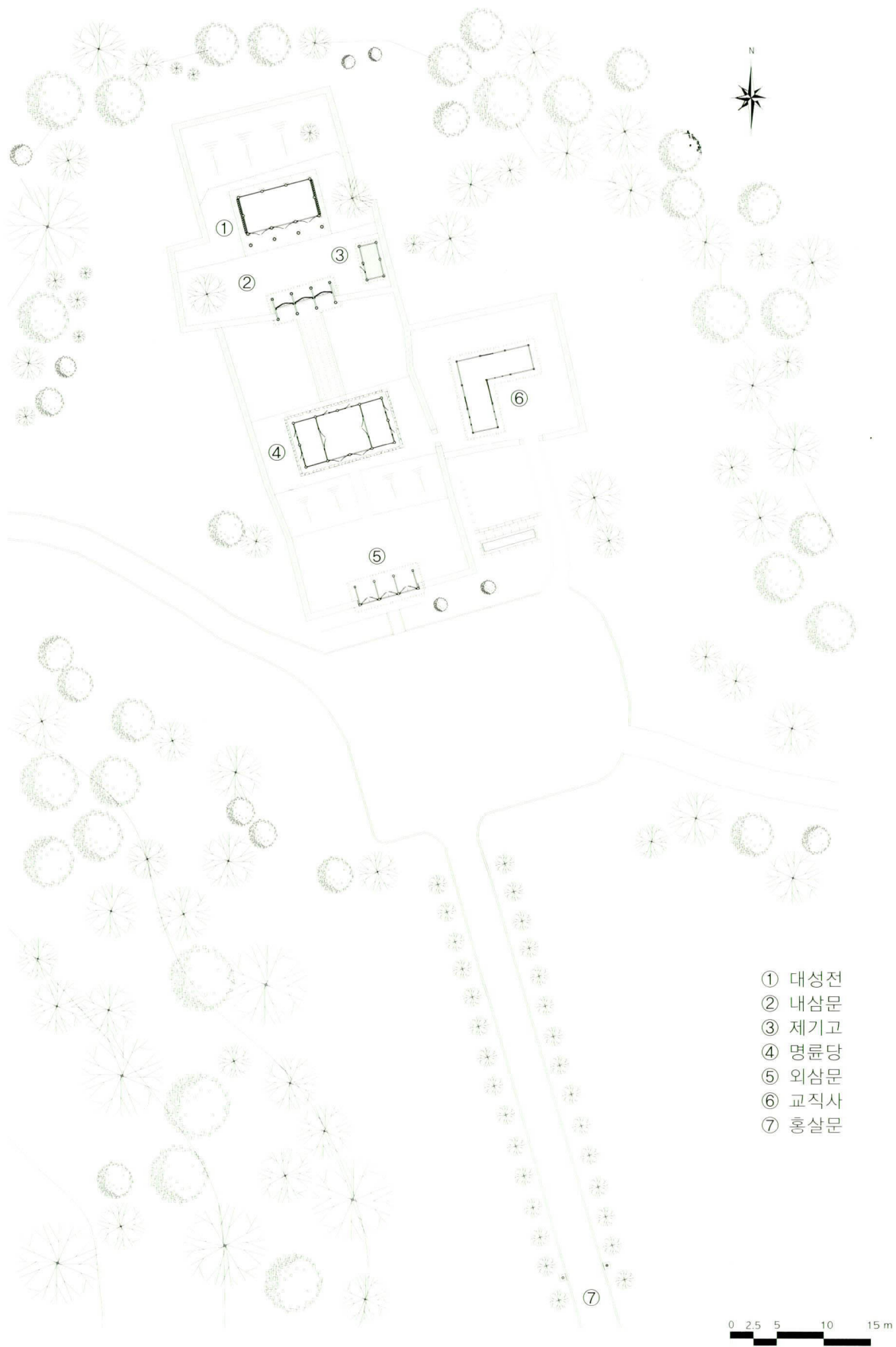
3) 『(前略)...孔夫子二千五百二十五年甲寅五月下泮...(中略)...木手 蘇斗一』, 명륜당 내부 개액(揭額)

4. 향교 조사 기록표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지정명칭	화천향교(華川鄕校)	지정현황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2호 (일괄지정)	
창건시기	조선 초 (추정)	입 지	구릉지 / 案山 : 성재산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전교 염귀환	
좌 향	남동향 (대성전 S14°E)	배치형식	前學後廟 / 종축 1개	
중건시기	한국 전쟁시 완전 소실 1960년 대성전, 1974년 명륜당 건립	대지조성	4단 :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 기준	
설 위	5聖, 海東 18賢	인접시설	전면 민가 소수(5~6채 가량)	
건축구성	대성전 / 내삼문 / 명륜당 / 외삼문 / 제기고 / 교직사			
특기사항	양무와 양재가 생략된 간략한 배치임 제기고를 제향영역 내에 배치 시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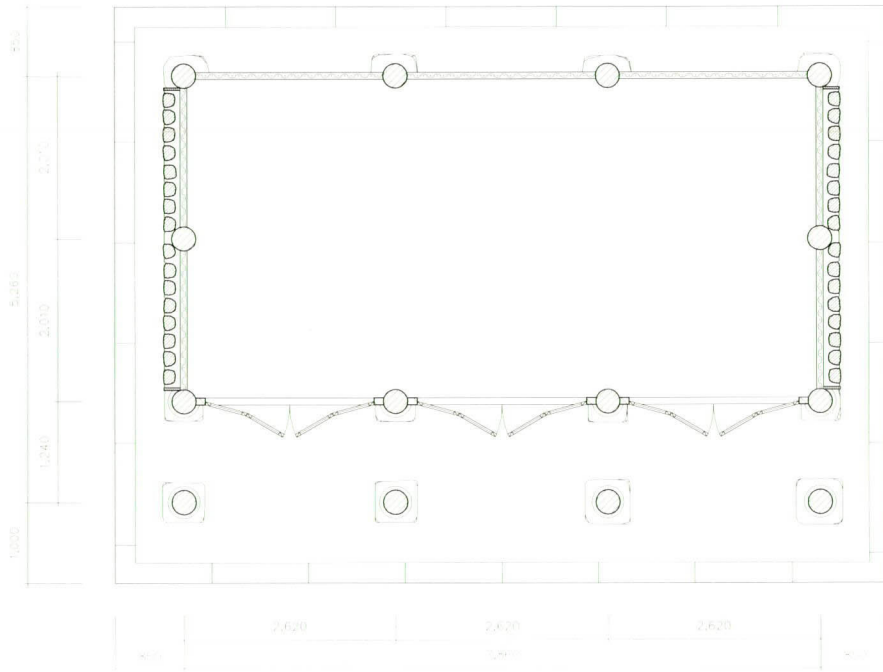
대성전 건축 요소			
개 요	3×3칸, 전1 퇴칸 / 초익공(전면), 민도리(후면) / 겹처마 맞배지붕 / 1교주 5량가 / 강회다짐 / 연등천장 주 고 : 평주 2580, 고주 2850 / 주칸 : 여칸 2930, 협칸 2610 / 수장폭 85, 90(부재 석임) 도리단면 $\phi=180$ / 보단면 : 대들보 330×330, 종보 210×240 주심처마길이 1020 / 기단높이 : 전면 1070, 측후면 200 / 초석크기 580×580		
기단계단	단층기단 / 3별대 / 장대석 바른층쌓기 전면 3개(5단, 소맷돌 있음)	보	대들보 : 전고주후평주 걸침 종 보 : 4분변작
초 석	정평주초 / 방형초석+원형주좌 580×580, 상면주좌 $\phi=450$, h=150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평주 $\phi=245\sim260$, 우주 260	대 공	중대공 : 동자주 종대공 : 판대공
공 포	초익공(전면), 민도리(후면)	창 방	말각방형, 140×180 / 뿔목 직절
처 마	겹처마(전면), 홑처마(후면)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건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화방벽 / 구기단청 / 연등천장 / 강회다짐		
특기사항	초익공을 사용했으나 주두 없이 창방을 평주 측면에 끼우고 기둥 머리에 뒷보를 놓음 고주 부분에도 주두가 놓이는 위치에 비슷한 부재가 놓이기는 하나 주두가 아님 종도리 장혀와 뜬장혀 사이에 화반형 부재 놓음 전면 퇴칸 기둥옆 옆에 각 칸 서측 초석 옆에 제수(祭需)대 놓임(210×210, h=90)		

명륜당 건축 요소			
개 요	4×2칸 / 초익공 / 홑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연등천장 · 장마루(당), 반자 · 온돌(실) 주 고 2500 / 주칸 2430 / 수장폭 85 / 도리단면 $\phi=210$ / 보단면 : 대들보 270×270, 종보 240×240 주심처마길이 950 / 기단높이 180 / 초석크기 $\phi=350$, h=135~140		
기단계단	단층기단 / 외별대 / 자연석 바른층쌓기 전면 1개(16단)	보	대들보 : 전후평주 걸침 종 보 : 3분변작에 근접
초 석	정평주초 / 가공석 $\phi=350$, h=135~140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phi=330$	대 공	중대공 : 포대공 종대공 : 운형대공+도리방향 첨차
공 포	초익공	창 방	말각방형 180×210 / 뿔목 쇠서형초각
처 마	홑처마 / 서까래단부 직절 / 끝건기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회사벽 / 가칠단청 / 연등천장 · 장마루(당), 반자 · 온돌(실)		
특기사항	규모가 일반적인 3칸에서 벗어난 4칸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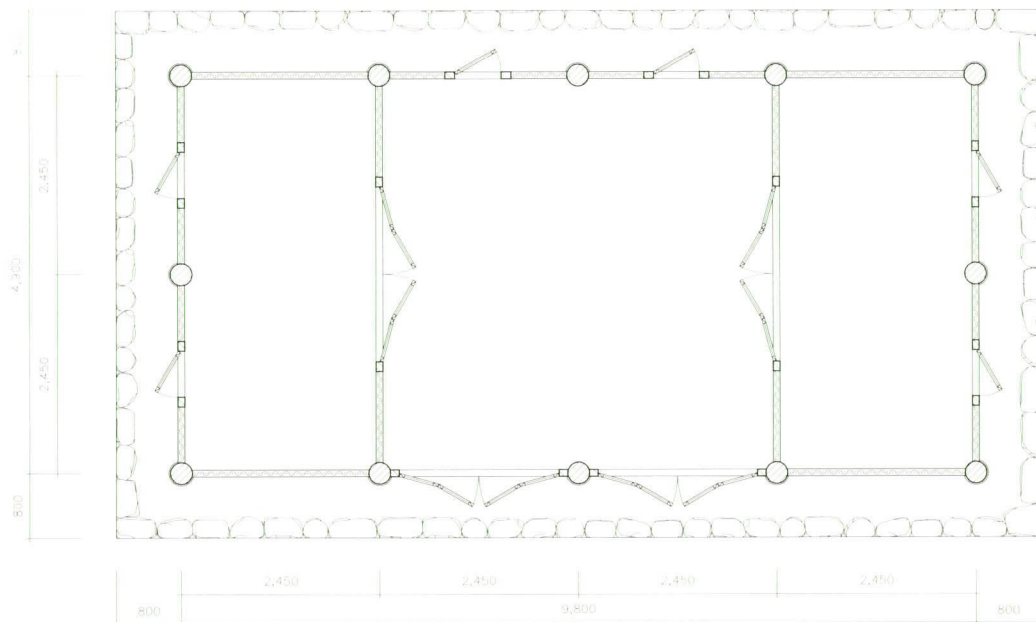


- ① 대성전
- ② 내삼문
- ③ 제기고
- ④ 명륜당
- ⑤ 외삼문
- ⑥ 교직사
- ⑦ 홍살문

배치도



대성전 평면도



명륜당 평면도



▲ 대성전



▲ 대성전 내부



◀ 대성전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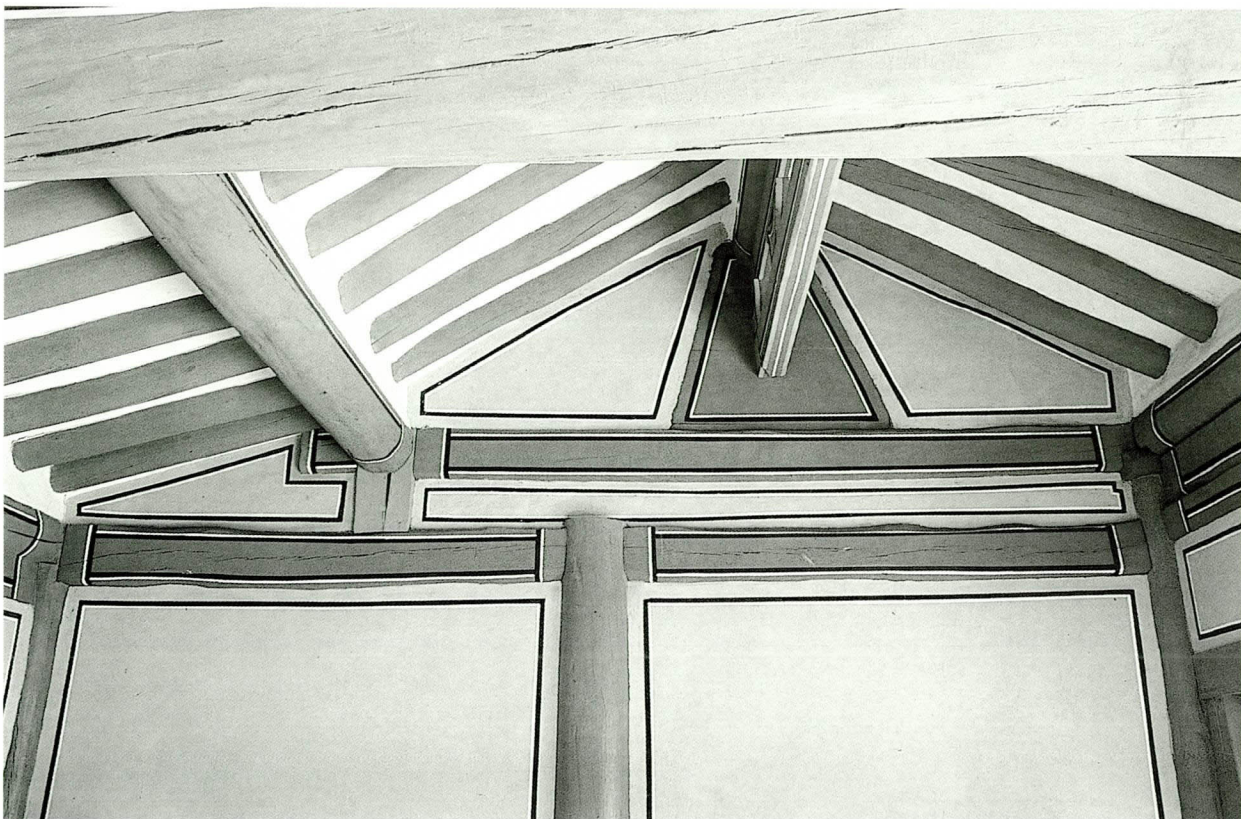
◀ 대성전 전면 주상포



◀ 대성전 전면 초석



▲ 대성전 내부 어칸 가구



▲ 대성전 내부 측벽 가구



▲ 명륜당



▲ 명륜당 내부



◀ 명륜당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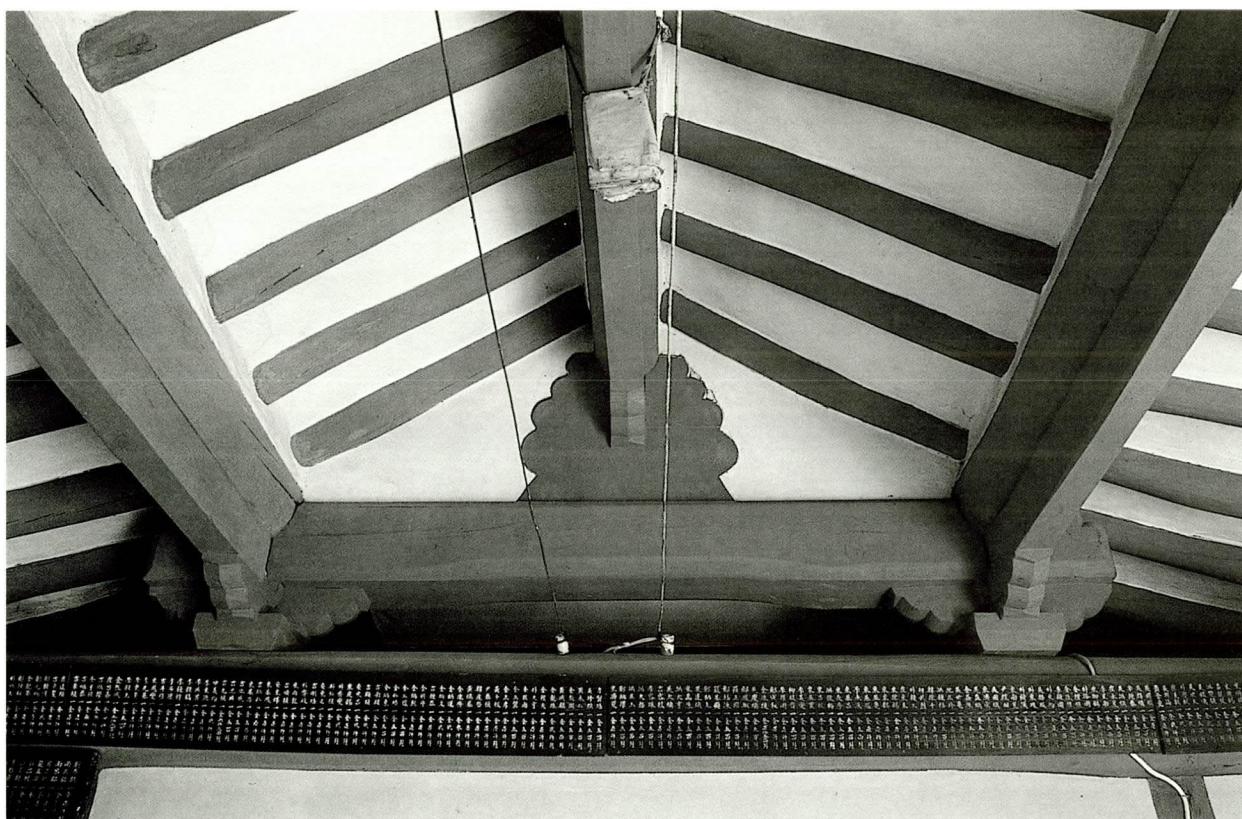
◀ 명륜당 전면 주상포



◀ 명륜당 전면 초석



▲ 명륜당 내부 가구



▲ 명륜당 내부 가구 상세



◀ 내삼문



◀ 외삼문



◀ 외삼문 후면



◀ 제기고



◀ 교직사



◀ 홍살문



▲ 진입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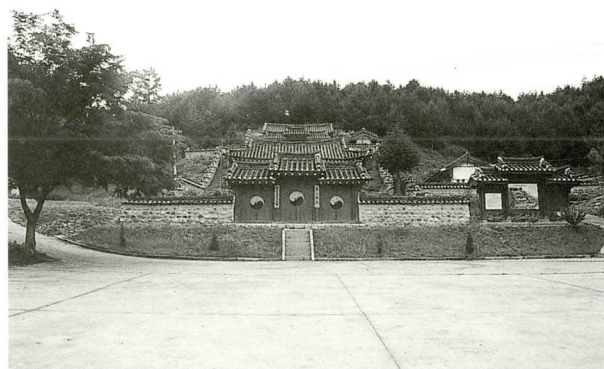
▲ 내삼문을 통해 본 명륜당



▲ 명륜당과 교직사



▲ 명륜당 앞에서 본 안산



▲ 외삼문 전면 공간

〈 참고문헌 〉

◆ 고문헌 및 향교지

私撰邑誌

杆城鄉校, 『杆城鄉校誌』, 1989

江陵鄉校, 『江陵鄉校誌』, 1982

麟蹄鄉校, 『麟蹄鄉校誌』, 1996

旌善鄉校, 『旌善鄉校誌』, 1987

春川鄉校, 『春川鄉校誌』, 1987

華川鄉校, 『華川郡校誌』, 1984

橫城鄉校, 『橫城鄉校誌』, 1978

◆ 단행본 및 논문

강릉시, 『강릉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5

강원도, 『江原道鄉校書院寺刹誌』, 1992

고성군,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5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경기도의 향교건축』, 2000

김영덕, 「韓國木造建築의 翼工樣式에 關한 研究」,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김지민, 「鄉校建築의 營造規範에 關한 研究」,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 1994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1977

文化財管理局, 『한국의 향교건축』, 1998

文化財廳, 『江陵文廟大成殿 實測調査報告書』, 2000

文化財廳, 『문화재수리공사보고서』, 1988~2000

민족문화추진회, 국역『新增東國輿地勝覽』, 1971

三陟郡, 『三陟郡誌』, 1988

서울대학교 奎章閣, 『朝鮮後期 地方地圖』 江原道·咸鏡道편, 2000

成均館, 국역『太學誌』, 1994

儒敎事典編纂委員會, 『儒敎大事典』, 博英社, 1990

李達勳, 「翼工系拱包의 發生 및 變遷過程 研究」,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旌善郡, 『旌善郡誌』, 1978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2

華川郡, 『華川郡誌』, 1988

〈 Abstract 〉

1. Gangneung Hyanggyo (江陵鄉校)

Gangneung Hyanggyo is designated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99 and Daeseongjeon, its main shrine, Treasure No. 214.

The hyanggyo(鄉校) consists of the shrine facilities comprising Daeseongjeon(大成殿), the main shrine, flanked by two minor shrines and, separated by a three-entrance gate, the educational facilities comprising Myeongnyundang(明倫堂), the lecture hall, and two dormitories in its rear. The buildings are oriented to the south. The main entrance to the hyanggyo is a three-entrance gate.

Daeseongjeon is a 5 kan by 3 kan (a traditional unit of measure referring to the space between two columns) gabled-roofed building with eaves in a column-head bracket style. Destroyed by fire in 1411, it was reconstructed in 1413 and extensively renovated in 1488. Given that the bracketing is of a construction style that prevailed in the early Joseon(朝鮮) period, the hall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between 1485 and 1488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世宗).

Myeongnyundang is an elongated two-story building 11 kan wide and 2 kan deep with a gabled roof and eaves of a wing-bracket style. Ancient records show that it was extensively repaired in 1696 and in the 19th century. The present structure is believed to be the result of the 19th century work.

2. Samcheok Hyanggyo (三陟鄉校)

Daeseongjeon, the main shrine, is designated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02. The hyanggyo is oriented to the south and has facilities on two south-north axes, one with Daeseongjeon and the Myeongnyundang lecture hall and the other with Sukcheongjae(肅清齋) and Janggyeongsil(莊經室). They are behind Myeongnyundang.

Daeseongjeon is 5 kan by 2 kan and has a gabled roof and wing-bracket style eaves.

Its construction date is not clear but records indicate that it was extensively renovated in 1711 and 1781. The present structure is believed to date from that time.

Myeongnyundang is 7 kan by 1 kan and has a gabled roof and wing-bracket style eaves. Destroyed by fire in 1970, it was rebuilt and has since been repaired several times.

3. Yangyang Hyanggyo (襄陽鄉校)

Yangyang Hyanggyo is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Material No. 105. It stands on a slope with the Daeseongjeon shrine and the Myeongnyundang lecture hall on a south-north axis. The two dormitories that usually accompany the lecture hall stand behind Myeongnyundang.

Daeseongjeon, the main shrine, is 3 kan by 3 kan and has a gabled roof and wing-bracket style eaves. Its exact construction date is not known, but it was reconstructed in 1953. It was renovated in 1986, and details of the work are inscribed on the ridge beam of the building.

Myeongnyundang is 7 kan by 2 kan and has a gabled roof. It is not known when it was first constructed. The present hall was reconstructed in 1964 and renovated in 1991.

4. Ganseong Hyanggyo (杆城郷校)

Ganseong Hyanggyo is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No. 104. Located on a hillside, the buildings stand on terraces of different heights. Daeseongjeon, the main shrine, flanked by two minor shrines and Myeongnyundang, the lecture hall, with its two dormitories in the rear, stand on a south-north axis in a typical arrangement of hyanggyo facilities.

Daeseongjeon is 5 kan by 3 kan and has a gabled roof and wing-bracket style eaves. It was reconstructed in 1956 after the original was reduced to ashes during the Korean War and again in 1988.

The two-story Myeongnyundang is 4 kan wide and 2 kan deep and has a gabled roof. It was reconstructed in 1961 and renovated in 1991.

5. Wonju Hyanggyo (原州郷校)

Wonju Hyanggyo is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Material No. 98. It is located at the center of Wonju City on a hill that has recently become the site of an apartment complex. The Daeseongjeon shrine and Myeongnyundang lecture hall stand on a south-north axis, with two dormitories standing behind Myeongnyundang.

Daeseongjeon is 3 kan by 3 kan and has a gabled roof with wing-bracket style eaves. The present structure is characteristic of the late Joseon architectural style and is believed to have been constructed about the same time as the Myeongnyundang hall.

Myeongnyundang is 5 kan by 2 kan and has wing-bracket style eaves. The way the brackets are carved and joined suggests that the building was renovated in the late 18th century.

6. Chuncheon Hyanggyo (春川郷校)

The Daeseongjeon shrine of Chuncheon Hyanggyo is designated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98. The hyanggyo is nearby Chuncheon Girls High School behind the Kangwon-do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The hyanggyo comprises a shrine area with Daeseongjeon, the main shrine, flanked by two minor shrines and an educational area with Myeongnyundang, the lecture hall, and two dormitories in its foreground. Both Daeseongjeon and Myeongnyundang face the south.

Daeseongjeon is 5 kan by 3 kan and has a gabled roof and wing-bracket style eaves. It was restored in 1960 after the original building was reduced to ashes during the Korean War. It has been repaired several times.

Myeongnyundang is 7 kan by 2 kan and has a hipped-and-gabled roof and wing-bracket style eaves. It was not damaged during the Korean War and appears to have been built before the latter part of the 19th century, judging from it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It seems that it was originally a 5 kan building with a gabled roof, but it was later expanded to 7 kan, its roof remodeled to be hipped and gabled.

7. Jeongseon Hyanggyo (旌善鄕校)

Jeongseon Hyanggyo is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Material No. 101. It is located at the southern foot of Mt. Bibongsan(飛鳳山) in downtown Jeongseon overlooking a river that half encircles the town. The Daeseongjeon shrine and the Myeongnyundang lecture hall both face the south on a south-north axis. Myeongnyundang has two dormitories to its front. Daeseongjeon is flanked by two auxiliary buildings where ritual vessels are stored.

Daeseongjeon is 3 kan by 3 kan with a gabled roof and wing-bracket style eaves. It was completely dismantled and repaired in 1988. The extension beams inside the side two kan suggest that originally it had a hipped-and-gabled roof. The building has features of late Joseon architecture.

Myeongnyundang is 5 kan by 2 kan and has a gabled roof with wing-bracket eaves. Judging from its unsophisticated style, it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much later than Daeseongjeon.

8. Yeongwol Hyanggyo (寧越鄕校)

Daeseongjeon, the main shrine, of Yeongwol Hyanggyo is designated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00. The hyanggyo is located in downtown Yeongwol, which abounds with historic relics related to King Danjong(端宗) such as Minchungsa shrine, Jangneung tomb and Bodeoksa temple. Myeongnyundang, the lecture hall, has two dormitories in its foreground. Daeseongjeon and Myeongnyundang stand on a south-north axis.

Daeseongjeon is 5 kan by 2 kan and has a gabled roof and wing-bracket style eaves. It was completely dismantled and repaired in 1983. According to the inscription on the ridge beam found at the time of repairs, it was constructed in 1826. It is characteristic of late Joseon architecture.

Myeongnyundang is 5 kan by 2 kan and has a hipped-and-gabled roof with wing-bracket style eaves. Reduced to ashes during the Korean War, it was restored in 1958. Tablets inscribed with historic records including the date of the building's construction hang inside the hall.

9. Pyeongchang Hyanggyo (平昌郷校)

Daeseongjeon, the main shrine of Pyeongchang Hyanggyo, is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Material No. 101. The hyanggyo is located between Pyeongchang High School and the Pyeongchang District Government Office. Daeseongjeon faces south, but Myeongnyundang, the lecture hall, faces west. Dongjae(東齋) and Seojae(西齋), the two auxiliary buildings that usually flank the Myeongnyundang hall, are missing.

Daeseongjeon is 3 kan by 2 kan and has a gabled roof with square girders. It was completely dismantled and renovated in 1977 and has been repaired several times since. Though damage suffered during the Korean War makes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building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far later than the late Joseon period.

Myeongnyundang is 4 kan by 2 kan and has a hipped-and-gabled roof with square girders. It was dismantled and reconstructed in 1858 and again in 1977.

10. Inje Hyanggyo (麟蹄郷校)

Inje Hyanggyo is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Material No. 103. Located on a hillside, both the Daeseongjeon shrine and the Myeongnyundang lecture hall face southwest. Dongmu(東廡) and Seomu(西廡), two minor shrines that usually flank Daeseongjeon, are missing. Two dormitories, Dongjae and Seojae, stand in the foreground of Myeongnyundang.

Daeseongjeon is 3 kan by 3 kan and has a gabled roof. It was moved here from its original site in 1930, which involved dismantling and rebuilding. The part above the column capitals was dismantled and repaired in 1989. The building deviates from the typical Daeseongjeon style by using latticed doors instead of the usual panel doors and wood panel flooring.

Myeongnyundang is 3 kan by 2 kan and has a hipped-and-gabled roof with wing-bracket style eaves. It was built in 1993. The construction information is written on the ridge beam.

11. Hoengseong Hyanggyo (橫城郷校)

Hoengseong Hyanggyo is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Material No. 100. It is located behind Yurim(儒林) Wedding Hall and faces south. Its Daeseongjeon shrine and Myeongnyundang lecture hall are on a south-north axis. Two dormitories, Seojae and Dongjae, are located behind the lecture

hall.

Daeseongjeon is 5 kan by 3 kan and has a gabled roof and wing-bracket style eaves. It was constructed in 1647. Though the roof was retiled in 1996, the building retains most of its mid-Joseo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The two-story Myeongnyundang is 5 kan by 2 kan and has a gabled roof. Destroyed by fire during the Korean War, it was restored with reinforced concrete in 1960. The lower part serves as the gate to the hyanggyo.

12. Hongcheon Hyanggyo (洪川郷校)

Hongcheon Hyanggyo is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Material No. 99. It is located between the Hongcheon District Government Office and Seokhwa Elementary School. The Daeseongjeon shrine and the Myeongnyundang lecture hall stand one behind the other on a south-north axis. The lecture hall has two auxiliary buildings, Dongjae and Seojae, in its foreground.

Daeseongjeon is 3 kan by 3 kan and has a gabled roof with wing-bracket style eaves. The center front kan is an open hall. Part of the building was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The building's architectural features are characteristic of the late Joseon period. Some of the timber shows traces of having been used in other buildings.

Myeongnyundang is 3 kan by 2 kan and has a hipped-and-gabled roof with wing-bracket style eaves. The building shows characteristics of the late Joseon period. It was not damaged during the Korean War. The bracket system includes features of different styles, which is probably due to having been repaired.

13. Hwacheon Hyanggyo (華川郷校)

Hwacheon Hyanggyo is designated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02. It nestles at the foot of a hill on the way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e from downtown Hwacheon. Its Daeseongjeon shrine and Myeongnyundang lecture hall are located one behind the other on a south-north axis. Neither has the auxiliary buildings that usually flank it. Gyojiksa(a caretaker's house, 校直舍) is at the left corner.

Daeseongjeon is 3 kan by 3 kan and has a gabled roof with wing-bracket style eaves. It was repaired extensively in 1990, at which time false rafters were added on the rafters for better drainage of the roof, a mud-and-stone wainscot wall was built for fire protection, and some columns were replaced.

Myeongnyundang is 4 kan by 2 kan and has a hipped-and-gabled roof with wing-bracket style eaves. It is in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e late Joseon period. It was reconstructed in 1974.

| 執筆 |

金奉建 (國立文化財研究所 美術工藝研究室長)

趙相淳 (國立文化財研究所 美術工藝研究室)

| CAD 圖面 |

趙相淳 (國立文化財研究所 美術工藝研究室)

文勝炫 (國立文化財研究所 美術工藝研究室)

朴景姬 (國立文化財研究所 美術工藝研究室, 現 國立中央博物館 建立推進企劃團 施設課)

| 編輯 |

國立文化財研究所 美術工藝研究室

鄭映勳, 梁潤植, 姜賢, 趙相淳, 李成九, 文勝炫

| 寫真 |

國立文化財研究所 美術工藝研究室

梁潤植, 姜賢, 趙相淳, 李成九

| 英文翻譯 |

金美子

| 英文監修 |

수잔 크라우더 한(Suzanne Crowder, Han)

儒教建築叢書 第2集
강원도의 향교건축

인쇄일 / 2001년 12월

발행일 / 2001년 12월

발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인쇄 / 일진사(2278-7995)